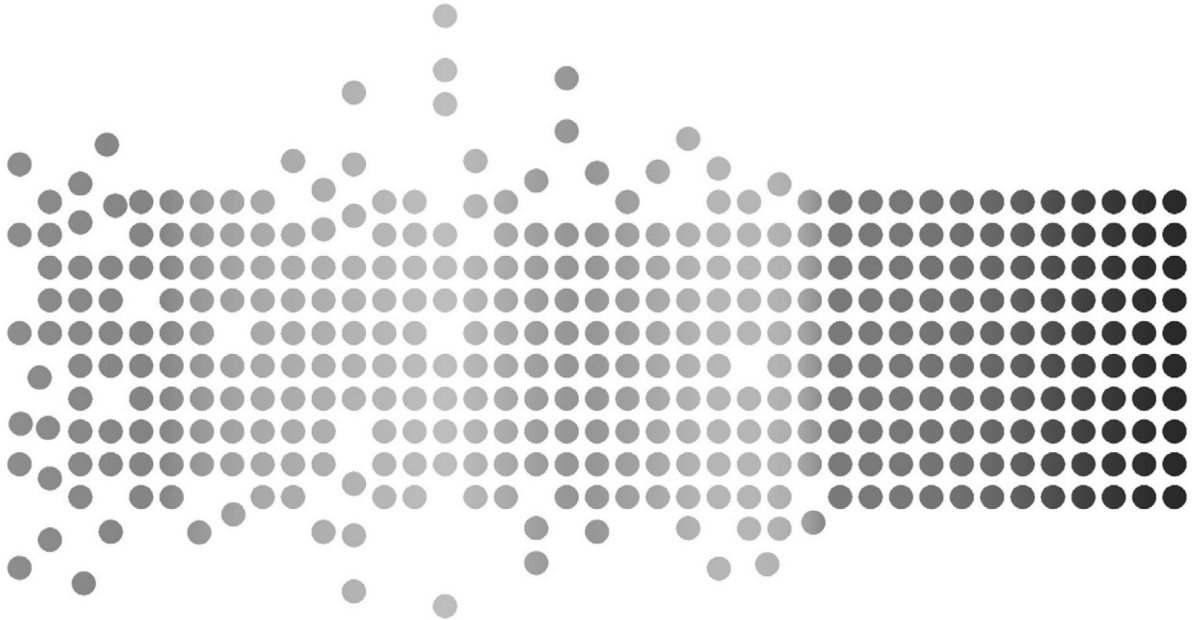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Qualitative Panel Data on Low-Income Households(2012)

김미곤 · 염주희 · 최현수 · 정희선 · 김성아 · 김은빈
권지성 · 이은미 · 정선욱 · 조준용 · 하경희 · 이현주



연구보고서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발 행 일 2012년
저 자 김 미 곤 외
발 행 인 최 병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경성문화사
가 격 12,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ISBN 978-89-8187-964-8 93330



머리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 연구들의 분석방법은 양적분석이다. 양적분석의 중요성과 분석결과의 명료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적분석은 측정 가능한 부분을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경험과 인식이 사상되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질적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인식, 생생한 경험, 변화의 맥락 등을 담은 ‘블랙박스’ 내부를 관찰하는데 유용하다(Padgett, 1998). 이러한 이유로 최근 질적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을 실용적인 차원에서 통합하여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이 나타나고 있다. 혼합방법론은 상대방의 발견에 대해서 인증(confirming), 반박(refuting)하는 과정을 통해 풍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Carvalho and White, 1997).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1년 한국복지패널 가구 중 빈곤층 100가구를 표본으로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동 패널자료는 자료명이 내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연계’라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량적 분석으로 생산되는 수많은 통계 수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질적패널’이라는 점은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동태분석을 질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향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역동성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 2차년도 보고서로서,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1차년도 보고서가 패널구축에 대한 기초 보고서인 점을 감안하면 금년의 경우, 보다 진전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패널분석의 경우 3개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제대로 된 패널분석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질적 심층분석은 내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김미곤 연구위원 책임하에 원내 연구진으로 염주희·최현수 부연구위원, 정희선·김성아·김은빈 연구원이 참여하였으며, 원외 연구진으로 권지성·이은미·정선옥·조준용·하경희·이현주 박사가 참여하였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적 연구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적 패널자료 구축을 위해 현장에서 심층 면접을 수행하고 방대한 분량의 면접결과를 녹취록으로 작성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질적 패널기구로 참여하여 심층 면접에 장시간 응해주신 한국복지패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종보고서를 검독하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현주 연구위원과 김문길 부연구위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Abstract	1

요 약	3

제1부 양적·질적 혼합 연구방법론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8

제2장 양적·질적 연계패널 구축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33

제1절 양적 & 질적 연계 혼합 연구방법론 관련 이론 및 동향	33

제2절 빈곤 역동성 측면에서 양적·질적 연계 패널 구축의 필요성과 의의	47

제2부 질적패널 자료구축

제3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표본추출 및 가구특성	65

제1절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 표본추출	65

제2절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특성 분석	76

제4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자료수집과정 83

제1절 질적 패널자료 수집과정 83

제2절 질적 패널자료 수집 89

제3절 질적 패널자료의 구축 100

제4절 질적 패널자료 분석방법 106

제5절 질적 패널조사 수행 및 자료 활용시 윤리적 고려 107

제5장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 과정 평가:

심층면접 인터뷰어의 경험을 중심으로 109

제1절 연구 배경 109

제2절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연구 방법への 접근 112

제3절 연구 방법 114

제4절 연구결과 118

제5절 논의 및 결론 132

제3부 질적패널 분석

제6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기초분석 137

제1절 생활만족 137

제2절 경제 145

제3절 근로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154

제4절 가족관계 158

제5절 생활영역 164

제7장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탈빈곤 노력과**경험에 대한 연구** 179

제1절 서론 179

제2절 연구결과 184

제3절 소결 207

제8장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 211

제1절 서론 211

제2절 연구결과 214

제3절 소결 237

제9장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장애 경험 연구 239

제1절 서론 239

제2절 연구결과 241

제3절 소결 266

제10장 빈곤층 아동의 빈부 인식 비교:연령변화를 중심으로 ... 269

제1절 서론 269

제2절 관련연구 검토 271

제3절 연구방법 275

제4절 분석 결과 276

제5절 요약 및 논의 281

제11장 빈곤가구의 정신건강 인식 및 욕구에 관한 연구	285
제1절 서론	285
제2절 연구결과	288
제3절 소결	308

제12장 빈곤 여성 노인의 일 경험: ‘하고 싶으나 할 수 없음’, ‘하고 있으나 하지 않음’의 의미	315
제1절 서론	315
제2절 선행연구	317
제3절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323
제4절 연구결과	328
제5절 소결	344

제4부 양적·질적패널 활용방안

제13장 양적·질적패널 활용방안	349
제1절 질적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	349
제2절 양적패널 자료의 보완과 연계로서의 질적 패널자료의 활용	351
제3절 질적 패널자료의 활용상 한계점	353
제4절 질적 패널 구축의 기대효과 및 연계 활용방안	356

제14장 요약 및 정책건의 357

 제1절 요약 357

 제2절 정책건의 358

참고문헌 367

부 록 381

표 목차

〈표 2-1〉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	35
〈표 3-1〉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과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 규모	66
〈표 3-2〉 질적 패널 참가구별 특성 및 심층 면접 응답자	68
〈표 4-1〉 2012년 심층면접 조사 대상 가구 유형 및 조사소요 시간	86
〈표 5-1〉 초점집단인터뷰 중재자 가이드에 포함된 질문	116
〈표 5-2〉 구성원들의 개념	117
〈표 5-3〉 주요 주제 및 하위 주제	119
〈표 5-4〉 차기 연구 시 보완 계획	133
〈표 7-1〉 1차년도(2011년), 2차년도(2012년) 동시 응답 패널	184
〈표 7-2〉 연구 대상자의 특성 요약	186
〈표 7-3〉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들의 탈빈곤 노력 및 경험과 의미의 단위	202
〈표 10-1〉 빈곤층 아동의 빈부 인식 비교 질문지	275
〈표 10-2〉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인식	277
〈표 10-3〉 부자에 대한 인식	278
〈표 10-4〉 빈부 원인에 대한 인식	279
〈표 10-5〉 계층이동가능성과 빈곤해결방법	280
〈표 12-1〉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 및 기초보장 수급 특성	328
〈표 12-2〉 응답자의 과거 일 경험	330
〈표 12-3〉 빈곤노인의 희망하는 근로요건	340

그림 목차

[그림 2-1]	종단적 연구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탐색	57
[그림 3-1]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지역별 분포 비교	76
[그림 3-2]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비교	77
[그림 3-3]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유형 분포 비교	78
[그림 3-4]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원수 분포 비교	78
[그림 3-5]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소득지위 분포 비교	79
[그림 3-6]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기초보장 수급여부 분포 비교	80
[그림 3-7]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의료급여 수급여부 분포 비교	81
[그림 3-8]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아동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81
[그림 3-9]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노인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82
[그림 3-10]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장애인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82
[그림 4-1]	경제적 도움 관련 질문 변경	92

[그림 4-2]	부모와의 관계 질문 변경	96
[그림 4-3]	효율적 자료관리의 필요성	100
[그림 4-4]	데이터 불러들이기	103
[그림 4-5]	노드 생성	104
[그림 4-6]	코딩하기	105
[그림 4-7]	코딩결과 확인하기	106
[그림 6-1]	응답자들의 일 경험의 변천	156
[그림 7-1]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들의 탈빈곤 노력 및 경험의 맥락	203
[그림 8-1]	저소득층 사례 A의 행복 맥락	215
[그림 8-2]	저소득층 사례 B의 행복 맥락	217
[그림 8-3]	저소득층 사례 C의 행복 맥락	219
[그림 8-4]	저소득층 사례 D의 행복 맥락	221
[그림 8-5]	저소득층 사례 E의 행복 맥락	223
[그림 8-6]	저소득층 사례 F의 행복 맥락	225
[그림 8-7]	저소득층 사례 G의 행복 맥락	227
[그림 8-8]	저소득층 사례 H의 행복 맥락	229
[그림 8-9]	저소득층 사례 I의 행복 맥락	231
[그림 8-10]	저소득층 사례 J의 행복 맥락	233
[그림 8-11]	저소득층 행복의 맥락	236
[그림 12-1]	빈곤한 노인의 일 경험	339



Abstract

Qualitative Panel Data on Low-income Households (2012)

This study is the second phase of the Qualitative Panel Data on Low-Income Households. The two major characteristics of this study are its unique sample and longitudinal study design. The sample of the current study was driven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hich would enable researchers to examine selected cases with mixed-method approach in near future. In addition, a large-scale longitudinal study on poverty is very rare and allows researchers to look at the poverty dynamics of the sample. While the data collected for 2011 was archived manually, in 2012 research team established an electronic database where researchers can sort, search and divide data according to their research purpose. Also, a process evaluation of the research project was conducted using focus group discussion. The researchers collected valuable pieces of advice from data collectors, most of which will be used for the next year's study. The first part of this report inclu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study design, the methodological approach, and the sample. The second part of the

2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report contains six research articles written by qualitative researchers around the country. These papers demonstrate what can be done using 2011 or 2012 Qualitative Panel Data on Low-Income Households. This report also includes discussion on research implications for future project and how to use poverty study to better inform policymakers.

요약

1. 양적·질적 혼합 연구방법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빈곤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은 빈곤층의 시각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이 결과 빈곤층이 처한 환경이나 사회구조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연구주제의 한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빈곤 연구방법론이 지나치게 양적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에 의존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의 확실성에도 기인함.
- 이러한 배경에서 일회성 횡단면 조사의 한계와 양적 연구방법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저소득층 중심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 양적패널 연계 질적패널을 바탕으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연계한 혼합 연구방법(mixed methodology)이 가능

□ 연구 목적

- 질적 패널자료 구축 및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에 대한 심층분석

4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 양적·질적 연계패널 구축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양적 & 질적 연계 혼합 연구방법론 관련 이론 및 동향
 -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연계한 혼합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최근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의 동향과 사례를 소개함.
- 빈곤 역동성 측면에서 양적·질적 연계 패널 구축의 필요성과 의의
 - 오늘날의 빈곤은 단순히 통계수치에 갇히는 정태적인 결핍의 상태로 이해되기보다 다차원적이며 역동적인 경험으로 인식됨.
 - 이에 계량적 분석의 양적 연구방법론과 인식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혼합하는 연구방법론의 유용성이 제기됨.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에서는 하나의 데이터 구조를 통해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동시에 제공하여 혼합 연구방법론의 적용을 가능하게 함.

II. 질적패널 자료구축

□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표본추출 및 가구특성

-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 표본추출
 - 제1차 한국복지패널에서 경상소득 기준으로 평균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를 저소득층의 개념으로 설정하여 표본추출한 후 제6차 한국복지패널 조사기간 중 질적 패널조사에 참여의사가 있는 가구 362가구를 표본추출함. 이 중에서 양적 패널가구 주요 특성 및 가구구성, 지역 등을 비교하여 100가구를 추출함.
 - 2012년 제2차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조사에는 일반노동 시장 참여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등 다양한

근로 빈곤층을 포괄하여 역동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이에 부합되는 20가구를 추가함.

○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특성 분석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가구 120가구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가구주 연령은 65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가구유형은 일반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가구원수는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동가구원의 비중은 35.8%,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50.5%, 장애인 가구는 8.3%이었음.

□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자료수집과정

○ 질적 패널자료 수집과정

- 2012년 한국복지패널 질적연구 조사 대상은 2011년 질적연구 조사가 완료된 100가구 중 추가적인 심층면접 조사가 필요한 가구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가구여건이 변화된 가구를 추출하였으며, 100가구 중 25가구가 이에 해당됨.
- 추가적으로 2011년에는 조사되지 않은 가구 중에서 다양한 근로빈곤층을 포괄하여 역동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부합되는 가구와 젊은 가구주와 장애인 또는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를 표본추출하였으며, 총 20가구가 이에 해당됨.
- 2012년도 조사에는 총 45가구가 조사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23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약 70일간 진행하였고,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자료수집의 수준을 조율하여 조사원들에게 면접에 대한 슈퍼비전을 주기 위한 코디네이터를 별도로 배치하여 조사를 수행함.

○ 2012년도 조사는 양질의 조사를 위해 2011년도 조사결과에서 발

6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건된 새로운 욕구와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사표를 수정 및 보완하여 진행하였음.

- 질적패널자료는 정기적으로 방대한 양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2차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Nvivo10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함.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 과정 평가: 심층면접 인터뷰어의 경험을 중심으로

- 연구집행과정을 질적으로 평가한 과정평가의 결과를 포함함.
 - 연구 대상자는 심층면접 인터뷰어로 활동한 이들이며,
 - 사용된 자료는 초점집단 녹취록과 연구진이 자료수집과정에서 작성한 과정일지임.
- 선행연구에 따르면 질적과정평가를 통해 연구수행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오갔는지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연구 설계 시에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심층면접 인터뷰어들은 본인의 연구 참여 경험과 차기 연구집행시 개선할 점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임.
 - 참여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인터뷰 수행 중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보고
 - 교육 자료 보완 및 집행 방식의 수정으로 차기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언
- 양질의 질적 연구자료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심층면접 인터뷰어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과정평가 수행은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과제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에 유용한 도구가 됨.

III. 질적패널 심층분석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에 대한 연구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을 질적 종단연구로 살펴보는 것임.
- (선행연구분석) 근로빈곤층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복지의존성과 도덕적 해이, 빈곤의 덧과 관련된 우려들을 포함하며, 이들의 자활을 위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양적인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양적연구들은 탈빈곤을 위한 확률적 이해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양한 경험들을 수치로 축소하는 한계가 있어, 근로빈곤층의 경험과 태도, 행위의 동기, 맥락과 삶의 통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최근의 질적 연구들도 변화와 역동성을 보기에는 제한적인 횡단적인 연구들임.
-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15가구의 가구주의 녹취자료를 사용하여, 이들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을 종단적으로 파악하고, 의미의 단위를 추출하며, 변화의 경험을 추적함.
- (연구결과)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들의 탈빈곤 노력에 대한 경험을 개인적인 차원과 제도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의 인식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었음.
 - 이들이 경험한 빈곤은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자존감의 상실에 이르는 다면적인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탈빈곤의 노력은 삶에서의 자율성 회복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8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 절박한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재기의 발판을 이룬 개인들은 수급이 낙후된 삶을 초래한다며, 자격증과 일자리를 통해 자활의 노력을 하고 있음.
- 개인적 차원에서 탈빈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last resort)이며, 수급권자가 되면 탈수급 유인이 현저히 줄어들게 됨.
 - 국가가 남편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자녀의 성장과 개인의 인적자본 향상에 노력하며, 탈빈곤의 희망을 갖기도 함.
 -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바뀌어가며, 수급연장과 탈수급 회피의 형태로 나타남.
 - 이러한 행동의 맥락에 따르면, 수급연장과 탈수급 회피란 오히려 불안한 현실에서 탈빈곤을 위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임.
 - 희망기움통장의 사례는, 자립기반을 갖추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면 탈수급에 대한 회피요인이 줄어들음을 보여줌.
-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 탈빈곤 제도가 현장에서 소기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곤과 탈빈곤 경험에서 나타나는 근로빈곤층의 삶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수급권이 있는 근로빈곤층의 탈수급과 탈빈곤을 위해서는 유예기간, 부분급여 도입, 지속가능한 자립기간을 갖추 수 있는 강력한 유인(incentive)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

-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임.

- (연구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1년 한국복지패널 연
계 질적패널 연구에 포함된 저소득층 일반가정 10가구를 선정하
였음. 분석대상 선정을 위해 연구질문 중 하나인 ‘행복 점수’로서
이 질문에 극단적으로 응답한 두 집단(8~10점 상위집단과 1~3점
하위집단)을 분리하고, 각 집단에서 5가구씩 추출하였음.
- 또한 이 10가구에서 수집한 자료 전체를 검토하여 현상과 경
험들을 개념 수준에서 분석하고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
어 있는지 분석하였음. 분석과정에서는 개별 사례들의 맥락을
분석한 뒤, 전체 사례를 통합하는 맥락 구조를 구성하였음.
-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크게 사례별 맥락과 통합된 맥락으로 구성
되었으며, 사례별 맥락은 낮은 행복수준을 보인 5사례와 높은 행
복수준을 보인 5사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사례별 맥락) 사례별 맥락은 개별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경험들을 개념의 형태로 분류하고, 이들의 연결고리를 파악한 뒤
그림으로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를 행복 점수와 그 의미, 행복과
관련된 경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순으로 기술하였음.
- (통합된 맥락) 통합된 맥락은 10가구의 사례에서 발견된 맥락 구
조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통합한 것임. 행복의 맥락은 마음—인식
—체험—현상으로 이어지는 동심원 구조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
으며, 동심원 구조의 각 층위는 복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
고, 층위 간에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태체계적 틀을 갖고 있음.
- (소결) 저소득층의 행복은 객관적 상태보다 주관적 경험과 직접 관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경험 중에서 긍정적 경험과 부
정적 경험의 우세정도에 따라 행복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우리는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상태 모두에 개입해야 하
며, 이러한 행복의 맥락 구조에 맞게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

고, 정책과 실천이 선순환 구조로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야 할 것임.

□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장애 경험 연구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장애 경험을 파악하는 것으로 2011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에 참가한 6가구와 2012년 동 연구에 참가한 7가구의 인터뷰자료를 분석자료로 함. 장애인 당사자가 가구주이거나 장애인 자녀나 장애인 배우자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본 면접자료 분석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지적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이 포함되었으며, 가구의 장애인 연령대도 1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선행연구분석)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7.3%)에 비해 약 3배의 비율(21.0%)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가 많으며,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와 추가비용 지출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가구원의 발생은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가구 전체에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할 수 밖에 없게 하고 이는 부정적 경험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면접내용을 여러 차례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주제어를 중심으로 코딩하는 내용분석을 사용하였고, 가구주가 장애인인 경우와 가구원이 장애인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함.
- (연구결과) 5가지 주제로 나누어 질문함
 - 장애가 삶에 미친 영향: 장애인들은 대부분 ‘위축된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장애가 없었다면 현재보다는 삶이 나아졌을 것이다’, ‘공부를 더 배워 좋은 직업을 가졌을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을 것이다’,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등의 다양한 답변을 나타냄. 또한 대부분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함.

- **주변에 의미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태도:** 장애를 입은 후 주로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뿐 아니라 친구, 친척, 직장동료 등 과도 연락을 기피하게 되고,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부정적 시선이나 편견도 물론이거니와 장애인 자신의 위축감이나 의식이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었음. 반면에 장애를 입었음에도 가족 내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경우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나타났음.
- **장애인 친구나 동료, 기관과의 교류:** 장애를 입게 되면 대인 관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회모임이나 종교활동, 취미모임 등을 찾아 활동하지 않는 한 대인관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나마 장애를 입은 후 직업재활이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찾게 된 복지기관을 통해 같은 상황의 장애인들을 만나면 친구가 되거나 동료가 되어 함께 취미활동을 공유하는 등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친구를 사귀는 유일한 대안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수혜 경험과 개선방안:** 본 패널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장애등급, 수급기준에 맞는 생계비 보조, 연금, 수당, 의료급여 등의 기초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가 부족하여 받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더불어 전기나 전화요금 감면, 세금혜택, 지하철 무료이용, 철도요금 할인 등의 지자체 또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감면 혜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나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이나 접근성의 장벽이 여전히 높고, 장애인에 대한 일상에서의 인식과 편견이 아직 팽배하며, 무엇보다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현재의 수급제도는 근로동기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장애유형별 특성이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행정편의 위주의 제도와 서비스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장애의 의미:** 응답자들에게 장애의 의미는 ‘장애를 입은 순간 나락으로 떨어짐’, ‘삶의 50%는 버리게 되는 것’, ‘걸림돌’, ‘신앙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남.
- 저소득 가구 내 장애인 가구원을 돌보는 가구주들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장애를 위한 재활치료나 일반 교육에 많이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장애가구원을 돌보아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직업을 찾기가 어렵고,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사회심리적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빈곤층 아동의 빈부 인식 비교: 연령변화를 중심으로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층 아동의 빈부 인식을 연령에 따라 비교하는 것으로 2011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에 참가한 응답자 중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빈부 인식을 비교하였음.
- (선행연구분석) 특정 연령층(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의 연구 참여자의 빈부 인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빈부를 개인적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남.

- (연구방법) 특정한 분석방법보다는 일반적인 질적 분석을 위한 절차를 따름. 아동들의 개별적 진술을 살피고, 의미단위를 찾아 주제를 군집으로 나누고, 텍스트에 기초하여 기술함.
- (연구결과)
 - 가난한 사람, 부자: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가난한 사람을 보다 호의적 혹은 중립적으로 인식함. 또한 ‘일과 빈곤’, ‘부와 권력’, ‘부와 집안’, ‘부와 공부’의 관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듯함. 한편, 초등학생은 가난한 사람, 부자에 대해 ‘좋고 나쁨’의 품성으로 언급.
 - 가난한 이유, 부자인 이유: 빈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한 인식이 초등학생 시기부터 나타남.
 - 계층이동 가능성과 방법: 초등학생은 ‘착하게 살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욕심이 많아도 안 되고’ 등 착한 마음을 유지하고 바르게 살면 빈곤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외부의 도움도 빈곤 해결 방법의 하나로 인식. 이에 비해 중고등학생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힘이 들고 그 이유로 가난한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 또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모두 빈곤 해결의 방법으로 노력, 저축, 개인의 능력 등을 중시
 -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 사항
 - 연령에 따른 빈부 인식의 다름이 나타남. 그러나 빈곤 대물림에 대한 인식, 빈곤 해결방법을 개인적 차원에서 주로 찾고 있는 것은 공통된 인식임. 중고등학생의 경우 빈곤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인식하지 않음.
 - 빈곤의 원인 및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균형 있는 시각(개인적 차원 및 사회구조적 차원의 이해)을 갖도록 교육할 필요 있음.

□ 빈곤가구의 정신건강 인식 및 욕구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가구가 경험하는 정신건강의 어려움과 욕구를 이해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 특히 빈곤과 정신건강이 어떻게 관련성을 가지고 상호영향을 미치는지 맥락 속에서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 (선행연구분석) 국내외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빈곤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빈곤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사회원인론과 사회선택이론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음.
-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1년과 2012년 한국복지패널 질적연구에 참가한 응답자 중 저소득층 29가구의 녹취자료를 대상으로 한 주제 분석을 통해 핵심 주제의 개념들 추출함.
- (연구결과) 빈곤가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 미래 불안감, 우울, 자살충동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나타남.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경제적인 취약성은 중요한 촉발요인으로 작용함. 하지만 정신건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빈곤가구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이 높았으며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현재에 머무르기를 고집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인간에게 내적동기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미래에 대한 목표와 긍정적 전망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함. 또한 가난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많이 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무력감과 심리적 위축으로 연결됨으로써 빈곤 탈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연구결과를 통해 빈곤가구에 대한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하며 이는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제기함. 특히 빈곤가구의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와 갈등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빈곤 여성 노인의 일 경험: ‘하고 싶으나 할 수 없음’, ‘하고 있으나 하지 않음’의 의미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한 여성 노인들의 일 경험을 파악하는 것으로 2011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에 참가한 응답자 중 11명의 녹취자료를 대상으로 함.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는 이들을 선정한 결과, 모두 여성이었음.
- (선행연구분석)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탈빈곤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집단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는 노인들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로서 인식되어 근로 및 자립을 통해 수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을 덜 받는 위치에 있음.
-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제분석을 사용하여, 빈곤한 여성노인들을 현재 일하지 않는 집단과 일하는 집단으로 분류, 각 집단의 특성을 살펴봄.
- (연구결과) 일을 하지 않는 집단은 고령 및 건강악화, 직업 능력의 부재를 이유로 일을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일부 응답자는 수급이 만족스러워서, 수급탈락을 우려하여 일을 ‘안한다’고 함.
 -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은 공통적으로 근로불가 이유를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생활비 및 장래비·이사비·경조사비 마련, 부채상환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였음. 현재하는 일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일이 일답지 못하다고 여김.

-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이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연계
 - 수급자들의 저축 및 소득 증대를 권장하여 이들이 미래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지출액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IV. 요약 및 정책건의

□ 요약

- 양적분석은 측정 가능한 부분을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경험과 인식이 사상되는 한계를 지님.
- 반면, 질적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인식, 생생한 경험, 변화의 맥락 등을 담은 ‘블랙박스’ 내부를 관찰하는 데 유용(Padgett, 1998).
 - 이러한 이유로 최근 질적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을 실용적인 차원에서 통합하여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1년 한국복지패널 가구 중 빈곤층 100가구를 표본으로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자료’를 구축하였음.
 - 동 패널자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 먼저 ‘연계’라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의미. 그러므로 양적 분석으로 생산되는 수많은 통계 수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음으로 ‘질적패널’이라는 점은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동태분석을 질적인 방법으로 분석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의미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 2차년도 보고서로서,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2차년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1차 보고서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 첫째, 기존 1차 연구의 질적 패널 조사대상 100가구 분석 결과 부족한 표본으로 나타난 근로빈곤층 등의 20가구를 추가하여 질적패널 표본으로 구축.
- 둘째, 1차 조사 자료 약 5,000쪽과 2차 조사 자료 약 1,000쪽이 되는 녹취자료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1차 연구에서 시도하지 못하였던 6개 영역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음.

□ 정책건의

- 패널분석의 경우 3개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제대로 된 패널분석이 가능. 질적 패널분석의 경우 귀납적 분석을 하므로 양적 패널분석 더 많은 자료 축적이 되어야 가능함.
- 본 연구는 작년에 시작하여 금년에 2차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한 상태이므로 본격적인 질적 심층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 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임.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정책건의를 도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2차 자료를 바탕으로 6개 영역에서 심층분석한 연구 결과만을 이용하여 정책

건의하고자 함.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에 대한 연구
 - － 탈빈곤 제도가 현장에서 소기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곤과 탈빈곤 경험에서 나타나는 근로빈곤층의 삶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 수급권이 있는 근로빈곤층의 탈수급과 탈빈곤을 위해서는 유예기간, 부분급여 도입, 지속가능한 자립기간을 갖출 수 있는 강력한 유인(incentive)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
 - － 저소득층의 행복은 객관적 상태보다 주관적 경험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객관적 상태의 개선도 행복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므로 결국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상태 모두에 개입하여야 함.
 - － 이를 위해서는 행복의 맥락 구조에 맞게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과 실천이 선순환 구조로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
-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장애 경험 연구
 - － 본 패널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장애등급, 수급기준에 맞는 생계비 보조, 연금, 수당, 의료급여 등의 기초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가 부족하여 받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더불어 전기나 전화요금 감면, 세금혜택, 지하철 무료이용, 철도요금 할인 등의 지자체 또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감면 혜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나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이나 접근성의 장벽이 여전히 높고, 장애인에 대한 일상에서의 인식과

편견이 아직 팽배하며, 무엇보다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현재의 수급제도는 근로동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장애유형별 특성이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행정편의 위주의 제도와 서비스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빈곤층 아동의 빈부 인식 비교: 연령변화를 중심으로

-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경우 빈곤 대물림에 대한 인식, 빈곤 해결방법을 개인적 차원에서 주로 찾고 있음. 중고등학생의 경우도 빈곤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인식하지 않음
- 빈곤의 원인 및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균형 있는 시각(개인적 차원 및 사회구조적 차원의 이해)을 갖도록 교육할 필요 있음

○ 빈곤가구의 정신건강 인식 및 욕구에 관한 연구

- 빈곤가구에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많이 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무력감과 심리적 위축으로 연결됨으로써 빈곤 탈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빈곤가구에 대한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제기함. 특히 빈곤가구의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와 갈등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빈곤 여성 노인의 일 경험: ‘하고 싶으나 할 수 없음’, ‘하고 있으나 하지 않음’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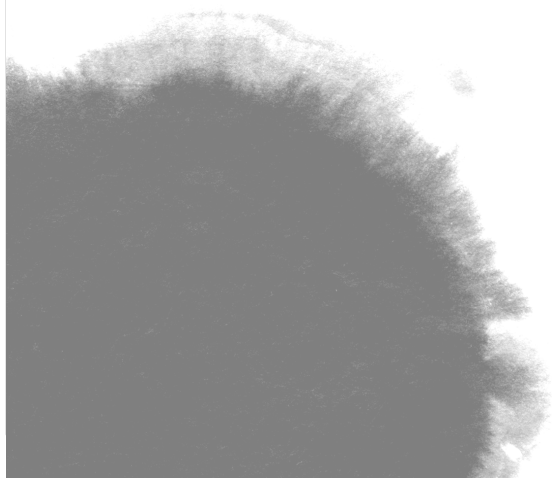
- 일을 하지 않는 집단은 고령 및 건강악화, 직업 능력의 부재를 이유로 일을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일부 응답자는 수급이 만족스러워서 수급탈락을 우려하여 일을 ‘안한다’고 함

20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이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연계 필요
- 또한 수급자들의 저축 및 소득 증대를 권장하여 이들이 미래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지출액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1부

양적·질적 혼합 연구방법론



제1장 서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록 그 양상과 정도는 다를지라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지속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복지정책이 도입되고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이 빈곤 및 불평등 감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성으로 대응하여 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 유형들을 살펴보면, 최종적인 사회안전망(last social safety nets)인 기초보장제도의 첫 번째 목적이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각지대 발생 원인과 대응에 대한 다양한 실태와 정책대안 연구가 있었다. 또 다른 기초보장제도의 목적인 자활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근로의욕과 탈수급 동기 및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있었다. 전달체계관련 연구로는 부적정 급여의 실태와 사후관리 체계의 문제점 및 대안, 기존의 자산조사 중심에서 사례관리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과 요구,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과 평가 및 정책대안에 이르기까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연구가 요구됨과 동시에 수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연구의 심도가 깊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더 이상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나 물질적 결핍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을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삶의 조건과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경제,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빈곤 연구의 흐름은 Sen이 주장한 빈곤의 다차원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 다른 흐름은 빈곤 실태에 관한 정태적 현황 및 분포뿐만 아니라, 빈곤의 동태적 변화, 즉 역동성을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대부분의 정태적 빈곤 연구는 일회성 양적 조사(횡단면 양적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빈곤층의 인식과 욕구를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방식이다. 반면, 빈곤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한 동태적 연구에서는 빈곤의 진입과 지속, 탈피, 특정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빈곤 상태의 변화 등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특정 시점에서 빈곤의 스냅샷(snapshot)을 분석하는 것보다 빈곤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¹⁾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 연구 경향의 변화와 확장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기반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패널자료라고 할 수 있다. 대우경제연구소로부터 시작된 패널자료의 구축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의 탄생을 가져왔으며, 이어 등장한 한국보

1) Alcock(2004)은 빈곤의 정태적 분석과 역동성 분석을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비유하여, 특정 시점에서 빈곤을 측정하는 저장(stock) 분석과 긴 시간에 걸쳐 빈곤의 진입 및 탈출을 다루는 유량(flow) 분석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의 빈곤실태 변화와 욕구를 동태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다차원적이며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예산과 지속적인 패널가구 관리의 어려움이 수반되는 패널자료의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빈곤의 다차원적 측면을 역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양산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양적 연구방법론의 편향에 따른 다양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양적 연구방법론으로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사회복지학계에서 지적된 바 있다(김교성, 2011). 특히, 빈곤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은 여전히 빈곤층의 시각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고, 빈곤층이 처한 환경이나 사회구조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빈곤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사례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빈곤 연구가 공통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으며, 정태적 분석이든 역동성 분석이든 분석결과에서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²⁾.

이러한 문제의식은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연구주제의 한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빈곤 연구방법론이 지나치게 양적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에 의존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의 획일성에도 기인하기 때문이다. 양적 패널자료는 결국 측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과 경험이 몇 가지 데이터

2) 김교성(2011)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요 학술지에 수록된 246편의 빈곤 연구를 분석하여, 44편을 질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이 중 빈곤정책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가 30편이고, 실제 빈곤층이 연구에 참여한 질적 연구는 14편이었다. 빈곤층이 참여한 연구 중에서도 단순히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표현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전통적인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5편에 불과하다고 제시하였다.

로 환원되기 때문에 양적 자료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빈곤 현상과 관련된 경험이 결국 통계적 수치로 축약될 수밖에 없다. 즉, 연구 대상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경험과 인식이 사상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복지패널을 비롯한 수많은 패널자료가 지닌 한계점이다. 특히, 연구주제와 관련된 확률과 통계에 근거하여 계량적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양적 연구방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결론이나 정책대안 개발에서 차별성 있는 연구가 나타날 가능성이 감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양적 패널자료가 제공하는 변수들의 활용도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양적 연구방법만을 활용함으로써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과 관련된 경험과 태도, 행위 동기 및 결과, 맥락, 삶의 통찰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질적패널 자료를 이용한 질적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질적 패널자료의 구축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양적 패널자료가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였던 상황과 비견될 정도로 빈곤의 다차원성 및 역동성과 관련된 연구 영역과 연구방법론의 또 다른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연구방법론의 확장 중의 하나는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을 통합하여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이다. 혼합방법론은 상대방의 발견에 대해서 인증(confirming), 반박(refuting)하는 과정을 통해 풍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Carvalho and White, 1997). 빈곤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계 등 동일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패널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면, 계량적 분석으로 생산되는 수많은 통계수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빈곤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추가되면, 양적연구 결과와 함께 풍부한 설명과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앞에서 지정한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의 풍부한 분석적 함의는 향후 맞춤형 새로운 정책대안 모색에 긴요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기초보장 수급자 및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등 삶의 질뿐만 아니라 근로 및 소비활동,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양상과 인식, 경험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맞춤형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책대안이 요구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까지 진행되어 왔던 일회성 횡단면 조사에 의한 정책현안에 대한 평가 또는 실태분석과 양적 연구방법론 중심의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합한 연구방법론에 기반을 둔 저소득층 중심의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연구의 1차 목적이다. 연구의 2차 목적은 질적패널 자료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다양한 삶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얻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침체 등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일상적 생활과 다양한 관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복지체감도와 복지 욕구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러한 욕구는 어떻게 표출되고 공공영역의 복지정책 및 사적영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복지대상자들의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근로 또는 수급과 관련된 인식 및 행태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복지정책 확대 논쟁과 관련된 인식이나 최근 도입하였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어떠한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질적패널 구축을 통한 연구의 세부 목적들을 금년의

연구에 모두 담기에는 두 가지 측면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나는 패널 분석의 경우 3개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제대로 된 패널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2012년 질적패널의 경우 2년차 자료를 축적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질적 심층분석은 내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질적패널 조사자료의 조사내용이 매우 방대하여, 한 해의 연구로 모든 설문내용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금년의 경우 조사내용 중 일부인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 내용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내용을 총 4부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1부에서는 제2장 1절에서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 연계와 관련된 혼합 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ology)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최근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의 동향과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과 장점이 어떠한 측면에서 양적 연구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제2장 2절에서는 혼합 연구방법론을 기초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구축한 양적 & 질적 연계 패널구축의 필요성과 의의를 빈곤 역동성 연구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다차원성과 역동성을 중심으로 한 최근 우리나라 빈곤 연구의 경향에서 양적 연구방법에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빈곤 역동성 연구에서 질적 종단 연구 및 패널자료 구축 필요성과 본 연구가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과의 연계를 통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이 지닌 의의 및 질적 조사내용 및 질문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2부에서는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구축한 양적 패널자료의 구축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표본가구와 연계하여 1차 한국복지패널을 기준으로 평균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중 1~7차 패널조사를 모두 완료한 표본가구(2,880가구) 중심으로 저소득층 양적 패널자료를 구축한 과정과 이들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2차 조사에서 추가된 표본인 25가구의 일반적 특성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저소득층 양적 패널조사 자료수집과정에 대하여 기술한다. 질적조사의 경우 자료 수집과정의 엄밀성이 양적조사 보다 더 강조되므로, 자료 수집 및 활용시 필요한 윤리적 사항 등을 적시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 과정을 담는다.

다음으로, 한국복지패널과 연계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파트인 3부에서는 먼저 제6장에서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하 제7장부터 제12장까지는 질적연구 심층분석을 다루고 있다. 제7장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에 대한 심층분석, 제8장에서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에 대한 심층분석, 제9장에서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장애 경험에 대한 심층분석, 제10장에서 빈곤층 아동의 빈부 인식에 대한 심층분석, 제11장에서 빈곤가구의 정신건강 인식 및 욕구에 대한 심층 분석, 제12장에서 빈곤 여성 노인의 일 경험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부는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

의 통합적 접근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최초로 시도한 질적 패널자료의 지속적 구축 및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서 구축된 양적 & 질적 패널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및 자료구축의 의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질적 패널자료 구축을 위한 조사수행 계획 및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특히, 기존의 양적 패널자료인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공개 및 활용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질적 패널자료의 제공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한국복지패널과 함께 질적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연구 및 정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제공할 필요성을 언급한다.

특히,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질적 연구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질적 연구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양적 & 질적 연구 방법론의 연계 및 통합의 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과 지속적으로 조사영역 및 내용을 확대하여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연계 및 혼합을 통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질적 연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자료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윤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질적연구도 양적연구와 마찬가지로 표본추출, 조사 및 자료 구축, 분석이라는 일반적 흐름을 따른다.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제1차

연도 표본추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구성된 양적 패널가구(2,960가구) 중에서 제6차 한국복지패널 조사과정 중에 질적 패널조사 참여(녹취 및 자료제공)에 동의한 362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특성 분포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질적 패널조사 대상 100가구이다. 제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표본분석결과 다소 부족한 유형인 근로빈곤층 등 20가구를 추가로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조사 및 자료 구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 및 제5장에서 심층 면접을 통해 질적 자료가 수집된 전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질적 패널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구직/근로경험), 빈곤 및 탈수급 관련 역동성, 가족에 대한 인식, 배우자와의 부부관계, 부모-자녀 간의 관계 등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생활 만족도와 행복 체감도를 공통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가구 구성원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 꿈과 희망을 조사하였다. 또한 여성 가구원을 대상으로 성차별 경험, 출산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등을 조사,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와 노화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영향 및 주변의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질적 조사대상 가구별로 1~3회 방문을 실시하여 총 3~6시간 정도의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녹음파일과 약 5,000페이지 분량에 이르는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Nvivo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하였다.

코딩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질적 자료 분석방법은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주로 활용하는 개방형 코딩방식으로, 연구자들은 녹취록으로 작성된 심층 면접내용을 Nvivo를 이용하여 조사영역별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담은 단어, 어구, 어절, 문장, 문단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의미 단위의 형태로 전환하

였다. 의미 단위는 단어나 어구, 어절의 형태로 요약된다. 의미 단위를 파악한 이후 연구자들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위들을 묶어 하위범주를 구성한 뒤 이러한 의미 단위를 포괄하는 이름을 붙이고, 다시 유사한 의미를 가진 하위범주들을 묶어 상위범주로 통합하고 이와 같이 통합된 범주에 적합한 이름을 붙이는 범주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연구영역별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의미 단위들이 구성되었으며, 이를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결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수행한 1차 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2011년에 수행된 1차 연도 연구의 목적은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기초분석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1차 연구보다 진일보 하였다. 먼저, 기존 1차 연구의 질적 패널 조사대상 100가구 분석 결과 부족한 표본으로 나타난 근로빈곤층 등의 20가구를 추가하여 질적패널 표본으로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1차 조사 자료 약 5,000쪽과 2차 조사자료 약 1,000쪽을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을 하고, 1차 연구에서 시도하지 못하였던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이 차별성이다.

제2장 양적·질적 연계패널 구축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 절 양적 & 질적 연계 혼합 연구방법론 관련 이론 및 동향

여기서는 먼저 양적 연구방법론과 대비되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연구방법론이 연계된 혼합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정의 및 유용성, 최근 동향을 논한 뒤에 질적 연구방법론의 어떠한 장점이 양적 연구를 상호 보완적으로 만드는지에 관한 활용 사례를 살펴본다.

1.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 양적 연구방법론과의 비교

가. 질적 연구방법론의 정의

질적 연구방법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Denzin 등 (1994)은 양적 연구방법론과 대비되는 즉, 양적 연구와는 다른 일련의 연구방법으로 질적 연구방법론을 정의하였다(유태균 역, 2001 재인용). 질적 연구방법론이 양적 연구와 다르다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식론, 존재론적 가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와 같이 질적 연구방법론을 양적 연구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 일련의 방법론으로 정의하는 것은 다음의 질적 연구 특징을 통해 보다 명확해진다.

나.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

1960년대에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에 앞서 역사적 뿌리가 있었다. 사실상, 질적 연구와 흔히 관련지어지는 몇 가지 지적 흐름(예를 들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과학의 막강한 조류로 질적 연구가 출현하기에 앞서 나타났다. 이처럼 질적 연구의 잠재적 기반을 표면화시킨 것에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 즉, 과학적인 접근방법(즉, 양적 연구)의 결과에 대한 재인식의 증대, 토마스 쿤과 같은 과학철학자들의 연구 관심에서 비롯된 자기반성의 촉구, 그리고 1960년대 후반의 현상학(phenomenology)과 관련된 사상의 확산이 그런 요인들이라 볼 수 있다(홍동식 외 역, 1992).

질적 연구방법론이 가진 첫 번째 특징(홍동식 외 역, 1992)은 연구 참여자의 시각(눈)으로 사건, 행위, 규범, 가치 등을 관찰한다는 데 있다. 둘째, 일상생활의 아주 피상적이고 사소한 것까지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강조한다. 일상적이고 하찮은 것들도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여타 분야들에 대한 단서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셋째, 질적 연구는 사건, 행동 등을 그것이 발생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맥락주의(contextualism)를 선호하며 이러한 맥락주의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또 다른 특징인 총체적(holistic) 접근과 관련된다. 총체적 접근은 사회적 실체들을 총체적으로 그들의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넷째, 질적 연구는 정적인 것보다는 과정적 측면으로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는 종단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질적 연구에서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관심의 표명이다. 다섯째, 질적 연구는 융통성과 비구조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질

적 연구자들은 미리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가 결정하기 보다는 비교적 개방적이고 비구조화된 연구 전략을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생소한 인식 틀을 강요하지 않는 연구 전략을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현장 연구 착수에 앞서 이론 및 개념을 설정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한편, LeCompte & Schensul(1999), Marshall & Rossman(2006), Hatch(2002)들이 제시한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들이 제시한 특징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질적 연구들은 연구의 해석주의적 특성과 연구자와 참여자, 독자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맥락 내에서 연구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조흥식 외 역, 2010).

〈표 2-1〉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

특징	LeCompte & Schensul(1999)	Marshall & Rossman(2006)	Hatch(2002)
자연스러운 상황(현장에 초점을 둔 밀접한 상호작용을 위한 자료의 원천)	○	○	○
자료수집의 주요 도구로서 연구자			○
말 또는 이미지 등의 다양한 자료 원천	○	○	○
귀납적, 순환적, 상호작용적 자료분석	○		○
참여자의 관점, 그들의 의미, 주관적 시각에 초점	○		
사회적·정치적/역사적 맥락 내의 또는 문화적 렌즈를 통한 인간 행동과 신념의 구성		○	○
엄격하게 미리 형성된 설계라기 보다는 유연한 설계		○	○
기본적으로는 해석적 탐구 - 연구자는 연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과 독자의 역할, 참여자의 역할, 참여자의 역할을 반영		○	
사회현상에 대한 총체적 관점		○	○

자료: 조흥식 외 역(2010: 63)

2. 혼합 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ology):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및 통합

가. 정의

혼합 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ology)과 관련해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혼합 방법론의 다양한 특성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Creswell 등(2011)은 혼합 연구방법론의 핵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연구문제에 기초하여)를 일관성 있게 그리고 엄격하게 수집하고 분석한다.
- 이들 두 자료를 결합(combine)(혹은 이들을 병합(merge))함으로써 동시에 두 자료를 혼합(mix)(혹은 통합(integrate)·연결(link))하거나, 하나를 수행하고 순차적으로 그것이 다른 것의 근거가 되게 하거나 혹은 다른 것 내에 하나를 끼워 넣는(embed)다.
- 두 자료 가운데 하나 혹은 양자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 한 연구에서 혹은 연구의 여러 단계에 걸쳐 이러한 절차를 사용한다.
- 철학적 세계관, 이론적 렌즈 내에서 이러한 절차들을 표현한다.
- 이러한 절차를 연구수행 계획을 이끄는 특정 연구 설계와 결합한다.

나. 혼합 연구방법론의 유용성

하나의 연구에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연구대상, 주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혼합 연구방법론의 유용성에 덧붙여 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론을 혼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 Greene, Caracelli, and Graham(1989)

- 다원화(triangulation): 상이한 연구 방법으로부터 결과의 수렴, 확증, 그리고 관련성을 추구
- 상보성(complementarity): 다른 연구 방법의 결과와 함께, 한 연구 방법으로부터 나온 결과의 정교화, 향상, 설명, 명료화 등을 추구
- 개발(development): 한 연구 방법의 결과를 사용하여 다른 방법을 개발하거나 이해. 이때 개발은 측정 결정뿐 아니라, 표집, 실행 등을 포함.
- 창시(initiation): 패러독스, 모순, 새로운 증거들의 발견. 다른 연구 방법으로부터 나온 결과 혹은 질문을 통해, 한 연구방법의 질문 혹은 결과를 재구성
- 확장(expansion): 상이한 연구 요소에 대해 상이한 연구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의 깊이와 폭을 확장

□ Bryman(2006)

- 다원화 혹은 더 큰 타당성: 결과를 다원화, 즉 상호적으로 확증하기 위해 양적, 질적 연구가 결합될 수 있다는 전통적 견해
- 상쇄(offset):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은 각각 장점과 약점이 있으며, 이들을 결합함으로써 강점을 끌어내고 약점을 상쇄할 수 있음.
- 완전성(completeness):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한다면, 연구자가 관심있는 연구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끌어낼 수 있음.
- 과정: 양적 연구는 사회생활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질적 연구는 과정을 제시함.
- 상이한 연구 질문: 양적, 질적 연구는 각각 상이한 연구 질문에 답한다는 주장

- 설명: 다른 연구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를 설명하는데, 한 연구방법이 사용됨
- 기대하지 못한 결과: 한 연구 방법에서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가 다른 연구방법을 통해 이해될 수 있을 때, 양적 및 질적 연구방법이 유용하게 결합될 수 있음
- 도구적 개발: 질적 연구가 설문지, 측정 항목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맥락을 언급
- 표집: 특정 접근이 응답자 혹은 사례의 표집을 촉진하는데 사용되는 상황
- 신뢰성: 양적, 질적 접근을 채택함으로써 결과의 진실성을 높일 수 있음
- 맥락: 두 방법의 결합은 일반화되고 외적으로 타당한 결과 혹은 서베이에서 발견되지 않은 변수들 간의 폭넓은 관계 등과 결부되어 맥락적 이해를 제공하는 질적 연구의 측면에서 합리화됨
- 예시: 양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질적 자료를 사용. “딱딱한(dry)” 결과라는 “뻘”에 “살”을 입히는 것으로 비유됨
- 결과의 유용성 증진 혹은 효용성: 두 접근의 결합이 실천가들에게 보다 유용함
- 확증과 발견: 가설을 만들기 위해 질적 연구를 사용하고 단일한 프로젝트에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양적 연구를 사용
- 견해의 다양성: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자의 관점과 실천가의 관점을 결합함.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의미를 드러내고 동시에 양적 연구를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발견함.
- 양적, 질적 결과를 증진 혹은 이것에 기반을 둬: 양적, 질적 연구 접근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보다 많은 양적 혹은 질적 결과를 생산

그 밖에도 Rossman 등(1985)은 혼합 연구방법론의 유용성으로 확증(corroboration), 정교화(elaboration), 창시(initiation)를 제안하였다. Rossman 등이 제시한 유용성은 첫째, 질적 연구방법론과 양적 연구방법론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통합하고 수렴하는 이론의 확증(corroboration)이고, 둘째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풍부하고 상세한 내용을 찾아내어 표면화하는 정교화(elaboration)이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증거와 근거에 기반을 둔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모색하고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연구주제를 찾아내는 창시(initiation) 등이다(Rossman et al., 1985, 천희란 외, 2011 재인용).

다. 혼합 연구방법론 활용 시 유의사항

앞서 살펴본 혼합 연구방법론의 유용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우선 어떤 목적으로 혼합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연구주제(목적)에 맞는 연구를 결정한다고 할 때, 혼합 연구방법론이 적합한 연구문제는 하나의 자료 원천으로 불충분한 연구문제들, 설명이 필요한 결과, 일반화될 필요가 있는 탐색적 결과 등이다. 혼합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연계하여 시행할 경우 예산과 시간 낭비 등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점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상호작용 수준에 대한 것이다. 상호작용은 두 가지 연구방법이 서로 독립 혹은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Creswell, et al., 2011). 즉, 연구자는 두 가지 연구방법론이 상호 독립적인지, 상호적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상호 독립적인 경우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독립적으로 수행될 경우를 지칭한

다. 즉, 두 가지 연구방법론은 별개이고 연구자는 양적 및 질적 연구문제,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별개로 진행한다. 이처럼 연구가 독립적일 경우, 연구자는 연구 말미에 전반적 해석을 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만 두 가지 연구를 통합한다. 반면, 상호적인 수준에서는 양적 및 질적 연구 간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적인 해석 이전에 두 방법은 통합된다. 연구 과정의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통합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것은 혼합 연구방법론에 의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 방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혼합 연구방법론은 단순히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합이 아니다. 혼합 연구방법론 나름의 다양한 연구 절차와 기술이 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혼합 연구방법론의 의미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행 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더욱 중요하다.

3. 혼합 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ology)과 관련된 논의 및 동향

실증적, 계량적, 연역적, 서베이 등의 특징을 갖는 양적 연구방법론과 해석적, 비계량적, 귀납적, 참여관찰과 비구조화된 인터뷰 등의 특징을 갖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차이점에 대한 강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연구방법론의 연계 혹은 혼합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두 가지 연구방법론을 연계 혹은 혼합한 ‘혼합 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ology)’은 하나의 현상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그러한 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인 맥락과

문제에 얽혀있는 복잡성과 다양성, 차이 등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Bryman, 2007; Johnson et al., 2007; Wolcott, 2002; 강민아 외, 2007 재인용).

Fry 등(1981)은 질적 연구의 장점이 어떻게 양적 연구에 대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6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강민아 외, 2007 재인용). 첫째, 질적 연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좀 더 정제할 수 있는 동시에 기존 사고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둘째, 보다 다양한 설명적 개념이나 유형을 발견하는데 유용하며, 셋째, 양적 연구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설정오차(specification error)를 줄일 수 있으며, 넷째, 더욱 향상된 개념과 문화적으로 관련된 범주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 다섯째, 양적 연구 자료에서 종종 발견되는 예외적인 현상(outlier)을 질적 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통찰력, 가설 그리고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외에서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질적 연구방법론과 양적 연구방법론의 혼합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론, 특히 질적 조사자료와 양적 조사자료의 결합과 관련된 논의의 기원은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50년 중반 사회학자 Le Play는 사회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연구방법론을 동시에 채택하고 결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Erzberger & Prein, 1997; 심준섭, 2008 재인용). 물론 이때부터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혼합 혹은 결합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이전에 출판된 사회연구방법론 교재들을 보면 거의 자연과학 방법에 따른 양적 연구방법론이 대세였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다(홍동식 외 역, 1992). 그러나 1960년대에 현상학에 대한 높은 인식과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전통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양적 연구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면서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 후 1980년대 들어서면서 두 가지 방법론의 연계 또는 혼합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사회복지학계에서도 2000년대 들어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사회복지학계는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두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양적 연구의 확대 및 고급 통계의 지향성이 두드러지는 것이고 둘째는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나친 편향성, 질적 연구방법론의 미성숙과 왜곡된 연구문화에 대한 자성적 고찰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연구방법, 즉 질적 연구방법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김미옥, 2007). 사회복지학계에서 질적 연구방법이 활용되기 시작한 역사가 10여년에 불과한 관계로 이 두 방법의 혼합에 관한 논의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외의 경우 1960년대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1980년대 혼합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사실로부터 향후 우리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실천 현장을 중심으로 욕구조사, 평가조사 등에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

요컨대,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혼합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각 방법론의 장점을 취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구대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두 가지 연구방법론의 혼합과 관련하여 모든 연구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연구에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연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이 통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게 이루어졌다. 통합 논

쟁의 핵심은 “인식론적 관점”과 “기법적인 관점” 간의 대비로 이해할 수 있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경우 두 방법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연구과정으로 이해된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서로 다른 인식론적 입장을 가진다는 입장을 가진 연구자들은 사회현상의 실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연구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양적 연구방법 혹은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두 방법을 통합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반면에, “기법적인 관점”은 양적 연구방법 혹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특정 연구문제의 적합성에 관한 “기법적” 고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홍동식 외 역, 1992). 다시 말해, 연구문제에 따라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 혹은 둘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용주의자들은 최근에 이러한 혼합 연구방법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집단이다(김미숙, 2006). 실용주의자들은 철학적 독단주의와 회의론의 중간지대에서 역사적으로 동의가 진전되지 않는 오랜 철학적 이원론(이성주의 대 경험주의, 현실주의 대 비현실주의, 자유의지 대 결정론, 사실 대 가치, 주관주의 대 객관주의 등)을 거부하는 대신 이 논의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기초로 철학적 이원주의에 대한 온건하고 상식적인 견해를 선호한다(김미숙, 2006). 한 패러다임에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통합을 지지하는 실용주의자는 방법 혹은 방법의 기저에 있다고 가정된 세계관보다 연구문제를 더욱 중시한다. 이들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적 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자의 특정 방법론이나 방법의 기저에 있는 패러다임보다는 그들이 제기하는 연구문제를 어떻게 하면 보다 잘 탐구할 수 있는가에 더욱 큰 관심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방법론이 따라가야 한다고 본다(김미숙,

2006).

최근에는 두 가지 연구방법에 대한 철학적 논쟁보다는 각각의 학문적 독자성과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을 통합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미숙, 2006). 물론 여전히 방법론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의 통합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지는 입장에서 통합적인 혼합 연구방법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방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Tashakkori & Teddlie, 2003; 김미숙, 2006에서 재인용).

4. 혼합 연구방법론 활용 사례

많은 질적 연구자들은 교육 및 사회복지실천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질적 연구방법론과 양적 연구방법론을 혼용하는 접근방법을 적용시켰다 (유태균 역, 2001). 두 가지 연구방법론을 혼용하는 접근방법에 의한 프로그램 평가가 갖는 장점은 양적 평가를 통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밝힐 수 있고 또한 질적 평가를 통해 어떻게 어떠한 프로그램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질적 연구방법론과 양적 연구방법론을 혼합하는 평가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 평가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연구의 심도와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음은 분명하다(유태균 역, 2001).

프로그램 및 실천 평가와 관련된 국내의 사례로 ‘우리 아이 희망네트워크 지원 사업 성과평가’가 있다. 2006년에 삼성 사회봉사단의 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 사업으로 시작된 우리 아이 희망네트워크 지

원 사업은 아동과 가족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 친구, 친지 등과 같은 비공식적 자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공분야 또는 전문분야 간의 전문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한 마을의 아이들을 서로 돌보고 키우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노혜련 외, 2007). 우리 아이 희망네트워크 지원 사업 성과평가는 네 가지 집단, 즉 희망네트워크 사업을 경험한 서비스 이용자 집단, 사업진행 실무자 집단, 지역사회 연계자원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성과평가를 통해 희망센터에서 제공된 서비스가 이끌어낸 긍정적 변화를 구체적인 예로 제시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한 요인, 즉 프로그램(개입)의 블랙박스를 발견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의 사례로는 뉴욕에서 정신장애인 노숙자 대상 서비스 제공 기관인 Pathways to Housing 사업 평가가 있다. Pathways to Housing 프로그램은 기존의 통제 및 관리 위주 노숙자 사업과 달리 노숙자의 선택과 자율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것으로, 많은 서비스 제공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양적 및 질적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유태균 역, 2001).

London 등(2007)은 미국의 복지개혁 정책을 주제로 패널자료를 구성하고 이와 함께 일부의 추가 표본을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결론적으로 혼합 연구방법론은 정책과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 기여하였고 질적 자료는 양적 자료만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통찰을 제공하였다(이현주 외, 2009에서 재인용).

한편, 양적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종단 연구 분야에서도 질적 중

단 연구(QLLR,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양적 방법의 한계, 실증주의에 대한 일 반적이고 지속적인 비판이 질적 연구에 대한 탐구와 보다 광범위한 활용을 가능하게 했듯이, 양적 연구방법에만 치우친 종단 연구 분야에서도 사회적 맥락에서 시간과 과정에 따른 변화를 탐구하고 이해하는데 기여 하는 질적 종단 연구에 점차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경제사회 위원회(ESRC, The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는 질적 자료 및 질적 연구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적 종단 연구 전략 을 개발하는 방식을 조사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연구(feasibility study) 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Henwood & Lang(2003)은 종단 연구는 이미 수없이 많이 진행된 혹은 진행 중인 양적 연구들과 함께, 질적 연구와도 훨씬 더 많이 관련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종단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예산 제약과 연구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질적 종단 연구는 학문, 정책연구 분야, 특히 정책평가의 주요 방법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Holland, et al., 2006 재인용). 이들은 질적 종단 연구의 강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Holland, et al., 2006 재인용). 즉, 양적 연구방법에 기초한 패널 연구는 유동성, 매우 상황 특정한 (situation-specific) 경험, 사람들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이것을 다루 는 방식을 중재하는 이해와 인식을 사정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깊이 있고 상세한 조치(treatment)를 제공할 수 있다. 질 적 연구는 맥락적인 이슈들에 매우 민감하며,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기에 자신의 삶에서 발생한 변화(예를 들어, 어머니/아버지로의 전환) 등을 주 관적으로 교섭(협상)하는 방식과 같은 중요한 미시-사회적인 과정 (micro-social process)을 밝힐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일상의 태도와 행동이 사회문화적 변화 패턴 속에 어떻게 내재되는가를 탐구하는 것도

가능하다(사회적 역할에 대해 당연히 여겼던 가정과 신념, 예를 들어 부모 역할의 성적 분화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다). 맥락에 대한 민감성의 결과로 질적 연구는 사회적 과정에 대한 미시적 관심과 거시적 관심을 결합할 수 있다.

또한, 양적 연구에서는 평균과 경향에 기초한 비교를 통하여 상세한 것을 없애지만, 질적 연구는 사회적 행동에서 지속적인 것과 순간적인 것을 구별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의 중요성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Pollard & Filer, 2002; Holland, et al., 2006 재인용).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과를 유발시키는 차이들을 구별할 수 있고, 변화가 어떻게 개인과 집단에 의해 다르게 경험되고 실행되는가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의 질적 종단 연구는 심리적, 자서전적 과정(lived through experience)을 통해서 사회적 결과가 발생하고 중재되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미 확립된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 신선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교육, 심리, 건강 연구, 사회학(생애 과정 및 생애사(life course, life history),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대한 연구, 범죄 연구) 등에서 질적 종단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2절 빈곤 역동성 측면에서 양적·질적 연계 패널 구축의 필요성과 의의

1. 최근 우리나라 빈곤 연구의 경향 : 다차원성과 역동성

오늘날 우리나라의 빈곤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빈곤을 더 이상 단순히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나 물질적 결핍으로만 이해하지 않는

다. 오히려 빈곤을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삶의 조건과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경제,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성준모, 2010; 이상록·이순아, 2010; 이주하, 2011; 이현주 외, 2009). 또한, 실현능력 접근과 같이 빈곤의 비화폐적 측면을 강조하여 빈곤을 측정하자는 주장들도 나타나(김교성·노혜진, 2011; 서병수, 2007; 최균·서병수, 2006; 최균 외, 2011), 바야흐로 다차원적인 빈곤에 대한 이해와 측정, 그리고 이에 기반한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

한편 IMF위기 이후 빈곤 연구를 살펴보면, 빈곤의 정태적 현황 및 분포뿐만 아니라, 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전의 정태적 빈곤 연구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는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빈곤층의 요구와 의식을 조사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면⁴⁾, 최근에는 빈곤의 진입과 지속, 탈피, 특정한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빈곤 상태의 변화와 같은 빈곤의 역동성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빈곤의 스냅샷을 분석하는 것보다 역동성 분석이 빈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Alcock, 2004)는 사실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피를 관찰할 수 있는 패널자료가 1990년대 후반부터 구축되면서 가능해진 것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빈곤 역동성을 살펴본 연구는, 황덕순(2001)처럼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패널 데이터로 연결한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안정적인 구축과 맞물려 꾸준히 증

3) OECD(2001:10)도 빈곤을 소비, 식량, 건강, 교육, 권리, 표현, 보장, 존엄, 좋은 일자리와 같은 실현능력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박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4) 1990년대 이전의 빈곤 연구 경향에 대한 논의는 김영모(1989)를 참조한다.

가하여 왔다(강신욱, 2009; 구인회, 2005; 금재호·김승택, 2001; 김은하, 2009; 석상훈, 2007, 2009; 홍경준 2004). 이러한 연구들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율의 변화, 빈곤 진입과 탈피 경향, 그리고 빈곤의 반복이나 장기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⁵⁾.

한편, 한국노동패널에 이어서 등장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의 실태변화와 욕구를 동태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어, 빈곤의 세 측면을 보다 다차원적이며 역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를 시도하여 빈곤 연구의 지평을 확대한 연구로, 주거 빈곤과 아동발달 및 가족생활(임세희, 2010; 임재현, 2011),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노혜진·김교성, 2010), 빈곤 혹은 관련된 서비스와 가족 갈등(정선영·정현숙, 2011), 요보호 가구원 부양과 가구빈곤(진선미 외, 2011), 빈곤층의 소비패턴(정원오·이선정, 2011)에 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산빈곤과 빈곤의 지속(석상훈, 2011), 빈곤과 우울의 종단적 고찰(성준모, 2010), 빈곤지위 변화와 정신건강(이상록·이순아, 2010), 탈수급 전후 의료서비스 차이(유태균·이선정, 2011), 근로능력에 따른 탈수급 결정요인(안서연 외, 2011) 등의 연구들은,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역동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빈곤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정태적인 연구결과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교성(2011)은 우리나라 사회정책 빈곤 연구의 동향과 과제에 대한 논문을 통해 “빈곤실태 연구는 그것이 스냅샷

5) 서구의 경우 역시 양적 종단자료의 구축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노동시장 특성과 빈곤의 진입과 유지기간, 탈퇴와 같은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양적 연구들이 많이 나왔으며, 이는 탈빈곤정책의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Millar, 2007).

인지 혹은 동영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연구가 공통적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빈곤실태 연구가 정태적 분석을 하든, 역동성 분석을 하든, 거의 모두가 개인, 가구, 노동시장 요인 등이 주요 변인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각각의 분석결과에서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빈곤의 역동성 연구에서 혼합 연구방법론의 필요성과 의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역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것은, 빈곤 연구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패널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적 연구가 갖는 많은 장점을 포함하는 동시에, 양적 연구방법론에 의 편향에 따른 다양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앞서 제시했듯,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이 결과적으로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의식은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연구주제의 한계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다차원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 지나치게 양적자료에 대한 분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양적 연구방법론의 확실성에도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양적자료는 결국 측정 가능한 사건들에 대해서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대상자의 삶과 경험이 몇 가지 데이터로 환원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Alcock, 2004). 이와 같은 양적자료의 특성은 복잡하고 다양한 빈곤 현상 및 관련 경험들이 결국 통계수치로 축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복지패널을 비롯한 수많은 패널자료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확률과 통계에 근거하여 수리적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양적 연구방법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론이나 정책대안 개발에서 차별성 있는 다양한 연구가 나타나지 못하는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나면 궁극적으로 양적 패널자료가 제공하는 변수들에 대한 활용도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양적 연구방법만을 통해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과 관련된 심도 깊은 개인의 경험과 태도, 행위 동기 및 결과, 맥락, 삶의 통찰을 이해하기란 더욱 힘들어 보인다.

양적 연구방법론에의 편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사회복지학계에서 일부 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는데(강철희·김미옥, 2003; 김인숙, 2007; 오정수, 2002; 홍경준, 2002), 이러한 논의는 빈곤 연구에 대해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즉, 빈곤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은 여전히 빈곤층의 시각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며, 빈곤층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사회구조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빈곤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사례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김교성, 2011)⁶⁾. 더 나아가 이러한 양적 연구방법에의 편향성은 실증주의 이외의 지식기반에 근거한 빈곤문제에 대한 새로운 담론 형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인식론의 다원화를 꾀하기 힘들게 할 수도 있다⁷⁾.

이러한 상황에서 질적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Carvalho

6) 김교성(2011)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요 학술지에 수록된 246편의 빈곤 연구를 분석하여, 그중 44편을 질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이들 중 빈곤정책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가 30편이고, 실제 빈곤층이 연구 동반자로 참여한 질적 연구는 14편이었다. 그나마 빈곤층이 참여한 연구 중에서도 단순히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표현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질적 연구 전통에 따른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5편에 불과하였다.

7) 김인숙(2007)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복지 연구에서 질적 연구는 지배적 지식기반을 비판하고 대항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빈곤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White(1997)는 빈곤 연구에 있어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 중 어느 하나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개의 경우 두 가지 연구방법론이 서로 간과하고 있는 질문들을 다룰 수 있으므로, 이를 혼합하는 연구방법론이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는 누가 가난한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왜 가난한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곤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Barrett(2004) 역시 양적자료에 기반한 빈곤의 역동성 연구를 통해서 단순히 재생 가능한 결과들을 생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및 혼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어떤 대상에게, 어떤 시기에, 어떠한 규모와 내용을 가진 개입을 시도할 때, 삶의 기준의 향상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인과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혼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혼합 연구방법론을 통해 동일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출처를 통해 다차원적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게 된다면, 통계수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교차확인(cross-check)을 통해 측정의 다원화(triangulation)를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Jick, 1979; Barrett, 2004). 이러한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또는 혼합은 양적자료의 설문질문을 질적 자료와 연계되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 질적 분석을 통해서 빈곤과 관련된 지표들을 개선할 수도 있으며, 서로 상대방의 발견에 대해서 인증(confirming), 반박(refuting)하는 과정을 통해 풍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Carvalho & White, 1997).

최근 혼합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수행된 빈곤의 역동성 연구들을 살펴보면, 질적 연구방법론이 빈곤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통찰의 기반을 제공하며, 그러한 과정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의 역할에 대한 세밀한 관찰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Adato et al., 2006; Lawson et al., 2006; Lawson et al., 2008).

3. 빈곤 연구와 관련된 질적 연구 및 혼합 연구방법론 활용 사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적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삶의 경험과 빈곤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잘 드러낼 수 있다. 나아가, 기존 통계나 사회적 편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빈곤 현실에 대한 통찰과 심도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Edin & Lein(1997)은 “Making Ends Meet”라는 저서에서, 미국의 싱글맘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복지 수급자들이 삶을 유지하는 방법과 경험을 통찰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미국 통계국의 빈곤에 대한 양적 측정결과와는 별도로 싱글맘들이 생존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방법과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Seccombe(1999)은 “So You Think I Drive a Cadillac?”에서, 미국의 여성 복지수급자들의 복지개혁에 대한 인식과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수급 여성들이 고급 캐딜락 승용차(Cadillac)를 타고 다닌다는 이미지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확실적인 양적 연구방법론에의 편향성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의 성찰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다양한 질적 자료를 사용한 빈곤 연구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빈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목표로 하는 연구에서도 절대빈곤층의 삶과 경험을 제공하거나(박순일, 1994; 윤석범, 1994), 문학작품에서 나타난 빈곤층의 의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윤석범, 1994),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방법들은 전통적인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라기보다는 질적 자료를 사례로 제시하여 소개하

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자의 일방적 분석보다 빈곤층의 인식과 목소리를 통해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다(권지성, 2008; 김교성, 2011; 백학영, 2006; 이은주, 2008). 홍현미라(2011)는 질적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의 거시적인 실천과정을 평가할 수 있고, 참여자의 시각에서 사회복지 실천과정의 작동 기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빈곤 연구에서도 질적 연구방법의 도입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로서 빈곤정책의 작용기제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⁸⁾. 질적 연구방법의 이러한 활용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여성가구주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활사업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전망에 대한 연구(백학영·고미선, 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과정에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연구(백학영·조성은,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수급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이태진 외, 2007, 2008),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연구(이희연, 2009),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급 관련 인식, 가족관계 및 근로활동에 대한 인식과 전망 등 사회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양적 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이현주 외, 2009),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을 평가한 연구(권지성, 2010)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를 저술한 Deborah Padgett(1998)도 질적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인식과 생생한 경험을 찾아내고, 프로그램, 혹은 개입이라는 “블랙박스” 내부로 들어가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4. 빈곤 역동성 연구에서 질적 종단 연구 및 패널자료 구축 필요성

이상과 같이, 최근 들어 질적 연구방법론이 빈곤 연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해서 양적 연구가 지닌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Carvalho & White, 1997). 앞서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두 가지 연구방법론의 차이는 상호 보완을 통해 보다 정합적인 연구방법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⁹⁾. 하지만, 지금까지의 빈곤과 관련된 질적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매우 제한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이라는 최근의 연구경향에 비추어 본다면, 질적 연구가 향후 빈곤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질적 연구(김교성·노혜진, 2011; 이현주 외, 2009; 최종혁 외, 2009)는 그나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빈곤의 역동성과 관련된 질적 연구는 거의 발견하기 쉽지 않다. 이는 무엇보다도 질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종단적 연구에 필요한 질적 자료의 부재로 인해,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Millar(2007)는 양적 패널자료를 활용한 빈곤의 역동성 관련 연구가 많이 나온 것처럼, 질적 연구를 통해서도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질적 종단 연구에 기반한 빈곤 역동성 연구들은 지위변화(transitions), 기간(durations)과 경로(trajectories)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9) 오정수(1997)는 실증주의의 장점과 비실증주의를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난 인식론적인 다원주의를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보고,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효과적인 정합은 연구 목적과 연구대상의 다양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상자들의 각기 다른 경험들을 잘 보여주고, 이를 통해 이론적, 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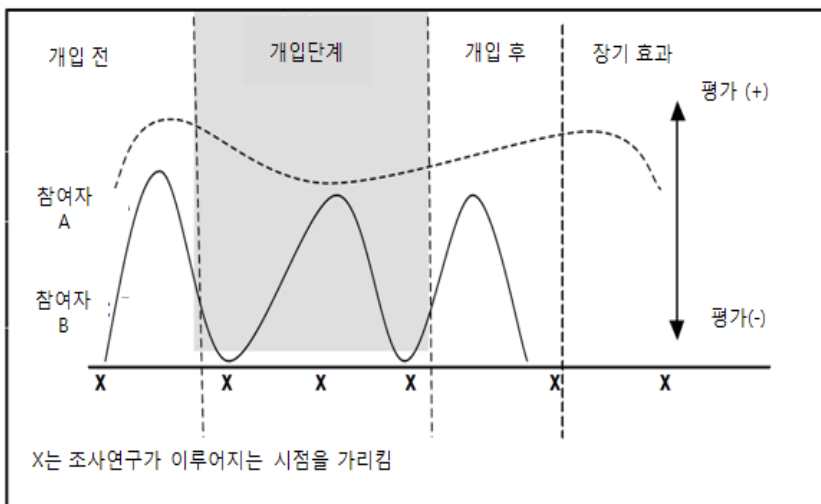
Farrall(2006)은 질적 연구를 종단적으로 수행할 경우, 양적인 종단 연구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조사에 의한 질적 연구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어떻게 사회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되어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탐색할 수 있다. 둘째, 거시적 절차나 사건을 개인의 삶과 환경에 접목시킬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개입이 효과가 있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개입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또한 왜 그런지에 대한 맥락적인 분석과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개입 결과를 개인적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다섯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응답자의 삶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변화들과 다양한 감정의 흐름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량적으로 의미가 없고 일반화시킬 수 없는 소수의 다양한 응답들이 사장되는 기존의 양적 연구에서와 달리 이들 사례로부터 이론적 성찰을 도출할 수 있다.

Molloy et al(2002)은 질적 종단 연구란 변화에 대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발생했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청년을 위한 뉴딜(New Deal)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하여 질적 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례는 질적 연구를 종단적으로 실시했을 때의 유용성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뉴딜의 구직이나 기본 기술개발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참여자 A, B의 평가 점수를 개입 단계에 따라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 프로그램 참여의 전 과정에 걸쳐 평가점수가 고르게 나타나는 A에 비해, 평가 점수가 단계 내에서 위아래로 큰 격차를 보이는 B의 경우, 스냅샷만으로는 프로그램의 경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질적 종단 연구는 이러한 경우에도 경험의 평가와 관련된 고점과 저점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러한 변화를 설명해줄 수 있다는 유용성

이 있다. 실제 연구에서 B의 경우 이러한 고점과 저점이 나타난 것은 뉴딜 참여자의 사생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A의 경우처럼 극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질적 중단 연구는 왜 이 참가자가 완만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 프로그램 실행과 정책 입안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질적 중단 연구의 특징은 앞서 제시했던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양적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가 보다 포괄적으로 양적 연구와 연계되어 함께 사용된다면 더욱 강력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는데(Corden & Millar, 2007), 이는 마치 사람이 한 다리로는 도움 없이 서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나가려면 두 다리가 필요하다는 비유로도 설명할 수 있다(Barrett, 2004).

〔그림 2-1〕 중단적 연구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탐색



자료: Molloy et al(2002:12) 에서 재인용

5. 한국복지패널과의 연계를 통한 질적패널 구축의 의의 및 이슈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역시 복잡하고 다양한 빈곤과 관련된 특성들을 수치로 축약해버리는 양적 패널자료의 특성 및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서 빈곤과 관련된 질적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의 역동성과 관련된 분석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성과를 발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구축된 기존의 양적 패널자료들은 아직 세대를 뛰어넘는 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대간 빈곤의 역동성을 보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교성, 2011).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복지패널과 연계된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질적 종단 연구를 통한 빈곤의 역동성 연구를 위하여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질적 종단 연구를 통해 빈곤 역동성과 관련된 개인의 관점과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적응과정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Millar, 2007) 빈곤연구 발전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자료의 구축을 위해서는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은 빈곤의 역동성과 같은 하나의 연구 영역에 대해 다른 시각과 목적의 연구 질문들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때, 빈곤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 보다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질적 연구방법론에 의해서 구축된 패널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는 기존의 양적 패널 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수치를 보다 생생하게 해석 가능하게 하고, 측정의 다원화(triangulation)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서로의 발견에 기초하여 향후 각자의 연구주제와 질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나가는 실용적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빈곤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호 인증과 반박과정을 거쳐 빈곤정책 수립을 위한 통찰력의 기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론 연계 및 혼합은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간의 연결 고리(links)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입안자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Corden & Millar, 2007). 물론, 질적 패널자료 역시 패널의 손실(attrition), 패널 조건화(conditioning)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연계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Ruspini, 1999).

마지막으로, 양적 자료인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한 질적 패널조사에서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양적 패널조사와 연계되어 상호간에 보완적인 질문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질적 종단 연구의 특성이나 장점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질문들을 구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질적 종단 연구 질문들의 유형을 제시한 Saldana(2003)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질적 종단 연구를 통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참여자의 인식과 인간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종단적으로 구축된 질적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과정의 틀을 만드는 질문(framing questions), 둘째, 변화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descriptive questions), 셋째는 다양한 변화와 관련된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질문(analytic and interpretive questions)이다.

먼저, 종단적으로 구축된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과정의 틀을 만드는 질문들은, “구축된 자료의 풀(pool)이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개입적 조건은 무엇인가? 시간에 따른 변화의 역동성은 무엇인가? 참여자의 변화에 대한

사전 진술들이 자료 분석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변화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이 증가하거나 나타나는가? 무엇이 축적되는가? 어떠한 돌발적인 것들이 생겨나는가? 무엇이 줄어드는가? 무엇이 지속되는가? 무엇이 특징적인가? 무엇이 없어지는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변화와 관련된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질문들은 “어떤 변화들이 경과에 따라 서로 연결되는가? 어떤 변화들이 본연적인 인간 발달이나 구성된 사회적 과정에 대립 혹은 화합하는가? 무엇이 시간 경과에 따른 국면, 단계, 순환 등과 같은 리듬인가? 무엇이 연구를 관통하는 주제인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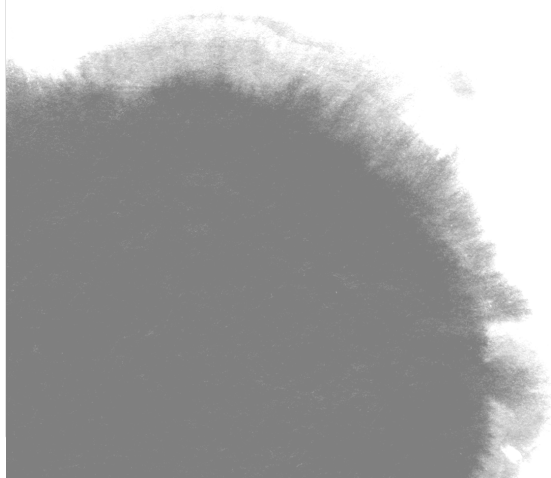
한편, Farrall(2006) 역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종단적 차원에서 구축된 질문과 자료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과정을 탐색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웨이브(wave) 간 어떠한 차이가 발생했는가? 둘째, 언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변화가 먼저 혹은 동시에 일어나는가? 셋째, 돌출되는 사건들이 있는가? 넷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이 증가하고 감소하였는가? 다섯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엇이 없어졌는가? 여섯째, 변화와 변화의 시기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인 과정은 무엇인가? 일곱째, 어떠한 변화들이 인간의 성장 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가로막는가? 여덟째, 변화들이 응답자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아홉째, 변화가 실제적인가 아니면 상징적인가?

이와 같이 제시된 질적 패널조사에서의 종단적 질문의 유형들은 향후 빈곤의 역동성 연구를 위한 질문내용의 개발에도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1차년도에 구축되었던 질적 패널자료가 양적 패널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질문들로 주로 구성이 되었다면, 금번 2차년도에 이루어진 질문들은 보다 시간에 따른 차이와 변화 과정, 관련된 사건이나 맥락,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기술적이고 해석적인 질문들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금번 2차년도 조사에서 지난 1년 만에 빈곤지위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조사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빈곤층의 삶의 경험과 인식의 변화, 탈빈곤을 위한 노력, 그리고 그것이 갖는 맥락과 의미들은 종단적 연구가 아니면 드러나기 힘든 소중한 정보이며, 그 과정에 대한 분석자체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후 연구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변화들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부

질적패널 자료구축



제3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표본추출 및 가구특성

제1 절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 표본추출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로서, 저소득층 중심의 질적 패널가구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표본가구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이미 축적된 다양한 양적 자료를 활용하고, 여기에 정기 또는 수시로 다양한 영역별로 필요한 조사내용을 부가적으로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복지패널 표본가구로부터 질적 패널가구 표본을 추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자료 구축 기반이 되는 한국복지패널 표본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에서 추출되었고, 조사지역은 농어가(읍면지역)는 물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본 배분은 패널가구의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고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하였다. 즉, 중위소득의 60%(OECD 상대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추출하고,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일반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1차 한국복지패널은 조사 당시 총 7,072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조사결과 저소득 가구 비율이 약 45%, 일반가구 비율이 약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1차 한국복지패널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기준 중에서 가장 확대된 개념을 활용하여, 가구 경상소득 기준으로 평균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질적 패널조사의 포괄적 대상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원표본 가구 중에 3,723가구(원표본 7,072가구 대비 52.6%)를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질적 패널이 최초로 구축된 2011년 당시 완료된 6차 한국복지패널조사까지 표본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모든 조사를 완료한 2,960가구(원표본 7,072가구 대비 41.9%, 1차 패널 기준 평균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3,723가구 대비 79.5%)를 최종적으로 추출하였다. 이러한 저소득층 가구 중에 2차년도 질적 패널 구축 시점인 2012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된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까지 표본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는 2,880가구(원표본 7,072가구 대비 40.7%, 최초 평균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3,723가구 대비 77.4%)이다.

〈표 3-1〉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과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 규모

(단위: 가구, %)

구 분 (조사 기준시점)	전체 패널가구	원표본 유지율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
1차 웨이브 (2005)	7,072	100.0	3,723 (52.6%)
2차 웨이브 (2006)	6,511	92.1	3,528
3차 웨이브 (2007)	6,128	86.7	3,370
4차 웨이브 (2008)	5,935	83.9	3,270
5차 웨이브 (2009)	5,675	80.3	3,136
6차 웨이브 (2010)	5,333	75.4	2,960 (41.9%)
7차 웨이브 (2011)	5,270	74.5	2,880 (40.7%)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앞서 선정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6차 한국복지패널 조사기간 중 질적 패널조사 참여(심층 면접내용 녹음 및 녹취자료 제공) 동의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표본추출을 실시하기 전에 질적 패널 조사가구로 심층 면접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362가구를 확인하여 이들 가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최종 질적 패널 표본가구 추출을 위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질적 패널조사 참여의사를 지닌 362가구의 주요 특성과 앞서 구축했던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주요 특성 및 가구구성(지역분포, 가구주 연령, 가구유형, 소득지위, 기초보장 수급여부, 가구원 중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유무 등)을 비교함으로써 유사한 분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질적 패널 표본가구로 100가구를 선정하였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 지방광역시, 지방중소도시, 농어촌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출하였으며, 가구유형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일반가구, 단독가구, 부부가구, 한부모 가구로 구분하고, 동시에 가구원의 특성 중 장애인 가구원, 노인 가구원, 근로활동 가구원을 적절히 고려하여 질적 패널조사 대상 가구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질적 패널가구로 선정된 100가구에 대해 1번부터 100번까지 질적 패널가구 고유번호(ID)를 부여하였다.

2012년 제2차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조사에서는 100가구 외에 20가구를 표본으로 추가하였다. 추가된 20가구는 일반노동시장 참여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등 다양한 근로 빈곤층을 포괄하여 역동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부합되는 가구를 추출하였다. 또한 1차 질적 패널조사 결과에서 표본가구의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장애인가구와 아동가구가 추가되었으며, 이렇게 추가된 가구에 대해서는 101번부터 질적 패널가구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가구 특성 및 자료수집 과정에서 심층 면접대상 가구원의 결정과 실제 조사 내용별 면접 가구원의 확인, 심층 면접횟수 및 전체 면접시간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하였다.

2011년 1차 질적 패널 표본 100가구와 2012년에 수행된 2차년도에 추가된 질적 패널 표본 20가구의 특성과 심층 면접 응답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2〉 질적 패널 참가구별 특성 및 심층 면접 응답자

가구 ID	가구 내 응답자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1	2	남 여	60 17	가구주(장애) 자녀(청소년)	한부모가구(부녀) 가구주장애	기초보장 수급가구
2	1	남	68	가구주	노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3	1	여	83	가구주	노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4	2	여 남	68 70	배우자 가구주(청각장애4급)	노인부부가구	저소득 노령연금받음
5	2	남 여	65 63	가구주 배우자	일반가구, 자녀사망경험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6	1	여	41	가구주	단독가구,미혼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7	1	여	55	가구주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8	1	여	69	가구주	노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9	1	여	70	가구주	노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10	1	여	74	가구주	노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11	1	여	72	가구주	노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있으나 지금은끊긴상태
12	2	여 여	38 7	가구주의배우자 자녀(아동)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13	3	여 여 여	44 15 78	가구주 자녀(청소년) 가구주의어머니(노인)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가구 ID	가구 내 응답자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14	1	남	53	가구주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15	2	남 여	80 72	가구주(노인) 배우자(노인)	노인부부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보훈처수당받음
16	1	여	52	가구의배우자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17	2	여 남	61 71	배우자(실가구주) 가구주(노인)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18	1	여	76	가구주(노인)	노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19	3	여 남 남	44 13 11	가구주 자녀(청소년) 자녀(아동)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20	3	여 여 남	41 12 7	가구의배우자 자녀(아동) 자녀(아동)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21	3	여 여 남	52 19 13	가구의배우자 자녀(둘째) 자녀(막내)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22	1	여	79	가구주(노인)	노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23	1	여	88	가구주(노인)	노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노령연금수급중
24	3	여 남 남	47 16 11	가구주(장애인) 자녀(청소년,주의력결핍장애) 자녀(아동)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장애인가구
25	1	여	78	가구주(노인)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26	1	여	73	각가구주(노인)	노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27	1	여	37	가구주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28	3	여 남 여	44 16 10	가구의배우자 자녀(청소년) 자녀(아동)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70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가구 ID	가구 내 응답자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수
29	2	남 여	14 33	자녀(청소년) 가주주의배우자	일반가구	기초보장 탈수급가구
30	2	남 여	54 60	가구주 배우자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31	2	여 남	66 63	배우자(노인, 장애인) 가구주(장애인)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의료비, 장애연금수급
32	2	여 여	49 10	가구주의배우자 자녀(아동)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33	2	남 여	81 70	가구주(노인) 배우자(노인)	노인부부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34	2	여 남	70 72	배우자(노인) 가구주(노인)	노인부부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35	2	여 남	73 76	배우자(노인) 가구주(노인)	노인부부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36	3	남 남 여	50 17 80	가구주 자녀(청소년) 가구주의어머니(노인)	부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37	2	남 여	53 71	가구주 가구주의어머니(노인)	일반가구	의료급여수급
38	2	남 여	87 82	가구주(노인) 배우자(노인)	노인부부가구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수급, 6개월간긴급생계 지원금수급
39	1	여	57	가구주의배우자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40	3	여 남 여	50 19 9	배우자(현가구주) 자녀(청소년) 자녀(아동)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41	2	여 여	72 19	가구주(노인) 손녀(청소년)	조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42	1	남	78	가구주(노인)	노인부부가구	노령연금수급
43	2	남 여	67 62	가구주(노인) 배우자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44	1	남	75	가구주(노인)	노인부부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가구 ID	가구 내 응답자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수
45	1	여	66	가구주의배우자(노인)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46	3	여 여 남	10 14 42	자녀(아동) 자녀(청소년) 가구주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47	1	여	71	가구주(노인)	조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48	2	여 남	66 17	가구주의배우자(노인) 손자(청소년)	조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49	1	여	83	가구주(노인)	노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50	3	남 여 남	53 13 19	가구주 자녀(아동) 자녀(청소년)	부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51	2	남 여	73 70	가구주(노인) 배우자(노인)	노인부부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52	2	여 여	33 9	가구주의배우자 자녀(아동)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53	1	여	58	가구주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54	2	여 남	75 76	배우자(노인) 가구주(노인)	노인부부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55	1	여	65	가구주(노인)	노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56	1	여	73	가구주(장애인, 뇌병변2급)	단독장애인가구	기초보장 2달전탈수급
57	1	여	83	가구주(노인)	노인단독가구	노인기초노령 연금수급
58	2	남 여	37 33	가구주 배우자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59	2	남 여	71 62	가구주(노인) 배우자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60	2	남 여	69 64	가구주(노인) 배우자(장애인)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수급

72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가구 ID	가구 내 응답자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수
61	3	여 여 여	70 44 21	가구주의어머니(노인) 가구주의배우자 자녀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62	1	여	75	가구주의배우자 (노인, 장애인)	노인부부가구	기초보장 국가유공자, 노령연금수급
63	1	여	55	가구주의배우자	일반가구	기초보장 탈수급가구
64	2	남 여	73 63	가구주(노인, 장애인) 배우자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노령연금수급
65	2	남 여	72 71	가구주(노인) 배우자(여성)	노인부부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66	2	여 남	63 16	가구주(노인) 손자(청소년)	조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67	1	남	51	가구주	부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68	2	여 남	51 57	배우자(정신장애인) 가구주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장애인가구
69	1	여	74	가구주(노인)	노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70	2	남 여	74 71	가구주(노인, 지체장애4급) 배우자(노인)	노인부부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71	2	여 여	40 14	가구주 자녀(청소년)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72	3	여 남 남	39 9 9	가구주의배우자 자녀(쌍둥이) 자녀(쌍둥이)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73	1	여	57	가구주	단독가구(여성), 폭력경험있음	수급경험없음
74	1	여	73	가구주	노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75	1	여	50	가구주의자녀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76	2	여 여	36 11	가구주 자녀(아동)	모자가구	조건부수급가구

가구 ID	가구 내 응답자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수
77	1	여	46	가구주(장애)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장애인수당수급
78	1	남	81	가구주(노인)	일반가구	저소득 노령연금수급
79	1	여	66	가구주(노인)	노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80	1	남	59	가구주	단독가구 (알코올중독경험 있음)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국가유공자연금수급
81	2	남 여	38 38	가구주 배우자	일반가구, 신용회복개인 회생경험있음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82	2	남 여	76 76	가구주(노인) 배우자(노인,시력장애)	노인부부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83	1	여	65	가구주(노인)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84	1	여	77	가구주(노인)	노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85	2	여 남	77 77	배우자(노인) 가구주(노인,장애)	노인부부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노령연금수급
86	2	여 여	33 11	가구의배우자 자녀(아동)	일반가구, 세자녀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87	2	여 남	79 80	가구의배우자(노인) 가구주(노인,장애인)	노인부부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88	2	남 여	73 76	가구주(노인) 배우자(노인)	노인부부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89	2	여 남	65 70	배우자(노인) 가구주(노인)	노인부부가구, 1남3녀자녀	공무원연금으로생활 가구주는공공근로 경험있음
90	3	여 남 여	36 11 9	가구의배우자 자녀(아동) 자녀(아동)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91	2	남 여	68 64	가구주(노인) 배우자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공공근로경험있음

74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가구 ID	가구 내 응답자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수
92	2	남 여	53 50	가구주 배우자(장애인)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없음. 장애수당수급
93	1	여	82	가구주 (노인, 장애인)	노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94	2	남 여	73 68	가구주(노인) 배우자(노인)	일반가구, 막내아들과 거주	기초보장 수급탈수급가구
95	3	남 여 여	74 70 43	가구주(노인) 배우자(노인) 자녀(장애인)-대리응답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96	2	남 여	64 60	가구주 배우자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97	2	여 여	76 53	가구주(노인) 자녀(첫째, 장애인)	일반가구	기초보장 탈수급됨
98	3	여 여 남	39 15 12	가구주 자녀(청소년) 자녀(아동)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99	1	여	70	가구주(노인)	노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의료급여수급
100	1	여	75	가구주의배우자(노인)	노인부부가구	노령연금 군인연금수급
103	1 2 3	여 여 남	41 15 14	가구주의배우자(신용불량자) 자녀(청소년) 자녀(청소년)	일반가구	저소득 기초보장 수급경험없음
104	1 2	여 여	53 15	가구주 자녀(청소년)	모자가구	조건부수급 자폐증자녀1명있음
105	1	여	58	가구주	모자가구	23년수급대상. 단,5월에수급박탈
106	1	남	60	가구주(시각장애1급)	장애인,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107	1	여	60	가구주	모자가구	조건부수급
109	1 2 3	여 남 남	49 11 14	가구주의배우자 자녀(아동) 자녀(아동)	일반가구	조건부수급, 장애(남편,조울증)
110	1	남	57	가구주(장애)	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가구 ID	가구 내 응답자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111	1	남	57	가구주(시각장애3급)	장애인, 단독가구	저소득
112	1	남	49	가구주 배우자 자녀(둘째딸)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2	여	49			
	3	여	24			
113	1	남	54	가구주 배우자 자녀	일반가구 다문화가구	조건부수급 희망키움통장
	2	여	48			
	3	남	21			
114	1	여	61	가구주	모자가구	기초보장 탈수급가구
115	1	여	54	가구주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116	1	여	43	가구주	모자가구	기초보장 탈수급가구
117	1	여	44	가구주	모자가구	차상위가구 의료급여수급
118	1	남	57	가구주(장애)	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120	1	여	52	가구주 자녀(청소년)	모자가구	차상위가구 의료급여수급
	2	여	14			
121	1	여	50	가구주의배우자	일반가구	조건부수급가구 가정폭력
123	1	여	48	가구주 자녀(둘째) 자녀(첫째)	모자가구	기초보장탈락 신용불량
	2	여	12			
	3	여	15			
125	1	남	49	가구주 배우자 자녀(청소년, 정신지체3급)	일반가구 장애	조건부수급가구
	2	여	43			
	3	남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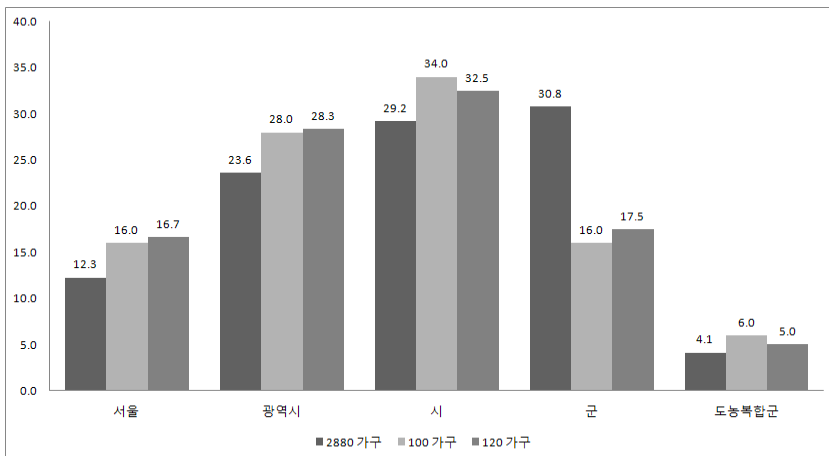
주: 가구ID (1~125) 중 위의 표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101, 108, 119, 122, 124이다. 이들은 2012년 추가 질적 조사대상 가구 표본추출에 포함되었던 가구로, 복지패널 지도원이 전화로 본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을 때에는 수락하였으나, 실제 조사원이 심층면접을 위해 예비 응답자들에게 전화 연락을 취했을 때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방문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가구이다. 이 다섯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2년에는 대체가구가 없었으므로, 해당 가구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표에서 제외하였다. 반면에, 2011년에는 표본설계 시 대체가구를 사전에 선정하였기 때문에 자료수집 과정에서 질적 조사 참여를 거부한 가구에 대해 새로운 가구로 대체할 수 있었으므로 1~100까지 ID를 부여하였다.

제2절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특성 분석

여기서는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구축한 저소득 질적 패널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1차 한국복지패널 기준 평균소득 60% 이하 가구 중 2012년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까지 표본을 유지하며 조사가 완료된 2,880가구와 2011년 제1차 질적 패널조사 표본 100가구, 2012년 제2차 질적 패널조사에서 추가된 20가구를 포함한 전체 표본 120가구의 특성별 분포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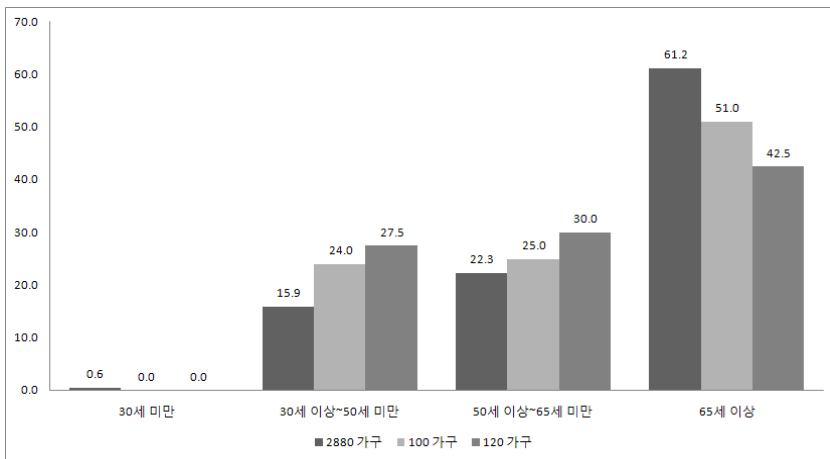
저소득층 질적 패널 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도농복합군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를 양적패널 가구(2,880가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시와 서울의 비중이 높았으며, 농어촌 지역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지역별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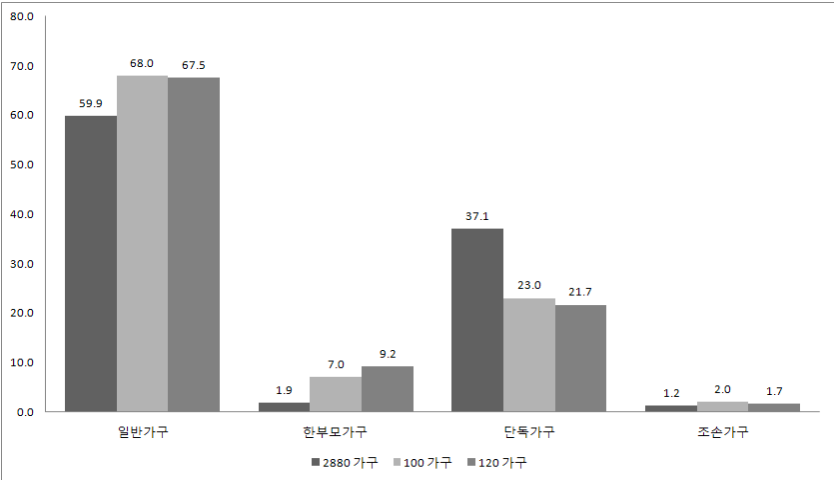
가구의 연령은 65세 이상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1년 제1차 질적 패널 가구 표본과 2012년 추가된 질적 패널 가구를 포함한 전체 표본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12년 제2차 질적 패널 표본가구에서 30세~65세 미만 가구의 비중이 다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추가 표본 추출 시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역동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적합한 가구를 추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2]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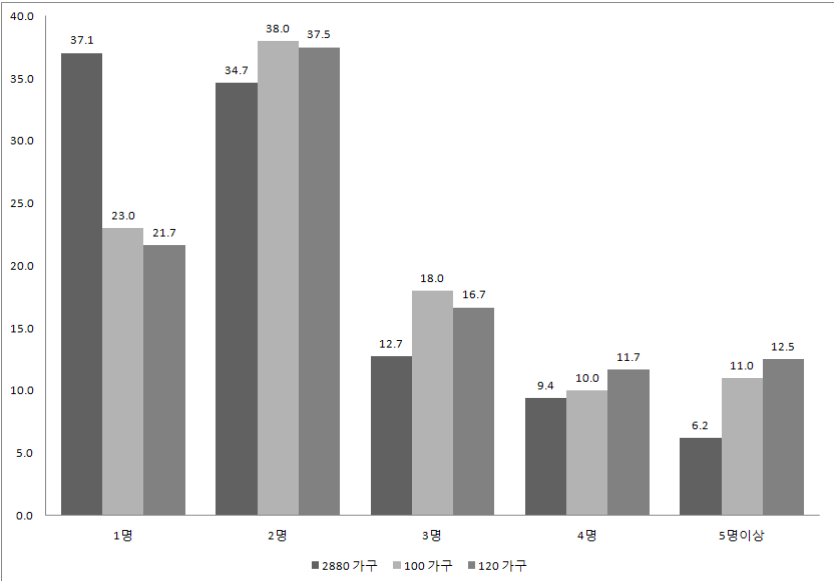


다음으로, 질적 패널 표본가구의 가구유형을 비교해보면 일반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단독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순서로 나타났다. 질적 표본가구에서 일반가구의 비중이 양적 패널가구(2,880가구)에 비해 보다 높게(약 8%p) 나타났으며, 이는 질적 패널조사 영역과 가구원별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단독가구보다 30~50대 가구주와 아동으로 구성된 일반가구를 상대적으로 많이 추출하였기 때문이다. 표본가구의 가구원수 분포를 살펴보면, 2인 가구가 3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1인 가구, 3인 가구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3-3]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유형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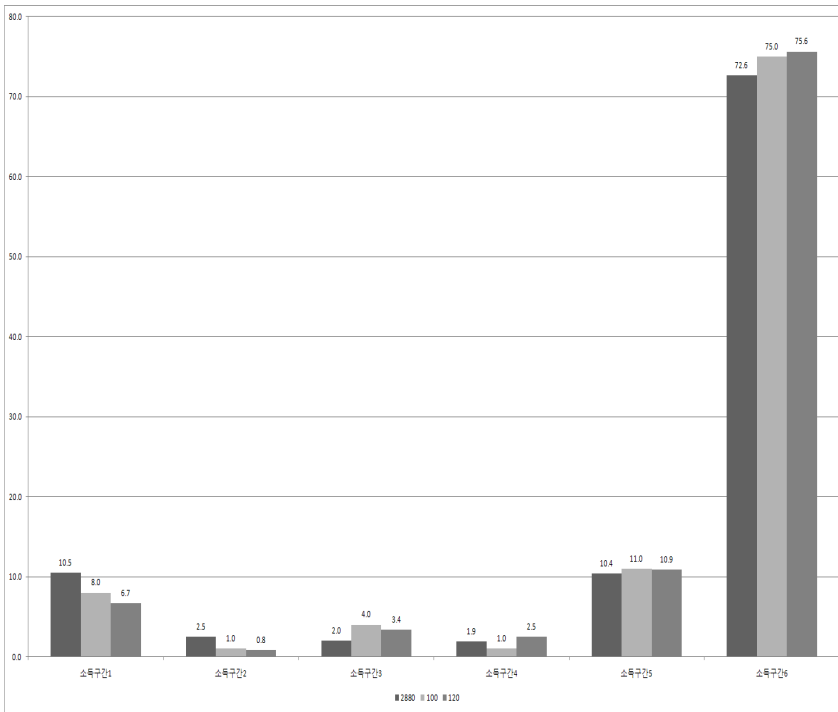


[그림 3-4]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원수 분포 비교



다음으로 질적 패널가구의 소득지위¹⁰⁾ 분포를 살펴보면, 질적 패널 표본가구에서 최저생계비 100% 이하면서 비수급가구 또는 수급가구의 비중이 양적 패널 가구(2,880가구)에 비해 약간 낮았다. 반면 그 이상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양적 패널 가구에 비해서 질적 패널 표본에서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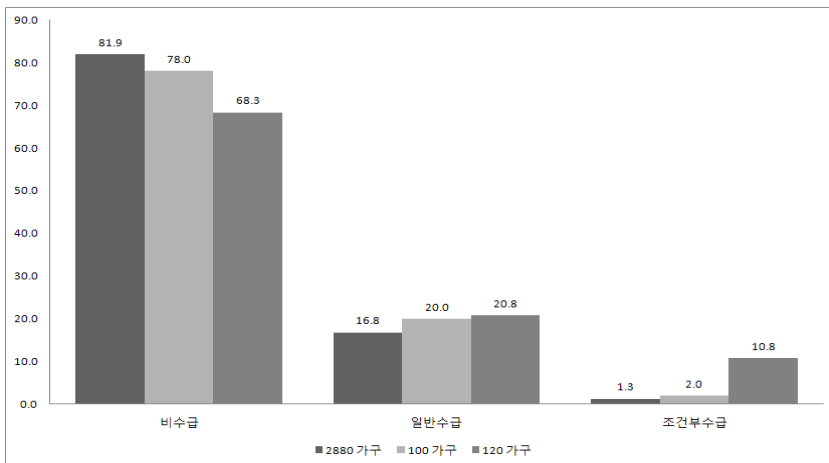
〔그림 3-5〕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소득지위 분포 비교



- 10) 소득구간1: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비수급가구
 소득구간2: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수급가구
 소득구간3: 최저생계비 100% 초과 ~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구간4: 최저생계비 120 %초과 ~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구간5: 중위소득 50% 초과 ~ 평균소득 60% 이하
 소득구간6: 평균소득 60%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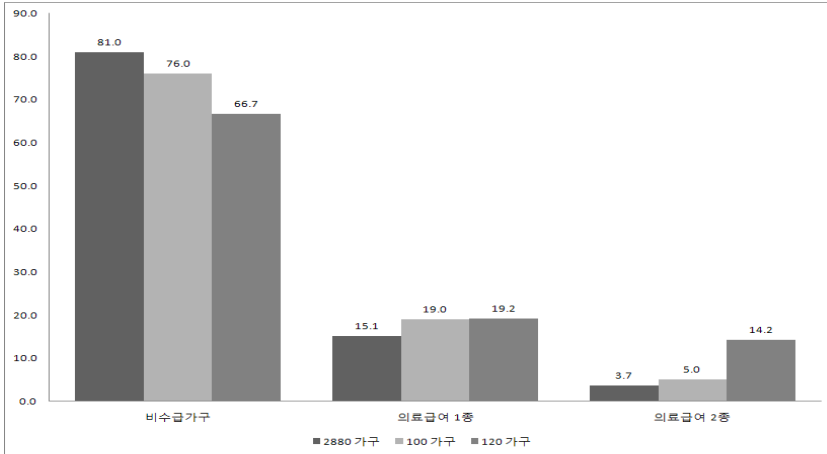
다음으로, 2012년 제2차 질적 패널 표본가구의 기초보장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양적패널 가구에 비해서 비수급가구의 비중이 낮았으며, 일반 수급가구는 20.8%, 조건부 수급가구는 10.8%로 나타났다. 특히, 조건부 수급가구의 경우 2011년 제1차 질적 패널 표본가구(100가구)에 비해서 약 9% 높아졌는데, 이것은 근로빈곤층의 빈곤 역동성 심층 분석을 위해 일반노동시장 참여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등을 표본에 추가 추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6]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기초보장 수급여부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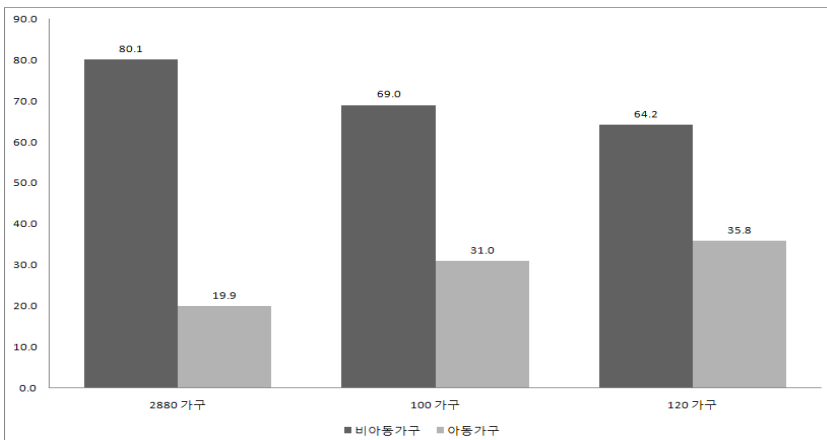
이러한 기초보장 수급여부와 유사하게 의료급여 수급여부 분포 역시 나타나고 있는데, 제1차 질적 패널 표본가구에 비해서 제2차 질적 패널 표본가구에서는 비수급가구의 비중이 더욱 낮아졌고, 근로능력자 중심의 의료급여 1종은 유사한 반면, 의료급여 2종의 경우 14.2%로 비수급가구 감소폭만큼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 빈곤층이 표본가구에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7]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의료급여 수급여부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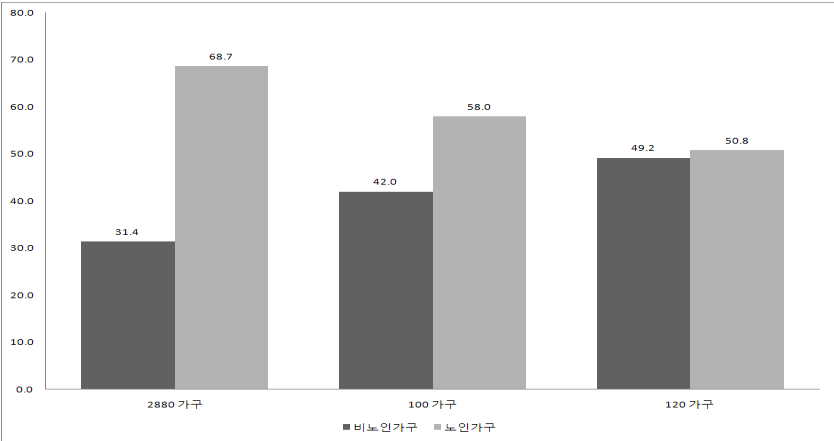


한편, 질적 패널 표본가구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가구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양적 패널과 비교할 경우 제2차 질적 패널 표본가구의 아동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장애인 가구원은 거의 유사한 반면, 노인 가구원은 큰 폭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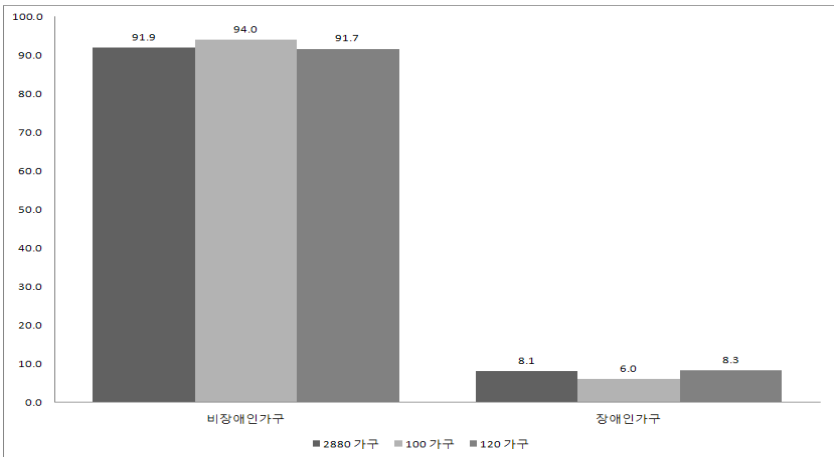
[그림 3-8]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아동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그림 3-9]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노인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그림 3-10]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장애인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이러한 비중을 2011년 1차 질적 패널 표본가구(100가구)와 비교하면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추가된 표본 20가구로 인해 아동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약 4.8%p,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2.3%p 높아진 반면,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약 7.2%p 감소하였다.

제4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자료수집과정

제1 절 질적 패널자료 수집과정

본 연구의 2011년 질적연구 조사 대상은 한국복지패널 제1차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6차년도까지 패널을 유지해온 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 질적패널 조사에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역별, 가구구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100가구를 추출하였다. 이 100가구에 대해 2011년 질적연구를 모두 조사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는 100가구 중 추가적인 심층면접 조사가 필요한 가구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변화된 가구를 추가적으로 추출하였다.

우선 심층면접 조사가 필요한 가구는 작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연구진이 해당 가구를 추출하였다. 심층면접이 필요한 사유로는 빈곤의 다차원적 경험, 탈수급 및 탈빈곤을 위한 노력, 탈수급의 장벽, 가족구성원의 변화(장애, 가출, 자녀취업 등)로 인한 수급과 탈락에 대한 경험, 자활 경험 등에 대해 심층 질문이 필요한 가구, 정신건강(우울, 자살경험 등으로 인한 문제, 알코올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문제, 우울증의 발병과정 및 대처, 이후 치료과정에 대한 심층 질문,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등에 대해 심층 질문이 필요한 가구), 장애인(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남성, 여성, 노인)에 대한 심층 질문이 필요한 가구이며, 100가구 중 17가구가 해당되었다.

또한 100가구 중 2011년 조사가 완료된 이후 가구에 변화가 된 가구도 추출하였다. 사유로는 가족원 가출, 신규가구원 진입, 결혼, 이혼 후 다시 합가 등 가구원 구성원 변동 사유, 남편사망 후 건강악화, 안구수술, 사고 후 척추 수술, 상해 및 화상으로 인한 입원, 대상포진으로 인한 입원 등 건강상의 사유, 취업 및 실업 등으로 인한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수급 및 탈수급, 건보경감대상자로 선정되어 탈락, 장애인 등급 상향 조정 등 사유, 그밖에 연봉감소, 자동차 구입, 주택 구입, 자녀의 국가장학금 수급혜택 등 사유 등으로 추가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100가구 중 총 11가구에 해당된다.

추가적으로 2012년에는 작년에 조사되지 않은 가구 중에서 25가구를 추가 샘플링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올해 조사가구를 새로 추가하게 된 목적은 일반노동시장 참여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등 다양한 근로빈곤층 포괄하여 역동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이에 부합되는 조건부수급자 가구 18가구와 가구주가 30~50대 사이이면서 가구주에 장애등급이 있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 4가구, 젊은 빈곤 가구주와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 3가구를 추가하였다.

이렇게 총 조사대상자는 작년 조사 대상 가구 중 변화된 가구 및 심층조사 필요 가구 28가구, 신규 표본가구 25가구로 총 53가구에 해당되었다. 이 중에서 작년에 조사 대상 가구 중 3가구는 작년에 조사에 응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2가구), 가구원 사망이후 근로시간이 많이 증가하여 시간이 없어서(1가구)의 사유로 거부하였다. 또한 신규 표본추출에 포함되었던 가구 중에서는 복지패널 지도원이 전화로 본 연구를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구두로 수락을 하였다가 조사원이 심층면접을 위해 예비 응답자에게 전화 연락을 취했을 때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방문이 성사되지 않은 가구가 5가구이었다. 이러한 사유로 2012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2차년도 조사는

총 45가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근로(구직/근로경험), 빈곤 및 탈수급 관련 역동성, 가족에 대한 인식, 배우자와의 부부관계, 부모-자녀간의 관계 등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생활만족도 및 행복 체감정도를 공통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 꿈과 희망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여성 가구원을 대상으로 성차별 경험, 가정폭력 등 조사, 노인에 대해서는 사회참여와 노화에 대한 인식,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는 장애로 인한 영향 및 주변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질적연구의 경험이 있거나 질적연구 관련 수업을 수강한 대학원생 12명과 연구진 2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작년에 질적연구 조사경험이 있는 조사원과 새롭게 참여하게 된 조사원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원 교육은 2012년 4월 20일(금)에 실시하고, 질적조사의 목적, 질적연구 대상자의 특성, 2011년 성과보고, 조사표 교육을 진행한 후에 심층면접 테크닉 논의 및 롤플레이를 통해 조사 면접 기술을 교육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23일(월)부터 2012년 6월 30일(토)까지 약 70일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는 녹음이 가능한 전용기기를 활용하여 녹음하고, 조사원들이 면접을 수행한 뒤에는 바로 녹음 파일을 업로드하고 녹취록 작성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은 한 가구 당 2회 방문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1회 방문 또는 3회까지도 방문을 하였으며, 1회 방문시 평균 2시간 내외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후, 녹취록 작업 및 요약본 작업은 2012년 7월 6일(금)까지 모두 완료되었다.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자료수집의 수준을 조율하며, 조사원들에게 면접에 대한 슈퍼비전을 주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면접조사 코디네이터를 별도로 배치한 상태에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원들의 1차 조사 이후, 송고하여 준 요약본을 검토한 후 2차 조사에서 심층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코멘트해 주었다. 둘째,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고충 등을 지지해주고 의문점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강구하였다. 셋째, 조사 착수 전 조사 가구에 대한 전년도 기록을 검토하고 조사가 실시되면서 상기된 역할에 착수하였다.

〈표 4-1〉 2012년 심층면접 조사 대상 가구 유형 및 조사소요 시간

ID	가구유형	1차 조사	소요 시간	2차 조사	소요 시간	3차 조사	소요 시간
7		05-19	2:00	06-19	1:00		
9		06-14	1:40	06-19	1:50		
12		06-22	2:00	06-28	0:35		
13	아동	06-15	2:30	06-16	0:30	06-29	1:40
21	아동, 청소년	06-13	2:35	06-18	3:00		
24	장애인, 아동, 청소년	06-07	2:35	06-17	1:20		
29	아동	06-16	2:00	06-30	0:45		
31		06-25	1:30	06-30	1:20		
32		06-22	2:40				
41		06-18	1:20	06-26	1:30		
53		06-15	1:50	06-29	1:00		
56		05-24	2:00	06-09	1:45		

ID	가구유형	1차 조사	소요 시간	2차 조사	소요 시간	3차 조사	소요 시간
60		06-05	1:25				
70		06-19	2:30	06-28	2:50		
71	아동	06-21	1:30	06-28	1:50		
73		06-26	2:30	06-27	2:00		
76	조건부, 아동	05-01	2:30	06-26	1:40		
77	장애인	06-02	1:10				
78		04-25	2:30	06-16	3:00		
79		05-10	2:30	05-31	1:05		
87		06-16	1:50	06-17	1:30		
92		06-06	1:50	06-09	2:20		
93		06-06	1:50	06-09	3:05		
98	아동, 청소년	06-28	1:05	06-30	1:00		
99		06-22	2:00	06-28	1:00		
102	아동	06-02	2:00	06-17	2:30		
103	아동	05-02	2:15	06-05	3:20		
104	조건부 수급가구	04-24	1:20	05-10	1:30		
105	조건부 수급가구	05-03	1:10	05-25	1:00		
106	장애인 가구	04-28	3:00	05-26	1:50		
107	조건부 수급가구	04-23	1:30	05-14	1:20		
109	조건부 수급가구	05-23	2:00	06-18	1:05		

ID	가구유형	1차 조사	소요 시간	2차 조사	소요 시간	3차 조사	소요 시간
110	장애인	05-11	1:30	06-15	1:10		
111	장애인	05-30	2:50	05-31	1:00		
112	조건부 수급가구	05-07	1:50	05-26	0:30		
113	조건부 수급가구	05-21	1:30	06-05	1:15		
114	조건부 수급가구	05-08	1:50	05-27	0:40		
115	조건부 수급가구	06-11	2:35	06-18	1:45		
116	조건부 수급가구	06-13	1:35	06-25	0:25		
117	조건부 수급가구	06-03	1:30	06-29	2:00		
118	장애인	05-09	1:30	06-13	1:10		
120	조건부 수급가구	06-10	2:00	06-23	1:45		
121	조건부 수급가구	06-10	1:30	06-23	2:00		
123	조건부 수급가구	05-30	2:30	06-27	3:00	06-28	1:55
125	조건부 수급가구	06-06	2:00	06-28	0:40		

한편, 2012년에는 작년에 완료된 녹취록과 올해 완료된 녹취록에 대한 코딩작업을 실시하였다. 녹취록의 자료는 Nvivo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코딩을 하기 위한 조사원 교육은 2012년 4월 9일(월)과 2012년 7월 17일(목)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4월에는 2011년 조사 녹취록에 대한 코딩작업을 실시하고, 7월에는 2012년 조사 녹취록에 대한 코딩작업을 실시하였다. 코딩요원은 총 21명으로 심층 면접조사에 참여하였던 조사원과 질적연구의 경험이 있거나 질적연구에

대한 수업을 수강한 대학원생, 연구진으로 구성되었다.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녹취록 및 요약본에서 패널 가구의 개인적인 정보보호를 위해 실명, 거주지역, 근무지 이름 등 응답자 보호를 위해서 가려야 하는 부분을 기호화로 처리하였으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국어적인 오타를 교정을 한 후에 코딩을 실시하였다. 단, 일반적으로 응답자의 사투리, 은어 등은 교정을 하지 않고 응답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옮겨 두었다. 전체적인 녹취파일 교정을 완료한 후, 2011년 녹취록자료에 대해서는 요약본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요약본에는 가구 아이디, 심층면접 조사일시,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과 가구형태 및 기초보장 수급여부 등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코딩요원들은 Nvivo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원에서 제시한 질적패널 코드표를 기본으로 하여 녹취록에 대해 코딩을 실시하였다. 코딩은 2012년 5월 31일(목)까지 2011년 녹취록에 대한 코딩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녹취록에 대한 코딩은 2012년 8월 10일(금)까지 완료하였다. 코딩을 하는 동안 연구진과 수시로 연락을 하여 코딩 결과와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진행하였으며, 최종 2012년 8월 16일(목)에 모든 녹취록에 대한 코딩이 완료되었다.

제2절 질적 패널자료 수집

구조적인 측면에서 2012년도 조사표는 크게 세션1과 세션2로 나뉘어져 있다. 세션1에서는 도입질문으로서의 ‘근황’과 일반적인 생활 전체의 만족도를 알 수 있는 ‘생활만족’, 응답자의 경제적 상황과 근로경험에 대한 ‘경제’부분을 다루었다. 세션2는 가족 내 관계에 대한 ‘가족관계’와 응답자의 생활전반에 대한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생활영역’, 그리고

가구구성원이 지니는 특성에 따라 질문할 수 있는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2년 조사표를 구성하는 질문들은 2011년의 것과 비교하여 일부 추가, 삭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11년에 행해졌던 조사를 토대로, 보다 나은 양질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다. 아래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간에 발생한 변화를 중심으로 변화의 내용과 그 변화가 있기까지 영향을 미쳤던 1차 조사의 데이터 예시를 서술한 내용이다.

1. 생활만족

가. 구조적 변화

2012년 조사에서 도입부에 해당하는 ‘생활만족’은 기존 조사표에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정신건강’ 범주 내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에 해당하던 질문들을 단독 범주로 구성한 것이다. 행복의 정도에 대한 내용이나 행복의 요소에 관한 내용은 전반적인 삶의 환경과 관련이 있다.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와 같은 포괄적인 질문으로 인터뷰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질문의 변경 및 추가

그 가운데 2011년 1차 조사에서 유의미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던 “지금보다 더 행복한 상태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와 그 관계된 질문들에는 변화를 주었다.

예시1

조사원: 지금보다 더 행복한 상태로 변화길 원하시죠?

응답자1: 당연하죠

예시2

조사원: 그러면은 경제적인 생활상태가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변화되길 원하세요?

응답자2: 그렇죠

조사원: 왜 그렇게?

응답자2: 아... 그러면 좋잖아요 변화되면

위와 같이 ‘원하다’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한 질문 내지 ‘예/아니오’로 귀결되는 닫힌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조사원조차 그에 대한 대답이 긍정인 것으로 예상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2012년도 조사에서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와 같은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경험적인 질문을 추가하였다.

2. 경제

가. 구조적 변화

2011년 조사에서는 ‘빈곤, 탈수급 관련 역학적 특성’을 ‘빈곤의 경험’과 ‘빈곤에 대한 대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빈곤에 대한 인식/비전/제도개선’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진행하였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빈곤의 경험’과 ‘빈곤에 대한 대응’을 빈곤으로 묶어 두 단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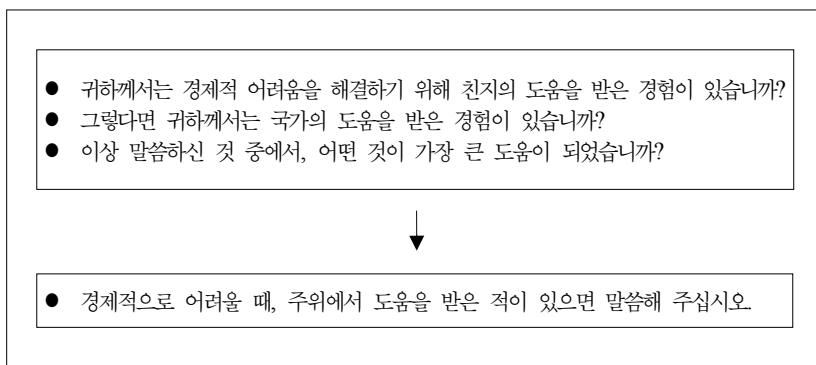
간소화하였다.

전년도 조사의 경우에는 경제적 상황을 과거-현재-미래로 나누어 물어본 뒤 그에 대한 대응 및 도움을 묻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대한 경험과 빈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2년 조사에서는 현재와 과거를 경험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미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질문은 탈수급 관련 범주로 넘김으로써 질적 조사 흐름의 유동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빈부에 대한 인식 내지 부의 이동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었다.

나. 질문의 변경 및 추가

응답자의 빈곤에 대한 대응을 알아보기 위해 제시되었던 친지의 도움, 국가의 도움 그리고 도움들 가운데 가장 크게 느껴진 도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들은 2012년 조사에서 하나의 질문으로 통합되었다.

[그림 4-1] 경제적 도움 관련 질문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2011년 조사에서는 면접 질문이 응답자의 경험을 위주로 대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에도, 본인의 경험이 아닌 일반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많았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2012년도 조사에서는 응답자들로 하여금 탈수급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을 별도로 추가하였고, 기존에 수급 관련 질문에 하위질문으로 있었던 ‘다른 사람의 수급에 대한 경험’을 묻는 질문은 삭제하였다.

미래와 관련하여 ‘5년 뒤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 대부분은 일률적인 답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크게 유의미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으며 주로 추상적으로 크게 변화할 것 같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이었다. 이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5년 뒤 모습을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질문을 추가하였다.

예시3

조사자: 앞으로 5년 뒤에, 5년 뒤에 우리 선생님 모습은 어떠한 것 사
람……: 어떠한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5년 후에

응답자2: 5년 후에……: 내가 죽을 거냐 살 거냐 묻지……: 하하하

조사자 : 하하하하

응답자2: 아 한치 앞도 모르는데 5년 후엘 어떻게 알아요 5년 뒤에를 어
떻게 알아요

조사자: 음……: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응답자2: 죽지 않고 살면은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요, 인제

3. 근로 및 고용지원프로그램

가. 구조적 변화

2011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근로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실직의 경험과 고용프로그램참여 경험을 다루었다. 그러나 1차 조사가 있는 이후 근로와 관련한 응답자의 답변이 보다 다양하게 표현되었다는 결과에 따라 구조를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하였다. 근로경험과 관련하여 질문의 내용이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에서 현재와 미래의 구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나. 질문의 추가

근로와 관련한 응답자의 경험을 묻는 질문들이 2011년의 조사에서 다소 한정된 맥락에 있었다면 2012년 조사에서 그 맥락을 보다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다. 기존 조사에서 근로관련 질문들은 실직경험이 있는 경우와 실직경험이 없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어 다양한 응답자의 경험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경험의 기준을 실직의 여부로 나누는 것에서 과거/현재/미래로 나누어 질문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하위질문으로 있었던 현재의 근로경험에 대한 질문과 구직과 관련된 질문들이 주요질문으로 추가되었다.

4. 가족관계

가. 구조적 변화

2011년 조사표에서는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들을 각각 배우자와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들과 함께 두었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각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기 이전으로 배치하였다. 한편 가족관계 범주 내에서 도입부에 해당되었던 ‘가족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질문들은 가족관계 질문들을 정리하는 후반부에 배치하였다.

나. 질문의 변경 및 추가

응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2011년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만족/불만족의 여부, 만족/불만족의 요소, 만족을 위해 필요한 노력, 만족을 위해 바라는 점, 갈등원인 등으로 나누어 탐색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만족이나 불만족과 같은 감정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된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유사하게 반복되는 질문에 비슷한 내용의 답변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반복되는 응답과 단답식 응답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열린 질문은 남겨두고 부부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반복답변이 나올 수 있는 세부적인 질문들은 간결하게 하여 관계개선의 계기를 묻는 질문과 관계가 악화된 계기를 묻는 질문으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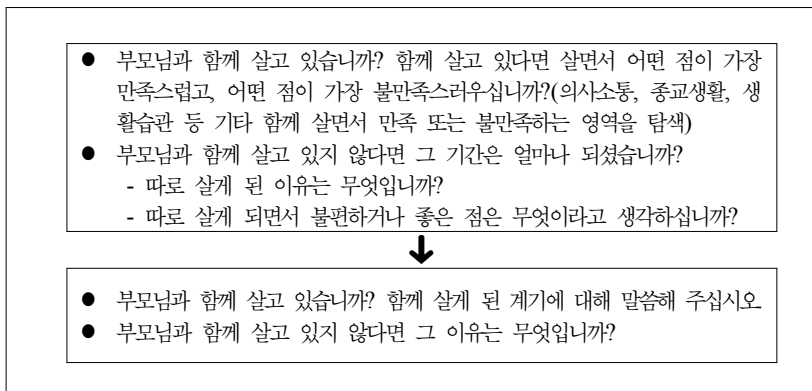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 가운데 폭력의 영향을 묻는 질문의 경우 무의미한 답변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와 관계된 대부분의 유의미한 답변들이 폭력으로 갈등에 대처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2012년도 조사에서는 들어가지 않았다. 또한 가족의 범주를 묻는 질문과 가족모임에 관한 질문은 유의미한 답변 없이 짧은 답변으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어 이 또한 2012년에서 제외되었다.

2011년 조사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질문 가운데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관련한 질문들은 주로 동거 또는 비동거의 만족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2012년 조사에서는 이 질문들은 보다 경험적인 관점으로 변경되었다.

부모와의 동거/비동거와 관련한 질문들이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편, 과거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부모와의 동거여부질문의 하위질문에 해당했던 ‘부모님과의 관계 변화’는 2012년도 조사에서 보다 세분화되었다. 시간적 변화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 변화를 묻는 데(“어린시절을 회고해 볼 때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에서 나아가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질문(“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쉽거나 후회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을 추가하였다.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보다 포괄적인 질문인 부모님이 본인에게 있어서의 존재의 의미를 묻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그림 4-2] 부모와의 관계 질문 변경



2012년 조사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들은 2011년 1차 조사에 비해 주로 통합되거나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었다. 특히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관한 질문이다. 자녀와의 관계 자체의 질적인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던 만족/불만족의 여부 요인,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묻는 질문들은 응답자로 하여금 같은 이슈가 반복되도록 하는 경향을 보였기에 하나의 질문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관계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해 자녀에게 바라는 점,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큰 기대를 묻는 질문들도 응답자의 답변이 반복되는 경향 내지 하나의 질문만으로도 충분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경향을 보였기에 마지막 질문으로 통합하였다.

1차 조사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갈등을 해결하는 자신만의 방법, 폭력적인 해결방법, 폭력의 영향 등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던 것을 2012년에는 갈등발생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축약하였다. 전자 두 질문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답변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후자 두 질문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답변이 크게 보이지 않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으로 통합되었다.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전반적인 탐색을 요구하는 질문이었던 부모의 역할에 대한 질문과 자녀들 간의 편중된 관계에 대한 질문은 자녀의 존재 의의를 묻는 질문으로 통합되었다.

5. 생활영역 — 새로운 범주의 추가

기존에 있었던 정신건강과 함께 2011년 조사표에서 없었던 신체적 건강, 주거, 교육, 문화에 대한 질문들을 묶어 생활영역 범주를 추가하였다. 신체적 건강이 추가된 것은 1차 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신체적 건강

또한 정신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라는 점, 그래서 조사표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음에도 상당히 유의미한 내용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1차 조사가 진행되면서 주거, 교육, 문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응답자로부터 나왔으면 그 조사내용이 의미있는 연구로 발전될 상당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2012년 조사에서는 생활영역의 범주들로 추가되었다.

6.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

가. 구조상 변화

2012년 조사에서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에 포함된 영역들은 여성, 아동/청소년, 청소년, 노인, 장애인으로 기존조사에서는 각각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던 분야이다. 이 범주들은 응답자인 가구원이 인구학적 특성상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관성에 따라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였다.

나. 질문의 변경 및 추가

먼저 여성관련 조사표에서는 성차별에 대한 질문과 저출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조사표에서는 여성이 겪는 불평등에 대하여 이를 결혼생활에서 겪는 불평등과 직장 내에서 겪는 불평등으로 나누어 질문을 하면서 의식주나 성생활, 언어생활, 여가취미생활, 종교생활과 같이 전반적인 생활의 영역과 관련된 불평등을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질문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나타난 바로는 위와 같이 생활영역

과 관련한 불평등 경험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영역 관련 불평등 질문을 하위질문에서 주요 질문으로 끌어올렸다.

한편 여성응답자들에게 국한된 ‘국가 저출산정책 인식’에 대한 질문은 크게 유의미한 답변이 도출되지 못한 이유로 2012년 조사에서는 제외되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표의 경우 주로 질문들이 추가되기 보다는 1차 조사에서 응답자로부터 같은 답변이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들을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다. 2011년 조사표에서는 ‘미래의 꿈’과 ‘부모님의 기대’와 관련된 질문들이 세 개씩 들어있어 응답자의 답변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기에 이를 각각 하나로 줄여,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와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은 ○○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로 바꾸었다.

마지막으로 노인과 관련한 조사표는 크게 변화가 있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질문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다른 범주와 중복되는 질문이나 1차 조사에서 중복된 답변이 나오는 질문들에 변화가 있었다. 정신건강에 관한 질문의 경우 생활영역에서의 정신건강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구성원별 질문에서는 제외되었다. 또한 사회에서의 노인에 대한 대우를 묻는 질문과 노인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의 경우 비슷한 답변이 나오거나 동일한 답변이 반복해서 나오거나 조사자가 질문을 하면서부터 대우와 인식을 동일선상에서 질문하는 현상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2012년 조사에서는 하나의 질문으로 합쳐져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대우나 인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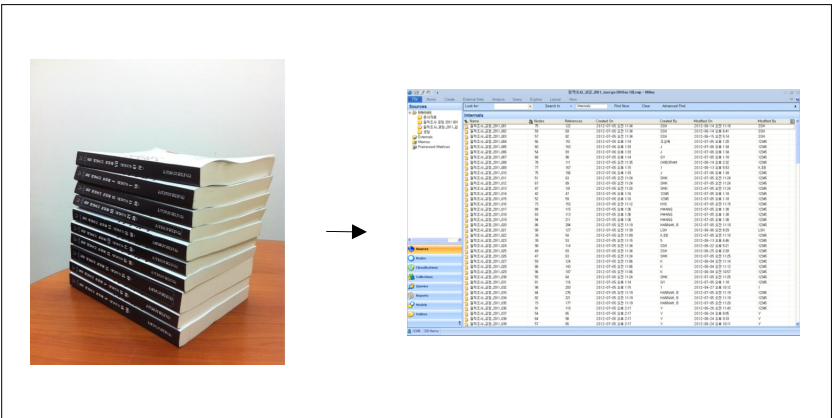
제3절 질적 패널자료의 구축

1.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

가. 효율적 자료 관리의 필요성 -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자료관리

2011년 질적 패널 조사는 100가구에 대한 각각 2시간 정도 인터뷰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방대한 양의 자료가 생성되었다. 다른 질적연구와 다르게 질적패널 연구의 경우 매해 정기적으로 자료가 생성되기 때문에 축적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단순 관리뿐만 아니라 패널자료로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2차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한 측면의 관리까지 고려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연구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자료를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림 4-3] 효율적 자료관리의 필요성



나. Nvivo를 이용한 질적데이터 구축

질적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는 NUD·IST, ATLAS.ti, Nvivo가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본 질적패널 연구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Nvivo이다. 질적패널 데이터와 같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rich data)의 경우¹¹⁾ 연구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코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한다. rich data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단순코딩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임시로 주제를 설정하고 탐색하면서 데이터로부터 카테고리를 구조화하고 묶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포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Richards, 1999). 또한 질적연구를 소프트웨어로 관리 및 활용할 때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가공을 해야 하는데(형광펜, 잘라내기 및 붙여넣기 등),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진은 다양한 층위로 연구가 가능하고 데이터의 다양한 가공이 가능한 Nvivo를 이용해 질적패널데이터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11) Lyn Richards에 따르면 "Rich Data"는 네 가지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첫째, 데이터의 내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로 독자들로 하여금 강한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진실된 내용과 thick description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요건은 '복잡성'과 '유동성'으로, 이 두 가지의 요건이 있음으로 각각의 데이터아이템들이 많은 의미와 주제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의 두 가지 요건이 데이터의 richness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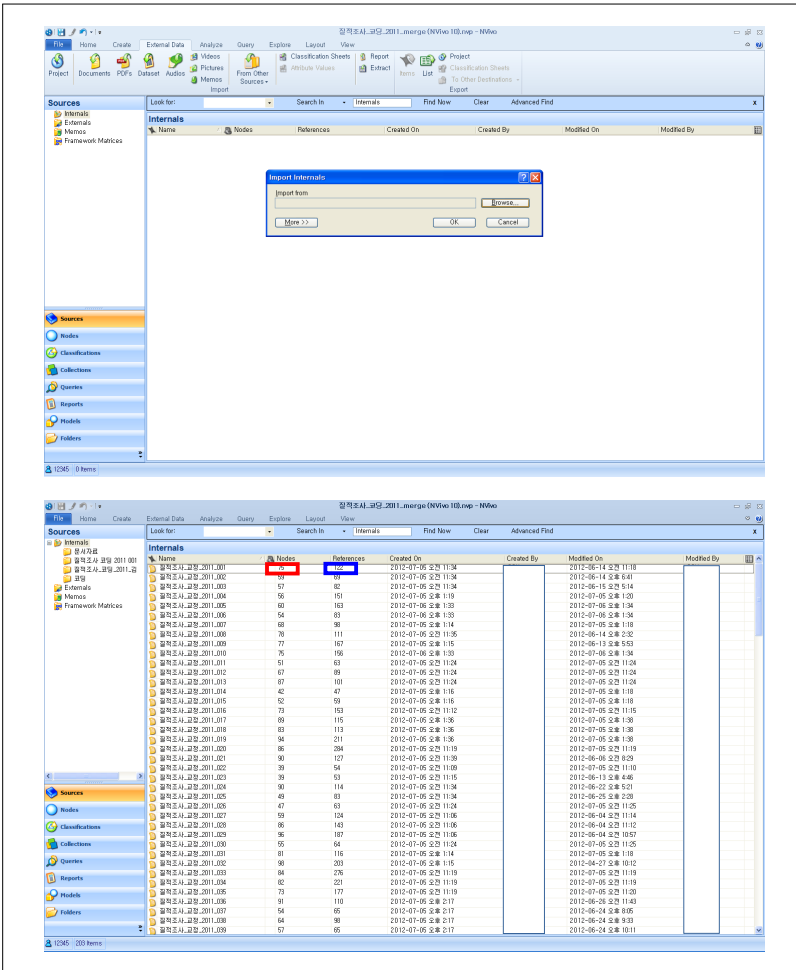
2.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한 코딩과정

Nvivo에서 질적연구의 가장 주된 작업인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프로젝트에 불러들여야 한다. Nvivo에서 한글 프로그램 확장자인 파일은 불러들일 수 없고 워드파일 또는 텍스트파일로 변환하여 불러들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불러들이게 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빨간 네모(nodes)로 표시된 숫자는 해당 데이터에 코딩된 노드의 숫자이고, 파란 네모(references)의 숫자는 데이터를 코딩한 숫자이다(그림 4-4 참조).

Nvivo에서 노드는 미리 생성할 수도 있고 코딩을 하면서 필요한 때에 따라 생성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코딩 전에 기본적인 노드는 조사표를 바탕을 체계를 정하여 생성하였고 코딩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또는 그 내용이 연구에 있어서 유의미한 경우 새롭게 노드를 생성하였다. 또한 Nvivo상에서 다양한 층위로 노드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표의 체계에 따라 상위노드와 하위노드를 생성하였고, 새롭게 생성된 노드는 별도의 체계 없이 일괄적으로 배열하였다(그림 4-5 참조).

[그림 4-4] 데이터 불러들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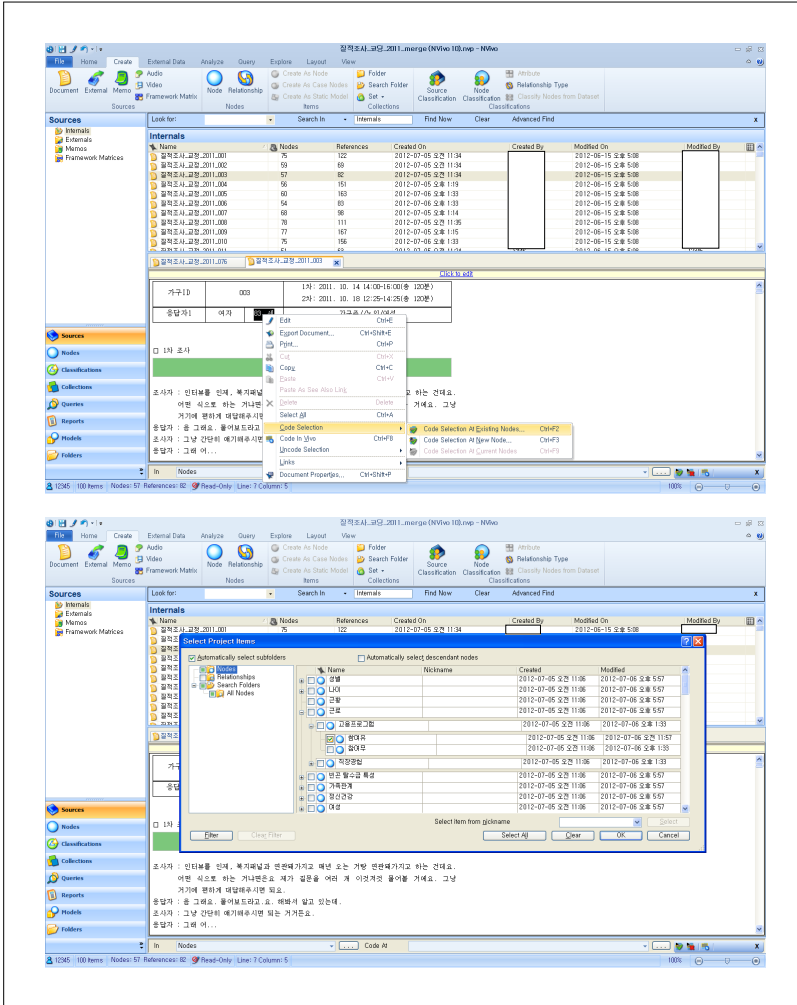
[그림 4-5] 노드 생성

Name	Sources	References	Created On	Created By	Modified On	Modified By
빈곤층	3	6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5:57	
빈곤층에 대한 인식	5	6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5:57	
빈곤층에 대한 태도	14	27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5:57	
빈곤층에 대한 정책	3	9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5:57	
빈곤층에 대한 지원	3	38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전 7:46	
빈곤층에 대한 연구	95	229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1:30	
빈곤층에 대한 교육	76	165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1:30	
빈곤층에 대한 상담	67	112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1:30	
빈곤층에 대한 치료	99	234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1:30	
빈곤층에 대한 재활	97	139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1:30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귀	90	113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1:30	
빈곤층에 대한 사회통합	5	20	2012-07-05 오전 11:06		2012-07-15 오전 7:53	
빈곤층에 대한 사회참여	81	113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1:30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	189	183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1:30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91	163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1:30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필요성	82	186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1:30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효과	46	50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12:37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장애요인	27	47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12:37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59	93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1:30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9	19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2:12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발전 방향	7	11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2:12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필요성	20	54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1:02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효과	9	16	2012-07-05 오전 11:06		2012-07-15 오전 7:59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장애요인	9	11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전 11:59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10	17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12:37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96	129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1:30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발전 방향	96	126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1:30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필요성	90	106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1:30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효과	9	13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5:57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장애요인	8	10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5:59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90	119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5:59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96	123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5:59	
빈곤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발전 방향	29	64	2012-07-05 오전 11:06		2012-07-05 오후 5:59	

데이터에 코딩하려면 우선 데이터를 클릭하여 창을 연 다음, 코딩을 하고자 하는 영역을 드래그,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여 ‘code selection’에서 노드를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조사표를 토대로 노드를 생성한 뒤 코딩을 진행했기 때문에 주로 ‘coding selection at existing nodes’를 사용하였다.

Nvivo에서의 코딩은 하나의 노드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노드로도 가능하다. 여러 층위의 노드라 하더라도 하위노드와 상위노드는 개별적으로 코딩이 되기 때문에 상위노드까지 코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노드와 상위노드 모두 체크를 한 뒤 코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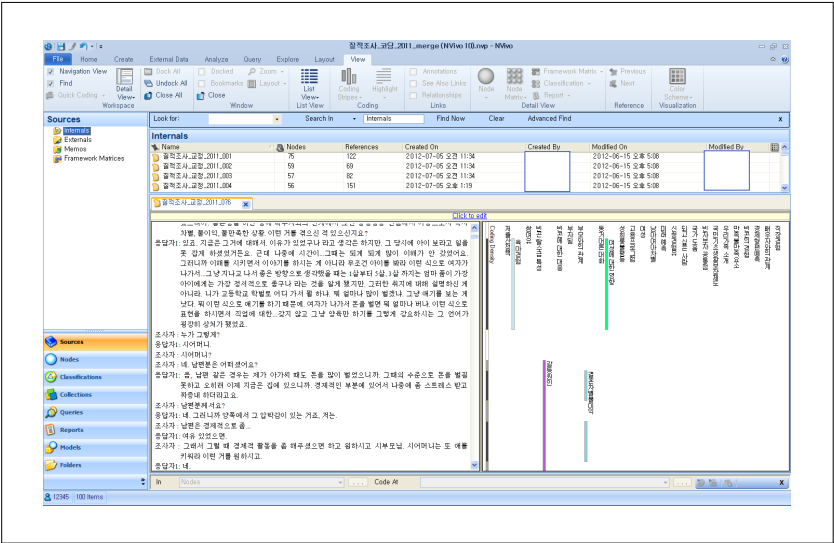
[그림 4-6] 코딩하기



데이터에 코딩을 하더라도 그 상태로는 코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코딩여부를 확인하면서 코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코딩작업은 ‘view—coding stripes’를 통해 코딩결과를 함께 보면서 진행되었다. coding stripes는 선택된 노드, 가장 많이 코딩된 노드, 가장 적게 코딩

된 노트, 가장 최근에 선택된 노트 등이며 한 번에 볼 수 있는 노트의 수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림 4-7] 코딩결과 확인하기



제4절 질적 패널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조사된 45가구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구축된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 보고서와 2011년 1차년도 질적패널 자료와 2012년 2차년도 질적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각 연구진별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녹취록에 대한 개방형 코딩방식으로 코딩요원들이 1차적으로 분류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연구진들이 조사영역별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담은 단어, 어구, 어절, 문장, 문단 등을 파

악하였고 이를 의미 단위의 형태로 전환하였다. 의미 단위를 파악한 이후 연구진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위들을 묶어 하위범주를 구성한 뒤 이러한 의미 단위를 포괄하는 이름을 붙이고, 다시 유사한 의미를 가진 하위범주들을 묶어 상위범주로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연구영역별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의미 단위들이 구성되어 이를 기초분석의 결과로 제시하였다.

심층분석에서는 각 연구진이 탈빈곤, 행복, 아동, 장애인가구, 노인, 정신건강에 대한 각 주제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심층분석 자료는 2011년 1차년도 질적패널 자료와 2012년 2차년도 질적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7장부터 12장까지 제시하였다.

제5절 질적 패널조사 수행 및 자료 활용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고려한 것은 윤리적 이슈들이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윤리적 이슈들로는 연구에 대해 밝히기/숙이기, 고지된 동의, 자발적인 참여, 연구 참여로 인한 피해,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비밀보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조사와 연계되어 진행됨에 따라, 기존 패널조사 대상 가구 중에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질적 패널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연구과정에 대해 밝히게 되었다. 또한, 표본으로 추출된 질적 패널가구(연구 참여가구)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질적 조사 및 본 연구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한 뒤에 질적 패널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 한해 동

의서를 받고 심층 면접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와 고지된 동의와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참여할 경우에 대한 보상과 균형을 맞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가구들은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통해 이미 일정 기간 동안 조사 참여에 따른 보상체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있어 보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특히 논의가 필요한 윤리적 이슈로는 연구 참여로 인한 피해와 비밀보장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한 질적 패널가구들은 모두 불과 몇 개월 전에 한국복지패널 양적조사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질문을 다시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연구 참여가구들이 면접 과정 중에 피로감이나 거부 반응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외는 달리 한국복지패널 조사 설문지의 경우 분량 자체도 많지만 조사 범위도 방대하고 구체적이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질문들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받는다느 느낌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실제로도 이로 인한 부정적 반응은 적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비밀보장 이슈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연구 참여가구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본 연구는 패널연구로서 자료를 축적해야 하고 연구공동체에 원자료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질적 연구들에 비해서도 비밀보장을 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원자료에서 연구 참여가구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거하였으며, 개별 녹취록이 아닌 가공된 자료를 공개하기로 하였고, 연구보고서에서는 더 나아가서 범주화 결과만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가구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제5장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 과정 평가: 심층면접 인터뷰어의 경험을 중심으로

제1 절 연구 배경

사회과학 연구에서 인터뷰어의 특성이 응답자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응답자들은 인터뷰어의 정치적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Lipps & Lutz, 2010) 인터뷰어의 연구 진행 속도에 따라 자료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며(Fowler & Mangione, 1990; Olson & Peytchev, 2007) 남성 인터뷰어와 여성 인터뷰어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때 인터뷰어와 응답자간 대화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Matteson & Lincoln, 2009).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패널의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조사자와 응답자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연구 참여 협조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신선옥, 2008).

특히 심층면접의 경우, 인터뷰어와 응답자의 관계는 파트너십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원활한 면접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는 연구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두 대상이 함께, 즉 공동으로 작업하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Weiss, 1994). 그리고 이러한 심층 면접을 주된 연구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인터뷰어와 응답자간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자료의 깊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둘 간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응답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음 편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그렇지 못한 관계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경험이나 심층적인 의미들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상담이나 사회복지개입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보다 친밀하고 허용적인 분위기의 형성이 내담자의 자기 개방 수준을 높이고 신뢰관계(rapport)를 형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해석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에서는 인터뷰어가 적절한 수준에서 자신의 경험 또는 감정, 의사 등을 표현하거나 ‘연구대상과의 결합’(Padgett, 1998)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뷰어 자체나 인터뷰어의 경험, 인터뷰어의 감정과 의사, 인터뷰어와 응답자와의 관계 등은 때때로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학에서 시행하는 몇몇의 연구들은 개인·사회·경제적으로 민감한 사안, 예컨대 범죄, 빈곤, 성경험, 이혼, 가족 간 갈등 등을 다루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사항들은 타인에게 쉽게 터놓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터뷰어의 인터뷰 능력이 조사의 결과와 질을 결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보다 나은 인터뷰를 위해 인터뷰를 시행하기 전 인터뷰어는 필요한 기술이나 전략 등을 익히고 인터뷰 초기에는 응답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게 되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응답자가 편안하게 응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응답자와의 거리를 조절하거나 유도하는 듯 한 질문을 피하는 등 조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이 인터뷰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본 연구와 같이 여러 명의 인터뷰어가 인터뷰를 하는 연구나 연구진과 인터뷰어가 분리된 경우, 인터뷰어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경험 등이 연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간과되며 조사해 온 결과의 질을 검증하는 데에만 중점을 둔다는 점

다. 즉 이렇게 조사된 인터뷰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의도가 연구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 검토나 동료 검토, 삼각화 등을 통해 연구의 질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윤리적 고려는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이를 숙지하고 엄격하게 지키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연구의 엄격성과 연구의 질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 자체에 대한 방법론적인 숙고나 고찰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인터뷰의 과정 자체보다 그 결과에만 치중함으로써 균형을 잃을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처럼 여러 명의 인터뷰어들이 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인터뷰를 직접 실시했던 인터뷰어들의 경험을 돌아보고 이들을 통해 차기 연구를 위한 제안과 개선 방안을 도출, 연구에 반영하여 연구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년 유사한 시행착오를 경험할 가능성을 줄이고 인터뷰어 간 편차를 줄여 보다 일관성 있는 인터뷰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뷰를 직접 담당했던 인터뷰어들의 개인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심층 면접을 담당했던 인터뷰어의 경험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의 과정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목표의 달성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질적 연구에 참여한 인터뷰어들의 목소리를 들어봄으로써 이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알아본다. 둘째, 인터뷰어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연구에 보완할 점을 탐색하는 과정평가를 수행한다. 셋째, 데이터 생성과정에 참여하는 조사자의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연구방법론에서 간과하기 쉬운 조사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연구 방법への 접근

다수의 양적 면접원을 고용하여 조사 연구를 수행한 Wassink와 동료들에 의하면 면접을 수행한 인터뷰어가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하였다(Wassink, Chapman & Levy-Milne, 2004). 즉 면접원의 경험을 살펴보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경향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질적 연구 자료 수집에 참가한 인터뷰어의 현장 경험과 이들이 제안한 연구 집행상의 개선점을 분석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전 소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뷰어의 전문적 기술과 풍부한 경험은 양질의 질적 데이터 수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어떤 인터뷰어가 심층면접을 수행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면접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직접 면접을 진행하는 방법과 훈련받은 연구 인력을 사용하여 면접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나누기도 하고 면접참여자의 수에 따라 1인이 다수의 면접을 진행할 것인지 혹은 다수가 다수의 면접을 진행할 것인지를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면접 수행 방법들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의 특성과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Rosenblatt(2012)는 인터뷰어마다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편안하게 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지의 그 정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이 때 특정한 주제란 자녀 사망, 결혼 생활의 불화, 가족 내 불신, 경제적 어려움 등 응답자에게 민감한 사항들을 지칭한다. 그는 단독 및 다수의 인터뷰어를 고용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본 결과, 다수의 인터뷰어가 진행한 연구는 인터뷰어간의 편차가 크므로 한명의 인터뷰어가 모든 심층면접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반면 Boutain과 동료들(2006)은

점점 더 많은 질적 연구가 여러 명의 인터뷰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명의 인터뷰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전문 배우를 고용하고 이들이 면접 대본을 완전히 외운 후 다양한 형태의 상황을 연출하도록 하는 기법(standardized interview)을 사용하였다. 한편 Salazar(1990)은 그의 연구에서 학생을 고용하여 면접을 수행할 때의 장단점을 설명하였다.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여 자료 수집을 하면 비용 절감과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험이 부족하여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하고 면접기술이 숙련 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Birch와 Miller(2000)는 그들의 연구에서 인터뷰어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응답자에게 상담과 치료와 같은 도움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기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사회복지학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인터뷰어는 응답자의 삶에 관여하게 되고 이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접하게 된다. 이 때 인터뷰어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인터뷰를 지속할지 윤리적인 면과 연구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응답자가 연구 범위 밖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는 연구 설계 및 집행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넓은 지역에 걸쳐 많은 양의 조사를 짧은 시간에 수행한다. 이에 연구자들은 한명의 인터뷰어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인터뷰어를 섭외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게 된다. 이는 다른 국내 패널 조사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형태로, 연구 내용과 학위 경험이 유사한 인터뷰어를 섭외한 후 사전 교육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인터뷰에 파견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질문은 빈곤 경험, 탈빈곤 경험 및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형태에 관한 것이므로 사회

복지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들을 인터뷰어로 모집하였다. 또한 인터뷰어 교육 전, 이들이 탐색할 질문을 반구조화된 지침서로 만들어 교육 시 어떤 영역에서 보다 깊이 있는 진행을 해야 할 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모든 인터뷰어가 담당 심층 면접을 종료한 시점에서 연구의 집행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전 소절에서 기술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들을 초점집단으로 구성하여 과정 평가(process evaluation)를 수행하였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연구 절차를 질적인 방법으로 과정 평가를 하면 연구자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집행상의 문제들이 발견될 수도 있고(Posavac & Carey, 2003)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오고 갔는지 알아보는 실질적인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Wassink, Chapman & Levy-Milne, 2004).

제3절 연구 방법

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의 배경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에서 파생된 연구이다. 한국복지패널은 복지사용 실태와 빈곤정도 및 경제활동에 관한 다양한 문항을 담은 대표적인 양적 데이터로,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지속되었다. 2011년에는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기존의 패널 응답자중 100가구를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2012년에는 기존 100가구 중 일부가구와 추가로 선정된 가구 등 총 45가구의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2012년도 심층면접에 참여한 인터뷰어들은 총 9명으로 이들은 심층 면접을 수행하기에 앞서 인터뷰어 교육에 참석하였다. 교육은 인터뷰어들이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

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 질문지에 대한 토의, 심층 면접 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논의, 역할극(role play), 질적 연구자들의 경험담 공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을 마친 인터뷰어들은 이후 면접 수행 기간 동안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설계 시 총 45 가구를 2회에 걸쳐 심층면접을 하기로 하였으나 응답가구의 특성에 따라 일부 면접은 1회 또는 3회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 연구 자료

본 장은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 집행 과정을 과정 평가한 것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했던 인터뷰어의 경험을 참여자 전원의 직접 구술을 통해 정리하고 이를 분석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원내 연구진과 코디네이터¹²⁾는 당 해 년도 조사에 참여했던 인터뷰어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구성하고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기획한 이유는 특정한 현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구성하고 이 집단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들을 발견하려는 목적을 가진 초점집단인터뷰가 본 장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¹³⁾. 이에 따라 인터뷰 중

12) 코디네이터는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풍부한 외부 연구자로, 인터뷰어들이 심층 면접을 수행하는 2012년 4월~6월까지 연구에 직접 참여하였고 조사 후 원내 연구진과 함께 본 장을 수행하였다. 이에 조사 기간 동안 코디네이터가 수행했던 주요 역할은 ❶ 심층 면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의문점들을 해결하고 ❷ 인터뷰어들이 조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며, ❸ 인터뷰를 위한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❹ 이에 대한 모든 과정을 문서 기록으로 남겨 차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원활한 조사의 과정을 꾸러가기 위해 인터뷰어들은 1차 심층 면접이 종료되면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여 코디네이터에게 송고하였고 코디네이터는 이를 읽고 2차 심층 면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회신하였다. 또한 인터뷰어들은 수시로 코디네이터와 유선으로 연락을 취해 어려운 점에 대해 상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 문서로 정리하여 기록되었다.

13) 이와 같은 초점집단인터뷰의 정의는 정익중 외(2010)의 연구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료 후 모든 인터뷰어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¹⁴⁾를 실시하였다¹⁵⁾.

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여하였던 인터뷰어들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 중이거나 졸업한 20~40대의 여성들로, 질적 연구의 경험 유무는 개인마다 상이하어 이들의 집단은 동질적 특성¹⁶⁾과 이질적 특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초점집단인터뷰 당시, 두 개의 디지털 레코더를 사용하여 집단의 전 과정을 음성 기록하였으며 녹음된 기록은 원내 연구진에 의하여 녹취록으로 작성되었다. 이렇게 얻어진 녹취록은 본 장에서 주자료로 활용되었다.

참고로 초점집단인터뷰에 사용한 개방형 질문지는 인터뷰 참가 경험, 연구진에게 바라는 제안, 다음번에 참가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 등을 중심으로 아래의 <표 5-1>과 구성하였다.

<표 5-1> 초점집단인터뷰 중재자 가이드에 포함된 질문

- 올해의 조사 경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어떤 때 면접이 잘 되고 어떤 때 면접이 잘 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다음번에 또 참가하게 된다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으십니까?
- 연구진이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인터뷰 경험을 살려 “내가 내년에 또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다음번에 인터뷰어로 활동하시게 될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14) Simon(2004)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초점집단인터뷰의 규모는 여섯 명에서 열두 명 사이가 적당한 데 금번의 초점집단인터뷰는 7명의 구성원(연구진 포함 총 9명)들이 참여하여 회의하기에 적당한 규모였다. 그리고 회의는 총 1시간 반 가량의 충분한 시간 동안, 해당 질문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5) 원내에서는 모든 인터뷰어들의 참석을 독려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5명이 불참하여 12명의 인터뷰어 중 7명이 참석하였다.

16) 초점집단인터뷰의 구성에서 특히 이와 같은 동질성의 확보는 원활한 토론 진행에 장점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택림, 2004).

이와 함께 연구에 활용한 두 번째 자료는 코디네이터에 의해 요약·정리된 과정일지이다. 이 과정일지는 조사의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였던 코디네이터가 실시간 기록한 것으로, 조사의 착수 시점부터 조사의 종결 시점까지 인터뷰어들과 논의한 모든 내용, 인터뷰어들에게 전달했던 코멘트들, 코디네이터의 의견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본 장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다음 <표 5-2>과 같다.

<표 5-2> 구성원들의 개념

구분	용어 설명
인터뷰어	심층면접을 수행한 질적조사원으로 총 12명 중 7명이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석함.
(면접) 응답자	심층면접 표본으로 선정되어 면접에 응한 사람
코디네이터	인터뷰어가 심층면접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정서적 지지와 면접 기술 자문을 맡은 외부 질적 연구자
중재자	초점집단인터뷰를 기획하고 토의를 진행한 질적 연구자
연구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담당자들

3. 자료 분석

초점집단인터뷰 녹취록과 과정 일지라는 두 가지 자료는 본 장의 저자인 질적 연구자들이 Braun과 Clarke(2006)이 제시한 주제 분석법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은 Braun과 Clarke(2006)이 제시한 6단계 주제 분석 절차이다.

- 1단계. 자료와 친숙해지는 단계(Familiarizing yourself with data)
- 2단계. 자료 내 관심있는 초기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단계(Generating initial codes)
- 3단계. 다양한 코드에서 잠재적 주제로 분류(Searching for themes)
- 4단계. 예비 주제들의 정련 단계(Reviewing themes)
- 5단계. 주제 정의 및 도식화 완성(Defining and naming themes)
- 6단계. 최종 분석에 따라 보고서 작성(Producing report)

분석을 위하여 연구자들은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데이터와 친숙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코드를 부여하고 토의를 통해 잠재적 주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연구자들은 데이터가 제시하는 주제로 돌아가 예비 주제들을 검토하고 정련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친 분석을 시행하여 예비 주제들의 내적 동질성과 외적 이질성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주제를 확정하였다.

제4절 연구결과

전 소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 집행 과정을 과정 평가의 내용은 연구 결과는 세 가지로 나뉜다. 긍정적인 연구 참여 경험과 인터뷰어로서의 업무의 어려움, 차기 연구를 위한 제안이 그것인데 연구진은 초점집단인터뷰 녹취자료와 자료조사 중에 집필한 과정일지를 이용해 다음의 결과를 기술하였다. 아래의 <표 5-3>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세 가지의 주요주제와 하위주제이다.

〈표 5-3〉 주요 주제 및 하위 주제

주제	하위주제
긍정적인 참여 경험	동기부여가 됨
	연구적 의의 발견
	인터뷰어로서의 발전
	보람을 느낌
인터뷰어로서의 어려움	응답자 설득
	시간/공간적 제약
	전사에 관한 경험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차기 연구를 위한 제안	인터뷰어와 실천가의 차이점 인식
	아동면접에 대한 교육 강화
	전년도 조사 자료 활용

1. 긍정적인 연구 참여의 경험

초점집단인터뷰에 참가한 인터뷰어들은 심층면접 진행 경험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면접응답자들의 일상을 들여다봄을 통해 자기 성찰 기회를 얻고 이러한 경험은 개인에게 있어 긍정적 자극으로 작용해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다고 하였다.

① 동기부여가 됨

저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고 엄청 보람된 경험이었구요 케이스 하나하나가 되게 너무 의미있고 재미있었어요...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특별히 이렇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힘 빠지고 이

렇게 곤란한 상황들에 제신 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삶의 힘이나 역동을 가지고 진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삶에 좀 동기부여가 되는 걸 느꼈고

또한 질적 연구의 경험을 가진 인터뷰어들은 본 연구에 참여하여 그 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빈곤 문제에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연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② 연구적 의의 발견

수급하신 분과 탈수급하신 분의 굉장한 차이가 느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연구를 하는 큰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탈수급 하신 분이 나름대로 자기가 탈수급을 해보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연구자 입장에서 보는 거랑 정말 수급하셨다가 탈수급 하신 분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게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됐구요 ... 미처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 세세한 면까지 느끼고 제서서 오히려 제가 많이 도움이 됐던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질적 연구 경험이 없는 인터뷰어들은 첫 번째 심층면접에서는 본인의 면접 기술이 부족했다고 여겼지만 마지막 심층면접에서는 원만한 진행을 하였다고 스스로 평가하며 성취감을 갖기도 하였다.

③ 인터뷰어로서의 성장

해당 파트에 분리해서 녹취를 풀긴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첫

인터뷰였어서, 옆길로 셀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어 JHS. 첫 번째 인터뷰 후 코디네이터에게 보낸 메일 중)

가장 큰 문제는 인터뷰의 목적을 잃고 제가 가구주 선생님의 말 속에 빨려 들어가,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의 주 내용이 아이 교육에 대한 걱정, 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혼 경험 및 그에 대한 어떤 부담감 등이 인터뷰 대부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녹취록을 풀어보니, 저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어 JHS. 두 번째 인터뷰 후 코디네이터에게 보낸 메일 중)

지난주에 다녀온 노인 단독 가구 인터뷰한 내용 요약본입니다.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였는데, 질문지의 내용을 다 인터뷰했습니다. ^^

(인터뷰어 JKY. 마지막 인터뷰 후 코디네이터에게 보낸 메일 중)

개인적으로는 참 유익하고 소중한 경험인데 인터뷰의 질적 양적 내용들로 부터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드러나 구성하고 있는 질적 패널 연구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큼니다.

(인터뷰어 OHI. 코디네이터에게 보낸 메일 중)

이와 같이 인터뷰어의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뿐 아니라 응답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기쁨과 보람도 크다고 하였다. 인터뷰어들은 응답자들이 인터뷰 경험에 대해 좋은 평을 해주고 감사의 표현을 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며 참여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응답자를 만나거나 연구 참여 답례품을 가족들을 위해서 감사하게 잘 쓰겠다고 인사를 받는 경험에서 만족을 느꼈다고 하였다.

④ 인터뷰어로서의 일이 보람됨

오전 8시부터 이제 출근하셔 가지고 밤 9시, 10시 돼서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가 사실 밤중에 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9시 30분쯤 시작해가지고 11시30분, 12시까지 인터뷰를 하고 ... 그 분이 마지막으로 하실 때 자기가 오히려 돈을 줘야될 거 같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본 적이 없고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구나' 돌아봐서 너무 좋았고 '아 이래서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가는구나. 돈을 내면서도' 그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저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2. 인터뷰어로서의 어려움

모든 경험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공존하게 마련이다.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과 응답자의 저항감, 민감한 사안에 대한 불응 등은 인터뷰나 상담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뷰라는 공적인 업무를 위해 낯선 응답자들을 만나 2~3회의 인터뷰를 갖는 기간 동안 신뢰관계 형성과 빈곤이라는 민감한 주제에 관한 인터뷰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던 인터뷰어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경험만이 연속된 것은 아니다. 이에 연구진들은 인터뷰어들이 어떤 상황에서 업무의 어려움을 느끼는지 파악하고자 이에 대해 질문하였고 인터뷰어들은 실제 면접 중에 느꼈던 어려움뿐 아니라 면접을 진행하기 전후로 느꼈던 다양한 고충을 토로하였다.

먼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어려움은 연구진이 인터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터뷰어들은 면접 응답자들과 연락하여 면접 참여

에 관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심적 부담을 가졌다는 부분이었다. 질적패널연구는 기존 연구(한국복지패널)에 참여한 가구 중 일부를 표본추출 한 것이므로 연구진은 이미 존재하는 복지패널 지도된 연계망을 활용하여 예비 면접 응답자와 전화 접촉하여 연구 참여를 수락한 가구만 방문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진들은 이들이 면접응답자와 연락을 취하는데 있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면접응답자들에게 심층면접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인터뷰어들이 면접응답자들과의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약간의 경계심을 느끼거나 이를 설득하는 부담감이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① 연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부담

이 연구를 왜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셔서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동의를 했지만 그건 동의한 정도고 정보를 전혀 모르시더라구요.

양적 복지패널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기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연구를 실시하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이 연구가 나가는 기관이 수급권을 결정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기관이랑 혼동을 좀 하세요 그러셔가지고 대답을 하실 때 좀 바람직한 대답을 하려고 탈수급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그러면 ‘아 하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사전 인터뷰 시에만 겪는 것은 아니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응답자들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곤란한 질문을 이유로 들어 인터뷰 진행에 난색을 표하여 인터뷰어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인터뷰어들은 이러한 반응을 마

주하게 되면 응답자로 하여금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설득하여 어렵사리 인터뷰를 마치기는 했으나 그 과정 자체를 매우 난감하게 여기기도 하고 응답자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저항적인 표현에 감정을 다치기도 하였으며 다음 인터뷰를 기획하는데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과 위험은 어느 인터뷰에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의 경우, 인터뷰어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직접 기획한 조사가 아닌 원내 연구진에 의해 구성된 질문지를 통해 ‘일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¹⁷⁾ 어떠한 질문은 생략해도 되는지,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딸이 있는데, 일단은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 협조 부탁은 드렸는데, 어머니가 가족관계나 경제상황 등의 질문은 안하면 안되는 거냐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일을 상기고 고통받는게 싫으신 것 같았습니다. 잘 설득은 해서 물어보고, 후 응답을 회피하면 더 질문 안하는 쪽으로 하겠다고는 했는데 계속 찻찻해하시고 걱정하시면서 꺼려하는 눈치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들 인터뷰를 진행하되, 어려운 질문은 빼야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할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어 JSW. 코디네이터에게 보낸 메일 중)

두 번째로 인터뷰어와 응답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연구진은 교육에 앞서 인터뷰어와 면접 응답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가구 배분을 준비하였는데 인터뷰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면접을

17) 일반적으로 조사를 기획한 당사자가 조사를 직접 진행하게 되면 조사의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질문의 경중이나 순서, 질문 처리 정도(모두 질문해야 할지, 필요한 질문만 발췌하여 해도 무방한지 등)를 스스로 결정하고 응답자의 반응에 유연성있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연구진에 의해 사전 기획된 질문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유연성이 다소 결여될 수 있어 전자의 경우보다 보다 큰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수행하도록 배정함으로써 장거리 출장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 인터뷰어는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응답자와 인터뷰어를 같은 지역 출신으로 지정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연구진들의 의견과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정보가 많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심층 면접의 특성상 응답자 입장에서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터뷰어로 오는 것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 어디서 오시는 건가요?’ 저한테 그걸 먼저 물어서 제가 OO입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안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OO사람하고는 얘기 안하고 싶다 내가 OO 살 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거를 방어를 하셔가지고

또한 심층 면접은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을 들여 인터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어들은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인터뷰는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조용하면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인터뷰어가 온전히 응답자에게 집중해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엄명용 외, 2012).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를 배려하여 용이한 이용이 가능한 장소인 응답자의 집이나 직장 등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지다보니 응답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효과적인 면접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하였다.

② 시간·공간적 제약

본인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가진 했지만 직장에서 하다보니까 역시 또 제한점이 있더라고요... 휴게실 같은데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도 사실

조심스럽고 그분 역시도 왔다 갔다 하는 동료 분들이 혹시나 하면 신경을 쓰시고 하기 때문에 ... 이왕이면 조금 더 가정이든 조금 더 비밀스런 장소에서 하는 게 역시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절반 정도도 진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가정 폭력 문제라던지, 빈곤 문제 등을 좀 더 깊이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응답자가 백화점 일을 하다 보니 아침 8시 반까지 출근해서 9~10시쯤 퇴근하는 터라 한 번에 길게 할 수가 없네요.

(인터뷰어 JSW. 코디네이터에게 보낸 메일 중)

이와 같은 경우는 자녀를 인터뷰하는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었는데, 부모로부터 분리가능한 공간이 없는 경우, 간혹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진짜 애들은 부모님 있고 없고가 너무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니깐 저 애들이랑 인터뷰 하고 있는데 중간에 엄마가 딱 들어왔는데 그 감추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빛부터가 네, 눈을 잘 안 마주치고 엄마가 뭐하는지 계속 주시하고 질문에 주저주저 하는게 느껴져요. 그니깐 심지어 같이 있는 엄마도 느끼는

집이 거실이 따로 없고 방 2개가 전부인터라 어머니가 따로 있기가 어려워 위 1 to 1으로 진행되지 못한 터라 더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솔직한 편이고 물음에 꺼려하지는 않아서 인터뷰를 일단 진행하였고, 최대한 다른 방식으로 많이 묻고자 하기는 했는데, 응답들이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어 JSW. 코디네이터에게 보낸 메일 중)

이와 함께 지적된 또다른 어려움은 녹취 전사에 관한 부분이었다. 인

터뷰어들은 본인이 인터뷰한 해당 가구의 최종 면접이 끝난 후 전사를 맡았는데 인터뷰를 진행한 담당자가 직접 녹음 파일을 듣고 녹취록을 완성하는 것의 장점¹⁸⁾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녹취업무에 대한 부담을 언급하였다.

③ 전사에 관한 경험

목소리를 너무 작게 하셔가지고 그걸 듣는데 그걸 그나마 인터뷰하신 분을 녹취를 풀었으니까 그걸 했지 만약 내가 이걸 다른 분한테 넘겼으면 거의 못풀었겠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능하면 되도록 인터뷰하신 분이 녹취를 푸는 게 중요한 거 같고

녹취를 한 번 해보니까 ‘녹취가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느끼고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하시는 분이 말이 길어지고 래퍼처럼 말을 하시면 그때부터 ‘아 이 녹취를 어떻게 하지’라고 머리 한쪽에 생각이 들더라고요...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그 분이 아무리 삼천포로 빠지고 그래도 ‘아, 네’하고 다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도 모르게 말을 끊으려고 하고 자꾸 이러더라 조바심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인터뷰어들은 질적 조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당황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를 테면 면접 응답자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약속과는 다르게 면접을 빨리 끝내야 하는 경우, 혹은 가구 구성원 중 일부에게 사정이 생겨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터뷰어들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 인터뷰어의 역량, 계획과 무관하게 심층 면접의 질이 달라질

18) 인터뷰를 진행한 인터뷰어가 녹취를 전사할 경우, 당시 현장의 분위기와 응답자의 반응 등을 보다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도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찾아갔는데 또 그날 아이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은거
예요. 아이가 혼나고 있고 엄마 화나있고 지금 막 미치기 그런 직전인데 애
들도 시험기간이고 하니까 어디 나가셔야 되고 1시간 안에 인터뷰를 진행해
야 막 해야되는 상황

저한테 밤 8시에 일이 다 끝났으니까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8시
에 가니까 이 분 너무 졸려하고 9시면 되게 자고 싶고 왜 이전에 인터뷰한
사람이 그렇게 짧게 끝냈는지 막상 그 시간에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3. 차기 연구를 위한 제안

지금까지 본 장의 첫 번째 목적인 인터뷰어의 경험을 살펴보았다면,
본 소절에서는 두 번째 목적인 차기 연구 집행 시 보완할 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인터뷰어들은 초점집단인터뷰에서 본인들의 인터뷰 경험을 바
탕으로 교육 자료의 보완, 연구 기획면에서 개선해야할 점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먼저 이들이 제안한 것은 인터뷰어와 실천가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취
해야 할 입장에 관한 것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인터뷰시 드러나는 응답
자의 어려움에 당면하게 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대하여 고민하
였기 때문에 차기 연구시 사전 교육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루어 주기를
희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인터뷰어들은 사회복지학 전공자로, 응답

자들이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을 토로하였을 때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지, 인터뷰어의 입장에서 인터뷰만 마쳐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인터뷰어의 고민은 초점집단인터뷰에서 뿐 아니라 면접을 마친 뒤 코디네이터에게 유선이나 전자 메일을 통해 자주 질문되었던 내용이다. 이에 코디네이터는 이러한 고민이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가치 딜레마임을 설명하고 도움의 제공은 응답자가 원할 시, 응답자의 자기 결정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응급상황이나 위기상황을 목격하였을 때에는 연구진과 상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연구 윤리에 적합한 것임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코디네이터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으나 차기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매뉴얼이 사전에 준비되어 이를 숙지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시 대처해야 할 부분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① 인터뷰어와 실천가의 역할 사이에서 방향성 확립

힘든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 정말 힘드시겠군요’까지의 공감은 가능한데 근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조사원인 거니까 그 이상의 격려는 저도 되게 또 자제하려고는 했는데 힘들어하셨는데 그 ‘힘드시겠군요’라는 공감 그 이상을 하기에는 저의 신분상 저도 망설여서 안했는데 안하는게 맞는 건지 되게 ‘아~ 정말 잘하셨군요’ 격려해주고 싶는데 이게 중립적인 자세가 아닌 거 같아서 일단 저는 망설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침이 있었으면

인터뷰를 하다가 우셨어요... 막 우시는데 제가 거기서 인터뷰를 잠시 중단을 하고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하고 계속 인터뷰를 진행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이 안섰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잠잠해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했는데.

- 인터뷰로 인해 내담자가 곤란한 상황인 것을 알았다면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야 하는지

▶ 우리가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딜레마라고 안심시킨 단 상담자 입장에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지 않은 지원을 하는 것도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에 위배되는 일이라 설명함. 혹 클라이언트가 응급에 처해있거나 지원을 요청한다면 보사연과 협의하여 진행하라고 코멘트 함.

(코디네이터가 인터뷰어에게 전달한 comment를 정리한 과정 일지 중)

또한 인터뷰어들은 아동가구원을 포함한 면접 경험을 통해 아동들이 질문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주로 단답식의 대답을 하였기에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과 아동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질문지가 재설계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코디네이터는 장애인을 인터뷰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질문지에 포함된 장애 영역을 질문하고 싶었지만 질문지에 개인의 인지 능력이나 장애의 종류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반영하여 질문지를 설계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② 아동 참여자에 대한 면접 교육 강화 및 질문지 보완

아동 같은 경우 요새 어떻게 뭐 학교생활이라든지 친구관계라든지 그런 질문은 빠져있고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경제적인 그건 사실 아동이 잘 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되게 제한적인 거 같다는 거를 느꼈고

그리고 여쭙볼 것이 자녀가 현재 중3이고 정신지체장애 3급에 해당하는

데 1차 조사 때는 청소년 섹션으로는 조사를 진행했지만 장애인 섹션으로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추상적이거나 통합적인 기억을 해야 하는 대답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사해야할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어 KSM. 코디네이터에게 보낸 메일 중)

이와 더불어 부모나 기타 양육자가 아동에게 빈곤이나 질병, 자산상태, 이혼 등 민감한 사항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질문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인터뷰어들을 곤란하게 하는 이슈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아동이 현재 가계의 상태를 모를 경우 인터뷰어들이 관련 내용을 어떻게 질문하며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③ 아동 참여자에 대한 면접 교육 강화 및 질문지 보완

어떻게 하면 애들이 좀 더 이해를 하고 이끌어낼까 이 고민 때문에 애들이 있는 가구에서는 계속 그 질문에 대한 부담이 있는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를 전제를 해서 예를 들어주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되게 미안하고 혼란스러운 게 있어서 그래서 그 질문이 모든 애들에게 하기 되게 애매했어요.

자녀가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장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표에 있는 모든 내용을 꼭 하셔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시고 현재의 가족관계(특히 부부관계)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 대답하기 어렵지 않은 질문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 학령 전·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문장 등을 사용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피드백(반영, 되묻기 등)을 주시면서

대화를 이끌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인터뷰어에게 전달한 *comment* 중)

마지막으로 인터뷰어들은 응답자 집을 찾아가는 방법, 면접 요일 및 시간, 부재시 연락해 볼만한 곳 등 전년도 자료에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인터뷰의 진행이 더욱 원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④ 전년도 조사 자료 활용

그 분이 딸네 집으로 가서 연락이 안됐는데 어쨌거나 저랑 연락이 안될 때 왜 연락이 안될 때 그런 많은 생각들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맨 처음 연락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연락을 받는 게 어떤 상황인지 요런 정보가 있었으면

이 대상에 대한 정보, 그니까 주소나 이런 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을 거 같애. 아니면 작년에 똑같이 했던 케이스라면 작년 인터뷰원들이 어떻게 갔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약도, 교통편 등) 저는 갔는데 두 집이 주소가 잘못 되어 있었어요...그게 좀 약간 힘들었던 것 같고

제5절 논의 및 결론

본 절은 연구에 관한 과정 평가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이에 조사에 참여한 인터뷰어들의 경험을 통해 어떠한 과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데이터 생성과정을 살펴보고 초점집단인터뷰 녹취록, 과정일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하여 다음 연구 수행에서는 어

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표 5-4>에 제시하였다.

〈표 5-4〉 차기 연구 시 보완 계획

	문제점	차기 연구 시 보완 계획
연구 설계 보완	1인 인터뷰어가 외지에 있는 타인의 집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러 간다는 심적 부담 큼	코디네이터 및 연구진에게 문자로 언제, 누구와 만나서 면접을 수행하는지 알리기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지	응답자의 가정 형편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부자에 관한 인식은 어떤지, 이 두 문항 보완을 위한 파일럿 스터디 수행하기
	응답자 개인 정보가 부족함	응답자 주소 재확인, 약도 및 교통편, 전년도 인터뷰 수행정보(시간, 장소, 대략적인 스케줄) 연락이 안 될 때 어디에 연락하면 좋은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다음 해 조사 때 활용하기
	연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일차로 전화 접촉 시 연구수행기관과 연구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방문시 조사안내문 제공
인터뷰어 교육 보완	면접원과 사회복지실천가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고민하게 됨	인터뷰어의 중립적인 역할유지와 응답자가 도움을 호소할 때 대처 상황에 대한 교육 내용 강화하기
	녹취의 부담을 느낌	인터뷰어가 녹취를 푸는 것이 면접의 질을 높이고 본인의 면접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됨을 교육시킴. 특히 1차 면접 후 녹취를 완성하는 것이 2차 면접에 도움이 됨을 강조
	조사표에 나온 용어를 응답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음	용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제공. 교육시 연구의 주질문과 부수질문에 대하여 언급하고 인터뷰어가 면접응답자에게 본 조사를 어떻게 소개할지 연습해보는 시간을 확충

마지막으로 본 소절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수행시 인터뷰어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인터뷰어들은 심층 면접을 진행하면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응답자 한명, 한명의 의견이 중요하며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의미있는 일임을 강조하며 응답자의 참여를 독려했고 인터뷰어로서 본인의 역할

은 일회 참가에 국한되지만 패널 설계의 특성상 내년에 또 인터뷰 나올 때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설명을 드리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의 참여를 통해 인터뷰어와 응답자의 신뢰관계 형성이 양질의 조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응답자의 반응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표현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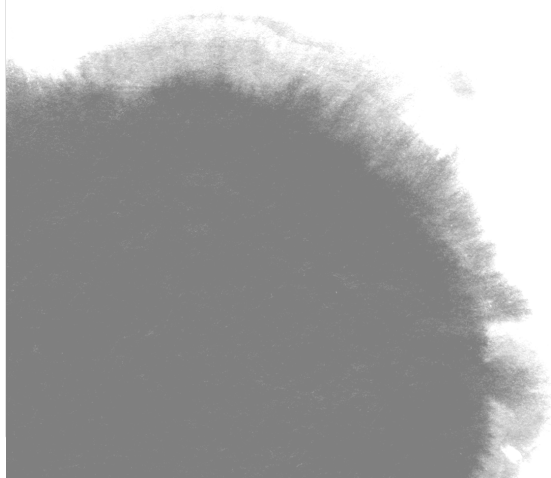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연구진에게 차기 연구부터는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심층 면접에서 파생되는 감정의 여운 및 소진(burnout)을 세심하게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이와 같이 소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뷰어 한명에게 할당되는 방문 가구의 수를 조절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장기적인 조사 연구에서 과정 평가로서 심층 면접 인터뷰어의 경험을 살펴본 이상의 내용은 연구의 설계나 보완 및 차기 연구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과정 평가를 위해 활용했던 초점집단인터뷰의 운영이 인터뷰어의 문제점 및 어려움의 파악과 그들의 교육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도출에 매우 유용하여 다른 연구에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1회의 초점집단 인터뷰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인터뷰어들의 경험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다소 부족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수행했던 인터뷰어들의 개인적인 경험들만 고찰하였기 때문에 앞서 논의된 내용을 모든 질적 조사를 실시하는 모든 인터뷰어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훌륭한 인터뷰와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3부

질적패널 분석



제6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기초분석

제1 절 생활만족

생활만족은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행복의 의미와 조건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3개의 주요 질문과 그에 따른 부수질문들을 제기하였다. 주요 질문들은 첫째, 지금 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둘째,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셋째,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등이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분석한 결과, 생활만족의 하위영역은 ‘행복 수준’, ‘행복의 의미’, ‘행복하게 하는 요인’, ‘불행하게 하는 요인’,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변화’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행복 수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현재 행복 수준을 1점(가장 불행한 상태)부터 10점(가장 행복한 상태) 사이에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그 점수가 의미하는 바를 분석한 결과, 5가지 범주가 나타났다. 각 범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만족: 25명 중에서 이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는 1명밖에 없

었다. 이 연구참여자는 행복 점수를 묻는 질문에 9점이라고 답하였다. 자신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 ② 부족하지만 적당함: 절반 이상의 연구참여자들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행복 점수를 6점에서 8점으로 평가한 사람들이다.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이 정도만 되어도 살만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생활에서 즐기며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전의 더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위안을 삼기도 한다.
- ③ 보통: 자신의 행복 점수를 5점이라고 응답한 연구참여자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직접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도 있고, ‘반반’이라고 한 사람도 있으며, 그냥 먹고 사는 정도라고 답한 경우도 있다.
- ④ 행복하지 않음: 4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를 보면 행복하지만 소득이 적은 것을 두고 3점을 준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재정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행복감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최악의 경우: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면서 0점을 주거나 ‘최악’이라고 평가한 연구참여자들도 있다. 행복이라고 생각할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 너무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다.

2. 행복의 의미

이 영역은 원래 해당되는 질문이 없었지만 행복 점수와 다른 질문들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일부 연구참여자들에게 행복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찾는 것이다.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재미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다.
- ② 하루하루 덤으로 삶: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에게는 하루하루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특별히 행복한 일이 없더라도 그날 하루를 살아가고 묵상하며 의미를 찾는 것이 행복일 수 있다.
- ③ 의미를 생각하며 삶: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중요하다. 왜 사는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되며,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러한 삶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 ④ 남에게 비치는 삶: 한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나쁜 모습을 안보여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어머니에게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고, 행복을 찾아가려 하는 것이다.

3. 행복하게 하는 요인

연구참여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가족’, ‘일’, ‘건강’, ‘형편’, ‘나’, ‘관계’, ‘종교’, ‘교육’, ‘주거환경’ 등이 나타났다. 각각의 범주들이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각 범주 안에서도 다양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범주에는 객관적인 이름을 붙였다.

- ① 가족: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인으로서, 가장 많은 연구참여자

들이 언급한 것은 가족이었다.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이도 있고,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이들이 많았다.

- ② 일: 어떤 이들에게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였다.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몫의 일이 있다는 것, 소일거리라도 할 일이 있다는 것, 그 일을 통해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이 중요한 의미가 되었으며, 그런 일은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여겨졌다.
- ③ 건강: 건강도 중요한 행복의 요인이었다.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질병이나 장애가 없고, 특별히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 ④ 형편: 생활수준을 달리 표현하는 ‘형편’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남편과 헤어진 후 먹을 것도 없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은 매우 여유로운 상태고, 이러한 형편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 ⑤ 나: 어떤 이에게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인이 되었다.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나’이고,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행복을 느끼는 것도 결국 ‘나’인 것이다.
- ⑥ 관계: 앞에서 어떤 연구참여자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인이라고 했지만,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 자신의 생활을 도와주고 있는 도우미나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도 들고 용기 내어 살고 싶은 의욕도 생긴다.
- ⑦ 종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 처지와 상관없이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번 연구의 참여자

들은 모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신앙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교제하면서 지지와 격려를 받음으로써 힘을 얻고,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 ⑧ 교육: 일부 연구참여자들에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힘들기는 하지만 공부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데에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
- ⑨ 주거환경: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생활이 더 나아졌다고 느끼고, 여기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이도 있었다. 더 나은 수준의 집으로 옮기면서 집안도 깨끗해지고, 주변 환경도 깨끗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4. 불행하게 하는 요인

연구참여자들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들은 다른 연구참여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들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그 요인들의 방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생계: 역시 생계를 위협하는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불행요인 중 하나였다. 우선은 고용 상태가 불안하고, 그동안 일하면서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도 적고, 좀처럼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다. 그저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어도 다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녀들의 미래까지 생각해보면, 더 답답하고 막막한 생각이 들어 마음이

복잡해진다.

- ② 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게 되고,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그나마 마음이라도 행복하다면 괜찮겠지만, 지금은 우울한 생각이 많이 들어 행복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 ③ 가족. 생계만큼이나 연구참여자들을 불행하게 느끼도록 하는 요인은 가족이었다. 자녀들은 말도 안듣고, 남편과는 성격이 안맞아서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어떤 이들은 배우자 없이 혼자 살다 보니 의지할 데가 없고, 이곳저곳에서 무시를 당한다고 느끼기도 한다. 재정 문제로 가족의 울타리가 허물어짐을 느끼는 것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안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고,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 불행하게 느껴진다.
- ④ 질병과 장애: 건강 요인도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 질병과 장애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게 생활하다 보면 불행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질병과 장애는 재정 문제와도 연결되면서 더 복잡한 불행의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 ⑤ 집 걱정: 집 걱정도 불행감에 한 몫을 한다. 멀지 않은 시기에 집을 비워줘야 하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집 주인이 집값을 올려달라거나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깐깐하게 구는 경우, 집이 비위생적이거나 불편한 경우 모두가 연구참여자들을 불행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 ⑥ 종교생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행복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 주관적인 행복 수준을 낮추기도 한다.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신앙생활은 게으르게 한다고 느끼면서 그것이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진술한 경우도 있었다.

5.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변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생활에서 필요한 변화들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들을 분석한 결과, ‘마음’, ‘무력감’, ‘행운’, ‘일’, ‘주거지원’, ‘교육’, ‘복지’, ‘소소한 일상’ 등의 범주가 나타났다. 각 범주들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마음: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연구참여자 자신의 마음이었다. 마음을 고쳐먹고, 먹고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② 무력감: 앞서 제시한 마음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무력감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러한 무력감을 없애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연구참여자들 자신이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자신감도 잃고 나약해지며 사회구조에서 밀려나 떨어지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을 것이다.
- ③ 행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행운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로또복권처럼 아주 커다란 행운은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행운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운명 과도 같은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다.
- ④ 일: 많은 연구참여자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당장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일정한 소득을 벌어들이면, 집 안일도 덜 수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클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유도 생길 것이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자주 일을 나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형편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 ⑤ 주거지원: 주거환경이 좋으면 행복하게 느낄 수 있고, 주거환경이 나쁘면 불행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거지원도 필요하다. 더 나은 수준의 주거환경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현재의 주거환경이라도 더 깨끗하고 편안해지기를 바란다.
- ⑥ 교육: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 연구참여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교육이고, 나아가서는 자녀들의 교육이다. 자격증을 따서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자녀들이라도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더 나은 직업을 얻기를 바란다.
- ⑦ 복지: 현재 상태에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돈이다. 당장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밖에도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와서 도와주었으면 한다.
- ⑧ 소소한 일상: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수준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시골에 가서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하고, 지금 살아가는 형편에서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기도 했다. 재정적으로 풍족한 삶보다는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한 삶을 더 바라는 것이다.

제2절 경제

1. 빈곤

가. 가정의 경제적 상태

2012년 조사대상자는 주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전반적인 경제 상태에 대해 10점 만점에 매우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낮게는 0점에서 높게는 5점까지이며, 대부분 3점 미만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다. 부채가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빈곤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하거나, 사업 실패 등으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경제적인 낭떠러지”에 놓여 있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나보다 가난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이 인식하기도 하였고,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수급권 등으로 사회나 타인에게 의존해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기도 하여서,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 뿐”, “발전이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도무지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경험

참여자들은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하였다. 특히 IMF때 사업이 망하고 그 이후로 회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질병과 장애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무 것도 없어”,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아가고”, “아기 분유 값 조차 없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다. 특히 큰 부채를 안게 된 경우 사채 협박으로 밖에도 못 나가고 공포에 시달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걸해야하는 상황에 고통스러워 했다. 또한 당장 살 집이 없거나, 언제 전셋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주거의 어려움과 가족 구성원 중 질병이나 장애가 온 경우 이를 치료하거나 보호하는데 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큰 부담을 주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은 더 큰 고통을 가져왔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일상적인 스트레스, 내일의 막막함과 의존해서 살아야하는 삶에 대한 우울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크고, 경제적으로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죄책감 또한 높았다. 실제로 자살에 대한 생각과 충동을 드러내는 참여자도 많았는데, “빚 때문에 죽고 싶고”, “차를 보면 뛰어 들고 싶고”, “칼을 보면 찌를 것 같은”, “자살시도도 여러 번”하는 경우도 있었다.

2. 빈곤 해결을 위한 노력과 수급/탈수급 경험

본 영역에서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노력이나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을 살펴보고(경제 문항 3,4), 우리나라 탈빈곤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수급 경험 및 인식(경제 문항 5,6)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크게 빈곤 탈피를 위한 개인적인 노력, 가족/친지 및 지인의 도움, 그리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가. 개인적인 노력

빈곤에 처하게 된 당사자들은 탈빈곤을 위한 다양한 개인적인 노력을 우선 시도하고 있다. 이혼, 사업실패, 실업, 건강상의 문제, 빚보증, 장애 등의 다양한 이유로 빈곤에 처해진 개인들은 “닥치는 대로 일할” 하거나 자신의 처지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왔다. 노점상, 공사판, 식당, 마트, 가사도우미 등 할 수 있는 일들은 가리지 않고 했다는가, 기술이나 학력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컴퓨터, 요양보호사, 미용기술 등의 교육을 받기도 하고, 빈곤의 경험을 살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된 사례도 있는 등 빈곤에 대응한 다양한 자구책이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빈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게 된다. 우선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많은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며, 신용불량인 상태인 경우가 많고,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인적자본 수준도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 나아가 가족 부양, 양육, 가족 수발 등의 다양한 책임을 동시에 해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형편이 일과 양립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인터뷰에 참가한 이들의 대부분은 결국 혼자 힘으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및 파생된 가족문제, 건강문제 등의 여러 문제적 측면을 해결하는 것이 힘든 경험이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나. 가족 및 친지의 도움

흔히들 아시아권 국가복지를 ‘유교주의 복지국가’(Esping-Andersen,

1997; Goodman & Peng, 1996; Jones, 1993)라고 칭하는 복지국가의 유형화에서 기대할 수 있듯이,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한 개인이 가족 및 친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금번 인터뷰에서도 가족 및 친지의 경제적, 심리적 지지가 빈곤에 처한 상황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응답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삶의 의지를 다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이와 별개로, 가족의 도움이 그 당시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크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패널참여가구 102, 39세, 남).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면서 가족이나 친지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족으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기도 하였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거나 연락이 없었던 가족의 경우에는 아예 도움을 기대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가족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가족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도 다수 표출되었다. 이처럼 가족 책임과 부양이라는 원칙이 적용되기 힘든 현실에 처한 사례들, 그리고 가족의 도움이라는 일시적인 도움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들은, 향후 공공부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보다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빈곤 가구의 경우, 자신의 빈곤 자녀에 대한 헌신적인 도움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빈곤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표출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자녀들이 성공하면 탈빈곤할 것이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이란 앞으로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며 자녀는 자신의 전부가 되기도 하였다(패널참여가구 104, 53세, 여). 때로는 자녀가 식비나 등록금이 밀려 자신처럼 빈곤하게 살게 된다면, 그것을 보느니 죽

는 편이 낫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가지게 되기도 한다(패널참여가구 21, 53세, 여). 이러한 가족에 대한 책무는 때로는 탈수급 지원 계획과 같이 국가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지원을 연장하기 위한 전략 수립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다수 자녀 양육을 하는 가구의 경우 이러한 행태는, 나태나 게으름, 근로동기 미약이 원인이라기보다, 자녀에 대한 지원을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한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금번 2차년도 인터뷰에 참여한 45가구 중 1차년도(2011년)와 2차년도(2012년) 인터뷰에 모두 참여했던 가구는 25가구였다. 그리고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가 14가구였는데, 지난 1년 사이에 수급지위가 바뀐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1차년도 인터뷰 당시 탈수급 의지를 내비쳤던 경우도, 올해 이루어진 2차년도 인터뷰에서는 당분간 제도의 보호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들은 소득활동이나 자활을 통해 탈수급을 할 경우 야기되는 의료/교육 급여의 박탈이, 탈수급을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 상태에서의 탈수급은 그나마 근근히 유지해오던 삶의 수준과 자녀 양육과 관련된 계획들을 다시 한 번 뒤엎키게 할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취업을 해서 탈수급을 하게 된다면, 취업을 그만두어 수급권을 통해 가족지원과 자녀 학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직설적인 의견을 표출하기도 하였다(패널참여가구 24, 48세, 여). 학업에 대한 수급권자 자신과 가족의 건강문제와 자녀의 양육문제, 그리고 개별화되지 않은 급여방식은 다시금 탈수급의 큰 걸림돌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2차년도에 신규로 참여한 근로능력이 있는 응답 패널 20가구 중에서는 11가구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을 하고 있고, 4가구가 이전에 수급 경험이 있었으나 탈락하였으며, 2가구가 차상위 계층, 나머지 3가구는 수급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급 경험 가구 및 잠재적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패널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관찰은 향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통한 탈빈곤 매커니즘과 탈수급 경로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 제시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에 대한 서술은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보다 심도 깊은 경험들과 제도들에 대한 반응 및 인식을 분석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수급권 신청에 대한 인식들은 현재 수급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급권을 유지하는 다수의 경우, 이를 통해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수급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급여 때문에 전체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도 드러났다. 수급권을 유지하는 것을, 자녀 양육과 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물론, 수급자 자녀로써 입을 상처를 걱정해 탈수급 의지를 보이는 경우나(패널참여가구 109, 여, 49세), 의료급여증을 내는 것도 부끄러웠으며 스티그마를 얘기한 경우도 있지만, 수급혜택이 절실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패널참여가구 123, 48세, 여).

이들은 주변의 다른 수급권자들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며, 수급 탈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30년간 연락 안한 딸의 경제력 때문에 강제 탈수급 위기를 경험한 한 67세의 응답자의 경우, 자신의 수급지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패널참여가구 79, 67세, 여). 다른 한편으로 수급을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들의 경우, 정부 재원을 가지

고 나태하고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자신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권을 신청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응답한 한 가구주는 “게으르고 남의 등을 쳐먹는 사람”에게 국가가 무조건적인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패널참여가구 32, 50세, 여). 이와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응답자들은 국가가 보다 엄격하게 수급권 제도를 관리하고 운영하여, 주변의 비수급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말아야한다는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때로는 정신교육도 병행해야 한다(패널참여가구 114, 61세, 여)고 주장하기도 한다.

라. 앞으로의 경제적 상황 예측과 원하는 국가 도움의 내용

앞으로 5년 뒤에 경제적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았다. 이들은 주로 ‘고정수입이 없음’,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임’, ‘점점 늙어가기 때문에’ 등을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이야기, 경제상황이 곡선을 탈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곡선을 탈 것 같다는 이야기는 자녀들이 자라면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되겠지만, 그 때는 자신의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경제상황이 나빠질 수 있음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그러나 대체로 향후 경제적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경우가 좀 더 많았다. 이들은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주거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계속 갚고 있는 빚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가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하면 희망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고 있는 어떤 응답자는 자신은 빚을 다 갚으면 ‘부자’가 된다고 말

하기도 하였다. 부채 해결, 자녀의 취업, 주거문제 해결과 같은 것 이외에 국가가 복지제도를 잘 운영해서 배분을 해주면 희망이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경우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에게 제대로 된 복지제도의 운영이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일해서 수입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수급을 중단하지 않는 것’,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선정 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 개선’ 등이었다.

덧붙여, 향후 바라는 국가 도움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도울 수 있냐’, ‘주면 받고 안주면 안 받는 것이지 바랄 것이 뭐가 있냐’ 등의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비해 구체적인 도움의 내용으로 ‘자녀 교육비 지원’, ‘소풍, 수련회비 등 학교특별활동비의 현금 지원’, ‘신용불량자 우선 지원’, ‘임대아파트 입소기준 완화’, ‘자녀들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큰 평수의 임대아파트 지원 희망’, ‘주거문제 해결’, ‘수급자 우선 취업제도’ 등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마.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

①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자에 대해 돈(재산)의 소유, 품성, 능력, 유산상속, 사치 등의 특성으로 이야기하였다. 돈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건방진 사람’, ‘좋게 보이지 않음’, ‘돈을 흔하게 쓰는 사람’ 등의 부자의 품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부자가 된 이유, 즉 ‘투자할 돈이 있기도 하지만 투자를 잘하는 것’과 같은 능력, ‘부모의 재산 상속’, ‘건강’, ‘장애 없음’, ‘노력’(희생 없이 부자가 될 수 없음) 등으로 부자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어떤 응답자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 중형차 1대, 30평 이상 자가, 보험 여러 개, 통장 몇 개 등으로 부자를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가난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 ‘게으른 사람’, ‘복이 없는 사람(부모 덕이 없어서 공부 못하고 물려받은 것이 재산이 없는 사람)’, ‘배운 것이 없음’, ‘장애로 일할 수 없음’, ‘근검절약 안하고 흥청망청 낭비하는 사람’, ‘만족 못하고 불평 많고 그런 사람’ 등으로 이야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냥 겨우 밥 먹는 정도’, ‘거처할 집이 없음, 질병 있음, 부채 있음’ 등으로 이야기하였다.

한편, ‘잘사는 사람’이 부자이지만, 잘 사는 것이 반드시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가난한 경우가 진짜 가난한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또한 마음이 가난한 것은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상황으로 서술하였다.

② 왜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가?

부자가 된 이유는 크게 물려받은 것(‘기초’)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잘 부풀려 부자가 되었거나 악착같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되었거나, 이 두 가지로 압축된다. 가난한 이유는 기초가 없음(물려받은 것이 없음), 게으름(노력하지 않음), 팔자(운이 없음)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바. 계층 이동 가능성과 빈부 고착화에 대한 의견

대체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옛날에는 아무 것도 없이 시작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했지만, 요즘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부자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부자되는 것은 어렵 반 풀어치도 없는 이야기지만, 이것도 나이에 따라, 장애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부자도 수준이 있지만,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할 정도를 부자라고 하면, 젊고 건강한 사람은 열심히만 일하면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자기 세대에서는 어렵지만, 자녀들이 잘 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 전문 직종을 갖거나 장사를 해야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 돈을 쫓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이야기 등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부 고착화, 즉 부자는 계속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고르지 못하지만, 현실이 그렇다’라고 체념,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3절 근로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1. 현재 일

2012년에 조사된 질적 패널 신규 가구는 탈수급 기제를 살펴보고자하는 연구진의 의도를 반영하여 조건부수급자나 근로능력이 있는 이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이들의 현재 직업을 살펴보면 식당일, 식당 설거지, 미용실보조, 피부관리샵에서 근로, 요양보호사, 동사무소 청소,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보조, 일용직(농사·공사장), 밭농사, 공무원(계약직 사회복지계 직원), 현수막 만드는 일, 양봉, 집에서 부업(LED 손전등 만들기), 자활사업단에 소속된 근로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대부분의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근로의욕이 있었고, 더 나은 일을 하고자 희망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한 가지 직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전세자금과 자녀 결혼 자금 마련이 어려워 낮에는 주민센터에서 재봉틀로 현수막 제작을,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두 가지 직업을 병행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여성 응답자 가운데는 10년째 같은 동사무소 청소를 하는 등 지속

적으로 한 곳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반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응답자들 중에는 한 직장에서 근속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하루 단위로 농사일을 거들거나 공사판 일감을 구하며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었다. 일부 응답자는 시각장애·신체장애·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를 하지 않고 있었다.

2. 과거 일 경험

응답자들은 주점 운영, 식당운영, 아동복가게 운영, 노점상, 인테리어업, 홈페이지 사업과 같이 자영업 경험을 가진 경우도 있었고, 보험, 책, 식품 판매와 같은 세일즈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무역회사 근무, 목회, 일본어 가르치기, 건물관리, 수중공사 작업, 대리점 배달업과 같은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한 한편, 마트의 캐셔, 가사도우미, 학교 급식소일, 청소, 용접 등의 단순 노동을 하기도 하였다. 자영업이나 판매와 같은 업무에서는 불황으로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남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무리하게 돈을 빌리기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을 신청한 이들도 있었다. 이 밖에 이혼, 사별 등으로 가구주의 수입원이 단절됨으로써 갑작스럽게 가정 밖에서 근로를 시작하게 된 경우는 응답자들의 이전 근로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게 됨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가졌던 직업은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서 저급 노동, 임시직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즉 [그림 6-1]에서 보는 것처럼 응답자들은 근로 중에 생애사건을 겪은 후 근무여건이 악화되는 경험을 하였다.

[그림 6-1] 응답자들의 일 경험의 변천

무역회사 → 보험, 책 판매 → 용불량자 → 마트의 캐셔 → 미용보조
 인테리어 일 → 녹내장으로 실명 → 근로 안함
 건설 노동 → 사고로 장애를 가짐 → 재화에 실패 → 양봉

3. 구직의 어려움

현재 실직한 상태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응답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기에, 자신감이 없어서, 자녀 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근로 시간이 짧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직장을 정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용불량자 신분이라 채권단의 독촉이 계속되고 있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들은 시골지역이라 일자리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였고, 저학력(초졸, 중졸 등)으로 인해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백화점 매장 판매원으로 일하는 응답자는 나이제한이 있어 곧 근로를 중단해야 함을 염려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보려고 학업을 계속하는 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 응답자는 중학교 검정고시 학원을 등록했다가 생활고로 그만두었다. 반면 자활 활동 참여 중에 적성을 발견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직을 구하기로 결정, 2년제 대학에 진학해 자활과 학업(사회복지학)을 병행한 응답자도 있었다. 하지만 학업이 끝나도 사회복지사 자격증만으로는 직장을 잡기가 어렵기에, 졸업 후 바로 취업하지 않고 학교 진로상담사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자격증을 준비할거라며 구체적으로 고용 및 탈수급과 관련된 계획은 세우고 있지 못하였다. 즉 자활, 교육, 자격증 취득과 같이 구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도 취업의 문턱은 높고 오랜 시간이 걸림을 알 수 있었다.

4. 고용 프로그램 이용

고용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크게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이들의 경험과, 미경험이유, 고용 프로그램에 제안하고 싶은 점이 거론되었다. 이용경험자들은 미용기술, 전기기술과 같이 취업 가능한 직업 기술 훈련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만족스러워 하였는데, 이러한 훈련 기회는 복지관이나 고용보험 관리공단, 직업훈련학교를 통해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이들은 참가경험 없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짐작하여 지원하지 않는 경우였다. 몇몇 응답자는 동사무소에 고용지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나오는 돈이 지금의 월급보다 적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공공근로에 참여하려고 해도 대가도 많을뿐더러 수급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게 된다는 응답자들도 일부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응답자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본인이 생산하는 양봉꿀을 인터넷으로 판매해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2012년 조사에 참가한 신규 응답가구들은 현재 근로를 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하였고, 보다 좋은 직장으로 전직하기 위해, 구직을 하기 위해 교육적 투자, 빚갚기, 희망키움통장 이용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경제적 여건은 어려운 상황으로 한정된 수입에 비해 자녀 교육비, 양육비, 치료비, 빚 독촉 등으로 단시간 내에 나아지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제4절 가족관계

1. 가족 구성원간의 전반적인 관계

2012년에 신규 조사된 질적 패널 가구 응답자들은 그들의 가족관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가족 구성원간의 전반적인 관계에 관해 질문하고 추가적으로 가족생활에서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는지, 부부관계와 부모-자식 관계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의 가족 구성원 간 관계는 크게 세 가지 응답으로 나타났는데 관계가 ‘좋다’, ‘좋은 편이다’, ‘별로 좋지 않다’로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별로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응답자와 배우자간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배우자와 특정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응답자와 특정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응답자와 배우자간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화가 가장 많았고, 이 경제문제는 가족 전반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가장이 사업실패나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가장으로서 자신감이 떨어져 가족 전반이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응답자 또는 응답자의 배우자와 특정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한 경우는 자녀가 사춘기를 겪고 있어서, 배우자가 고집이 세고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해서, 가정 내 장애 자녀가 있어서,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서 등의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문제, 폭력문제, 성격차이 문제 등으로 심각한 부부 간 불화 또는 부모-자녀 불화를 초래하고 결국 이혼한 경우도 다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의 결과로 현재 구성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간

의 관계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의 대다수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좋다’ 또는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였으며, 힘든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성장해주는 경우 가족관계가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내려고 할 때 가족관계가 좋다 또는 좋은 편이다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에서 부부관계가 부모-자식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부부관계가 가족 전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부모-자녀 관계는 자연적으로 좋아진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녀에게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지 못해 미안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가족관계가 좋은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가족은 응답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 또는 ‘꼭 있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고 특히 응답자들은 자녀가 ‘인생의 전부’, ‘희망’, ‘보물’, ‘보람’, ‘살아가는 힘’이라고 표현하였다.

2.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언급한 대로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정서폭력, 언어폭력, 신체폭력도 있었던 경험은 응답자들에게서 나타났다. 배우자와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적극

적이거나 능동적인 갈등해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그냥 참는다’, ‘시간이 지나면 말을 건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랄 것 없이 자연스럽게 풀어진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불편해도 자녀 중심으로 가족생활을 하거나 자녀를 매개로 가족관계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력의 정도가 대부분 강한 것으로 나타나 심한 구타로 인한 고통을 느끼거나 살해 위협까지도 경험했던 응답자도 있었다. 뒷탈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폭력이 있는 후 가해 배우자의 사과로 마무리하지만 여전히 계속 되는 경우도 있었다.

3. 부모님과의 관계

응답자들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다면 각각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하였고, 부모와의 왕래, 어린시절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갈등 경험 및 해결 노력, 세대차이 경험, 부모님께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 30대, 40대, 50대,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군을 보이고 있고, 여성/남성 모두 응답자가 있었는데 연령대별로, 성별로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경험에 약간의 차이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으로 인해 분가하여 한 일가를 이루어 살게 되면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 이유나 동거의 불편함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일수록 시댁 또는 친정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거리에 살면서 부모의 가사 및 양육 관련 도움을

받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왕래는 매일, 주1회에서부터 명절에만, 일년에 3~4회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왕래를 자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걸 보여드리는 게 죄송해서 왕래(전화나 방문 모두)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어린 시절을 회고해볼 때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부를 시켜주지 않아 현재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 같아 원망이 된다는 응답자에서부터 주로 아버지가 완고하고 무서워서 좋은 관계로 살갑게 잘 지내지 못했다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부모 양쪽과 모두 잘 지내기 보다는 주로 엄마와 잘 지냈던 경우가 많았지만,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어 관계가 좋아졌다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부모님과 갈등이 깊었던 경험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전공을 하지 못하게 막거나 부모의 주선으로 억지로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결혼하게 한 경우 등이 가장 큰 갈등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세대차이에 관해서는 ‘있다’와 ‘없다’로 두 가지 경우 모두 나타났다. 주로 소비에 관한 양식이나 태도, 자녀양육에 대한 관점 차이 등에서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께 바라는 점에 관해서는 응답자 모두가 ‘다만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2012년 조사에 참가한 신규 응답가구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족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이 매우 커서 경제적으로 잘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환경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경제적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부부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

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자신들의 형편이 어려워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많다는 응답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녀와의 관계

참여자들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해준 게 적은데 건강하다는 점에 감사’, ‘밝게 큰 아이들이 대견함’, ‘말 잘 들어주고 속 썩이지는 않아서 감사’, ‘해주는 것도 없는데 구김 없는 아이들이 즐거움의 원천’ 등으로 만족한 점을 묘사하였다. 자녀와의 관계는 우리의 보통 가정이 대체로 그러하듯,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 양상이 변화하는 것 같다. 사춘기가 되면서 대화도 줄어들고 말도 듣지 않고 청개구리로 변해서 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사 가자’, ‘엄마는 왜 저런 아빠를 만났는지’ 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자녀를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다. 자녀가 취업도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가난한 부모를 만나 힘들어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어떻게든 짐이 되지 않게 도움을 주고 싶은(사망 보험금이라도 남기도 싶은 심정) 마음,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 가족과의 이야기를 매우 힘들어하였고, ‘술 생각이 간절해지네요’, ‘골(머리)이 아파요 그만 합시다’, ‘담배를 태우고 싶다’ 등의 반응으로 대화의 힘겨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한편, 자녀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인내하면서 기다림’, ‘대화하기’, ‘가끔 폭력 사용’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에게 자녀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전부’, ‘나보다 소중한 존재’, ‘자식이 없었으면 남편과 헤어졌을 것’, ‘자식이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것’, ‘보물, 보석 같은 존재’로, 부모를 지탱시켜주는 삶의 원천과 같았다.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자녀들에게 바라는 점을 질문했을 때, ‘해준 것도 없는데 바랄 게 없음’,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님’, ‘크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음’, ‘올바르고 성실하고 거짓말 안하는 사람’, ‘많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살았으면’ 등으로 자녀의 미래에 대해 매우 소극적, 수세적, 추상적으로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다. 교육만 잘 이뤄지면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뿐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지원, 다양한 체험 활동에 대한 욕구도 있었다.

5. 가족의 의미

가족에 대한 의미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있어야 하는 존재’에서부터 ‘희망’, ‘살아가는 힘’ 등으로 다양했다. 우선 전자의 경우는 가족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거나, 자녀의 결혼 후 연락이 끊겼거나, 배우자와 이혼하고 혼자 살거나, 배우자 및 자녀와 같이 살아도 관계가 소원한 경우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한편, 가족을 묘사할 때, ‘평범함’, ‘내세울 것이 없음’, ‘특별한 것이 없음’으로 이야기한 경우도 많았다.

제5절 생활영역

1. 건강

건강 영역은 4개의 주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지금 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신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귀하와 가족들은 신체적 건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셋째, 귀하나 가족구성원 중에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넷째, 귀하와 가족구성원들이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범주화 분석을 수행한 결과, ‘건강 수준’, ‘건강 노력’, ‘질병과 장애’, ‘일상생활’, ‘서비스’, ‘필요한 것’ 등의 6가지 하위영역이 나타났으며, 각 하위영역별로 다양한 범주들이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과 범주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강 수준: 건강 수준은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것으로서 ‘건강함’, ‘대체로 건강하지만 약간의 이상’, ‘좋지 않음’, ‘구석구석이 아픔’의 네 범주로 분류되었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모두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표현은 ‘건강함’, ‘이상이 없음’, ‘아픈 데가 없음’, ‘양호함’ 등으로 다양하였으나 모두 건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가족이 대체로 건강하기는 하지만 어딘가 조금씩 이상이 있다고 하였다. 많이 피곤한 편이라거나 고지혈증, 허리 통증, 목 디스크, 허약체질, 나이 들어 힘에 부침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몸이 좋지 않다고 답하였다. 사고로 다치고 나서, 또는 지병이나 만성질환, 음주, 노화 등으로 점차 몸이 안 좋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어떤 연구참여자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온몸 구석구석이 다 아프다는 식으로 진술하였다. 뼈 마디마디가 쭈시고, 병원에 살다시피 드나들며, 선천적으로 약해서 늘 어딘가가 아프고, 갑자기 쓰러지기도 한다. 이 정도라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② 건강 노력: 연구참여자들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들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답변들을 분석한 결과, ‘운동’,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함’, ‘운동을 싫어함’, ‘그럴만한 여유가 없음’ 등의 범주가 나타났다. 각 범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운동을 하고 있다.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헬스나 수영, 등산 등을 주기적으로 하기도 했다. 과일 원액을 마신다는 이도 있었다.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운동이나 다른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 운동을 안 해도 건강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었다. 경제적인 여건이 부담된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아예 운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운동할 생각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운동을 좋아하지 않고, 아직은 건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운동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연구참여자들 중 또 다른 다수는 건강을 위해 노력할만한 여유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유란 시간과 돈과 마음의 여유다. 마음이 분주해서 건강을 위해 따로 신경을 쓰지 못하기도 하고, 다른 가

죽구성원들을 돌보느라 그런 경우도 있다. 일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쉴 틈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 다른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저 누워서 쉬는 것이 제일이라는 생각도 한다.

③ 질병과 장애: 연구참여자들에게 현재 본인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 다수가 자신과 가족의 질병에 대해 진술하였다. 이 영역은 ‘지병’, ‘치료를 제대로 못받음’, ‘만성질환’, ‘만신창이’, ‘장애’ 등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범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지병이라고 할 만큼 오래된 질병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늘 신경이 쓰이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질병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크고 작은 통증이나 질병이 생기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병인지도 모르고 내버려두었다가 나중에야 알게 된 경우도 있다.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신장투석을 받는 이도 있고, 일을 하다가 염증이 생긴 이도 있고, 병원에서 준 약을 먹고 오히려 다른 병이 생긴 이도 있다.

어떤 이들은 ‘만신창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많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오기도 했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실명하기도 하고, 위가 헐기도 하고, 다양한 여성질환을 앓기도 하고, 자녀의 질병이나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성인병으로 고생하기도 한다. 이번 조사에는 장애를 참여자 특성으로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는 소수였으며, 한 연구참여자인 자신의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④ 일상생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답변을 분석한 결과, 네 가지 범주가 나타났다. 1명은 생활에 지장을 받는 부분이 특별히 없다고 하였으며, 4명은 일상생활은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지장이 있다고 하였고, 5명은 질병이나 장애가 일상생활에 중대한 방해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나머지 1명은 질병으로 인해 무기력해지며, 삶의 질도 낮아진다고 하였다.

⑤ 서비스: 질병이나 장애와 관련하여 받고 있는 도움이나 서비스에 대해 물어본 결과, 네 가지 범주가 나타났다. 다수에 해당하는 것은 ‘의료급여’였으며, 1명은 약 먹는 것을 싫어해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 1명은 운전을 배우고, 차량과 관련된 감세혜택을 받았다고 하였고, 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은 공식과 비공식 부문에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⑥ 필요한 것: ‘더 건강해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건강에 필요한 것이 없다는 소수 응답도 있었지만, 다수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운동이나 건강검진, 식생활 개선 등 직접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밖에 ‘같이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요양원에 있는 부모를 위한 ‘수발’,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들도 있었고,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 급여’를 받았으면 하는 응답도 있었다.

2. 정신건강

가. 정신적 건강 정도

참여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신건강 점수는 1점에서 10점까지 매우 다양하였으며, 5점 정도의 중간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참여자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이유는 현재의 상태가 과거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비교해서는 그나마 좋은 상태라고 평가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지만 이를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요인들, 예를 들면 종교나 자녀와 같은 요인이 정신적인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과 장애, 그리고 가족갈등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간 정도의 점수만 부여하였다.

나. 정신적인 어려움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정신적인 어려움 중 가장 많은 것은 일상적인 스트레스였다. 특히 빈곤가구가 대부분인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를 대부분 경제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었고, 앞으로 정신건강이 나아지기 위해서도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 외에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자녀의 문제, 장애와 질병 또한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참여자들 중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울과 알콜 의존, 그리고 자살사고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고”, “의욕도 없고, 혼자 울기도 하고”, “늘 긴장되

고”, “기슴이 답답하고”,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다보니 알콜중독인 것 같고”, “죽고 싶은 마음 뿐이고”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 참여자들 중 다섯 가구에는 자녀가 ADHD, 학교부적응, 불안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학교에서 실시하는 아동정신건강 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와 상담을 받은 경우는 절반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한편 참여자들은 살아오면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었다. 경제적인 파산, 장애, 이혼, 가정폭력 등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고 느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하였을 때 심각하게는 자살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자살충동이나 자살시도에 대해 표현한 사례는 3분의 1정도나 되었다. 참여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각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경제적인 것은 노력하면 되지만 마음 힘든 것은 어떻게 안돼”, “마음이 힘든 게 고생이지 몸이 힘든 건 그렇게 고생도 아니야”, “정신적으로 안 당해 본 사람은 몰라”와 같은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다. 정신건강을 위한 도움

참여자들은 현재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거나, 과거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였을 때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받아들이고 살아”가거나, “잊어버리려 애쓰고”, “혼자 삭히려고 노력하고”, “계속 웃으려고 노력”하는 등 스스로 참고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 중 실제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

는 경우는 세 가구였으며, 그 중 한 참여자만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다른 한 참여자는 정신과에 입원을 하였으나 강제로 묶고 약을 먹이는 등 부정적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마음의 병이라 여기고 스스로 나왔다고 하였다.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는 싶으나, 높은 비용이 부담스럽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막상 업무를 내지 못했다.

정신건강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참여자들은 대부분 종교에 의지하는 경우였다. 종교를 통해 정신적인 행복감을 느끼거나,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또 다른 방법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는 정도였다. 특히 여성 참여자들은 주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를 원했다. “속이 후련하게 얘기라도 하는 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3. 주거

주거 영역은 하나의 주요 질문과 두 개의 부수 질문에 대한 답변들로 구성되었다. 질문은 단순한 편이었지만, 답변은 여섯 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하위영역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만족 수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집에 대한 만족 수준을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범주가 나타났다. 가장 만족스러운 수준은 ‘만점짜리’였으며,

가장 불만족스러운 수준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곳이었다. 그 사이에도 세 가지 범주가 존재한다.

1명의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을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어지는 진술이 흥미롭다. ‘이 동네 반지하 중에서 최고’라는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 만족스럽다는 것이다.

두 번째 범주는 ‘대체로 괜찮다’는 수준이다. 교통도 좋고, 근린공원도 잘 되어 있고, 공기도 좋고, 집값도 괜찮고, 편의시설들도 좋다. 세 번째 범주는 ‘적당하다’인데, 이 부류는 자신이 사는 동네가 그저 그런 곳이며, 마지못해 사는 것이지 아주 좋아서 사는 것은 아니며, 어딜 가나 마찬가지이고, 살기에 적당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 만족 수준은 ‘불편함’이다. 집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여기 저기 살기에 불편한 구석들이 있다. 익숙해져서 그냥 사는 것이지 의식하게 되면 불편한 곳이 많다. 극단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수준은 ‘최악’이다. 집을 옮길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 뿐이지 정말이지 살고 싶은 생각이 안드는 곳으로, 방법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다.

나. 불만족 요소

현재 주거환경에 불만족하게 하는 요소로는 상당히 다양한 범주들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9개의 범주가 나타났으며,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좁고 불편함’이었다. 좁은 집에 많은 가족구성원들이 생활하다보니 불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녀들에게 방을 따로 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고 아쉽다. 둘째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지금 형편

으로는 좋은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대출을 받기도 어려우며, 형편이 나아지리라는 전망도 하기 어렵고, 이사 갈 생각에 막막해지기도 한다. 셋째, 집값도 비싸지만 유지비도 많이 든다. 전세를 구할 돈이 없어 월세를 내다보니 다달이 들어가는 돈도 많고, 관리비도 형편에 비해 비싸고 각종 공과금도 적지 않게 부담이 된다.

넷째, 집도 집이지만 동네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주택가에 살다보니 밤에 어두워서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있고, 관계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고립된 느낌도 든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줄 때도 있고, 오히려 시골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이밖에 반지하에 살아보니 환기가 안되고 곰팡이나 먼지, 쥐, 벌레와 같이 ‘건강을 해치는 나쁜 주변환경’, 윗집아랫집 사람들이나 앞집옆집 사람들, 지나가는 차량들이 만들어내는 각종 ‘소음’, 바람이 안통하고 ‘냄새가 나는 답답한 집’, 공장이나 자연환경과 관련된 ‘오염원’ 등도 불만족 요소가 되고 있다.

다. 주거개선 요청사항

주거와 관련하여 개선되기를 바라는 사항들에 대한 답변은 다섯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주거정책 개선, 둘째는 더 나은 주거환경, 셋째는 가족들이 모두 만족하는 집, 넷째는 편리한 주거환경, 다섯째는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이었다.

‘주거정책 개선’으로는 임대아파트 제도가 이용이 용이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과 월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포함되었다. ‘더 나은 주거환경’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더 살기가 편하고, 월세가 적게 들고, 남들이 보기에 반듯한 집, 어쨌든 여기보다는 나은 집에 살고 싶다는 응답 등이 포함되었다.

위와 같이 집 자체를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를 개별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만족스러운’ 주거 환경을 얻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자녀들이 통학하기 편리한 거리, 놀이터, 문화시설, 안전 등이 ‘편리한 주거환경’이라는 범주로 묶였다. 연구참여자 중 장애를 가진 1명은 장애인이 거주하기에 편리한 주거 환경을 원한다고 하였다.

라. 만족 조건

만족 조건으로는 두 가지 범주가 나타났다. 하나는 ‘접근성’으로 특히 자녀들의 학교가 가까워서 좋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편리함’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생활하기 편리하다는 점이었다.

마. 주거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주거의 의미로는 세 가지 범주가 나타났다. ‘떠날 수 없어 머무름’과 ‘좋은 집으로 가면 개선됨’, ‘마음의 평안’이 그것이다.

어떤 연구참여자들은 떠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떠날 수 없어 머무르고 있다. 항상 떠나고 싶지만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고 느낀다. 어떤 연구참여자는 현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집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주거환경의 상황에 상관없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였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 주거 개선의 장애

주거 개선의 장애물로는 ‘이자’와 ‘대기시간’, ‘이사’ 등이 언급되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대출 이자를 갚아가기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개선을 생각할만한 여력도 없는 것이다. 또한 주거개선과 관련하여 재개발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다 보니 이사를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겹게 느껴져서 더 이상 이사를 생각하는 것조차도 싫어진다는 응답도 있었다.

4. 교육

교육 영역은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현재 받고 있는 교육과 훈련의 유형, 둘째, 앞으로 필요한 교육의 유형이다. 이에 대한 답변들을 분석한 결과, ‘기회 여부’, ‘받지 않은 이유’, ‘필요한 교육’이라는 세 가지 범주가 나타났다. 현재 연구참여자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각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회 여부

연구참여자들은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기회 여부에 따라 구분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기회가 없었고 앞으로도 배울 의사가 없다’는 경우들이었으며, 두 번째 유형은 ‘기회가 없었지만 배울 의사가 있다’는 경우, 세

번째 유형은 ‘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들이었다. 세 번째 범주에는 후원을 받아 학원을 보낸 경우와 재향교육, 복지관 안마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나. 받지 않은 이유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재정, 건강, 가정 형편, 수요자 많음 등이 제시되었다. 가장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재정’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교육에까지 지출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고,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으며, 부모가 교육을 시켜주지 않거나 다른 집안 일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가정 형편’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 막상 배우려고 해도 신청자가 너무 많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수요자 많음’)도 있었다.

다. 필요한 교육

당장 필요하거나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유형으로는 다양한 범주들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자녀 사교육’, ‘자녀 멘토’, ‘예체능 교육’, ‘컴퓨터’, ‘원예’, ‘자격증’ 등으로 분류되었다.

자녀가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필요로 하였다. 먼저 영어를 포함한 사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학력수준을 높이고 싶어 했고, 악기나 스포츠와 같은 예체능교육을 통해 특기적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다. 이와 함께 정서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멘토를 원한다는 이들도 있었다.

이러한 범주들과는 달리 인터넷을 포함한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워서

자신의 일에 적용하고 싶어 하는 이도 있었으며, 원에 관련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을 탐색하려는 경우도 있었고, 전문성을 가진 일을 하기 위해 자격증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이도 있었다.

5. 문화

지금 하고 있는 문화생활과 앞으로 원하는 문화생활을 묻는 두 가지 질문으로 문화 영역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범주가 나타났다. 각 범주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현재 문화생활

이 하위영역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즉, 현재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경험을 구분한 범주들과 문화생활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른 범주들로 이루어졌다.

전자의 경우, 문화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과 ‘여건이 안되어’ 하기 어렵다는 이들, ‘가족이 협조하지 않아’ 문화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못한다는 경우,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데, 그럴만한 상황이 안된다는 이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범주들과 사례들을 통합하여 보면, 결국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문화생활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럼에도 틈틈이 문화생활을 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9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문화생활을 저소득가정에 지급된 ‘바우처’를 이용하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이들

은 이 바우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바우처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 중 다수는 TV와 컴퓨터를 문화생활의 일부로 포함하였고, 또 다른 다수는 영화와 연극 등을 보는 것을 문화생활로 경험했다. 이밖에 소풍을 따라가는 것, 외식, 노래방, 교회, 지역아동센터 활동참여, 외출 등을 문화생활로 포함한 경우들이 있었다.

나. 원하는 문화생활

연구참여자들이 원하는 문화생활을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범주가 나타났다. 소수는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였고, 다른 일부는 천 염색이나 쿼트, 등공예, 합창단 등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보다는 자녀들에게 초점을 두어 자녀들에게 다양한 견학의 기회를 주거나 예체능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본인이든 가족 단위이든 형편이 되는대로 국내와 해외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

다. 필요한 것

연구참여자들은 문화생활을 충분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돈’, ‘접근성’, ‘동반자’, ‘무료 이용’, ‘시간’, ‘수준’ 등을 제시하였다. 무엇을 하든 역시 돈이 필요하며, 생활이 쪼들리다 보면 문화생활 같은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멀리 있는 곳까지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문화생활은 혼자 하기보다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같이 했으면 한다. 그리고 문화생활을 하기 위한 비용도 실제로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비용과 함께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며, 나에게 맞는 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수준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가능한 것이다.

제7장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에 대한 연구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1차년도 자료와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제1 절 서론

1. 연구배경

우리나라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관심은 IMF 외환위기 와 잇따른 대량실업의 경험을 통해 더욱 커져왔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실행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연령대의 빈곤층도 우리사회 빈곤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부조제도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이들의 복지 의존(dependency)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지양하고 건강한 복지 수급을 장려하여 복지병(welfare disease)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¹⁹⁾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가 채택한 보충급여방식의 급여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유

19) 정진경(2004, p.2-3)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2000년대 초반에 실린 주요 일간 지들을 소개하며, 당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인(work incentive)저하와 빈곤의 덫(poverty trap)을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는 논의도 이루어졌다(박능후, 2002; 김미곤, 2001, 정진경, 2004에서 재인용).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탈빈곤에 대한 관심들도 이어져, 이들을 위한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김교성·강철희, 2003; 이상록·진재문, 2003; 이형하·조원탁, 2004)도 이루어졌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자활제도와는 별개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근로빈곤층(working poor)으로 규정짓고, 보다 학문적으로 이슈화해온 연구들도 나타났는데, 이들은 근로빈곤층의 개념화 및 현황파악에 대한 시도로부터, 이들의 탈빈곤 요인에 대한 분석에 이르고 있다(홍경준, 2005; 김은하, 2009). 그리고 이들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는 앞서 2장 2절에서 제시하였듯이 한국노동패널과 한국복지패널 등의 양적패널의 구축과 함께 빈곤의 역동성 연구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되어왔다.

이러한 양적이고 종단적인 자료에 기반한 연구들은 탈빈곤 매커니즘을 확률적인 경로(path)로 제시하는 데에는 일정정도 성공적이었음에 반해, 빈곤층의 탈빈곤 노력과 관련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 탈빈곤 정책의 의미와 작동 기제, 더 나아가 정책이 실제 이루어지는 대상자의 환경과 인식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양적자료가 갖는 환원주의적 성격, 즉 측정 가능한 사건들을 계량화하기 위해 질문을 단순화하면서, 다양한 삶의 경험이 몇몇 데이터로 축소되는 한계(Alcock, 2004)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빈곤으로의 진입이나 탈피와 같은 역동성이나 빈곤정책의 효과성을 볼 수 있는 종단적인 양적연구라 할지라도, 기존의 정태적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변인들과 차별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 이른바 변수들의 포화상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빈곤층의 경험과 태도, 행위의 동기나 결과, 그리고 이들의 맥락과 삶의 통찰을 중시하는 질적연구는 탈빈곤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 통찰의 기반과 탈빈곤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방법론적으로도, 확률에 근거한 수리적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적연구와 균형을 이루어 탈빈곤의 노력과 경험에 대한 보다 풍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삶과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권지성, 2010; 백학영·조성은, 2012; 이은주, 2008; 이현주, 2012; 이현주 외, 2009; 최종혁·김수완, 2012), 이들은 빈곤층의 자활이나 자립의지, 근로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의 기반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탈빈곤과 같은 빈곤층의 역동성을 보기에는 제한적인데, 그 이유는 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맥락을 관찰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이루어진 종단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질적패널 자료를 사용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에 대한 보다 동태적이면서도 질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아직 2차 년도밖에 되지 않아서 외관상 눈에 띄는 동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빈곤이나 수급지위가 바뀌지 않았다고 참여자들의 노력이나 경험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더 나아가, 사회복지의 거시적인 실천과정을 평가하고, 참여자의 시각에서 사회복지 제도의 작동기제를 이해할 수 있으며(홍현미라, 2011), 보다 차별적이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에 나타나는 의미들의 맥락은 어떤 것인가?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종단연구(Qualitative Longitudinal Study)를 통해 빈곤지위나 수급지위의 변화를 추적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행위의 동기와 결과의 맥락,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Saldana(2003)에 의하면 질적 종단연구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참여자의 인식과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세가지 질문 영역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변화과정의 맥락과 틀을 파악하는 것, 변화과정에 대한 기술을 하는 것, 그리고 변화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질문 영역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있는데,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인 탈빈곤 노력과 경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는 것은 변화를 기술하는 것과 연관되어있고, 두 번째 연구문제인 탈빈곤 노력과 경험이 나타나는 맥락은 변화과정의 맥락과 틀을 파악하는 것과 연결되었으며, 끝으로 탈빈곤 노력과 경험이 갖는 의미에

대한 해석은 변화의 분석과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연구대상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심층 인터뷰 자료를 모두 읽고, 위의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탈빈곤 노력과 경험의 기술과 맥락, 그리고 해석을 제공하였다.

4.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는 질적패널 1, 2차년도에 모두 응답을 한 25가구 중에서, 가구주가 근로능력이 있는 연령대 계층인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15가구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종단적 자료 분석의 예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된 분석대상이 되었다. 주된 분석대상은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로 하였는데, 이들은 노동시장의 경험이나 빈곤경험, 그리고 수급과 관련된 경험을 가장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표 7-1>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모두 참여한 패널 25가구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15가구와 근로능력이 없는 10가구를 분리하고, 이들을 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결과 총 7가구가 지속적으로 수급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가구는 1차년도 조사시 이미 탈수급 상태였고, 나머지 7가구는 기초보장 수급 경험이 없었다.

〈표 7-1〉 1차년도(2011년), 2차년도(2012년) 동시 응답 패널 (n=25)

구 분			2011년	2012년
근로능력 유 (n=15)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재 수급 (n=7)	7	7
	경험 유 (n=9)	현재 탈수급 (n=1)	1	1
	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 무 (n=7)		7	7
근로능력 무 (n=10)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재 수급	4	4
	경험 유 (n=5)	현재 탈수급	1	1
	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 무 (n=5)		5	5
합계			25	25

제2절 연구결과

1.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의 기술

연구대상에 포함된 근로능력이 있는 15가구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 그리고 종단 자료에서 나타나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 <표 7-2>는 연구대상자의 빈곤과 관련된 특성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연령은 40대와 50대가 주를 이루며, 학력은 무학에서부터 대학 졸업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 연구대상 선정 과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변화에 관심이 반영되어서인지, 인적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자들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7가구의 경우, 시각장애부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부모 가구들인데, 이들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지난 1년간 수급지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양적연구에서 본다면 종단적인 측면에서 수급지위의 변량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빈곤지위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의 분석이 불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다루게 될 이들의

심층면접내용 분석을 살펴보면, 향후의 변화의 단초와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급을 하지 않고 있는 8가구의 경우, 올해에도 큰 가구형편의 변화 없이 조사에 응하였다. 이들은 수급 선정 탈락을 이미 경험하였거나, 혹은 아예 수급권 자체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현재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표 7-2〉 연구 대상자의 특성 요약 (n=15)

파일참여 가구번호	나이	성	학력	가구특성	빈곤 경험	현재의 생활상태 및 탈빈곤 노력 요약	수급지위의 변화 (2011→2012)
#7	56세	여	고졸	한부모가구, 아들(재수생), 차메노모 모심	이혼 뒤 상가, 주식 실패. 건강 나쁨	요양보호사	수급>수급
#24	48세	여	대재	한부모가구, 아들2(고1 장애, 초5), 가구주도 장애	이혼, 미성사였으나 장애로 구직 어려움	사회복지전공. 상담 공부 더 하고 싶음.	수급>수급
#31	64세	남	무학	시각장애부부, 아들 출가	시각장애로 경제활동 어려움	근로이사 없음, 아들 도움도 없음	수급>수급
#53	59세	여	초중퇴	한부모 가구, 딸(대학 졸업 후 취업).	이혼 뒤 일용직 전진. 건강 나쁨	파출부, 식당 등 일용직. 화장기용품통장 가입(2012년까지 수급자격 유예)	수급>수급
#71	41세	여	대졸	한부모가구, 딸(중2)	이혼 뒤 양육비 끊기며 수입원 없음	인터넷 쇼핑몰 취업, 저축시작함	수급>수급
#76	37세	여	대재	한부모가구, 딸(초6)	이혼 뒤 총격으로 은둔생활	자활근로, 신학대학, 사회복지전공	수급>수급
#77	47세	여	고졸	한부모가구, 딸(28,27세) 아들(7세) 장애가구	이혼, 교통사고로 가구주와 딸 장애	자영업 계획중, 보험들고 있음	수급>수급

〈표 7-2〉 연구 대상자의 특성 요약 (n=15) (계속)

패널참여 가구번호	나이	성	학력	가구특성	빈곤 경험	현재의 생활상태 및 탈빈곤 노력 요약	수급지위의 변화 (2011→2012)
#29	34세	여	고졸	남편과 이혼후 재결합, 아들(중2) 딸(2세), 셋째임신 중	이혼 뒤 식당, 청소 등 일용직 전전	마트사원으로 일함. 남편도 주말에도 일함	탈수급->탈수급
#98	40세	여	고중퇴	한부모가구, 아들(초6) 딸(중3)	이혼, 자녀 양육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음	차상위->차상위
#12	39세	여	대졸	배우자(남편), 딸(초2)	남편이 자신이 일하는 것 원치 않음. 전셋집 안을 때 빚	남편은 시댁 가게 일, 본인은 틈틈이 부업	비수급->비수급
#13	45세	여	대졸	한부모가구, 딸(중3)	이혼 후 이사하면서 소득원 없음	영어 과외 교사	비수급->비수급
#21	53세	여	고졸	배우자(남편), 딸(26세 장애, 20세 대학생), 아들(중1)	남편사업 파산으로 부도, 남편가출	남편은 인테리어 일, 본인은 식당나가고 있음. 둘째 대학생 딸 졸업 후 취업 기대	비수급->비수급
#32	50세	여	중졸	배우자(남편), 딸(대학생2명, 초4년)	남편 화물차 운전 부채	요양보호사, 남편은 화물차 운전, 딸들의 졸업 후 취업 기대	비수급->비수급
#73	58세	여	중중퇴	1인 단독가구, 건강 나쁨, 아들 군복무(하사관)	남편 빚, 이혼	요양보호사 (2012년 현재 산재로 쉬고 있음)	비수급->비수급
#92	54세	남	중졸	배우자(아내), 아들2 분기(대학 중퇴)	외환위기, 빚보증, 아내 장애(정신분열)	세탁과 수선활동, 저축	비수급->비수급

가. 빈곤의 경험

연구 대상자들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이들이 경험한 빈곤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향후 탈빈곤 노력의 맥락과 의미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빈곤 당사자들에게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뛰어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트라우마와 같은 경험이었다. 이들의 경험과 인식은 “무너진 나”, “바닥으로 내려옴”, “심신의 장애”, “부족하고 죄 많은 부모”, “불투명한 미래”, “자살의 충동” 과 같은 의미의 단위들로 코딩되었다.

우선 이들은 현실로 닥친 빈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 과정은 자신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깨닫는 과정이었다. 그들의 경험은 경제적 조건의 변화나 이혼과 같은 개념적 사건을 뛰어 넘는, “몸의 반쪽이 날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장애와 같은 것인데, 우리사회는 그러한 충격에 대해서 알아주기보다는 경제적 빈곤이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한다. .

그래갖고 고때 그게 무너진거야, 바깥에 내얹게 생겼는데, 그럴때가 제일 힘들더라고 (패널참여가구 7)

한 달동안 울었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올 수가, 완전 바닥이구나... 서른일곱이 되면서 인생은 완전히 바닥을 기어서... 왜냐면은 이혼이라는 건 사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이에요. 정말 제가 숨쉬고 있으니깐 사는 거지... 5년 동안 제가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본인 자각증세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일까지 하라고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집에 와 있으면서 울고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요, 그 사람 살고 싶지 않

아요.. 그 제발 그런 것들을 멸평하니 경제적인 조건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근데 한 진짜 한몸이라고 했잖아요, 한몸. 한몸 중에 반쪽이 날아갔는데 왜 그걸 정신적인 왜 그걸 장애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패널참여가구 76)

이처럼 스스로 무너진 나를 추스르기도 전에 이들은 곧 부모된 자로서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해나가야 되는 현실 앞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는 임신한 아이를 지울 수 밖에 없는 경험도 하게 된다.

그러니깐 내가 (수급자) 신청을 하면서...도와줄 수 없으면 임신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도 좀 알선했 달라 그랬더니 자기들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냥 정말 이 아이를 포기하라는 소리 밖에 더 되나고. 정말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렇게 아무 것도 없느냐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단 그러고 그 아이를 포기를 한거지...(패널참여가구 29)

애들도 학교 가면 부모가 어려우니까, 애들도 어깨가 축 처져 있더라고 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쳐다보면 친구끼리 보면 부모가 가난하면 아이들도 가난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패널참여가구 92)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계속 어렵다는 것 보다는 이제, 못해주니까 애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애들한테 더 많은 걸 못해주니까 그때가 어려운 거죠(패널참여가구 98)

선택은 내가 한 이혼이지만,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제일 컸고,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막 조바심 나는 거 있잖아

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이었나, 나 자신에 대한 미움, 그리고 아이만 보면 너무나 죄책감...서울에 와서 제일 불안했던 것은...두려움 때문에.. 응.. 이 불투명한 미래를 어찌 극복해 나갈 것인가(패널참여가구 45)

이처럼 현실 앞에 닥친 빈곤에 대해 이들은 자녀들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 뿐만 아니라, 아예 현실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도피하고 싶거나 한없이 무력해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회에서 못 해주다 보니까, 죽을 수 밖에, 사회에서 자살 할 수 밖에,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은 살아도, 이겨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도 어렵고 힘들 때, 농약을 먹으면 죽겠지. 목을 매는 것은 노력도 안 해 봤지만 죽고 싶다는 것은 약을 먹으면 눈을 꼭 감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서 까지도 알아보고 이럴 때는,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당장 학비를 못 내고 그럴 때는, (패널참여가구 21)

제가 참 곳곳이 살아 왔는데, 그 상황에 (독촉장, 집행매), 그 순간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공제, 아까 이야기 했지만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지금 말로 표현은 못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를, 하여튼 겪었어요 그래도 그 후 유증이 아직까지 있어 가지고...(패널참여가구 92)

나. 탈빈곤 노력과 경험 및 그 변화: 개인적인 차원

근로능력이 있는 연령층이라고 해도, 한번 빈곤을 경험한 이들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탈빈곤 노력을 쉽사리 시작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일단 이들에게는 하루하루 “닥치는대로” “급한대로” 그리고 “없으면 없는데로”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였다. 특히 한부모 가정 여성의 경우 파출부,

식당일, 마트, 각종 부업 등 다양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을 전전하며, 낮과 밤, 주말에도 근로가 이어지는 패턴을 보이기도 하였다.

없으면 없는대로 절약하고... 집이 제일 급하죠. 길바닥에 내았을 순 없잖아.. 닥치는대로 우선 급하니까 닥치는대로 산거잖아.. 어떻게 살다보니 여기까지 온거지 (패널참여가구 7)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하여 가족 및 친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가족 및 친지의 도움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수급권 선정의 기준에 있는 가족부양능력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급할 때 가족으로부터 주거안정의 도움을 받거나(패널참여가구 13) 가족사업에 고용되는 경우(패널참여가구 12)도 있었다. 이러한 도움들은 일부에게는 어느 정도 지속가능한 재기의 발판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가족 및 친지의 도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거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형제가 많아도 도움이 안돼.. 다 자기 살기 바쁘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달라고 돈달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형제관계 지금 그래요(패널참여가구 7).

이것을 친정에서, 쌀도 그래요, 친정에서 계속 갖다 먹는 것이 아니고, 쌀한 자루를 주면은 그것을 1년 내내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80이 넘은 분한테 나 쌀 떨어 졌어, 매달 그럴 수도 없는 거고(패널참여가구 21)

언니들은 뭐 큰언니 같은 경우도 근데 웃기잖아요, 형제간에 같이 살아도 도움 주는 거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현실적으로(패널참여가구 98).

가족 및 친지에 대한 큰 기대가 없는 것에 반해 오히려 헌신적인 자녀 양육과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를 통한 탈빈곤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빈번히 나타난다. 이들은 자녀를 위해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며, 공부방이 아닌 학원을 무리해서라도 보내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미안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러한 희망은, 행여나 자녀들이 벗어나는 경우 좌절과 회한으로 남기도 하였다.

애가 또 이렇게 뺄뺄어지게 나가니까 여기 신경쓰이는 거예요.. 애하고 평생 이렇게 같이 벌어야 겠어요.. (대책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요.(패널참여가구 7)

나는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못 가리켜 놓고 중간에 포기를 해 놓고 아이들 자유롭게, 공부 못 한 만큼 사회에 뛰지 못하면은 낮춰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내가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부모 없이 지들이 가는 길 흐르는 물 따라서 아이들이, 개들까지는 다 죽을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죄는 없잖아요 나는 아이들이 세상을 태어나게 했는데, 경제적으로 잘 보충을 못 해 주면서, 그것을 부모로서 다 그것을 매꿔 주지 못하니까, 아이한테 더 큰 죄가 되는 것 같고.(패널참여가구 21)

한편, 인적자본 향상을 통한 탈빈곤의 희망을 보이는 경우도 나타났는데, 한부모 가구주로서 수급권 지위를 유지하며 대학교육을 받는 경우(패널참여가구 24, 패널참여가구 76) 나 미용이나 컴퓨터 기술 등의 정부의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인적자본 향상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사실 그다지 높지 않았다. 특히 대학에 재학한 한 여성 가구주의 경우(패널참여가구 24) 대학교육을 탈빈곤의 수단으로 느끼던 1차년도 인터뷰때와 달리, 막상 졸업

이 다가오면서 현실적으로 취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수급상황을 연장하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경제상황이) 달라지려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졸업후 취직하면 내 자신부터 이제는 더 추리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더 당당할 것 같아요 (패널참여가구 24, 1차년도 인터뷰)

그렇다고 내가 졸업한다고 내가 취업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사실 또 나 이도 먹고 내 몸이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배우는.. 인제는 만약에 제가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받겠어요?.. 그거 받아가지고는 생활못해요, 사실.. (패널참여가구 24, 2차년도 인터뷰)

이처럼 본인의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 탈빈곤으로 연결 될 것이라는 확신보다는, 현실적으로 교육이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더욱 크게 지배하였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탈빈곤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사라지는 요인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수급자가) 됐어요...저는 이것도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계기가 반드시 있을거다...왜냐면 준비하고 있으니까...신학과 복지를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요, 희망이 전혀 없어요. 일자리도 없고.. 지금 허리가 많이 아프고.. 글썄요(패널참여가구 76)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탈빈곤에 대해 희망을 잃어가는 현상은 자녀의 성장을 통해 탈빈곤을 기대했던 경우에도 종종 발견된다. 이는 자녀의 교육비가 증가한다는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 “빈곤은 대물림될 것”, “너무 다른 출발”이라는 좌절로 종종 표현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긍정적이었는데..(웃음). 지금은 약간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깐..(웃음) 아무래도. 약간. 안 긍정적인 것은 아닌데요 확률이 조금 떨어졌어요(패널참여가구 12)

가난이 가난을 물려주는가봐, 그말이 맞는가봐(패널참여가구 7)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정말 갈수록 심해진다고 봐요 있는 사람들은 있어서 더 잘살게 되고 물론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끝났다 하면서도 가끔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성공신화잖아요. 그래서 사교육도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어떤 애 하나 이렇게 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내 애도 언젠가 저렇게 되리라 하면서 물려드는 것처럼, 근데 너무 출발이 다른 것 같아요 (패널참여가구 13)

한편, 근로능력이 비교적 왕성한 비수급권자의 경우, “새벽에 우유배달하고 낮에 식당다니고 저녁에 목욕탕 청소”하고(패널참여가구 34 1차년도), 이제는 주말에도 자녀들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나가는(패널참여가구 34 2차년도) 등 양육과 탈빈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패널참여가구 12, 패널참여가구 32, 패널참여가구 73), 자립지원금이나 저축을 통해 자영업을 계획하기도 한다(패널참여가구 71, 패널참여가구 77, 패널참여가구 92). 이처럼 적극적인 탈빈곤 노력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국가의 도움을 벗어나는 것이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한다.

(수급을 받았다면 내 삶이) 더 낙후되었겠지. 왜? 수급권자 제기하는 사람 봤어요? 더 받으려고 이려고 더 막 쓰고 살고 그러잖아. 내가 보니까 그래. 내 5년 경험이야. 그리고 난 수급권자는 안되고 싶어(패널참여가구 32)

제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살려고 해야지, 국가를 자꾸, 국가를 믿으면 수급자 그 분들처럼 자꾸 발전성이 없다고 봐요(패널참여가구 92)

다. 탈빈곤 노력과 경험 및 그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빈곤을 위한 노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경험과 인식은 “가족보다 나음”, “이 가정을 돌볼 수 있음” “돈을 벌래도 못벌다” “왜 그런 식으로 살았냐” 와 같이 코딩되었다. 소위 바닥을 치는 빈곤을 경험을 한 이들에게 수급권은 가족보다 고맙고,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국가의 도움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되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처럼 수급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탈수급이라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게 되기도 하였다.

근데 너무 고마운거야, 진짜 고마워..남들이 도와줘도 고마울 때가 있고 안고마울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걸 진짜 고마운거야 덕분에 애도 공부하고..나라에서 해주는거, 제일 도움되던데... 형제간에 주고 이런 거 보다는 이게 제일(패널참여가구 7)

너는 왜 그런식으로 살았냐, 진짜 그런식으로 살아온 거 맞냐.. 뭐 이런식으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혼자서 이끄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커요..안 그러면 가정적인 것이 무너져요, 생활이 안 되니깐..만약 80만원 벌기위해 김밥천국 같은데 다니잖아요 근무를 10시간을 해야 돼요 그 시간 동안 내가 가정에서 해야될 일을...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패널참여가구 76)

이러한 측면에서 수급권자들의 탈빈곤 노력은 오히려 수급권의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 사례의 경우는 1차 조사 당시 탈

수급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2차 조사에서는 마음이 바뀌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가정과 아동을 돌보아야 한다는 모성의 표출이었다.

물론 (탈수급을 하면) 인제 당당한 면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아마 힘들 거란 생각이 들어요..내가 배움으로 해서 이 가정부터 돌봐야겠단 생각이 들어요..저번에도 한 번 불날 뻔 했거든요 우리 작은 애 때문에, 가스불을...병원비도...(패널참여가구 24 2차년도)

또한 주거, 의료, 교육 등 자신에게 필수적인 개별급여를 포기하기 힘들어서 탈수급을 회피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비록 적은 생계급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추가 소득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노동시장에 나가고 싶어도 수급권의 포기가 가져다 줄 결과를 감당할 수 없어 비밀리에 일을 하거나, 아예 일을 포기한다.

나도 한달에 2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걸로 딸 공부 못시키거든요 아파도 일을 해야돼요 돈 있으면 또 그것마저 지급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도 모르게 일을 하죠(패널참여가구 53).

집만 안정되면.. 근데 이게 (돈을 버린 수급권이 탈락되도록) 제재가 돼 있으니깐, (돈을)벌래도 못번다니깐, 아이씨...(패널참여가구 7)

페이보다도 저는 이거를 하면서 양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페이를 포기하고..박탈되면 보충금도 올려줘야 되고..양육조건에 맞는 사회생활 저는 그거예요..저같은 경우에는 80만원만 벌어도..탈락이에요 근데 그걸 받겠다고 5시간 8시간 이상 가가지고 애 내버려두고 그거 하겠어요?(패널참여가구 76).

이처럼 수급권 유지를 위한 고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급경험은 상당 부분 낙인을 경험하며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경험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수급권을 유지하겠다고 마음을 굳히는 것은, 이전에 바닥을 쳤던 경험에서 겪었던 생활고와 양육의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저는 진짜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아
시잖아요, 잘 조사하러 다니시니까(패널참여가구 24)

엄청 죽을 병이던가 회복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은 누구나 다 (수급제도를)
빠져나올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은요, 아예 여
기서 그냥 일반수급자 되는데 목표더라고요. 목표가, 꿈이 그거예요... 말이 돼
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양육때문에 그래요. 일을 해서 나가서 버는 것
그 시간에 가가지고 애들 방치해놓고 버는 거랑 내가 지금 애들이 4명인데...
그러니깐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패널참여가구 76)

한편 2년전 딸의 취업과 함께 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수급권자(패널참여가구 53)는, 1차년도에서 자립에 대한 강한 희망을 보였다가, 2차년도에서는 희망키움통장 만료와 탈수급을 앞두고 어려움을 예측하고 있었다. 이는 탈수급이 가까워지면서 불안을 느끼는 다른 사례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지만, 딸의 안정적인 취업은 그 어머니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었다.

돈 얼마나 준다고 이런데 붙어있으면 평생 못벗어나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에 의존해가지요.. 나는 좀 살고 그러면 이런 것 안 받고 싶어요
(패널참여가구 53, 1차년도)

진짜 이거(수급) 아니었으면은 나는 뭐 더 고생을 했을끼고 (탈수급하면 아무래도 병원비가 들어가는 것 만 해도 좀 큰데..세금도 내야되고 뭐 의료 보험료도 좀 많이 나가고 그러겠지, 좀 힘들겠쥬,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해 줄거는 해줘야 되는데.. 딸이 직장 생기고 이라면 안되는 건 당연하거든.. 무섭고 불안타고 생각하면 안되지(패널참여가구 53, 2차년도)

수급탈락을 경험하였거나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낙인을 벗어난 활기분한 느낌을,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억울한 느낌과 제도를 악용한 부조리한 수급자가 많다는 의견들을 표출하기도 한다.

전에는 궁상맞게 살았다고 그러나요 우리 아들도? 지금은 자기가 필요한 거 뭐 있으면 얘기해주고 그 전에는 얘기를 안했으니까..그런데 탈수급자 상태가 되고 아빠가 돈을 벌어서 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것도 얘기해 주고 먹고 싶은 것도 얘기해 주고 그리고 또 좀 쉼피하다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수급자가...(패널참여가구29, 탈수급 경험자, 1차년도)

(탈락되었을 때) 기분이 안 좋았쥬. 나는 정말 절실해서 신청을 한 건데. 그니깐 뭐.. 정말 있는 사람은 제대로 조사를 안하고 해주면서.. 좀 없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그거를 잘 알아 보지도 않고 겉으로 판단했을 때.. 겉으로 보가지고 서류상 판단했을 때...(패널참여가구29, 탈수급 경험자, 2차년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아니 근데 그걸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어? 막 40평대 전세 살면서..그러면 집 없는 사람이잖아요(패널참여가구 13).

그냥 주변에는 보면 수급이라고 했을 때 보면 나보다 나은 거 같은데 이

게 돌려가지고 인제 뭐 급여 같은 거 다 돌려놓고 다른 사람 앞으로 돌리고 재산 이런 거 다 돌려놓고 해서 받는 거 보면(패널참여가구 98)

이처럼 수급의 경험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은 측면과 낙인을 받은 것, 탈수급을 피하고 싶은 절박함과 자신이 수급을 받지 못할 경우 느끼는 억울함과 부조리함은 빈곤층에게 일종의 양가감정(ambivalence)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경험에서는 제도의 한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자립과 탈빈곤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의견들도 표출되었는데, “일자리 제공”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의견부터, “국가는 가족”이라는 시각, 사람 하나 키우는 “확실한 지원”, “개별급여” 및 “유예기간”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특히 가구원이 일자리를 얻으면 지원을 중단하는 것보다, 국가가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 가족의 마음으로 확실히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원을 유지해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돈을 얼마를 벌던 어떠한 경제적인 재능이 있건 없건, 전적인 후원 그러니깐 사람을 하나 키우는 거죠 남편 대신이 되는 거죠, 아내 대신이 되는 거고 국가가. 근데 이게 그 기간 동안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 되게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안에는 제가 이걸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저란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 100만원을 투자했다 쳐봐요 100만원을 근데 무슨 일을 하던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럼 하다못해 용돈이라도 모아서 전세를 나갈 수 있고 그런 어떠한 여기에 매여져있으니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기 개발도 안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런 상황. 제가 만약에 여기에 갔는데 주방에서 이거 하고 있어 봐요 그냥 풀칠하기 위해서 이거하고 있는, 저의 재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근데 지금 2005년부터 앞으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딱 이 기간만 아무도 당신이 어떻게

하던 터치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패널참여가구 76)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일자리를 도와주는 것이고 내 주변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을 하면 수급자에서 면제가 되니까 일을 못 하겠다.. 그런데 어차피 도와 줄 바에는 한 일년간 그 사람들을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원을 한 다음에 서서히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않을까 싶네요(패널참여가구 92)

이렇게 켈 처음부터 내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다 떨어질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보이든 안보이는 부분에서 ...혜택을 제외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먹고 사는게 그렇게 급하다면 진짜 위급하면 진짜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그것을 아마 못할 것 같애(패널참여가구 24)

2.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에 나타나는 의미들의 맥락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들이 경험한 빈곤의 경험, 그리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험들의 의미의 단위들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 7-3>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단위들을 중심으로 탈빈곤 노력과 경험의 맥락을 정리한 것은 [그림 7-1]과 같다.

이혼, 사업실패, 빚, 신용불량, 건강악화, 장애 등의 사유로 경제적 빈곤을 경험한 이들은 이로 인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은 기죽은 자녀들을 보면서 부족하고 죄많은 부모라고 느끼고, 불투명한 미래가 두려워 현실을 도피하고 싶기도 하다. 빈곤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철저히 무너진 나, 바닥으로 내려온 삶, 몸의 반쪽이 날아감, 심신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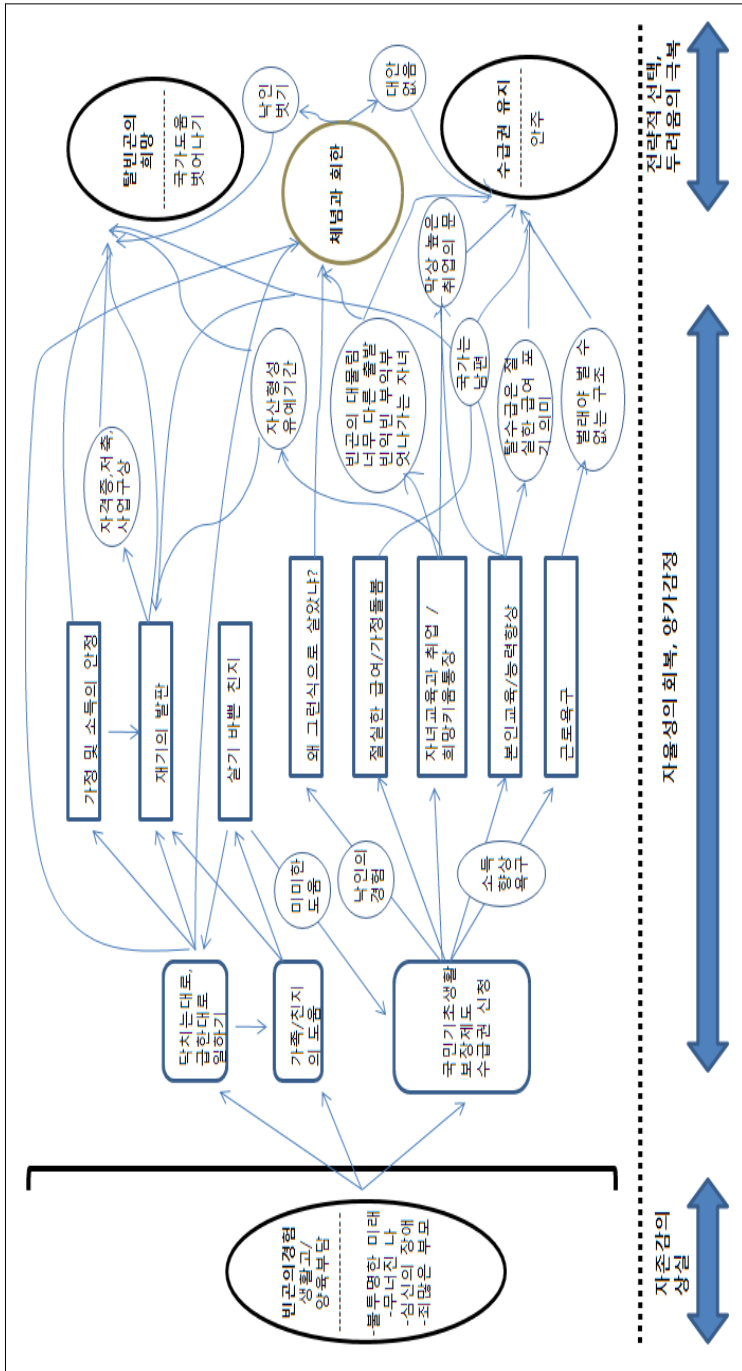
애를 느끼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초기 노력은 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 서라도 닥치는 대로 살길을 찾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급한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며 주위의 가용한 자원을 찾아 보는데, 가족 및 친지의 도움을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다들 살기 바쁘는데 이들로부터 큰 기대를 걸기도 어렵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족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나, 재기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허락하는 경우는, 자격증 취득이나 저축 등을 하며 취업이나 자영업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위 바닥을 친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극심한 양육 부담과 근로의 기회나 주위의 도움을 얻지 못해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 보루(last resort)로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국가의 도움을 신청하게 된다.

〈표 7-3〉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들의 탈빈곤 노력 및 경험과 의미의 단위

빈곤의 경험과 의미 단위			탈빈곤 노력 및 경험과 의미 단위			변화의 경험 (2011→2012)	
경험		의미의 단위	경험		의미의 단위	계 획 의 변 화	
빈 곤 원 인	이혼, 사업 실패, 빚, 신용불량, 건강문제	무너진 나, 바닥으로 내려옴, 심신의 장애	일	불안정한 일자리	다치는데로, 급한대로		
			가 족	가족/친지의 도움, 자녀 교육투자에 대한 희망과 좌절	다 자기 살기 바쁜데, 탈빈곤의 희망, 빈익빈 부익부, 빈곤의 대물림, 너무 다른 출발		
	가족은 자녀 양육부담 생활고	부족하고 좌절은 부모, 없으면 없는대로	수 급 관 련	결실할 때, 가족 보다 큰 도움	가족보다 나음, 국가가 남편되고,		
				노동시장참여포기	이 가정을 돌볼 수 있음, 돈을 벌래도 못한다		
	계획 서지 않음 도파하고 싶은 현실	불투명한 미래, 자살의 충동		수 급 관 련	다양한 낙인경험		
수급연장/머물기			절박한 탈빈곤 노력의 일환				
결 과			탈수급/부정수급		억울함과 부조리함의 양가감정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가족과 같은 국가, 투자, 개별급여, 유예제도			
	비 수 급 관 련	일	지속가능한 여건	재기의 발판			
		가 족	가족의 재결합/도움받기				
		투 자	자격증,저축,자영업, 본인교육		국가도움을 벗어나기=개인의 발전		
			제 도	일자리 중심으로 복지혜아	수급은 낙후된 삶 초래		

[그림 7-1]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들의 탈빈곤 노력 및 경험의 맥락



수급권의 신청은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너무도 절실한 탈빈곤 방법이며, 수급권자가 되면 오히려 가족보다 나은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한부모 가구의 여성에게는 양육과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모성의 보호이자, 국가가 남편이 되는 가족과 같은 경험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일을 하면 가장 필요한 급여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벌래도 못벌고, 일을 해도 몰래하는 답답한 경험도 하게 된다. 자산 과정 조사에서 왜 그런 식으로 살았느냐고 낙인을 받는 기분도 든다. 수급지위를 유지하면서 본인이 교육도 받고 자녀에 대한 투자를 통해 탈수급의 희망도 가져보지만, 막상 본인의 취업문은 두렵고 높다. 현실에서 너무도 다른 출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결국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것이 뻔해 자녀들에게 더 큰 죄가 된다는 느낌도 들게 된다.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자녀가 기출 등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남은 희망마저도 없어지고 체념과 회한에 젖게 된다.

이들은 점차 탈빈곤의 노력이 수급권의 유지의 노력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외부에서는 안주한다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방법만이 가정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는 절실함과, 다시는 바닥을 쳤던 경험으로 가고 싶지 않은 절박함의 표출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제도의 적용은 억울함과 부조리함이 있다고 느끼기도 하며, 제도에 대한 양가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수급 도중 취업한 자녀가 생기며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받게 되었다는 경우에도 여전히 탈수급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다는 것이 버팀목이 되고, 유예기간을 통해 탈수급을 준비할 수 있기도 하였다.

탈빈곤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생생한 의견도 자신들의 경험과 선택한 행동의 맥락에 비추어 제시되고 있다. 수급경험이 없고 근로능력이

왕성한 경우는 일자리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으로부터, 한부모 가구의 여성 가구주는 국가가 남편이 되어주고 기왕 지원할 거면 사람하나 확실히 제대로 키우도록 투자하라고 하며, 탈수급까지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들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해온 빈곤의 개념이 실제 당사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빈곤을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과 경험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해되어지는지, 탈빈곤 제도에 대해 느끼는 감정들은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는지, 탈빈곤 제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경험적 제언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3.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에 나타나는 의미의 해석

그렇다면, 이러한 빈곤의 경험과 탈빈곤 노력에서 나타난 경험과 의미들의 맥락, 그리고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나타난 변화가 제공하는 의미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

우선 빈곤의 경험에서 도출된 의미들은 한마디로 빈곤이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 그 이상의 자존감의 상실과정이라는 것이었다. 빈곤의 경험은 스스로가 무너지는 장애와 같은 경험이며, 이러한 경험은 극단적인 생각을 할 만큼 피하고 싶은 현실이기도 하다.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무너져버린 나를 발견하는 이들에게서 더 이상 자존감을 찾기 힘들다.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빈곤을 정의하는 수리적 사고 만으로는 빈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빈곤이란 복잡적이고 다양한 맥락에서,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자존감과 관련된 의미는 수급경험에서도

나타났다. 비록 수급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과연 말 그대로 수급이 권리인지 아니면 시혜인지 모를 정도로, 고압기는 한데 낙인을 찍히는 경험이었고, 절실하긴 한데 앞길을 막는 경험이었다. 국가가 내 남편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은 나를 존중해주는 그 무엇에 대한 욕구의 표출이기도 하였다.

탈빈곤을 위한 노력에서 나타난 의미는 자율성의 회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닥치는 대로, 급한 대로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했던 경험들 속에서, 계획이 서지 않는 삶 앞에서 불안해하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은 곧 무력감과 죄의식으로 연결되었다. 만일 취직해서 돈이 더 생기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싶다는(패널참여자 구 24) 진술은, 이러한 자율성의 회복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들은 한편으로 제도의 보호 하에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의 도움을 벗어나서 벌고 싶은 대로 벌고 싶기도 한, 양가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수급을 받지 않는 빈곤층은 국가의 도움을 벗어나는 것이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반면, 막상 수급을 경험하게 되면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탈수급의 장벽을 너무도 높게 느끼게 된다.

수급권자들에게는 탈빈곤을 위한 노력이 현재의 수급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그 행위들이 내포한 의미들은, 이들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의존성이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와 같았던 빈곤 경험에서 필사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고, 자존심의 상처와 낙인까지도 감수하면서도 제도에 안주를 하려는 ‘전략적인 선택’²⁰⁾으로 보인다. 즉, 이들은 자신의 빈곤경험과 맥락을 돌이켜볼

20) 백학영,조성운(2012)이 자활참여자들을 대상으로한 질적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수급권자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맥락에서, 본 연구에도 적용가능하다.

때, 다시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회피의 전략이 더 중요하였고, 이는 곧 시장으로 나가는 위험보다 수급권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 양육을 하는 한부모 가구의 경우, 이러한 선택은 자녀에게 지원을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한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1차년도에는 탈수급을 계획하였다가 2차년도가 되자 막상 다가오는 현실 앞에서 다시금 벽을 느끼고 탈수급을 회피하려는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패널참여가구 24). 한편 1차년도에서 아들의 성장과 함께 탈빈곤을 꿈꾸었다가, 아들이 기출 등의 비행으로 엇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희망을 잃게 된 경우, 자녀의 성장에 따라 다가오는 탈수급이 두렵기만 하다(패널참여가구 7). 이러한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전략은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이 있을 때 비로소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딸의 취업과 동시에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여 자산을 형성하는 동시에 수급권 유예를 받은 사례(패널참여가구 53)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들에 대한 해석은 탈빈곤 제도가 현장의 수급권자들에게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동원리 뿐만 아니라, 회피, 희망, 두려움, 극복, 자존감, 자율성과 같은 삶의 작동 원리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이다.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에 초점을 두어 빈곤의 경험과 탈빈곤의 노력 및 경험을 종단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경험들에서 찾아낸 의미의 단위들은 다시금 맥락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맥락들의 이해 속에서 탈빈곤의 의지, 탈수급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빈곤층이 선택한 다양한 행위의 해석을 시도할 수 있었다. 이는 방법론적으로도 확률에 근거한 수리적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적연구와 균형을 이루어, 탈빈곤의 노력과 경험에 대한 보다 풍부한 설명과 탈빈곤 정책의 작동 기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인 15가구 중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7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무능과 외도, 폭력 등의 사유로 이혼과 함께 종종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악화를 경험하고, 경제적 실패에 따른 빚이나 신용불량 상태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주위에 기댈 곳 없는 상태에서 아동 양육의 부담이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수급권을 신청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빈곤경험들은 단순히 빈곤을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상태로만 정의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급을 하지 않고 있는 8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사업 실패나 빚, 배우자의 가출, 신용불량, 건강, 이혼, 가구원의 장애 등으로 빈곤에 이르게 되었으나, 배우자와의 재결합, 근로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건강 및 학력수준, 노동시장 경험, 혹은 주위의 도움이나 가구 구성원의 성장 등의 주위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수급 선정 탈락 혹은 아예 수급 자체를 신청하지 않아도 변함없는 가구 경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들이 경험한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은 자존감의 상실로 해석할 수 있었고, 탈빈곤 노력은 이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자율성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환경과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탈빈곤 제도에 대해 양가감정을 경험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전략적 선택을 취하고 있었다. 빈곤 지위나 수급지위의 변화를 앞둔 이들의 인식의 변화과

정에서 찾아낸 의미들은, 결국 탈빈곤의 과정은 두려움의 극복과도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들에 대한 해석은 탈빈곤 제도가 현장에서는 정책적 작동 원리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들의 삶과 관련된 행위들의 작동 원리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향후 탈빈곤 제도의 개선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개별급여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장치는 탈수급 유인과 근로유인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장치가 빈곤 당사자들에게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주어 빈곤의 트라우마와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범퍼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함의도 가지고 있어, 향후 이러한 범퍼 역할에 초점을 둔 유예제도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단적 질적연구를 시도했던 본 연구는, 그러나, 지난 1,2차년도 자료만으로는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의 의미와 맥락을 찾으려, 변화에 대한 해석을 할 만큼 자료의 양이 풍부하지 않았다. 특히 빈곤지위나 노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연구 대상자들의 인식의 변화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탈수급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수급권자들이 별다른 인식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비수급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되었다. 향후 3차년도 패널이 구축이 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들의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빈곤 지위나 수급지위의 변화도 많이 감지되어, 변화 중심의 종단적 질적연구가 가능하리라 기대해본다.

제8장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

제1 절 서론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고소득 전문직, 일류대학, 최고급빌라, 고급외제차, 명품의류, 건강한 몸과 같은 객관적 현상인가, 아니면 자족, 화목한 가정, 여유로운 생활, 높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평안함과 같은 주관적 경험인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실증적 시도이다. 만약 전자가 답이라면, 즉 객관적 상태나 현상이 행복의 원천이라면, 우리는 객관적인 요인이나 조건들을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데만 관심을 두면 될 것이다. 그러나 후자가 답이라면, 인간의 행복수준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다시 이러한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부자들은 부자인 것만으로 행복한가, 마음도 부자여야 행복한가? 이와는 반대로 빈자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불행한가, 가난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리 명쾌해 보이지는 않는다. 부자 중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매우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빈자 중에서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매우 행복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살이 그러한 현상의 극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질문을 고쳐보면 다음과 같다. 객관적인 상태가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특정한 하나의 요인이나 조건, 상태라기보다는 서로 연결된 ‘그것들의 구조’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우선 이러한 구조를 ‘맥락’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사전적인 의미로 ‘맥락’은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이기 때문이다(표준국어대사전).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행복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맥락을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저소득층이라는 소득수준의 극단에 있는 하위집단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관적 경험이나 그것과 객관적 상태의 관계를 아는 것이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의미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어떤 이가 이혼으로 인해 우울증을 갖게 되고(객관적 상태), 그것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을 갖게 하였으며(주관적 경험), 그로 인해 자신을 불행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자. 또한 불행한 가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불행하게 느껴왔던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생의 행로를 바꿀 수 없다는 비관주의(주관적 경험)에 빠지게 되고, 이 때문에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수급자(객관적 상태)가 되었다고 하자. 즉, 객관적 상태가 주관적 경험과 행복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행복감이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경험, 행복 간의 순환적이고 복합적인 구조(여기에서는 맥락)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이 일상생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은 채 숨겨져 있으며, 뻘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은밀한 맥락’으로 부르

고자 한다. 결국 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행복의 은밀한 맥락을 발견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양적 연구접근을 통해 빈곤선이나 빈곤 실태, 빈곤의 원인과 결과, 영향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질적 연구접근을 활용한 연구들도 저소득층의 행복 수준이나 주관적 의미, 생애경험 등을 탐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상태나 요인, 경험 등의 복잡한 관계를 규명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경험, 행복의 상호 연결된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귀납적 접근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이하 질적 패널)’에 포함된 저소득층 일반가정 10가구이다. 패널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 한부모가구는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일반가구 중에서 연구 질문 중 하나인 ‘행복 점수’에 극단적으로 응답한 두 개 집단(8~10점 상위집단과 1~3점 하위집단)을 분리한 뒤, 각 집단에 포함된 사례 중 5가구씩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질적 패널을 대상으로 한 2011년 1차 조사에서 수집한 질적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또한 각 사례의 녹취록 전체를 활용하였다.

셋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사례의 녹취록 전체를 읽으면서 구체적인 상태와 경험들을 의미단위 수준에서 가려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상태와 경험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후에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태와 경험들의 맥락을 보여주는 도식

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런 식으로 각 사례의 맥락을 분석한 뒤에 전체 사례를 통합하는 맥락 구조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하에 제시할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자는 분석결과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도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제2절 연구결과

1. 사례별 맥락

가. 낮은 수준의 행복

1) 사례 A

A의 주관적인 행복 점수는 1점이었다. 그는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으며 그냥 사는 것이라고 했다. 아름다운 것을 보는 순간들이 행복하지만, 지금은 다 포기하고 마음을 비워서 불행하다는 생각도 안한다고 하였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는 ‘ 남편’을 들었다. 혼자 살고 싶고,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쪼들리지 않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였다.

A의 경험에서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지침’, ‘부담감’, ‘무망감’, ‘분노’, ‘뿌듯함’, ‘즐거움’, ‘소외감’, ‘위화감’ 등이 발견되었다. 다시 정리하면, 행복하게 느끼도록 하는 경험으로는 뿌듯함과 즐거움이 있었으며, 불행하게 느끼도록 하는 경험으로는 지침, 부담감, 무망감, 분노, 소외감, 위화감이 있었다.

A의 경험은 A가 인식한 현상의 영향을 받는다. A에게 부정적 경험으로 인식되는 것으로는 노동(휴일 없음과 고됨, 손님에게 시달림, 여가 시간 없음) 영역과 고용(남편의 실직) 영역, 재정(저소득, 세금 체납, 생계 걱정, 월세와 연금에 대한 고정지출, 채무, 고물가) 영역, 관계(남편과 친지, 친구와 관계 단절, 남편의 폭력) 영역, 건강(아픈 몸, 우울증, 본인과 남편의 노화) 영역의 구체적인 현상들이 있었다. 긍정적 경험으로 인식될만한 현상은 없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남편의 실직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는 남편과 관계 단절을 포함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며, 여기에서 파생된 남편의 폭력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이는 본인의 고된 노동과 연결되면서 마음을 지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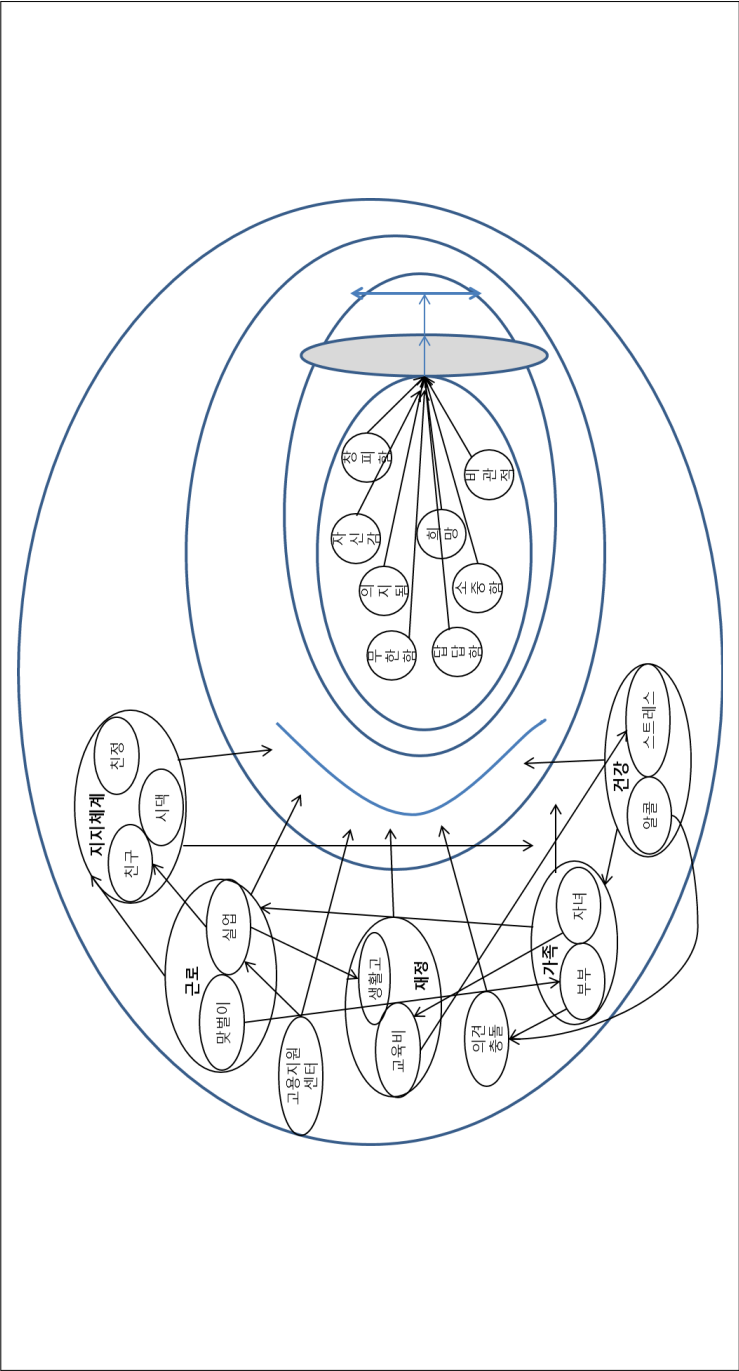
2) 사례 B

B의 행복 점수는 3점이었다. 아이들이 행복의 요인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부모를 이해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해야’ 하고, 내가 노력해야 행복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B의 경험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자신감’, ‘희망’, ‘의지됨’, ‘무한함’, ‘소중함’, ‘창피함’, ‘비관적’, ‘답답함’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긍정적인 경험으로는 자신감과 희망, 의지됨, 무한함, 소중함 등이, 부정적인 경험으로는 창피함, 비관적, 답답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B가 인식한 현상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는 근로(맞벌이, 실업) 영역, 재정(생활고, 교육비) 영역, 가족(부부, 자녀) 영역, 지지체계(친구, 시댁, 친정) 영역, 건강(알코올, 스트레스) 영역 등이 포함되었다.

[그림 8-2] 저소득층 사례 B의 행복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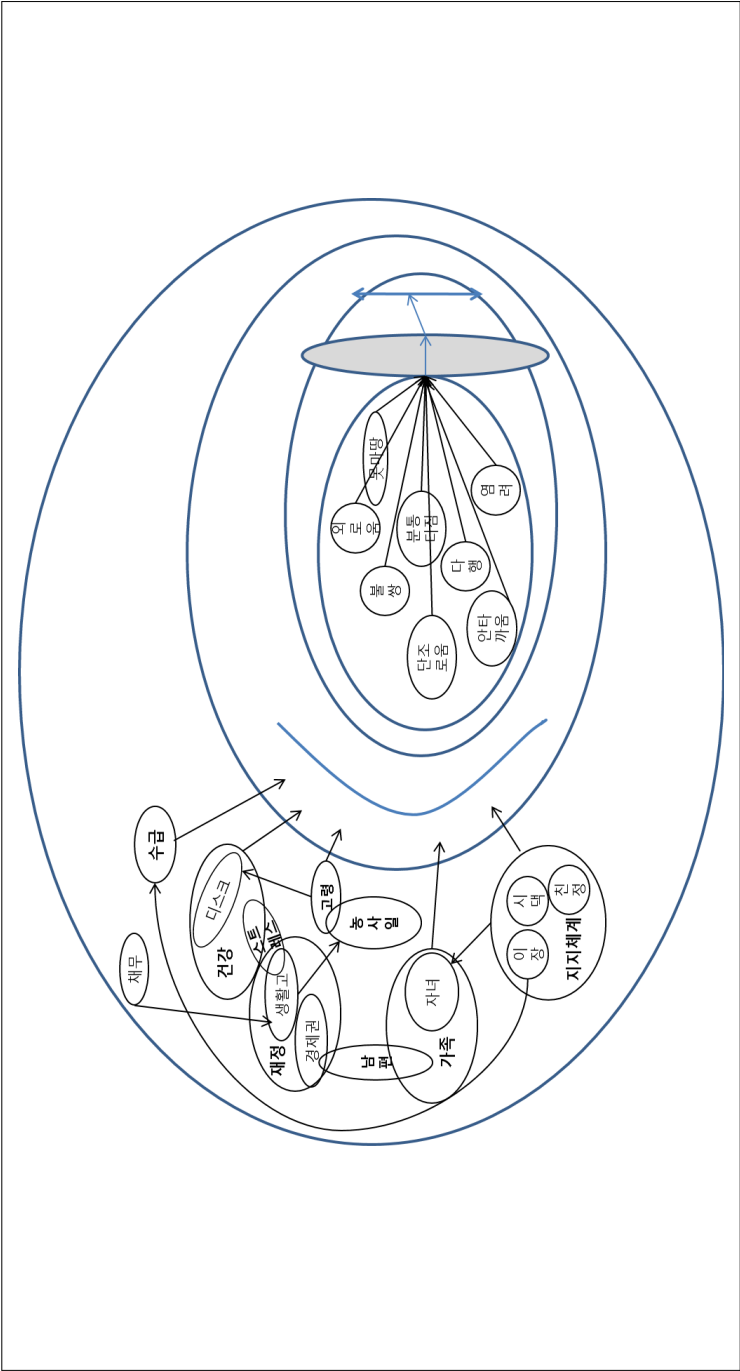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의 다양한 영역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B의 다양한 경험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 남편의 ‘실업’은 ‘생활고’로 이어지고, ‘맞벌이’를 하면서 남편의 ‘알코올’ 문제와 겹치면서 부부 간에 의견충돌이 생기고, 그것이 답답함과 비관주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B가 인식한 현상 중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3) 사례 C

C의 주관적인 행복 점수는 3, 4점 정도였다. 그러면서 항상 참는 것이라고 했다. 농담하고 웃고 즐길 때는 행복하지만, 일을 할 때, 몸이 힘들어서 술을 많이 마실 때 짜증스럽다고 하였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가족이 건강함을 들었다. C의 경험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외로움’, ‘분노(못마땅함과 분통 터짐)’, ‘다행스러움’, ‘단조로움’, ‘부정적인 미래 전망(염려, 불쌍함)’, ‘안타까움’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 중에서 행복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는 다행스러움이 있었으며, 나머지 경험들은 불행을 느끼도록 하는 것들이었다.

C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C가 인식한 현상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들이었다. 재정(생활고와 경제권 없음, 채무, 국가 지원), 노동(농사 일), 가족(남편이 돈을 관리함, 자녀의 무직, 시댁과 갈등), 건강(고령, 허리 디스크, 스트레스) 등이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인접한 병원이 없음, 젊은이들이 취로사업을 차지함)의 상황들이 이를 더욱 가증시킨다. 그러나 과거에 수급 경험이 자녀 등록금 지원으로 이어진 일이나 울타리로 느껴지는 가족, 남편과 관계 회복, 소를 사준 시동생, 수급 신청을 도와 준 이장, 집을 장만하게 된 일 등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림 8-3] 저소득층 사례 C의 행복 맥락



4) 사례 D

D의 행복 점수는 0이었다. 아이를 빼놓으면, 정말 행복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도 더 탐색해 보면, 형제간 우애로 교류할 때, 시누들과 만났을 때도 행복하다고 하였다. 반대로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으로 가장 큰 것은 남편과의 관계였다. 남편의 잘못된 마음. 행복해지려면 남편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D의 경험에서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화목하지 않음’, ‘절실함’, ‘외로움’, ‘다행스러움’, ‘힘듦(지침과 불만)’, ‘자신감 없음’, ‘뿌듯함’, ‘애뜻함’, ‘긍정적 기대’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다행스러움과 그로 인한 긍정적 기대, 뿌듯함은 행복감을 느끼는 데 기여하고, 다른 경험들은 대부분 불행하게 느끼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목하지 않은 상태가 ‘따뜻한 가족’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하고, 이것이 다시 행복과 연결된다는 점, 그리고 남편의 빚 보증으로 고생했지만, 그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못 빌려주게 되었고, 그것을 다행스럽게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험들의 관계가 단순해 보이지는 않는다.

D의 경험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D가 인식한 현상들로는 가족(일을 도와주지 않고, 자녀와 놀아주지도 않으며,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보증을 서서 빚더미에 앉게 만든 남편과 갈등, 임신중독과 건강 악화를 초래한 자녀) 영역, 지지체계(자녀를 돌봐주는 언니, 얹혀 삶, 도움을 주는 시댁과 친정 언니) 영역, 노동(자녀를 돌볼 시간과 여력이 없게 하는 직장) 영역, 건강(건강 악화, 스트레스) 영역들이 있었으며, 사각지대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제도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D의 현상에서는 긍정적으로 경험될 만한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5) 사례 E

사례 E의 행복 점수는 2점이었다.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것들이 있어서 2점을 주었다고 하였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항상 불안하다고 하였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역시 가장 크다.

E의 행복 수준과 관련된 경험들로는 ‘뿌듯’, ‘살만함’, ‘즐거움’, ‘지침’, ‘맘이 조임’, ‘징글징글함’, ‘불안’, ‘힘듦’, ‘걱정’ 등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경험들보다는 부정적인 경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부정적인 경험들이 상당히 극단적인 수준을 표현하는 반면에, 긍정적인 경험들은 소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경험의 영역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여지가 적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E가 인식한 현상들로는 가족(남편의 술과 폭력, 장애 자녀, 손자녀), 지지체계(동네 사람, 시숙), 교육(문맹, 노인학교), 건강(스트레스, 피곤), 일(머슴살이, 논밭 일), 재정(생활비 부족, 손자녀 교육비) 등이 있었다. E가 인식한 현상들을 둘러보아도 대부분의 영역들이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파악하게 된다. 늘 술을 마시는 남편은 폭력까지 휘두르고, 장애자녀와 함께 스트레스원이 되며, 문맹으로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논밭 일 밖에 없어서 생활비도 부족하고 늘 피곤하다. 손자녀 교육비도 제대로 대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나마 손자녀와 자신을 돕는 동네 사람들, 시숙 정도가 살아가는 데 위안이 되는 존재들이다. 이러한 현상의 영역들은 역시 서로 연결되어 있고, E의 주관적 경험에도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

나. 높은 수준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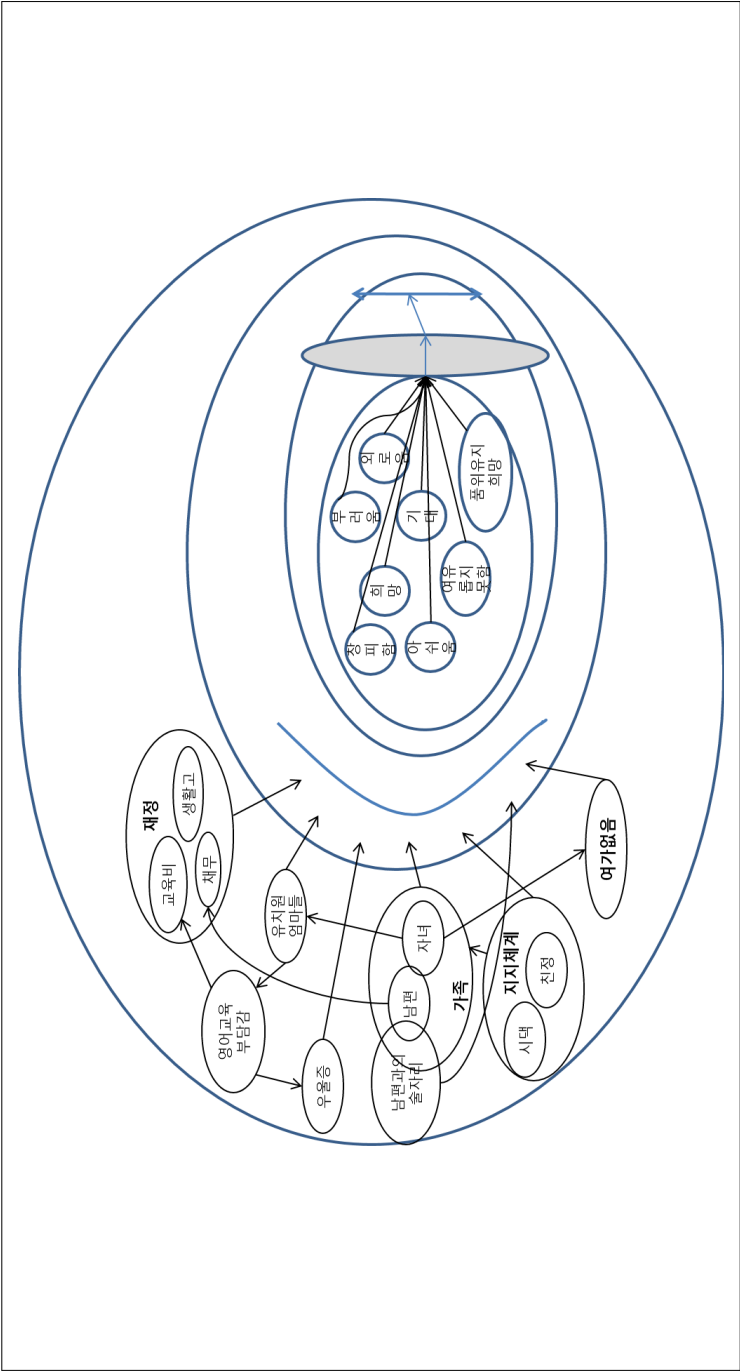
1) 사례 F

F의 행복 점수는 7~8점이었다. 가족관계는 100% 만족하지만 친인척들이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하루 종일 가족과 놀아도 행복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항상 로또를 꿈꾸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F의 경험 중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부러움’, ‘외로움’, ‘자녀에 대한 희망’, ‘긍정적 기대’, ‘이슈움’, ‘품위 유지를 못함’, ‘여유롭지 못함’, ‘만족함’, ‘창피함’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 중에서 부정적인 것들로는 부러움, 외로움, 이슈움, 품위 유지를 못함, 여유롭지 못함, 창피함을 들 수 있고, 긍정적인 것들로는 자녀에 대한 희망, 긍정적 기대, 만족함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모두 F가 인식한 현상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엮어져 있기도 하다.

F가 인식한 현상을 분류해 보면, 가족(남편과 자녀) 영역, 관계(시댁, 친정, 유치원 엄마들) 영역, 건강(우울증) 영역, 노동(직장 체현, 경매, 공공근로, 여가 없음) 영역, 재정(생활고, 채무, 교육비, 영어교육, 고물차, 국비 지원) 영역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영역과 현상들은 F의 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자녀와 남편, 공공근로를 제외하고는 긍정적으로 경험될만한 현상이 거의 없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재정 상태는 창피함과 품위유지 못함을 경험하게 하며, 다른 유치원 엄마들을 부러워하게 하고, 이는 다시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그럼에도 F가 행복하게 느끼는 이유는 가족에 대해 만족스러워하기 때문이다.

[그림 8-6] 저소득층 사례 F의 행복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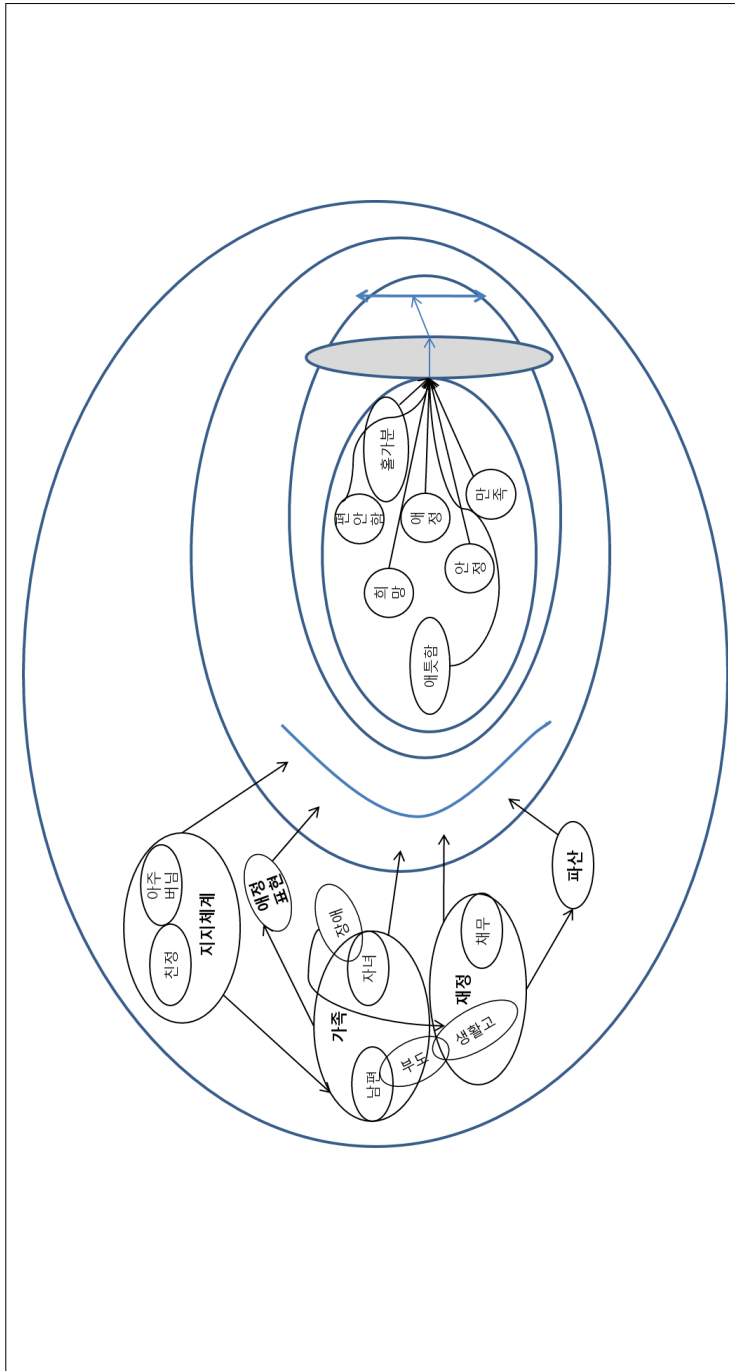
2) 사례 G

G의 행복 점수는 8점이었다. 10점에 부족한 2점은 경제적 문제라고 하였으며, 두루두루 좋은 것이 행복이라고 하였다. 경제적인 것만 있으면 더 행복해 질 것 같다고 하였다. 가끔 날씨 때문에 우울할 때가 있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남편은 자기가 젊으니 믿으라고 한다고 하였다. 남편이 하고 싶은 일 찾아서 시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G의 경험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안정감(휴가분함, 편안함)’과 ‘화목함(애정, 만족)’, ‘희망(정서 안정, 경제 안정, 잘 되리란 믿음)’, ‘애뜻함’을 볼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는 달리, 이 사례에서 부정적인 경험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족’인 것으로 보인다. 미숙아로 태어난 자녀를 돌보는 일과 과다한 의료비, 그리고 남편 사업의 부도와 채무, 파산으로 친정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 했고, 남편 친구들한테는 빚잔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가족 관계에는 변함이 없었다. 남편과 가족, 친정 식구들은 늘 내 편이면서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아주버님은 빚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가난해진 대신 절약을 생활화하면서 오히려 부부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했다. 국가의 도움으로 파산에서 회생하면서 휴가분해지고 안정되면서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 미숙아로 태어나긴 했지만 무병무탈한 아이도 이러한 긍정적 경험에 한 몫을 한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화목함이나 희망을 가지는데 방해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것을 압도할 만한 긍정적인 경험들이 있는 것이다.

[그림 8-7] 저소득층 사례 G의 행복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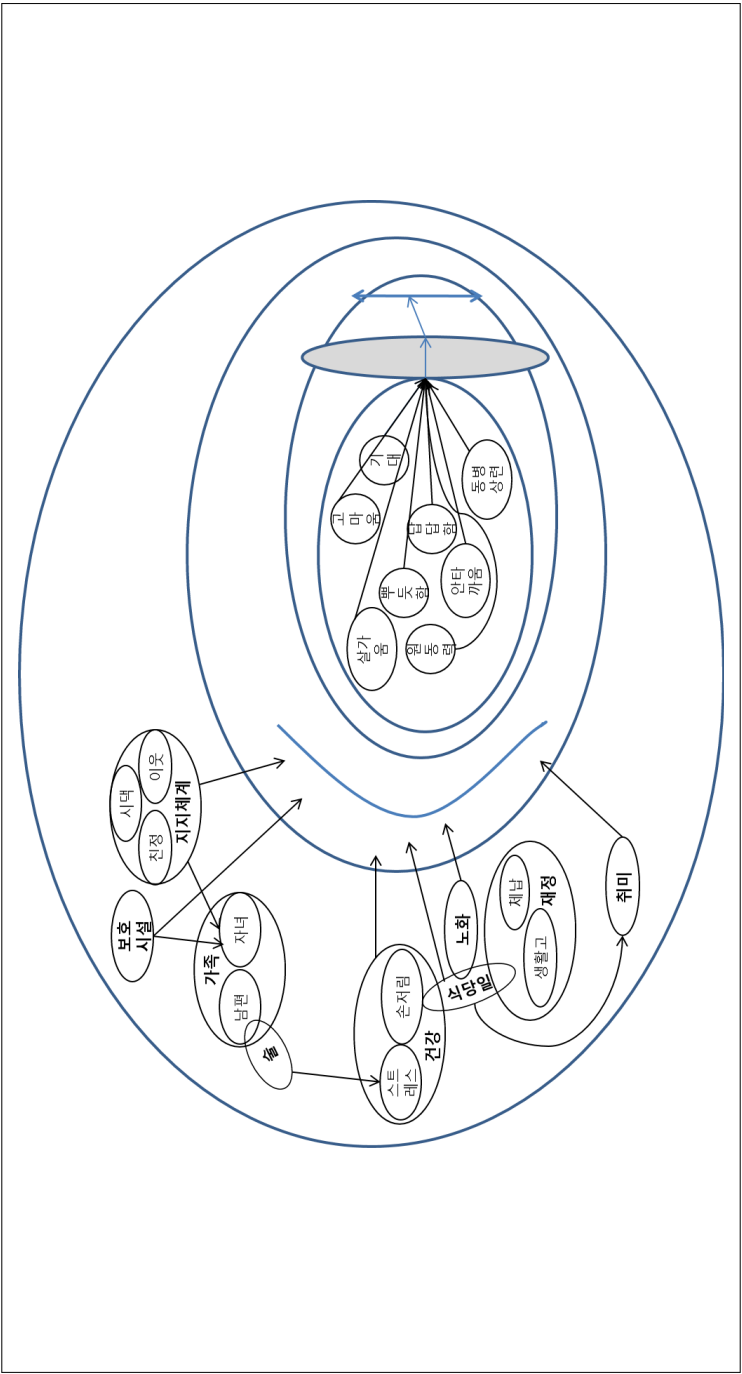
3) 사례 H

H의 행복 점수는 8점이었다. 가족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경제적인 것이 부족한 2점에 해당한다. 이웃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삶을 바라며,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H의 행복과 관련된 경험으로는 ‘원동력’, ‘뿌듯함’, ‘안타까움’, ‘기대’, ‘답답함’, ‘동병상련’, ‘살가움’, ‘고마움’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의 대부분은 H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경험은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데서 느끼는 뿌듯함과 친정과 시댁을 만날 때 느끼는 살가움과 고마움, 서로 보듬어주는 가족 등이다. 그러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주지 못하는 데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행복 수준을 낮게 만들어준다. 그래도 자녀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긍정적 생각을 갖게 해주어 행복한 마음에 이르게 한다. 형편은 어렵지만 그 때문에 자신과 같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되며, 그런 이웃을 도울 때 뿌듯한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한다.

H가 인식한 현상들이 이러한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현상은 역시 생활고와 체납을 포함한 재정 상태다. 이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데, 노화로 인해 힘에 부친다고 느껴진다. 가정 일에 무심하고 술만 늘어가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이 노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녀들이 잘 성장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친정, 시댁, 이웃들은 든든한 지지체계로서 물질적, 정서적 도움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해준다. 손이 저려서 장애자녀를 돌보기가 어렵지만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괜찮다.

[그림 8-8] 저소득층 사례 H의 행복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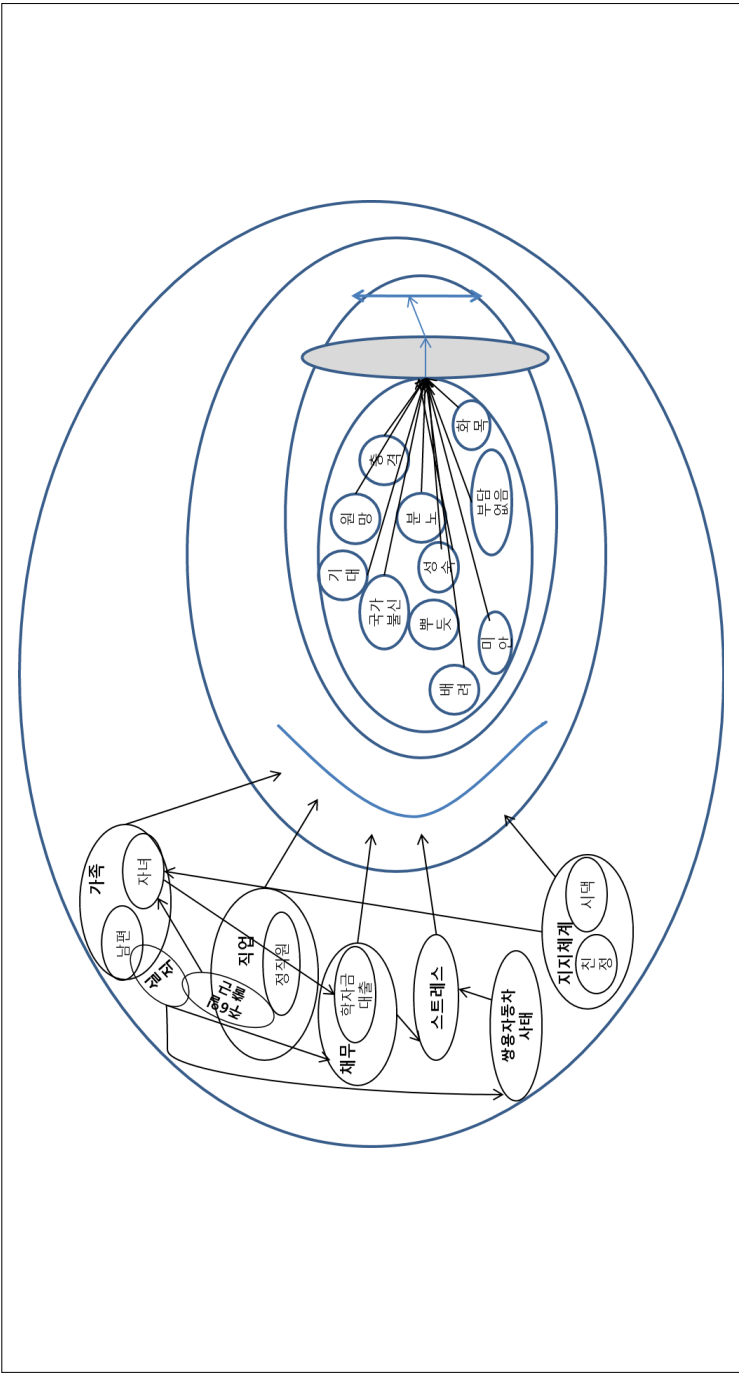
4) 사례 I

I의 행복 점수는 7~8점이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그 위치로 생각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 밑으로 잡으면 끈을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더 나쁜 상황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정도라도 고맙게 생각하려 한다. 부담도 되지만 고맙기도 하고 의지도 되는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다. 필요한 것은 많지만 큰 돈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이 불편함 없이 손 벌리지 않을 정도면 되겠다.

I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경험으로는 ‘분노’, ‘속상함(원망, 충격)’, ‘고마움(성숙, 뿌듯함)’, ‘안정(부담 없음, 만족함)’, ‘안타까움(미안함, 적응 안됨)’, ‘적응유연성(긍정적 기대, 화목)’, ‘배려’ 등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 행복하게 느끼도록 하는 경험으로는 고마움, 안정, 적응유연성, 배려 등이 있고, 불행하게 느끼도록 하는 요인으로는 속상함, 안타까움, 분노 등이 있다. I의 경우 불행 요인보다 행복 요인이 풍부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많은 부정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I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 현상들로는 가족(남편, 자녀), 지지체계(친정, 시댁), 노동(남편 비정규직 해고, 정직원, 주 6일 출근), 건강(피곤함, 스트레스), 재정(채무, 수급, 학자금) 등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들 중에서 주관적 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직원이 됨과 친정과 시댁 등 지지체계, 자녀밖에 없었다. 지지체계는 힘들 때 도움이 되고 다독여 주고, 이해해주었으며, 자녀는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직장의 정직원이 된 것은 안정된 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남편의 실직과 채무,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됨, 피곤함과 스트레스, 수급자가 됨, 자녀교육의 한계 등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

[그림 8-9] 저소득층 사례 1의 행복 맥락



5) 사례 J

J가 부여한 행복 점수는 10점이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종교, 둘째, 환경을 들었다. 그리고 환경으로는 좋은 환경, 좋은 사람, 좋은 남편, 착한 아이들을 들었다. 이 정도로 만족한다는 것이다. 종종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때 마음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혼자서 괴로울 때도 있지만 마음을 잘 조절하면 된다고 하였다.

J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들로는 ‘즐거움’, ‘의지가 됨’, ‘책임감’, ‘만족함’, ‘긍정적 생각’, ‘문화충격’, ‘그리움’, ‘안타까움’, ‘여유 없음’, ‘어려움’, ‘불안함’, ‘부담감’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 중에서 처음에 제시된 즐거움부터 긍정적 생각까지는 J를 행복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들인 반면에, 문화충격부터 마지막의 부담감까지는 J를 불행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J의 주관적 경험을 구성하도록 영향을 미친 현상들로는 가족(남편, 자녀 교육과 양육의 어려움) 영역, 지지체계(종교, 교회, 친구) 영역, 노동(강사) 영역, 환경(좋은 환경, 높은 물가, 국가의 지원, 성차별) 영역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경험에도 영향을 주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J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즉 고물가 시대에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어 부담감을 갖게 되고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가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일 자체에 만족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태도와 함께 교회를 포함한 종교체계와 종교적 신념, 즉 신앙의 영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 통합된 맥락

지금까지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을 사례별로 살펴보았다. 개별 연구참여자들이 부여한 행복 점수와 그 의미, 그것에 연결된 주관적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들과 관련된 현상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행복과 경험, 현상이 가지고 있는 맥락 구조를 그려보았다.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전체 사례들을 통합할 수 있는 맥락 구조를 구성해 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8-11]과 같다.

이 그림은 개별 사례들이 보여준 맥락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의 토대가 되는 생태체계관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에서 동심원 구조의 가장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작은 원은 ‘마음’이다. 행복과 관련하여 그 마음은 다시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원은 인간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인지-정서’ 반응의 복합적 구조를 뜻한다. 가운데 타원은 ‘가치관’으로서 마음의 빛을 굴절시키는 프리즘 역할을 한다. 오른쪽의 세로 선은 ‘행복감’ 또는 행복수준으로서 가치관을 통해 굴절된 마음이 투영되는 곳이다. 결국 각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 수준은 가치관을 통해 평가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다.

마음을 둘러싼 다음 원은 ‘몸’이다. 몸의 중간에 있는 선은 외부체계와 마음의 경계가 되는 감각기관으로서 우리가 ‘인식’이라고 부를만한 것이다. 몸과 마음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시적 또는 중범위적 환경체계의 ‘현상’과 만나게 된다. 이러한 만남을 ‘인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식주체인 나의 마음과 몸이 인식대상인 현상을 만나는 ‘인식’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관계와 일, 생활영역, 사회제도 등으로 명명된 작은 원들을 포함하고

있는 큰 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우하게 되는 환경체계들이며,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는 조건 안에서 이들은 의미를 갖게 되고, ‘현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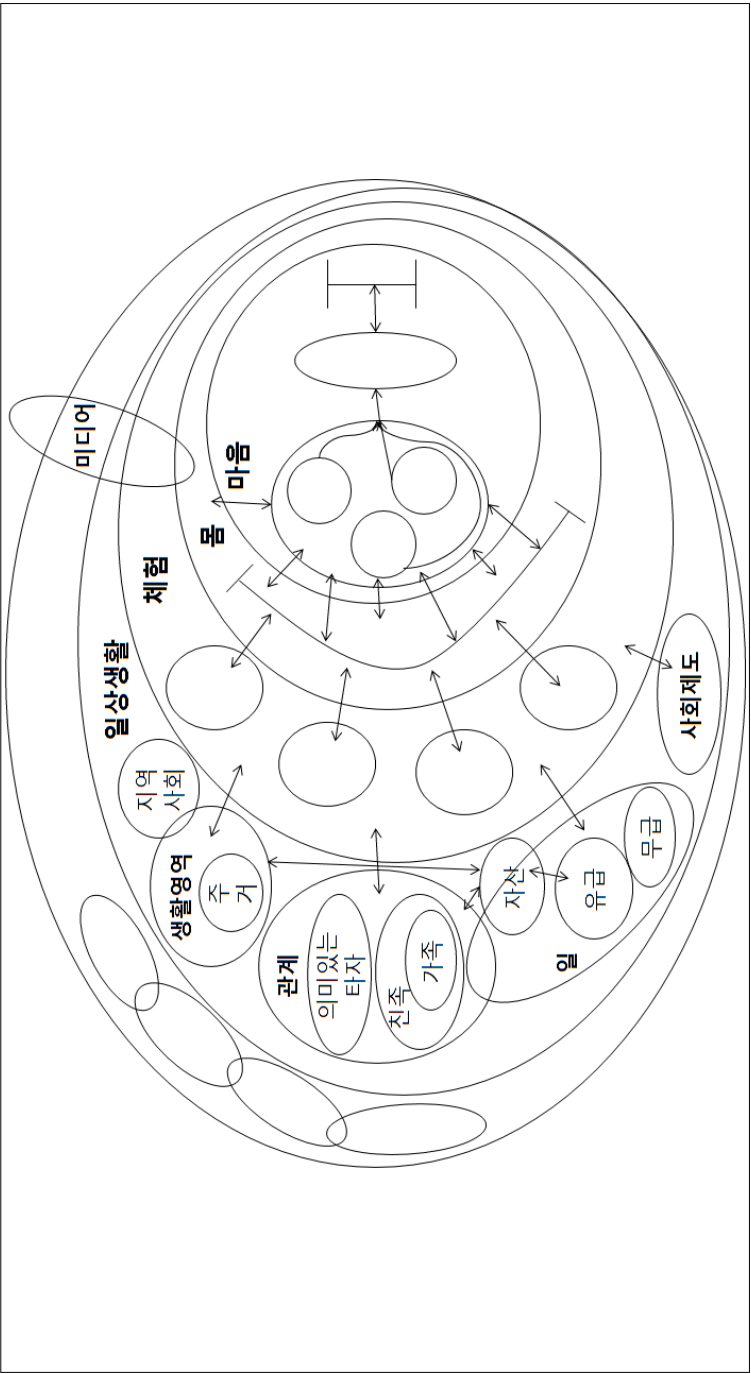
인식대상인 현상과 인식주체인 나(마음과 몸을 포함하는)의 중간에 있는 영역을 ‘체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체험은 인식대상인 현상과 인식주체인 나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것이다.

동심원의 가장 바깥에 있는 원은 일상적인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시적 또는 초월적 영역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일과 관계, 생활영역, 사회제도 등으로 구성된 ‘현상’은 마음과 몸으로 구성된 인식주체인 ‘나’에 의해 인식되며, 현상과 ‘나’가 통하는 지점에서 ‘체험’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영역들은 순환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결된 맥락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상-체험-인식-마음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마음-인식-체험-현상의 순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과 관계는 생활영역, 사회제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구체적인 체험과 연결되고, 마음-행복으로 이어진다.

서론에 언급한 예를 이 연구의 예로 바꾸어 보자. 남편의 실직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졌고, 그 때문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현상). 일을 하면서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게 된다(인식). 그때 연구참여자는 난데없이 세상에 내몰렸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체험). 그러면서 무능한 남편을 원망하거나 처지를 비관할 수도 있고, 가족이 뿔뿔 뿔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고 다짐할 수도 있다(마음). 이러한 마음은 그동안의 생애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는 마음의 상태, 즉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 8-11] 저소득층 행복의 맥락



제3절 소결

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귀납적 접근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을 사례별로 살펴보았다. 개별 연구참여자들이 부여한 행복 점수와 그 의미, 주관적 경험들과 다양한 영역들로 구성된 현상을 분석하고, 그러한 행복과 경험, 현상으로 구성된 맥락 구조를 그려보았다.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전체 사례들을 통합할 수 있는 맥락 구조가 구성되었다.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인 저소득층들이 인식하는 행복의 수준은 객관적인 상태보다는 주관적인 경험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주관적인 경험은 마음 안에서 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경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들이 경합하는 가운데 어떠한 경험요소들이 더 우세한가에 따라서 행복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관적인 경험이 행복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객관적인 상태 또는 이 연구에서 말하는 ‘현상’(인식주체인 연구참여자가 일상생활에서 마음과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한 인식대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들(실직과 고된 노동, 생활고, 질병과 장애, 아픈 몸, 남편과 불화, 폭력, 수급신청 등)은 인식과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관적 경험으로 축적되며, 이것이 마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결국 행복감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 상태 모두에 개입해야 한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정

책과 실천에서 고려해야 할 지침들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 측면에서는 현상 수준에서 저소득층의 맥락 구조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시·군·구 단위 ‘희망복지지원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되는데, 아직은 네트워크 체계가 촘촘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사례 발굴과 활동 수준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저소득층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들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엮어내고 하나의 지역사회가 서로 튼튼하게 연결된 그물망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가야 할 것이다.

정책이 인식된 현상 또는 객관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라면, 실천은 현상과 경험, 상태와 마음을 선순환 구조로 연결해주고, 경험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이 주로 인식된 현상 수준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와 그 네트워크는 주로 마음의 경험과 그 맥락 구조를 바꾸려는 개입활동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긍정적인 경험을 격려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 개별 클라이언트들의 마음에서는 긍정적인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들을 감싸거나 위로하는 형태의 작용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저소득층의 경험을 맥락 구조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분석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심층자료가 수집되지 못했다는 점과 2차 자료 분석의 고유한 한계로 행복의 맥락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깊이와 넓이, 촘촘함과 세밀함, 역동성을 담지 못한 한계도 가지고 있다.

제9장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장애 경험 연구

제1 절 서론

2011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1,982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인 3,713천원의 53.4%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2008년의 54%보다도 감소한 수준으로 장애인가구의 열악한 소득수준을 말해주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뿐만 아니라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평균 16만7백원으로 전체장애인의 72%가 이러한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낮고, 장애로 인한 의료비 또는 보조기구 구입비 등의 추가지출이 많은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해 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삶의 질과 관련되어진다.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장애인가구 비율이 전체 장애인가구의 21.0%로서 비장애인가구의 동 비율(7.3%)의 약 3배에 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윤상용, 김태완, 2009).

가구원 중 장애인이 발생하면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가구 전체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장애 당사자의 수입이 중단되거나, 다른 가구원이 장애인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이전에는 지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항목의 지출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수발비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장애발생은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 구성원 전체

의 경제상태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장애는 장애인의 심리, 사회적 상태를 변화시킨다. 장애발생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뿐 아니라 재활에 소요되는 노력, 가족과 주변인들의 반응, 취업과 교육의 제한, 수급자로서의 경제적 지위 변화 등으로 인해 수많은 심리적, 사회적 적응의 문제에 시달린다. 이는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장애인을 가구원으로 둔 가구 구성원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또는 장애로 인해 중단된 소득으로 인해 저소득 또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게 된다.

이와 같이 장애는 빈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빈곤이 장애에 미치는 영향, 상호간의 역동적 작용으로 인한 결과를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가구는 빈곤이 지속되거나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 장애인 가구에서는 어떠한 실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에 실시한 이번 질적패널조사에서는 장애가구원이 포함된 장애가구의 삶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이 경험하는 장애로 인한 다양한 경험이 어떠한지 통계수치로 파악하기 어려운 질적인 측면에서의 경험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의 삶과, 장애가구원을 둔 다른 가구원들의 삶을 조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11년에 조사된 가구 중 일부와 2012년 신규로 추출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장애에 관해 5개 주제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질문한 내용의 5가지 주제는 ① 장애가 00씨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00씨 주변의 의미 있는 사람들이 00씨의 장애에 대해 어떠한 태도나 반응을 보여왔습니까? ③ 00씨 주변에 장애인 친구나 동료와의 교류가 있습니까? ④ 현재 00씨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다면 어떤 것이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⑤ 00씨에게

장애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다.

연구 분석에 포함한 사례는 2011년 응답자 재조사 6가구(패널참여가구 21, 24, 31, 70, 77, 92)와 2012년 신규 조사 대상자 7가구(패널참여가구 104, 105, 106, 110, 111, 118, 125)로 총 13가구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2011년 조사된 가구 중 2012년 재조사에 표집 및 응답한 가구 25가구와 2012년 신규 표집 및 응답한 가구 20가구, 총 45가구 중 가구주가 장애인 이거나, 가구주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총 24가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가 매우 경하거나 자녀의 장애로 인해 당사자 면접이 가능하지 않아 장애경험에 대해 자세히 면접할 수 없었던 가구를 제외하고 본 분석에 사용할 수 있었던 가구는 총 13가구로 나타났다. 장애 당사자에 대한 면접이 이루어진 가구는 패널참여가구 24, 31, 70, 105, 106, 110, 111, 118로 8가구였고, 장애자녀나 배우자를 둔 가구의 가구주를 면접한 경우는 패널참여가구 21, 77, 92, 104, 125로 5가구였다. 장애당사자 면접의 경우 부부가 장애인인 가구가 2가구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제 면접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분석된 경우는 총 15명인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 가구들을 중심으로 심층면접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절 연구결과

1. 저소득 가구 내의 장애인 가구원의 장애경험

가. 장애가 삶에 미친 영향

면접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삶에 어떤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위축된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장애가 없었다면 현재보다는 삶이 나았을 것이다', '공부를 더 배워 좋은 직업을 가졌을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을 것이다',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등의 다양한 답변을 나타냈다. 또한 대부분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1) 위축되고 할 수 있는 활동이 매우 제한적임

참여자들은 장애로 인해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자주 움츠러들고 위축된다고 하였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삶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도 적지 않은 수가 있었다.

조사원: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어려웠어요? 살아오시면서

응답자2: 뭐 그 앞을 못보니까..

조사원: 예

응답자2: 어디 저기 맘대로 가보지 못하고

조사원: 음..

응답자2: 꼭 가야만 될 일도 못하고 그런데 그럴 때가 가장 어렵지 뭐..

조사원: 음 그럴 때 주로 어떤?

응답자2: 나는 뭐 음?

조사원: 어떻게 주로 해결하세요? 그럴 때

응답자2: 그거 뭐 어떻게 해 내가 마음을 접어야지... (패널참여가구 31)

여기서 응답자는 '내가 마음을 접어야지'라고 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상태나 상황에 대한 체념과 포기, 때로는 절망의 감정이 결론적

으로 함축되어 표현된 말로 해석된다. 성격이 매우 활발하지만 장애 때문에 위축된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조사원: 그러면 어머니의 장애가 어머니의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세요?

응답자: 근데 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그니까. 너무 활발한데 그렇게 그렇게 어쩔 때는 우쭐해가지고 어쩔 때는 말 못할 때가 있기도 하고..

조사원: 아. 장애 때문에 움츠러들 때가?

응답자: 그쵸 움츠러들 때도 있어요 사실

조사원: 아. 요즘도 그런 그런?

응답자: 가끔씩. 한 가끔씩 느껴요 저도.. (패널참여가구 24)

중도에 장애를 입게 된 후 이는 동네사람이라도 아는 척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위축되고 싫고 움츠러들 수가 없다는 것이다(패널참여가구 106). 패널참여가구 106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자신도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하고 시도했다고 하였다.

아. 죽을려고 마음 안 먹었다면은 그건 그짓말이에요. 눈 중도에 실명돼 갖고서, 조금이라도 보면 몰라도 아니, 전혀 우리 같이 전혀 이렇게 실명돼 가지고 전맹인 사람들은 한 두 번 죽고 싶은 마음 안 먹었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패널참여가구 106)

유아기 등 성인 전 장애발생이나 성인이 된 후 중도장애 발생 모두가 장애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위축과 활동의 제한을 겪으며 살아온 것이 장애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인 것으로 드러났다. 패널참여가구

106의 경우에는 중도에 실명하면서 신체적으로 큰 사고를 네 번이나 당했는데 지하철 선로에서 떨어져서 죽다 살아나고, 갈비뼈가 8대가 뿌러지고, 병판이 보이지 않아 미끄러져 몸에 판을 박게 되는 등 수 많은 신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애는 단순히 사람을 위축시키거나 활동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제2의, 제3의 질병이나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교육이나 직업, 진로선택이 제한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됨

한편 신체활동 제한이나 심리적 위축을 넘어서 장애는 교육, 직업선택 및 진로결정 등에도 매우 지속적이고 다양한 차원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엔 꿈마저 버리게 되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조사원: 그럼 어머니의 직업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쳤을까요?

응답자1: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상인이었으면 아마.. 공부를 더 했을 거예요. 그 나이가 어렸을 때.. 물론 가난해서 힘들었긴 했지만 공부를 더 하지 않았을까.. 경제적으로 더 도움을 받아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패널참여가구 24)

응답자2: 전반적으로요? 180도 달라졌지요. 다 버렸지요. 전엔 다치기 전에 꿈도 있었고 그랬는데 다 그냥 할 수 없이 살으니까 사는 거예요. (패널참여가구 118)

패널참여가구 31의 경우에도 장애인으로 태어나지만 앓았어도 좋은 직업기술을 배우 지금보다는 잘 났을 것이라는 한을 나타냈다. 자신을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한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다고 하였다.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소득활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뒤진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고(패널참여가구 111), 재활훈련을 열심히 했지만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말에 절망의 늪으로 빠졌다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장애로 인해 실직하게 되면서 가정 내 경제적 갈등과 불화가 깊어지고 이는 결국 이혼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빚기도 하였다.

응답자: 점점 인제 내가 벌이를 옛날처럼 벌이를 못 하니까. 경제적인 역활이 안되니까 힘들어 지는거지. 그걸로 그런 풍파가 자꾸 생기는 거야. 돈 문제로 인해서.

조사원: 문제 때문에 생기셨었구나.

응답자: 응 요새 여자들이 뭐 돈 안 벌어도주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 뻔하잖아. 그래도 우리 마누라 착한 마누라였었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런 면에서 더 각별하게 생각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여자라도 편하게 살아야 할 거 아이라. 좋은 남자 만나서. 그래서 보낸거야 서로 합의에. (패널참여가구 111)

이혼 뿐 아니라 장애는 결혼에의 진입조차 막는 요인이 되었다.

조사원: 그 결혼과 관련해서 그 어머니의 장애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세요?

응답자: 음.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원래 저는 결혼할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실 정상인이고 있었어요. 워낙 성격이 머시마처럼 활발 하니까 그런 게 많았어요.

조사원: 네

응답자: 근데 이제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좋아했던 사람도 안 하고 원래 결혼 안 할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매를 하긴 했지만 좀 그래요. (패널참여가구24)

이와 같이 참여자들 대부분에게 장애는 삶의 주요 영역과 생애주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로 인해 교육이나 직업기술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장애로 인해 직업선택에 매우 제한을 경험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거나 아예 소득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이들 참여자들은 대부분 현재 저소득 가구 또는 수급자 가구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참여자 대부분이 장애에 덧붙여 저소득, 빈곤층이라는 이중고를 함께 겪고 있었으며 이는 장애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장애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만 없다면 현재와 같이 장애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은 이들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나. 주변에 의미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태도

장애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대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친다. 가족 내 한 구성원이 장애를 입게 된다는 것은 가족 전체에게 큰 충격이나 어려움을 주고, 이는 결국 돌봄과 부양, 의존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대부분 30대 이상의 성인들로서 자신의 장애가 자기 주변의 가족과 친구, 친척, 동료, 이웃 등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지, 그들의 반응이나 태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1) 관계가 단절됨

장애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 본인도 장애발생에 대해 충격을 받고

위축되고,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이나 연락을 장애발생 초기에는 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이 결국 자의반, 타의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 특히 가족의 경우에는 장애발생 이후 일정 기간 물질적, 심리적, 물리적 도움을 제공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도움이 끊기거나 자연스럽게 왕래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 그거는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동생들하고 내 어머니는 저하고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내 가정사 얘기니까 뭐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 내가 좀 형편이 좋을 때는 저희들이 다 나한테 도움 받고 내 형제가, 동생이 넷인데, 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살았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만 해도 저하고도 잘 안돼요, 내가 어떻게 노인 분이니까, 연세가 연로하니까 제가 가끔 전화해도 전화하면 안한 만도 못하구요, 내 마음이 오히려 편해야 되는데 더 불편하게 전화기를 봐요, 잘 안해지고 하물며 내가 올해가 내가 환갑이에요, 어디 전화 한 군데도 안와요 (패널참여가구106)

조사원: 동생분들이랑 자주 연락하세요?

응답자: 연락 잘 안 해 내가 이렇게 살고부터는 연락 안 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 멀어 지가 쓰는 거고 내 멀어 내가 쓰는 거지 (패널참여가구 111)

이런 단절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조사원: 그럼 다치시고 나서 10년 동안 거의 그 이후로는 뭐 사회생활이나 친구관계나 뭐 친구분들하고

응답자: 없지요

조사원: 끊으신 건가요?

응답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도 옛날에 좀 친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좀 유지는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조사원: 그럼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때 장애를 갖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는지.

응답자: 못살 줄 알았죠 못살 줄 알고 그리고 또 나랑 같이 다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패널참여가구 118)

한 참여자의 경우에는 장애 발생 후 딸과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다른 가족들과도 소식을 끊고 사는 경우에 해당된다(패널참여가구 110).

장애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 시각장애인은 외관상으로 눈에 전혀 이상이 없지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수혜를 받게 되는데 ‘장애인도 아닌데 왜 저런 혜택을 받나...’는 오해를 받아 힘들다고도 하였다.

뭐, 저는 유별나게 다른 사람처럼 장애가 있어도 눈동자가 이래 뻔뻔뻔뻔한게 보통사람하고 똑같더라고예. 물어보니까. 그럼 또 남한테 오해 받을 때가 많지예. 봉사자 아니면서 봉사라키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속이 상하지예. (패널참여가구 110)

패널참여가구 60의 경우에도 겉으로 크게 드러나는 장애가 아닌 류마티스 관절염 장애인데 이로 인해 주변사람들로부터 ‘멀쩡하게 보이는데 어디가 아프냐는 등의 이해받지 못함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짐

장애가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었다. 많은 경우는 아니었지만 가족 내에서 장애구성원의 역할이 있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고 최선을 다해 생계활동을 하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특히 자녀로부터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이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원: 어렸을 땐 갈등을 가졌었는데 커서는?

응답자2: 그렇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갈등을 가졌었는데 뭐 커가면서 다 저기하더라고

조사원: 음

응답자2: 모든 걸 다 저기하니까

조사원: 음

응답자2: 내가 앞을 꾸려까니깐은

조사원: 아

응답자2: 우리 아빠는 보는 분하고 똑같이 행동한다고

조사원: 아 음 음

응답자2: 그러고부터는 내가 그만큼 또 노력을 하지

조사원: 음 되게 기특하시겠어요 아드님이 부모님을 인정해주고 하니까

응답자2: 그럼요 그럼요 (패널참여가구31)

가족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나 인식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주민들, 시민들도 많이, 많이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 옛날엔 도와주세요 그러면 들은 척도 않고 가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가 서서만 있어도 어우, 어디, 어디 가시려고 하세요? 아니면 어디 찾으세요? 이렇게 지금은 찾아와서, 다가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패널참여가구106)

다. 장애인 친구나 동료, 기관과의 교류

장애인들은 장애를 입게 되면 대인관계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사회활동이나 직업활동을 하는 범위가 반경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회모임이나 종교활동, 취미모임 등을 찾아 활동하지 않는 한 대인관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장애를 입은 후 직업재활이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찾게 된 복지기관을 통해 같은 상황의 장애인들을 만나면 친구가 되거나 동료가 되어 함께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등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친구를 사귀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인들과의 모임도 점점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만나도 별로 얻을 수 있는게 없기 때문이라는 참여자가 있었다.

조사원: 아 보통 그런 분들이랑 모이시면 보통 어떤 거 하세요?

응답자H: 안 모여.

조사원: 안 모여세요?

응답자H: 어 그럼 뭐 모이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모이면은 나는 별다른 얘기 할 거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지 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야. 그런 얘기 있는데 뭐 병신이 잘 먹고 잘 살 견덕지가 없잖아. 뭘 해서 살아. 힘 뭐 병신이 뭐 뛰지도 못 하는 놈이 걸지도 못 하는 놈이 뭐. 뭘 해서 먹고 잘 살아. (패널참여가구 111)

한편 장애인으로서 활발하게 장애인협회나 단체에 활동하면서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동료들과 교류하는 경우도 있었고, 장애인 친구들과 정기적인 산악모임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는 등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사원: 음, 혹시 그럼 주변에 아까도 같은 시각장애인 친구분들 많이 만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교류가 계속 있으신 건가요?

응답자: 네, 이제, 그게 뭐 이래 집에서 전화를 한다던지, 복지관에 한번 나가면 또 서로 음성 듣고 인자, 이름 부르고 담배나 한대 피고 이 정도지예.

조사원: 아, 그러시구나. 그럼 교류를 하게 된 계기가, 그분들하고 만나게 되신 계기가?

응답자: 다 이래 복지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조사원: 아, 그분들하고 교류가 있는게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 것 같으세요?

응답자: 이제 어두운, 이래 저희들한테는 귀동냥은 많이 되지예. 내 아는 건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아는 건 또 내한테 알려주면 서로 귀동냥은 많이 되지예. (패널참여가구 110)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수급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활동의 반경이 좁고, 일상생활에서의 여유를 찾지 못하는 것과 장애 또는 비장애 친구들과 어울리는 만남을 계속 갖지 못하는 것과 일련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라.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수혜 경험과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이러한 제도와 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본 패널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장애등급, 수급기준에 맞는 생계비 보조, 연금, 수당, 의료급여 등의 기초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가 부족하여 받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전기나 전화요금 감면, 세금혜택, 지하철 무료이용, 철도요금 할인 등의 지자체 또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감면 혜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나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과 욕구가 도출되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동 및 접근성 문제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동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편의시설 설치나 장애인 교통수단의 확대가 개선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이다.

응답자: 그렇죠 왜냐면 이제는 전철 같은데도 아무리 무료라고 하긴 하지만 그게 편. 이제는 편의시설이 별로 안돼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사실 큰 맘 먹지 않고는 나설 수 없어요 사실

조사원: 그 편의를 봐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응답자: 불편하죠

조사원: 주로 이렇게 이동과 관련된 부분이 불편한 점이 많은 거네요?

응답자: 그쵸 물론 여기 인제 00(지명)에 뭐 인제는 뭐야 장애인콜택시가 있긴 한데 그것도 그 그 전날 예약을 해야 되요 그렇지 않은 이상 그 이용을 못해요 그리고 멀리 가지를 못하니까 (패널참여가수 24)

지역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통수단 설치 실태는 매우 다르다. 지방의 중소도시, 농촌, 어촌, 산촌일수록 장애인의 이동수단은 매우 제한되어있다. 따라서 이들이 체감하는 장애인복지는 이동에서부터 걸림돌이 되어 인식되기 시작한다.

2) 인식개선

지난 20여년간 국내의 장애인복지가 예산이나 제도, 법적 기준 마련 등에 있어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느끼는 비장애인들과 사회의 인식은 편견과 오해가 가득한 부정적 인식이 더 지배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응답자: 아직도 아직 멀었어요 지금.

조사원: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응답자: 그치. 그니까 주위사람들이 인식이 좀 깨 있어야 되고. 그니까 능력이 없어서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원: 네

응답자: 이제는 뭐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만 뒷받침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패널참여가구 24)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면 될 것을 장애인 = 무능력자로 등치시키는 사회의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의 후진성은 장애인복지제도와 서비스가 아무리 발전해도 장애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심화시키고, 그들의 잠재력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호칭에서도 나타난다.

저.. 국회, 정치도 그렇고 일반 이걸 머리카노. 메스콤 자체도 그렇고 하려면 어떤 장애자들이 모인 모임 있잖아요. 전부 장애자라고 장애인들은 다 아는데 거기서 '회원여러분'하면 낫잖아요. '장애자 여러분' 그 말 안됐잖아요. 장애자들 모이는 회의장소에서 회원여러분 뭐 이래야 맞지요, 타당하지. 거기서 또 장애자 여러분, 장애자, 장애자. 그 말 좀 고치도록 사회구조

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장애 그 사람들 장애인가요? 자량이 아니잖아요 자기 몸을 그래 가지고 있는 것만해도 그런데. 회의 나와서 회원여러분 하는 게 좋지, 장애자여러분 이런 소리. 말투를 좀 고쳐야되겠다. (패널참여가구 70)

모임에 모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굳이 ‘회원’이 아닌 ‘장애자’라고 부를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한 참여자의 지적은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드러내준다.

3) 소득보장

이미 언급한대로 본 패널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대부분 저소득, 빈곤층으로 수급 또는 조건부 수급을 받고 있거나 최근에 탈수급한 정도의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문제가 가장 어렵고도 현실적인 문제로 언급되었는데 장애인인 경우 소득활동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문제는 가중된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장애인복지제도는 노동을 통한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이다.

특히 현재의 수급제도로는 근로동기를 저하시킬 뿐이라는 문제가 언급되었다.

장애는 정말 안왔으면 좋겠고요, 왔을 때는 그에 따르는 모든 이래 정책이 라든지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더니 장애를 가지고 뭐 이래 몇 푼이라도 벌어들여먹을라하면 뭐 지체장애인들도 요새 뭐 많거든요 정부에서 몇 푼 주는 그거를 준다고 해가지고 다른 옆집이라도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30만원이라도 벌어서 쓴다하면 그 돈이 삭제가 되빠라니까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일단 수급을 해줬을 때는 같이 보장을 해주면서 그걸 해야하는데 첫째는 수급되는 사람들이 수급이 떨어질까 싶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거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자꾸 태만해지고 생각, 잡생각, 우울증 이런 게 다 그런데 그 키우

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엔 술도 먹게 되고.. (패널참여가구 110)

응답자: 장애인들 풍족하게 그 사람들을 좀

조사원: 음

응답자: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거

조사원: 음

응답자: 입고 사는 거 전동 휠체어 없는 사람들

조사원: 음

응답자: 그런 것들 좀 있게 해주고 (패널참여가구 31)

한 참여자는 무조건적인 무료 서비스나 수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그래도 자식을 두고 이런 말 하는 건 욕심인지 몰라도 정부시책이 좀 바로서가 우리 같은 사람에게 공짜로 주기보다는 아까 했던 말로 젊은 사람 경비 그런 자리는 나이 많은 사람 보낸다든가, 어떻게 살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패널참여가구 70)

패널참여가구 70의 경우에는 노부부가구인데 장애도 장애이지만 돈이 없어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아 마음이 병이 된다고 하였다. 노령과 장애라는 이중적 취약성에 더해 저소득 빈곤층이라는 경제적 상태가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4) 장애유형별 특성이나 욕구에 맞는 서비스 확대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내부장애인 등이 참여하여 비

교적 다양한 장애유형의 참여자를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재의 장애인복지 제도나 서비스에 대해 표현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장애유형과 그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집수리 서비스를 받게 되었는데 자신의 장애에 맞게 편리한 구조로 수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비용만 비싸게 받는 것 같으며 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에 대한 아쉬움과 비용대비 비효과적인 현 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어떤 면으로는 이런 건 느껴지더라고요 지원금만큼 내가 공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보다 한 3, 40%는 더 할 수 있어요 절반 거의 절반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했네 하고 일하는 거 보면 맘에 안 들어요 (패널참여가구 118)

응답자2: 이번에 기획한데 뭐 지체장애인들은 뭐 휠체어 한다던지 보장구는 뭐 보조를 많이 받는데...

조사원: 네

응답자2: 그 맹인은 인제 그러니까는 인제 지팡이하나 밖에 보조받는 게 왜 없냐?

조사원: 네

응답자2: 그 앞으로 뭐 보조 받을 보장구라던지 해서

조사원: 음

응답자2: 음 그거를 좀 지체들만 장애인 장애인이나 그러니까 지체는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시각은 혜택받는 거 이런 건 뭐 보조기 받는 거 지팡이 하나 받는 거 밖에 더 있는냐 그러니까 앞으로 그 맹인 저 시각이 할 수 있는 보장구는 인제 좀 활성화 해나가야 되드라고 (패널참여가구 31)

장애유형이나 특성에 맞는 서비스 홍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응답자: 저는 지금 좋은 건 이래, 말씀 드린 것 중에 바우처라든지, 문화바우처 이런거, 또 여행바우처라는 그런 것도 있다더라고요 여행바우처 뭐 이런 거는 몇 사람 뽑아서 뭐 순번 돌리기를 한하는데 그런 것도 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할 것이고 떨어져뿐 사람들은 실망을 안하겠습니까.

조사원: 그렇죠

응답자: 그러니까 아예 그 제도를 안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묻하더라고요.

조사원: 예. 그런 거 지원해 본 적 있는데 떨어져 본 적 있으세요?

응답자: 예. 뭐 저도 홍보하는 거를 알지를 못해서. 얼마 전에 동사무소 문을 이래 보니까 그 동사무소 응모 이렇게 하데예, 뭐 자기들은 플랜카드도 걸어놔놓고 뭐 그리했었는데,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 일반인들을 위해서 장치를 하지말고 시각장애인들은 사람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동직원이 하는 말씀이 플랜카드도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봉사가 어떻게 볼 수 있노. 그래가 시에다 또 문의를 했거든요, 하니까 자기들이 동에 다 매달아 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예 내가 몰랐으면 그게 되는데, 알고 그쪽 응답을 받으니까, 그래 내 한참 동안 그쪽 담당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래 시각장애인들하고 홍보가 되고 알릴 수 있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 뭐 이래 보면 나중에도 뭐 방송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채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졌었요 이런 것도 마, 이래 시각장애인단체라든지 이래하면 홍보가 다 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래 도움은 조금 달라하니까 앞으로는 그 문제는 그쪽으로 해줄라 하더라고요. (패널참여가구 110)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에서 실시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장애인복지 제도와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이면에는 자격제한으로 인한 이용제한의 문제, 중복수혜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 등 다양한 걸림돌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과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이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제도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5) 행정편의 위주의 제도와 서비스

장애인복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편의 위주의 제도와 서비스가 되어가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수혜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참여자는 현재의 수급제도와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수급제도 초기 장애인의 편리와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만족하죠. 노무현 정부 지나고 나서 그 이게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전에, 초창기에, 초창기에는 말 그대로 배급 주듯이 쌀을 줬어요. 쌀을 몇 키로 씩 몇 키로씩. 그런데 나 같은 입장에는 실제로는 쌀 저기 하는 거 보면 하기 싫어요. 실제로는 하기 싫는데, 병원비가 그것 때문에 내가 유지를 할라고 쫓 했어요, 병원비. 병원이 원래 000병원으로 다니는데, 병원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패널참여가구 118)

한 참여자는 7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찾고 있는데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장애인고용전문기관에 문의를 하면 번번히

실패하게 되고, 더욱이 가능성도 없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와보라는 식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차비와 시간이 낭비되고 울화가 치민다고 하였다.

한 명 두 명 취직한다고 여러 수십명 통지를 보내가 오라하면 한 50명 모이면 그 사람들 왔다갔다 차비도 우짤니까? 그거 전부 소모아납니까? (패널참여가구 70)

장애인을 한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기보다 ‘장애인’이라는 범주화시키고 집단화시킨 태도는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 받는 듯한 느낌을 주고, 이는 결국 장애인의 장애를 더욱 실감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그런데 거기도 전부 장애인이야 병신들 집합소야 거기가. 그걸 모아가지고 썩죽일라고 거기다 하는거여? 장애인들 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확 모아놓고 난 그런게 싫은거여. 아 뭐 그거 아주 찼찼 기분 나쁘더라구 내가. 아 유 난 그거 안 한다고 그랬어. 그건 뭐 아이라. (패널참여가구 111)

마. 장애의 의미

본 패널연구에 참여한 장애인 가구원들에게 장애는 어떤 의미로 인식되고 있을까? 장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라는 환경을 동시에 안고 사는 이들에게 장애는 큰 어려움이자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원: 혹시 장애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응답자: 장애요? 인생 망쳤지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장애 입은 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패널참여가구 118)

응답자: 장애라는 것은 내 삶의 50%를 버리는 거지.

조사원: 내 삶의 50%를 버리는 거다?

응답자: 장애 오면 끝이니까. 장애가 생기면 끝이니까.

조사원: 음. 생활이 어려워진다.

응답자: 아유 뭐 구구절절이는 할 필요 없는 거고 내 삶의 50%는 던져버리는 거야. 장애가 딱 되는 동시에. 그건 안 겪어 본 사람은 몰라. 뭐 젊어서 장애가 되나 늙어서 장애가 되나 똑같애. 쉽게 얘기하면 젊어서 장애가 된다면은 아가씨들이 사지말정한 거하고 살지 그 빙신하고 살겠어? 그건 뭐 인생이 50%는 벌써 먹고 들어가는 거야. (패널참여자구 111)

장애는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는 한 참여자는 장애 때문에 배려받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애 때문에 무시 받는 것 같다는 장애의 이중적 측면을 모두 느낀다고 하였다.

조사원: 그 어머니한테 장애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 걸까요?

응답자: 음.. (잠시 생각) 하나의 걸림돌 같아요

조사원: 걸림돌?

응답자: 그렇죠

조사원: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응답자: 물론 인제는 워낙 원래 인제는 이렇게 인제는 장점도 있고 장점 단점도 있어요 사실

조사원: 아.. 장단이 다 있는?

응답자: 다 있는 거 같아요

조사원: 어떤 식으로 있을까요?

응답자: 그니까 이제는 장점 같은 건 이제는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언니 너무 힘들어 하면 언니가 그거를 해주는 반면 어쩔 때는 이렇게 무시하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사실

조사원: 아, 사람들이?

응답자: 그니까 이렇게 뭐.. 자기 마음에 달려있긴 하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패널참여가구 24)

자신의 장애를 원망하다 못해 부모, 특히 부의 죄로 인해 생긴 것으로 단정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따라서 그에게 장애는 부모의 죄의 결과이다. 이러한 인식은 여전히 참여자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는 현재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응답자: 막 우리 아버지 옛날에 아주 큰 나 태어나기 전에 광산을 했어요 금 캐는 광산을 했어요 00에서. 시골에 광산 했는데 그때 뭐 어떻게 우리 아버지 막 바람 피우고 돈이 있으니까 (웃음) 바람 피우고 우리 엄마 속삭이고 (웃음)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망해버리고 그래가지고 4살 땠가 5살땠가 그때 서울 온거예요 서울와서 살게 된거예요 그때.

조사원: 선생님이 그 어렸을 때?

응답자: 네.

조사원: 네.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게

응답자: 그게 죄겠죠 (패널참여가구 105)

이 외에도 참여자들은 장애란 파란 하늘 한 번 볼 수 없게 하는 장애 물이기도 하고(패널참여가구 31), 신앙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며(패널참여가구 60), 장애인이 되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장애에 대해 알 수 없는 것(패널참여가구 111)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2. 저소득 가구 내 장애인 가구원을 돌보는 가구주의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적용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장애인 가구원을 돌보는 가구주의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가.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장애에 대한 마음아픔

패널참여가구 77의 경우에는 본인도 다리와 허리로 인한 장애가 있지만 자녀의 장애가 외관상으로 더 중증인 상태라 자신의 장애에 관련한 의견이나 답변보다는 자녀의 장애로 인한 마음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 (수술 후) 원래보다 더 못해진 거 같아요 여기가 괜히 꺼냈다가 저기 했는데 여기가 흉터가 더 생겨 버렸죠 위급해 가지고 여기 저기 제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나빠져 버렸어요

조사원: 그러니까 결과가 더 안좋아지니까

응답자: 그것 때문에 그게 콤플렉스인데 더 스트레스 받는 거 같아요

조사원: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그때 그게 보험이 안되잖아요 어머니

응답자: 예

조사원: 그러면은 그거 치료비 다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응답자: 그거 할부로 끊어가지고 지금도 끊어 나가고 있어요

조사원: 음.. 그럼 수급비 들어오는 것에서 일부를 내시는 거예요?

응답자: 예 그걸로 끊어 나가고 있어요

조사원: 네 그럼 그거 내고 나면은 생활이 더 힘들어 지시고 그러진 않으세요?

응답자: 힘들어지겠죠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한번 더 해주고 해주

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끝나면 또 해야죠 복잡해도 어떻게 해요 애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해줘야지요

조사원: 음...

응답자: 어떻게 빛을 저서라도 해줘야지요 (패널참여가구 77)

자녀의 장애에 대한 마음아픔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의료적 시술을 해주고 싶은 보호자의 마음을 갖게 한다.

패널참여가구 21과 125의 경우에는 자녀가 장애로 인해 늘 보호자의 돌봄이 있어야 하는 문제로 힘들어하였다.

응답자: 자기 주어진 생활에서 앞가림을 못 하잖아요

조사자: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융통성도 없고 밥도 조절하지 못하는 것도

응답자: 예 혼자 봐 둘 수 없는 것

(중략)

응답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저한테는 힘든 거지요 나한테도 힘들고 저 자신한테도 힘들고 저 나름대로 힘들지요 동생들한테도 대화가 안 되고 엄마 말이나 아빠 말이나 알아 듣지, 다른 사람들 말도 잘 못 알아 듣고 더 이상의 즐거움의 이야기라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라도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멍하게 쳐다 보고 이럴 때, 내가 제일 그게 힘들고 아이도 자신이 그게 제일 힘들어 해요 끼고 싶어 하고 예를 들어 여동생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네 다섯 명 데리고 와서 떡볶이라도 먹고 어찌고 저찌고 대화를 하면 애가 그 자리에서 끼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 ◇◇이한테, 뭐라 그럴까, 거기에 힘들어 할까봐, 억압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집어 넣어 주지 않지요. 네 동생이 친구랑 놀게 놔둬라. (패널참여가구 21)

응답자2: 네, 늘 그냥 병원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장애가 있는 거는 있는 거고... 경련 그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켈 걱정이예요 그게.

조사원: 그게 제일 걱정...

응답자2: 네. 어디 다니다가 할까봐. 1학년 때는 길에 학교 갔다 오다가 했거든요. 길에서. 그런 게 제일 걱정이고...늘 학교...불안해요. 불안해. (패널참여가구 125)

장애자녀의 돌봄 때문에 일을 가질 수 없는 데에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다.

우리 애가 좀 장애가 있잖아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도 못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것도 있고. (패널참여가구 125)

사례92의 경우에는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데 자신이 사업부도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인이 마음이 안타깝고 어려워 오늘과 같은 질병을 갖게 된 것 같다고 힘들어하였다.

아까도 봤는데, 마누라가 우울증 환자예요. 마누라가 상당히 많이 아파요. 그 때 당시에 마누라도 자기가 신랑을 못 도와 주니까, 나름대로 마음이 많이 아팠나봐요.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약을 먹고, 지금까지 먹고 있고 (패널참여가구 92)

이와 같이 자녀나 배우자의 장애는 보호자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기 어려운 시간적, 공간적 활동 제약을 낳는다.

나. 개선해야 할 점

장애인 당사자 응답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장애자녀나 배우자를 둔 장애가구 가구주의 응답에서도 장애등급이나 수급혜택에 맞는 생계비, 연금, 수당 보조 및 기타 세금이나 요금 감면 혜택, 바우처 활용 등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와는 또 다르게 이들 장애인 자녀나 배우자를 돌보는 가구주에게 우리나라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해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선되어야 할 정책은, 말하자면 우울증 환자들을 좀 교육, 뭐라 그럴까 좀 저기,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도우미처럼 와서 좀 대화도 하고 좀 예를 들어서, 애로점, 신랑한테는 못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밀한 분이 와가지고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대화도 하고 믿는 사람. 내가 우리 부인이 그 분을 믿고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 하고 운동도 좀 같이 하고 친구라고 할까요? 친구라고 할까요? (패널참여가구 92)

그거는 저기 애를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 특수반..... 것은 조금 인자. 교육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 외의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해서 애한테 인자.....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인자 똑 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똑같은 걸..... 그러니깐 뭐 지금 혜택받고 있는 문화바우처 카드도 복지부에서는 그거 하나만 되는데 우리 애 같은 경우 인자 장애있는 애들은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뭐 복지부가 됐든 정부가 됐든 군이 됐든 좀 더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은..... (패널참여가구 125)

자녀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가구주는 국가의 복지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의 잠재적 대상자가 되지만 가구주가 근로능력이 있어 일하는 경우 장애로 인한 병원비 등의 추가비용 지출로 인해 생활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돌봄을 분담해줄 대체 가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수급자격에는 못 미치는 소득수준 때문에 의료보호나 활동보조 등의 필수적 서비스는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자녀를 둔 한 가구주는 현재 수급생활을 하고 있지만 4인 가족 생계비가 적어 생활고를 겪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자녀나 장애인 배우자를 둔 가구주에 대한 현 제도하에서의 수혜나 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용자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제3절 소결

본 연구는 질적패널 연구로 수행된 2012년 패널가구 조사 대상자들 중 장애가구원이나 장애가구원 자녀나 배우자로 둔 가구주들과의 면접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패널연구의 특성 상 저소득 또는 빈곤층 가구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 분석대상 가구도 대부분 이러한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위가 ‘장애’라는 문제와 결합되어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저소득, 빈곤층 가구의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제도와 법,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경험적 근거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 분석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이미 언급한 대로 5가지의 주제영역에 따라 분석되었으며, 각각의 연구결과는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

이고 생생한 모습을 담아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장애가 빈곤 또는 저소득이라는 경제적 상황과 맞물릴 때 개인적, 가족적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심리,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욕구는 매우 다양하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노동을 통한 소득 확보가 거의 가능하지 않은 장애인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수단을 갖지 않을 상태에서의 삶의 질과 수준은 그 현상을 경험하는 개인만이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장애로 인해 한 두 해가 아닌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으로 교육과 취업, 사회생활에서의 제한과 배제를 당할 때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하게 되는 자기 개인의 삶과 가족 관계는 매우 부정적이고 절망적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러한 측면이 본 연구결과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연령의 높고 낮음을 떠나, 학벌이나 가족의 배경을 떠나 거의 동일하게 경험하는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의 단절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경제적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장애인의 빈곤 문제는 가족에의 의존을 야기시키고, 이웃이나 친척,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다. 매우 소수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소득활동이나 일정 정도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물리적, 심리적 역할을 해내는 경우에는 가족구성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장애인이 된 후 장애인과의 교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교류를 할 때 얻어지는 정보나 이익이 있지만, 동시에 소위 ‘병신’끼리 함께 몽쳐다니면 뭐하나...하는 자조의 탄식을 하게도 만든다. 이러한 양가감정은 장애인과의 교류를 어떤 형태로든 이어나가는 장애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던 감정이었다.

2011년에 실시된 패널가구의 장애영역 분석과 2012년 결과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의 영향에서부터 의미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태도,

장애인 친구나 동료와의 교류, 장애인복지 수혜 여부 및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 장애의 의미 등 모든 질문 항목에 대해 거의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올해 신규로 추가된 응답자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가구가 많이 포함된 이유에서인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장애인복지제도 상의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장애인이나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받을 수 있는 중앙 및 지자체의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들 가구에 대한 개별 사정과 개입을 통해 맞춤형 취업연계나 직업훈련, 조건부 수급의 가능성을 더 열어놓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제도 하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된다면 이러한 장애인들은 소득의 부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해 조만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국가의 수급제도의 차기 대상자가 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차후 비용을 감안한다면 현 상태에서의 개별적인 접근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2012년 연구에서 면밀하게 파악되지 않았던 장애자녀나 배우자를 둔 가구에 대한 조사는 차기년도 패널조사 시 단독으로 질문영역을 구성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제10장 빈곤층 아동의 빈부 인식 비교: 연령변화를 중심으로

제1 절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층 아동의 빈부 인식을 연령에 따라 비교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연령을 학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중고등학생으로 나누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의 빈부 인식을 비교하였다.

인지발달이론에 의하면 아동기는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인지발달수준에서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구체적 조작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7~11세까지 지속되는 시기로 사고가 이전보다 더 논리적이고 융통성 있고 구조화된다. 전조작기 단계에 비해서는 논리적, 조직적 사고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정보를 다룰 때로 제한된다(이옥경 외 역, 2011). 형식적 조작기(11세 이상)에는 논리적 사고 과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여 추상적 개념을 이해 및 사고할 수 있는 시기이다.

빈부와 같은 사회계층에 대한 아동의 인지능력의 변화도 다른 사회인 지영역에서와 유사한 발달적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기는 아동기 전기와 후기를 거치면서 타인을 관찰 가능한 외모, 행동, 사회적 역할 등으로 기술하다가 점차 관찰 불가능한 심리적인 특성으로 기술하는 발달적 변화를 보인다(백승진, 1991에서 재인용). 이를 빈부 인식에 적용하면 아동은 부유층과 빈곤층을 관찰 가능한 외모, 행동 등의 특성으로 기술하다가 관찰 불가능한 심리적 특성으로 기술하는 발달적 변화

가 예상된다.

그러나 인지발달에서 교육 및 환경의 영향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Dickinson(1990)은 아동과 청소년의 빈부 인식 연구에서 인지 발달적 접근이 개인 기능의 역할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Dickinson(1990)은 10~1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차이 및 직업적 위세의 차이가 공정한지, 그러한 차이의 특성이 무엇인지,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념을 연령, 사회계층과 관련시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연령(10~16세), 모든 계층에서 소득 차이, 직업적 위세의 차이를 ‘직업의 중요도’, ‘직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직업을 얻기 위해 바친 노력’, ‘교육’ 혹은 ‘훈련’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불평등, inequality)가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연령이 아닌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Dickinson(1990)은 빈부 인식에서 미디어, 학교의 영향(즉, 미디어, 학교 등이 아동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주목하였다. 즉, 아동이 빈부에 대해 갖는 인식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지배적이고 널리 퍼져 있고 중요한 사회적 표상에 쉽게 동화된 결과인 것이다(Dickinson, 1990). 여기서 사회적 표상은 ‘특정 대상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를 뜻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표상은 인간들 속에서 일반 상식의 형태로 공유된다. 아동기에 가장 중요한 환경은 부모(가족), 학교, 또래친구, 동네(지역사회) 등이다.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초등학교를 분석한 정용주(2009)에 의하면, “학교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오로지 재능에 따라서만 곧 각자의 지능에 따라서만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고 그들을 분류하며 선별한다고 믿게 만들면서, 학교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이들로 하여금 만일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재능이 없거나 그들이 지적이지 않기 때문이므로 다른 곳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강제하며 내면화한다.” 라고 분석하였다(p 113). 그

러면서 학교는 “평등에 대한 환영에 지나지 않는 근본적인 상징폭력의 장소”(p. 113)라고 덧붙였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학교가 불평등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결국, 아동의 빈부 인식은 인지발달 수준 뿐 아니라, 아동이 속한 환경에서 빈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묘사하는가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빈부 인식에서 인지 발달적 관점 혹은 사회표상 이론적 관점, 어느 것이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려는 연구는 아니다. 빈부 인식, 혹은 빈부 인식을 포함하는 복지 인식(태도)이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는 점, 그리고 초등학교 이후 시기부터 더 넓어진 사회관계 속에서 사회에 대한 인식, 사회 속에서의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의 빈부 인식에 주목하였다. 이들의 인식이 성인의 그것과 다름 혹은 같음을 통해 인지 발달적 관점, 사회표상 이론적 관점의 설명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탐색적 수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빈곤층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빈부 인식은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제2절 관련연구 검토

국내에서 성인이 아닌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빈곤인식 연구는 많지 않다(김희성, 2011; 정미경, 2011, 정선욱, 2011, 정선욱, 2012). 김희성(2011)은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빈곤 대물림에 대한 인식, 그리

고 정미경(2011)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초등학생(4학년, 6학년 대상)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정미경(2011)에 의하면, 초등학생에게 사회적 약자는 매우 낮은 용어로 나타났고 사회적 약자에는 주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사회생활을 못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색으로 표현할 때 80% 이상이 검은색, 어두운 색을 뽑아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이미지는 아동 자신의 경험과 TV, 신문 같은 매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옥(2011)은 가상 빈곤 아동과 가상 비빈곤 아동에 대한 빈곤층 아동의 인식을 알아보았는데, 빈곤층 아동(초등학생)은 가상이지만 빈곤 아동과 비빈곤 아동을 다르게 인식하였고 빈곤 아동이 비빈곤 아동에 비해 스스로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옥(2012)은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비빈곤층 아동(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빈부에 대한 생각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보면 비빈곤층 아동은 빈곤을 주로 물질적 결핍 상황으로 이해했지만, 그 밖에 건강, 직업, 가족관계, 대인관계, 심리적 위축, 교육 기회 등에서의 결핍으로 이해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빈곤의 원인으로는 개인적 노력(의지) 부족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였고 계층이동 가능성도 ‘어려움, 그러나 가능함’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중고등학생이 포함된 연구로는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백승진, 1991),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소연, 2001) 등이 있다. 백승진(1991)의 연구 결과, 아동은 연령이 어릴수록 빈부의 차이를 피상적이고 단순하게 설명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부의 차이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인지경향이 나타났다. 부유층과 빈곤층에 대한 지각의 호의성(비호의성)에서도 연령 차이가 나타났다. 여기서 호의적인 지각에는 ‘마음이 착한 사람’, ‘남을 돕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절약하는 사람’, ‘저축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가정이 화목한 사람’,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운 사람’ 등의 긍정적이고 동정적인 감정이 포함된 반응을 포함한다. 반면, 비호의적 지각에는 ‘욕심쟁이’, ‘게으름뱅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 ‘아껴쓸 줄 모르는 사람’, ‘함부로 돈을 쓰는 사람’, ‘매일 술만 마시는 사람’, ‘버는 대로 다 쓰는 사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사람’,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 ‘남의 돈을 가로채는 사람’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부유층에 대해 호의적 지각이 높은 집단은 12세>8세>15세 집단의 순서였고 비호의적 지각이 높은 집단은 15세>12세>8세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빈곤층에 대해 호의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은 15세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았고 빈곤층에 대해 비호의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은 12세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았다. 15세에서 부유층에 대한 호의적 지각이 낮게, 그리고 비호의적 지각이 높게. 빈곤층에 대한 호의적 지각이 높게 나온 결과에 대해 백승진(1991)은 15세가 사춘기로 이 시기에 나타나는 인지발달의 경향, 즉 사회의 경제제도나 정치체제가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회구조적인 면에 대한 인식이 부유층에 대한 지각 속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빈부 인식을 살펴본 연구로는 김소연(2002)가 있다. 이 연구는 연령이 아닌 계층을 중심으로 빈부 인식을 고찰하였다. 고등학생의 주관적인 계층인식, 그리고 객관적 계층 특성(부모의 직업, 가구 월소득 등)에 따라 계층관(빈부격차의 정도, 빈부격차의 원인, 부의 세습, 개방적 계층구조, 사회이동 통로로서의 학교교육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불평등한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

이들 연구들에서 보면, 연령의 차이는 빈부 인식에서 보다 일관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아(윤선영, 류혜숙, 2004),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빈부를 개인적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빈부 인식에서 연령이 어릴수록 계층보다는 연령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층과 연령이 함께 작용하여 빈부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빈부 인식이 포함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복지 인식(복지 태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연구는 주로 성인층을 대상으로 연구된 것이 많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양점도, 이경은, 김현수(200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사용하여 초등학생의 복지 의식을 이상적 복지지향형, 현실적 사회비관형, 온정적 복지지향형, 낙관적 평등지향형, 소극적 복지주의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상적 복지지향형의 아동은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도움을 받게 되면 자기 가족을 책임지려는 생각이 줄어든다’, 이 두 문항에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윤성호(2008)는 빈곤층 성인과 비빈곤층 성인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사용하여 빈곤-사회 배제의 인식 유형을 연구하였다. 빈곤층 성인에서는 사회적 참여담론(인적자본-시장성 노동참여 중시형; 사회문제로 인해 가난해졌다고 진단하고 해결책으로 교육, 훈련, 이를 통한 관철은 일자리 강조)에 가까운 인식 유형이 많았고 비빈곤층 성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참여담론과 함께 도덕적 하층 계급 담론(최소권리-노동 중시형: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권익신장과 최소한의 지원을 사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유형; 개인문제-최소권리 중시형: 개인의 나태함으로 인한 결과로 빈곤을 이해하고 금전적 지원보다는 생활 자원의 지원을 선호하는 인식 유형)이 우세했다. 김영순·여유진(2011)에서는 한국인의 복지태도를 비계급성, 비일관성의 특징으로 분석하였다.

제3절 연구방법

1.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빈곤층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빈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이하 질적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연의 자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포함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유의표집하여 이루어졌고, 질적연구자들로부터 교육을 2-3회 받은 조사자들이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들의 사용한 자료는 표집대상가구 중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자료였다. 질적패널자료에서 빈부 인식과 관련된 질문은 아래 <표 10-1>과 같다.

<표 10-1> 빈곤층 아동의 빈부 인식 비교 질문지

-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부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부자에 대해서 OO(응답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OO(응답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비슷한가요? 어떻게 비슷한가요?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 왜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가요?
-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부자가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아동들의 응답은 가급적 표현 그대로(in-vivo) 코딩되었고, 연구결과의 표에도 그대로 인용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아동들이라서 표현력이 부족하고, 질문에 대해 말이 끊어지는 경향(고미영, 2004)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분석방법은 특정한 분석방법보다는 일반적인 질적 분석을 위한 절차를 따랐다. 아동들의 개별적 진술을 살피고, 의미단위를 찾아, 주제를 군집으로 나누고, 텍스트에 기초하여 기술하였다.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질적패널자료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에서 살고 있는 초등학생은 17명(15가구, 쌍둥이 2명 포함), 중고등학생은 13명(중학생 7명, 고등학생 6명)이었다.

제4절 분석 결과

1.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 대한 인식

우선,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빈곤층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우선,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가난한 사람을 호의적 혹은 중립적으로 인식하였다(표 10-2 참고). 또한 이들은 ‘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일은 열심히 하지만 돈을 못 벌음’ 등으로 “일”과 “빈곤”을 관련시켜 이해하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가난한 사람을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은 초등학생의 이야기에서만 등장하였다.

〈표 10-2〉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인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가 난 한 사 람	호 의	- 욕심이 없다. 성실하다. 성격이 착하다. 마음씨가 곱고 착한 사람 - 희망, 목표가 있다/하고 싶은 게 많다. -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사는 사람/더 지혜롭고 가족끼리 뭉치고 - 도와주고 싶다. 불쌍하다. - 이것저것 따져보고 필요한 것만 사고	- 일은 열심히 하지만 돈을 못 벌음,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음/돈은 없지만 열심히 살려고 하나까 - 그렇게 맘대로 못하지만 어느 정도 행복함/자기 선에서 즐김, 그러니 괜찮음 - 불쌍함/하고 싶은 것을 못해 불쌍함 - 도움이 필요함
	비 호 의	- 거지같다. 지저분하다. 껌판치고 술먹고 돌아다니고 파소비하고. - 행복하지 않고 - 커서 저렇게 되지는 않겠다. - 자신감이 없다. 논다. - 부자집에 가서 돈을 훔치는 나쁜 사람	- 게으름(자신도 게으름)
	중 립 적	- 돈/집/먹을 것/옷 없는 사람 - 아무것도 못산다 - 학교도 못가고 - 집에만 있고 - 나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있다.	- 돈이 없음 - 인간관계가 적음 - 집이 없고 밥 잘 못 먹는 사람 - 돈이 없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 - 보통생활(먹고 자고 놀러가기 등)이 어려운 사람 - 제약이 많은 사람 -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가난한 것임/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똑같음
	비 교	-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호의적 및 중립적 시각이 우세함 - 중고등학생은 “일”과 관련하여 빈곤을 이해함 - 중고등학생은 빈곤의 주관적 인식(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가난한 것, 그렇게 맘대로 못하지만 어느 정도 행복, 꿈을 갖는 것이 중요) - 중고등학생은 가난한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이해하는 듯함. -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특성으로 언급되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중고등학생에게 등장함 - 가난한 사람의 “품성”에 대한 언급은 초등학생에게만 등장함	

<표 10-3>은 부자에 대한 빈곤층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의 인식이다. 부자에 대해서도 초등학생은 “착한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의 품성을 언급하였다. 중고등학생은 “돈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보

다 추상적 언급(‘막히는 게 없는 사람’, ‘불편한 것이 없는 사람’, ‘돈에 대한 걱정이 없음’ 등)을 더 많이 하였다. 또한 이들은 “부”와 “권력”, “부”와 “집안”, “부와 공부”의 관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표 10-3〉 부자에 대한 인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부 자	호 의	- 인자한 사람/기부도 좀 하고/불우 이웃 돕는 사람/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옛이야기 아닌) 현실에서는 착한 사람	- 공부 잘하고 능력이 있음 - 친구 많고 지혜가 많음
	비 호 의 적	- 욕심도 많고/성격도 좀 나쁘고/마음이 나쁜 것 같다/죄를 많이 짓는 사람. - 자기가 짱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돕는 사람/짐승같은 인간/잘난척/자만감/거만한 사람/알뜰다	- 비리(tv 나옴) - 돈이 많아 펍펍 씀
	개 관 적	- 놀부/돈많은 사람 - 좋은 집/좋은 차/ - 음식도 배불리 먹고 - 많은 걸 살 수 있고 - 도우미 아줌마들이 있고 - 학교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 하고 싶은 대로 다하는 사람/부러운 사람	- 돈이 많고 권력(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 브랜드 옷 많고 핸드폰 자주 바꾸고 집 넓은 곳에 살면 부자라고 생각함 - 집안이 좋은 사람 - 물질적으로 막히는 게 없는 사람/불편한 것이 없는 사람 - 돈 많고 잘 삼/과외도 하면서 공부도 잘함 - 돈 많고 행복한 사람/돈에 대한 걱정이 없음 - 부러움 -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함
	비 교	- 초등학생의 경우 부자를 “착한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의 품성을 언급함 - 중고등학생은 “공부”에 대한 언급하기 시작함 - 중고등학생은 “돈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보다 추상적 언급(‘막히는게 없는 사람’, ‘불편한 것이 없는 사람’, ‘돈에 대한 걱정이 없음’ 등)을 더 많이 함 - 중고등학생의 경우, “부”와 “권력”, “부”와 “집안”의 관계에 대해 인식하는 듯함	

2. 빈부 원인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가난한 이유, 부자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10-4>에서 보듯이 빈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서 초등학생 시기부터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에서 가난의 원인을 “팔자”, “운 없음”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직업의 종류”(돈이 안되는 직업)와 빈부를 연결시켜 생각하였고 부자의 돈을 다루는 능력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듯하다.

<표 10-4> 빈부 원인에 대한 인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가난한 이유	- 장애인은 일하기 어려우니까(능력) - 도둑질을 많이 해서/자기가 가난하다 가난하다 해서(품성) - 쉽게 포기/놀이만 하고/일할 때 피를 내서/일을 조금씩 대충대충만 하고(노력) - 부모가 가난하면 가난하게 되고/처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고(대물림) - 빛이 있거나(능력, 환경) - 사기를 당했거나(환경) -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을 받아 들어주지 않아서/일을 해도 사장님이 찼돌이라서/회사에서 찼려서(사회나 환경) - 팔자가 없다/세상사는 운이 없다(운명으로 돌림)	- 가난 대물림(대물림) - 돈을 펄펄 씀(사치) - 자연재해를 당함(환경) - 처음부터 가난한 것은 아님(환경) - 사업이 망해서(능력/환경) - 노력을 안해서/게으르고(노력) - 집안이 안 좋아서(환경) - 제약이 있고(장애)가 있고 불평등한 요소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능력) - 돈이 안되는 직업에서 일해서 돈을 못 벌음(직업)
부자인 이유	- 돈을 많이 모아서/일을 열심히 많이 하고/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노력) - 부모님이 물려주셔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돈을 물려받아서(대물림) - 자신감을 갖고 쪽 올라가서(품성)	- 부자 대물림/부모님이 부자/부모의 성공을 물려받음(대물림) - 노력 - 부자는 기업창출, 운영 능력이 뛰어나/부자는 능력을 잘 활용함(능력)

3. 계층이동가능성과 빈곤해결 방법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표 10-5>를 보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이야기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초등학생은 ‘착하게 살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욕심을 많아도 안되고’ 등 착한 마음을 유지하고 바르게 살면 빈곤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외부의 도움도 빈곤 해결 방법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표 10-5> 계층이동가능성과 빈곤해결방법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비교
-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받으면/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갖고/아르바이트를 하면 (소득활동) - 돈을 모으고/절약해야 한다/돈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저축) - 공부를 열심히/열심히 일하고/자기 노력만 하면/실천을 하고/남들보다 더 많이 해서(노력) -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줄 때/부자들이 필요 없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줄 때(외부 지원) - 남을 배려하고 착하게 살면/사람들에게 존대를 하고/가족과 동침서/자신감이 생기면/실패하는 것에 다시 계속 도전하는 그런../마음가짐이 달라지면/예의도 바르고/착하고/자부심을 가지고/사람들을 알리지 않는게 제일 중요/아버지 도와드리고 /남을 도와주고/심청이는 가난했지만 착해서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욕심이 많아도 안되고/자만감이 많아도 안되고 (좋은 삶의 태도) - 로또에 당첨되서(요행) - 유산을 받거나(유산)	- 사람에 따라 다름/개인의 능력이 중요함(능력) - 노력하고/꿈을 목표로 끝까지 참으면 좋은 일이 생김/계획을 세우고 실천함/열심히 노력함/학교 열심히 다님/성실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안 놀고 열심히 일해야(노력) - 돈을 열심히 모아야 함/저축하고(저축) -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부자됨(요행) - 부자되기 힘들 것 같음, 한계가 있음/일해도 벌 수 있는 한계가 있음 (한계 있음)	- 초등학생은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인식함 - 초등학생은 외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함 - 중고등학생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우며,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을 인식함 - 중고등학생도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빈곤 해결을 개인적 차원에서 주로 인식하고 있음

이에 비해 중고등학생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힘이 들고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노력, 저축, 개인의 능력 등에 대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모두 빈곤 해결의 방법을 개인적 수준에서 찾고 있었다.

제5절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질적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층 아동의 빈부 인식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가난한 사람을 보다 호의적 혹은 중립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일”과 “빈곤”, “부”와 “권력”, “부”와 “집안”, “부와 공부”의 관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초등학생은 가난한 사람, 부자에 대해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 등의 품성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가난한 이유, 부자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빈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서 초등학생 시기부터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에서 가난의 원인을 “팔자”, “운 없음”으로 인식하였다.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돈이 안 되는 직업과 같이, 일을 해도 가난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부자의 돈을 다루는 능력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초등학생은 ‘착하게 살

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욕심을 많아도 안 되고’ 등 착한 마음을 유지하고 바르게 살면 빈곤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외부의 도움도 빈곤 해결 방법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이에 비해 중고등학생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힘이 들고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모두 빈곤 해결의 방법으로 노력, 저축, 개인의 능력 등을 중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몇 가지 논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빈부의 대물림에 대한 인식이 초등학생부터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것이 그냥 부러움과 같은 감정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대물림에 대한 인식은 ‘희망 없음’, ‘무기력’과 같은 정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 중고등학생의 경우 빈곤 해결 가능성에 대해 “한계 있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아제에 의하면, 어린 아동은 구체적 조작기 시기, 더 큰 아동(청소년)은 형식적 조작기의 시기로서 형식적 조작기 시기에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주어진 현실을 넘어선 대안적인 사회적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인지발달 수준의 차이가 빈곤 인식에도 반영되어, 예를 들어 더 어린 아동은 불평등을 운명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Leahy, 1983). 본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의 경우 가난의 원인을 “팔자”, “운명”으로 돌린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모두 빈곤의 문제를 사회·환경적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매우 낮았다. 물론 중고등학생의 경우 “일” 혹은 “직업”을 빈부와 연결 짓기도 하였지만, 이것이 괜찮은 일자리, 적당한 임금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이야기에 “불평등”, “공평”, “정의”, “형평” 이러한 기준에서 빈부를 이해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이것은 이들이 빈곤 해결 방법으로 노력, 저축, 개인적 능력 등을 강조

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것이 괜찮은가? 괜한 걱정일까? 생각해볼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빈곤은 불안정한 경제구조, 심각한 양극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기에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 즉 빈곤에 대한 개인적 차원 및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제11장 빈곤가구의 정신건강 인식 및 욕구에 관한 연구

제1 절 서론

개인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생활방식 뿐 아니라 개인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에서,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 연구들에서도 적극 주목되고 있다. 이에 서구에서는 사회학 및 정신의학 등의 관련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계층적 지위 및 빈곤 등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왔고, 그 결과 상당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다(Muntaner, et al, 2000, 이상록 외, 2010에서 재인용).

서구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빈곤계층이 빈곤하지 않은 계층보다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계층은 실업, 고용 불안정, 저임금, 그리고 취약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신체적 위협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하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빈곤계층이 더 스트레스가 높으며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Patel et al, 1999). 특히 빈곤계층에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Turner et al, 1995; Eaton and Muntaner, 1999). 장기간 실직상태인 경우 무기력, 절망, 가족간의 긴장, 우울, 절망감을 증가시키고, 자신감 상실, 자기가치감 감소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곤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사회원인론(social causation theory)로서, 빈곤 계층이 갖는 환경적인 역경이나, 불이익, 그리고 스트레스가 정신장애의 발병에 기여한다고 본다(Hollingshead, Redlich, 1958). 반면에, 사회선택이론(social selection theory)은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이 정신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장애는 다시 개인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떨어뜨리거나 회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Wender et al, 1973). 빈곤과 정신건강 간의 인과관계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정신장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Johnson et al, 1999).

우리나라에서는 빈곤가구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빈곤계층의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들 연구 결과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일수록 전반적인 정신건강이나 문제음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영문 외, 1999, 윤명숙, 2001, 박상규, 이병하, 2004). 최근에는 패널자료를 통해 정신건강과 빈곤 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성준모, 2010, 이상록·이순아, 2010).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가구와 달리 빈곤가구에서는 경제적인 요인이 우울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빈곤이 심각할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못하고, 정신건강이 빈곤 경험, 지속, 탈출율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문제의 완화, 특히 빈곤 탈출의 제고를 위해서는 빈곤층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요청됨을 보여준다. 그간 우리사회의 빈곤대책은 주로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차원의 사후적 물질적 지원에 치중하였으나, 앞으로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문제 개선을 위한 개입 및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이상록·이순아,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구가 경험하는 정신건강의 어려움과 욕구를 그 맥락 속에서 좀 더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즉, 기존의 양적인 연구를 통해서 빈곤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드러냈다면, 본 연구에서는 빈곤과 정신건강이 어떻게 관련성을 가지고 상호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그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빈곤가구의 정신건강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빈곤가구가 경험하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어떠한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맥락은 어떠한가? 둘째,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결 혹은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11년과 2012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연구(이하 질적 패널)’에 포함된 전체 가구 중 저소득층 29가구이다. 구체적인 패널참여가구는 1, 7, 24, 29, 37, 50, 66, 68, 73, 76, 77, 98, 103, 104, 107,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20, 121, 123, 125번 이다. 패널에서 노인 가구는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중에서 정신건강 질문에 대한 응답이 없는 가구는 제외하였다.

둘째, 분석대상 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인터뷰 내용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나, 특히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경제영역에서 빈곤에 관한 질문들로서 경제적 상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경험, 해결노력 및 도움에 관한 질문과 둘째, 생활영역 중 정신건강에 관한 질문들로서 정신건강 정도, 정신적 어려움, 서비스 이용경험 및 노력에 관한 질문이다.

셋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사례의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얻고자

하였다. 녹취자료들을 여러 번 정독하고 의미 있는 구절이나 문장을 찾아 표시하면서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을 찾고 개념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개념들을 재검토하고 다시 한 번 녹취록을 검토하면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주제의 개념들을 찾아나갔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주제들이 인터뷰 내용들을 잘 반영하는지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제2절 연구결과

1. 빈곤가구의 정신건강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10점 만점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했을 때, 대부분 중간 정도의 점수를 부여했다. 경제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대부분 0점에서 3점 정도의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였으며 10점 만점을 준 경우도 있는 등 점수의 폭이 다양했다. 즉, 빈곤계층에 속하는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정신건강은 경제적 수준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주관적인 평가가 다양했다.

하지만 과거 혹은 현재에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상황에서는 대부분 우울과 불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또한 참여자들은 정신적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적인 요인을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경제적인 요인 자체뿐만 아니라 가족갈등, 질병과 장애, 스트레스적 사건 등과 결부되었을 때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개인이 가진 심리적, 환경적 자원에 따라 그 정도와 지속여부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도움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신건강의 어려움

가. 일상적으로 쌓인 높은 스트레스

참여자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힘든 업무, 바쁜 일상,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장애, 가족갈등 등으로 인해 늘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정신건강 점수를 낮게 주는 이유를 대부분 스트레스로 보았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일상적으로 푸느냐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종교나 주변 사람의 도움, 취미활동 등을 통해 적절하게 해소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정신건강 점수도 높게 평가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이를 점점 쌓아가면서 다른 생활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 위염이나 두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표출 등을 경험하였다.

특히, 참여자들 중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내재된 분노의 감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 ‘폭발할 것 같고’, ‘쉽게 화를 내게 되고’, ‘짜증을 부리게 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를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생활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자: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뭐랄까 우울증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 그냥 누구한테 얘기, 남편 있으면 남편한테 화풀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해 남은 한계가 있잖아, 남편한테다 갖다 화풀이 할 수 없잖아. 이런 게 조금 그게 스트레스로 오는 것 같아.

조사자: 답답하고 스트레스

응답자: 맞아.

조사자: 그럼 어느 정도로 경험하고 계세요?

응답자: 많이 그렇다기보다 제가 느껴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 조금 빼뺄하게 나가고 누가 뭐라 그러면 화가 그냥 순간적으로 확 나. 그게 스트레스 쌓여서.

조사자: 조절이 안 되고

응답자: 조절이 안 되고 쌓여서 그런지 어쩐지, 조금만 저기 하면 확 막 폭 발할 것 같고 참고 있으니까.

조사자: 그럴 땐 꼭 참으세요? 이제 확 올라오는데 누르시는 거예요?

응답자: 누가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 근데 그걸 참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싸움되는 거야 누가 건드려 갖고 확 터지면 (패널참여가구 7)

나. 하루하루를 버티며 내일을 불안해함

많은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정신적 어려움 중 하나는 불안이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안 좋은 생각에 빠지고”,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호소하였다. 이러한 불안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미래의 불안이었다. “일이 언제 끊길지”,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수급권에서 탈락되지는 않을지” 불안해했다. 근근이 지탱해가고 있는 하루하루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작은 변화조차도 참여자들에게는 삶의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더 크게 다가왔다.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에는 나 하나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은 참여자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현재에 머무르기를 고집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린 자녀가 있는 참여자들은 교육비 때문에라도 수급권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참여자 중에는 자신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 현재에 급급하고 늘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더 나아지려면?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는데.. 제가 하는 일은 뭐.. 열심히.. 아 그니까 이제.. 사람마다 자기 직업이 틀리니까 저 같이 제가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해요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나라에서 정책들이 바뀌면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일도 내려가는 주위에 있다고 해야하나? 추세예요 우리.. 제가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한숨)진짜 불안 불안해요 이... 이... 제가 하는 이... 분야가 없어질까봐 두렵기도 그래서. 미래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왜냐면 사람이 미래가 있어야 발전이 있다곤 하지만 그건 있는 사람한테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과거 미래는 절대 없어요 현재만 진짜 생각하거든요?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까지는 못 바라보겠는데.. (한숨)불안해요.. 이 일이 계속 있어야 하는데 애들은 커가고 돈은 더 들어가는데 나는 이제 이 일이 없어져서 직장을 잃게 되면 무슨 일을 해야돼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집.. (패널참여가구 98)

다. 낭떠러지에서 우울과 자살충동을 느낌

참여자들은 현재 혹은 과거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바닥을 쳤던 경험

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사채 등의 빚으로 인해 실제적인 위협을 받거나, 당장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오늘밤 잘 곳조차 없는 경우, 아이 학교에 내야할 돈 몇 푼이 없는 경우 등이다. 혹은 가정폭력, 장애, 질병, 이혼 등의 경험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맞물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낭떠러지’에 놓였을 때, 참여자들은 대부분 막막하고, 어찌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울과 절망을 경험하였다. 때로는 그로 인해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기도 해서, ‘칼을 보면 찌를 것 같고’, ‘도로에서 확 뛰어들고 싶고’,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은’ 직접적인 충동으로 느끼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문제나 자녀의 정서적 문제로 심각해지면서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종교, 가족, 취미활동 등과 같이 의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긍정적으로 해소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많은 경우 술에 의존하거나 그저 껍쭈 참고 억눌러온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질 수 있다.

응답자: 요즘 자살도 많은데 우울증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는 거가 그렇게 힘들지만 앓다면... 나 같은 경우도 진짜 어떤 때 보면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빚 갚아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은 그것 때문에 고민은 안 하지만 처음엔 진짜 힘들었었으니까... 막막한거예요 한 달에 2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에휴... 계속 집으로 전화 오고 집으로 찾아오고 하는 거에서 시달리니까.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구요 죽으면 이런 거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때는 확 죽고 싶죠 근데 사람이... 안 갚는 거 아니고 내가 좀 저기해서 갚겠다고 애걸하니, 그래도 사람이 아직까지는... 믿어주고 하니까 그나마 괜찮았지.

조사원: 그래도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응답자: 그 때는 돈 벌어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나가기 바쁘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그 때보다 나으니까.

조사원: 그 때 당시에 좀 우울증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으셨어요?

응답자: 심하죠. 그쵸. 그 때는 그 때 심하게 저기 아무데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니까 쉬는 날이면 몸이 힘들니까 집에 가만히 누워 잠만 자는 거고. 나가고 싶다거나 누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아예 안 들었으니까. 회사 가는 것 외에는 진짜 그때는 기계적으로 갔던 거지. 안 가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조사원: 전화 오면 불안하시구요?

응답자: 그쵸. 전화 못 받죠. 그 땐 전화 못 받았었어요.

조사원: 실제로 진짜 죽고 싶다고 해서 뭔가 하셨던 적은 없으시구요?

응답자: 그런 적은 없었어요. 칼을 보면 진짜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 저 걸로 찌르면 죽을텐데. 그런 생각은 했죠.

조사원: 그 때 그림 그런 걸로 병원 같은 거는 안 가보셨어요?

응답자: 병원은 안 갔어요. 병원 갈 돈이 없어요... (패널참여가구 103)

라. 스스로 고립되고 위축됨

지속적인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 중 하나는 스스로 고립되고 위축된다는 것이다. 빚 독촉 등으로 사람들과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끊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몇 번 도움을 청하다가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되기도 하였다. 때로는 스스로가 위축되어 관계를 끊기도 했다. 어려운 형편을 알리기 싫어서 모임에 나가지 않거나 사람들과의 왕래를 부담스러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까지 형성되었던 사회적 관계나 친밀한 관계들이 소원해지고 소수의 사람들과만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었다.

이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각지심이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과 연

결된다.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어짐을 의미한다.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참여자들 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나 생활의 변화 후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종교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서적인 것은 보통이라고 보면 되지요 뭐 그렇게 뭐 현실문제가 너무도 어렵다 보니 참 어떨때는 정신도 그게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맨날 이런 집에 살다보니 솔직히 어떤 친구들이 있어도 초청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저는 휴대폰도 없지만도 어디 가면 휴대폰 없는 사람으로 통하니까 요즘 애들도 참으로 다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주위 뭐 환경에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빨리 지금 그런데서 현실에서 조금 벗어나야 정신적인 것도 나아지겠지 않나?

뭐 모르겠어요 뭐 친구들이 그런 걸로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도 제 스스로가 자꾸 위축되는 거죠 뭐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지 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돈벌이 해서 자립하는데, 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안하고 있다보니, (헛웃음) 그나...뭐... (패널참여가구 113)

마. 자존심을 버려야만 함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급권이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무시당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존심을 상하는 경우가 있었다. 혹은 정치사회적으로도 없는 사람들이 더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을 하면서 점차 사람들을 만나도 ‘없어서 무시하는 것 같고’, ‘괜히 주눅 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없는

사람이 먹고 살려면 자존심을 버려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기도 하였다.

이렇게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것이 때로는 잘 살겠다고 독하게 각오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은 스스로 무력해지고 위축되게 만들기도 했다. 특히, 참여자들은 자식들이 없이 살아서 눈치 보거나 자존심을 다치지 않을까 매우 민감하게 염려하고 있었다.

응답자: 우리가 포기를 했더니까. 근데 그 말 끝에... 나는 안들었는데 '언니 가고 나서 진짜 웃기는...자존심 상하는 소리 들었어.' 친구가 이러는거야. 뭘 들었냐 그랬더니... 저그들끼리 우리들 없는 줄 알고... '자활 수급자 주제에 뭘놈의 국민연금까지 넣고 살려고 하냐고...'

조사원: 헉... 그런 얘기를?

응답자: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기들끼리. 그거는 한 예예요. 그렇게 무시를 한다구요.

조사원: 네

(중략)

응답자: (그 공무원이 말하기를)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내가 그런 거까지 정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그때 OO동인가에 언니가 살았거든요. OO동 아파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신청했어요. 이름 석자 때문에.

조사원: 이구...

응답자: 그런 식이에요. 공무원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때 당시 그랬다니까요. 내가 그 신청을 하고 와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서 울었는데요. 내가 그 여자 이름이라도 알고 올걸...그 생각했더라니까.

조사원: 요즘 같은 세상이면...

응답자: 요즘은 진짜 내가 가만히 안두지. 그때는 자활 처음 들어왔자...모르지... 수급자지... 형편은 형편대로 떨어지고 자존감은 있는 대로 없어져서 주눅 들어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말도 않

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잘해주는 사람도... (패널참여가구 120)

바. 경제적으로 무너지면서 취약한 부분이 터져 나옴

가족구성원 중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갈등이 심각한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심각해진 것은 많은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부터였다. 그 전에도 매우 행복하거나 건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저럭 유지되어오던 상태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본격화되거나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예를 들면, 원래도 술을 좋아했지만 실직 후 음주량이 급격히 늘고 폭력문제가 동반되거나, 원래도 부부관계가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부부간에 다툼이 잦아지고 갈등이 심각해지게 되었다. 또는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정서적 불안이나 학교부적응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사업실패나 실직과 같은 경제적인 위기는 그 간에 유지해오던 항상성을 깨뜨리면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게 만들었다.

응답자: 이해 못해요 그거를 지금도 애들 아빠가.

조사원: 그런 증상이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나서 나타난.

응답자: 나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원: 그전에는 그럼 없고?

응답자: 그전에는 제가 뭐 뭘 해도 뭐 아무 그것도 없었고 자기가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니까 제가 아무래도 밖으로 나가서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늦게 오게 되고 이러니까 탄짓거리 한다 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일을 하는 쪽이 패션 쪽, 의류 쪽이다 보니까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변했다고.

조사원: 술 드시면서 또 약간 그런 오해들…… 망상 같은 게.

응답자: 망상 같은 것도 있고 술을 매일 먹었어요 알코올을 하루에 소주 두 병씩.

조사원: 하. 소주 두 병씩.

응답자: 네. 근데 그 주량이 자꾸 늘어나더라구.

조사원: 네. 혹시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응답자: 제가 알코올 중독인 것 같다고 병원에 가보자니까 저보고 정신과 가보라고 하더라고 중독자들은 절대 자기가 중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왜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랬냐 하면 낮에도 코가 빨간 거예요. 이렇게 코가 빨갛고 눈이 풀려있어요 (패널참여자 123)

사. 해소되지 못한 스트레스가 가족 간에 표출됨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부간의 불만과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경험을 하였다. 배우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경우 불만이 높아지고 잦은 다툼으로 이어지거나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일상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분노를 많은 경우 가족, 특히 자녀에게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여자들은 ‘돈이 있으면 해결될 일’이 그렇지 못함으로 서로에 대한 화로 표출되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해소되는 경험을 하였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해소하지 못할 경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원: 음음.. 좀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응답자: 어...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거?... 경제적인 여유죠...(웃음) 경제적인 여유로 인해서..

조사원: 경제적인 여유..

응답자: 그죠.. 모든 게 다 불화가 생기니까... 뭐 애들한테 다 해주고 싶은데 못해주니까... 뭐 막 말로 돈으로 해결하면 될거를.. 우리는 못해주니까 막... 말로 하다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같아 서로 예를 들면 공부해라. 솔직히 학원 보내주면 더 좋은데 못 보내주니까 집에서 공부해라. 그러다보면 애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왜 또 공부하라고 하냐.. 막 이런 부분 때문에 부딪히니까 그런거 같아요(패널참여가구 98)

그쵸, 그럴 때는 이제 애들한테 많이 구박을 하기도 했던 것 같고 넌 왜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하면서 내가 화나는 걸 나 자신한테 화나는 걸 개네들한테 화낸 거죠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 게 애들한테 갔던 거죠 조금만 저기해도 뭐 그렇게 힘든 게 좀 지나고 나니까 그래요, 시간이 좀 지나야 어떤 게 좀 해결이 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내 고민만 제일 큰 거고 나만 제일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이제는 그게 아닌게 지나고 나 보나 그쵸, 그 당시만 좀 지나면 되는데, 그 당시를 못이기니까 그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그런 쪽으로는 저기가 없었으니까 견뎌낼 수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 그 쪽으로 생각하고 했다고 하면 아마 지금 안 살아 있겠쵸 (패널참여가구 103)

아. 뒷받침 해주지 못해서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남김

빈곤가구의 부모들이 표현하는 정신적인 고통 중에 하나는 자식을 경제적으로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죄책감이었다. 요즘 세상에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을 부모 자신의 책임

으로 크게 인식하였다.

그래서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만큼은 다른 집 아이와 가능한 비슷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스마트폰과 브랜드 운동화를 사주기도 하고, 학원비의 큰 부담을 지기도 했다. 특히 가난하다는 것이, 수급자라는 것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받지 않을까 큰 염려를 하였다. 자식이 무시당할까봐 수급권 신청이나 장애 등록을 안 하기도 하고, 수급권자인 것이 학교에서 알려질까 서비스 신청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가난이 자녀에게 까지 대물림 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게 되는 가장 큰 정신적 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염려와 부담이었다. 이는 빈곤가구에 있어서 아동복지에 좀 더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뭐 공부도 억지로 못 해요. 억지로 못 하더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가르쳐봐도 본인이 노력 안 하고 안 할라고 하면 안돼. 그런 애는 아예 공부를 시키면 안돼. 근데 할라고 하는 애는 하는데. 애는 할라고 했는데 내가 뒷받침을 못 해서. 내가 그걸 안 하니까 내 죄책감이지. 근데 그거 없으니까. 환경 따라서 하는데. 저는 할라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학원도 좀 보내 달라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거 생각 뿐이지. 뭐.. 뭐가 물질이 따라 줘야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끝에 가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있는 집 애들이 더 낫겠지. (패널참여자 7)

아니지. 말도 했지. 왜 했냐면 (한숨) 답답하다 그래서 왜? 여자친구도 뭐 미팅 같은 것도 할라 그러면 엄마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런 말을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못해주니까 죄책감이 너무. 진짜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응? 야 지옥이다. 우리 아들한테 아무것도 해줄게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도대체 뭘 죄를 많이 졌길래 이 환갑

이 넘도록 이렇게 어렵게 사난 얘기에요. 응? 너무 너무 인제 그걸 생각하든 막 미쳐버릴 것 같애. 내 진짜 술이라도 먹었으면은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애. 근데 내가 술을 전혀 못하니까 (한숨) (패널참여가구 107)

자. 가족구성원의 정신건강문제로 인한 부담

가족 구성원 중에 정신건강문제가 있어 치료 및 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경우는 8사례였으며, 그 중 3사례는 아동이었다. 그 외에도 진단을 받지 않는 않지만 스스로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도 많았다. 우울증, 정신분열증, ADHD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서부터 과도한 알콜 섭취, 학교부적응, 가벼운 우울이나 자살 시도 등의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가족구성원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다.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쉽게 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진단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어려움은 고스란히 나머지 가족이 떠안게 된다. 예를 들면, 알콜과 폭력의 문제가 가족갈등과 불안,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을 보호해야하는데 따른 일상적 긴장과 부담이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다시 가족구성원 전체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당사자 뿐 아니라 이들을 돌봐야하는 가족 또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응답자1: 예예. 이 잠이, 조증이 오기 전에 잠이 줄어들어요. 현저히, 잠이 서서히 줄다가 현저히 줄어들면 그 때부터 이게 조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조사원: 아, 어머니께서 그러면 항상 긴장상태로

응답자: 예예

조사원: 항상 지켜보고 계셔야겠어요

응답자: 예. 그러니까 잠 깊게 못 자죠. 밖에 뿌시럭 소리만 나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항상 그걸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약 먹게 꼭 챙기고요

조사원: 아. 일 년에 몇 번 정도 조증이 발병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응답자: 한 두세 번 정도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인제 고 가기, 그러니까 조증으로 딱 나타나기 전에 한 보름 그제 인제 보름에서 한 달 동안 이걸. 이게이게 서서히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구분을 못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 갔을 때 아. 조증이 왔구나 조울증이 왔구나. 계속 얘기를 하죠. 지금 상태 이상하다. 잠자는 거 체크해라. 계속 잔소리를 옆에서 하다가. 어느 정도되면 본인도 이제 십 년을 제가 살면서 옆에서 이제 계속 컨트롤을 해주니까 이제는 어 내가 이상하다 감을 잡아요. 그러다가 그러기를 한 일주일 지나면 본인도 안 되겠다 싶으면 병원 데려다 달라 그래요

조사원: 아, 본인이? 스스로?

응답자: 예. 그래서 올 2월 달에도 한 20일 병원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20일 병원 갔다오죠. 거기서 약을 갔다 너무 세게 먹으니까 그제 한 달 가요. 후유증이. 그리고 전에 한 달 그니까 석 달 동안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조사원: 아. 그게 지나야지 인제 또 정상적인 생활로.

응답자: 예. 정상적인 생활도 또 한 두 달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이게 이게 이렇게 되니까. 뭐 일년에 받은 조증으로 거의.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패널참여가구 109)

3.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가. 사람들과의 만남

참여자들이 삶의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지만,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사람으로부터 얻는 위로와 관심이었다. 참여자들은 힘들 때 주변에 편하게 연락할 사람이 있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얻는다고 하였다. 만나서 수다를 떨고 술을 한잔씩 하거나, 노래방을 가고, 등산을 가는 등 사람들과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을 전환하고, 힘든 마음을 위로받을 때, 견뎌내고 다시 자신을 추스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몇몇 참여자의 경우에는 정신과에 입원을 하거나 상담을 받아도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된 경우도 있었다.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참여자들 중에도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종종 나타났는데, 참여자들은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으면서 울기도 하고, 마음 후련해하기도 하였다. 굳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려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에 큰 힘이 되었다.

조사원: 그러면 어머니 이렇게 우울증이 왔을 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도움을 받거나 요청하신 적이 있으세요, 주위사람들한테?

응답자: ... 그렇지 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와서 막 달래지, 뭐. 술도 먹고 허허거리고 뭐 자기 입었던 옷도 언니 이거 이쁘지, 이것도 한번 입어봐, 이라고 신발도 다만 오천원짜리도 입어봐, 신어봐, 이러지, 이웃 사람들이. 이웃들은 잘 해요 어제 왔던

그 이모야도 날 보면 언니라고 한 몇 년 정해놓고 매일 와 매일 한
 날 한시 같이 앉았다가 언니 나 술 한 잔 먹고싶어 난 별생각 없
 는데 이러면 그럼 먹지마 먹고 싶으면 언니 이야기해 한잔 받아줄
 게 그래 뭐 즐겁게 먹고 가고 오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활
 을 하는거라 그런 식으로 뭐 내가 이제 나이가 육십이 넘었는데 어
 떻게 그러니까 내가 자꾸 건강을 찾는거지 아들 자리도 못잡고 머
 시마 저래 데리고 있는데 내가 정신이라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
 러면 안되겠다고 자꾸 딴 마음으로 돌리지 뭐 (패널참여가구 66-1)

나. 종교적 위안

참여자들은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하고, 행복과 위
 안을 얻는 큰 원천이 종교라고 하였다. 종교를 통하여 정신적으로 의지
 할 수 있었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희망
 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들 중 주관적인 정신건강 점수를 중간 이상 혹은
 만점을 부여한 경우는 대부분 종교적인 믿음이 높은 참여자였다.

종교가 참여자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지 신
 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종교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로부터
 물질적·정신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며, 종교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기 때문이기도 하다.

응답자: 지금 한 9점 정도요

조사원: 굉장히 행복하게 느끼시는 편인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응답자: 제가 예수를 믿거든요...(웃음)

조사원: 아, 종교를 믿으시는 구나...

응답자: 예, 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조사원: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응답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조사원: 그렇구나...그래서 행복의 주원인이, 주요인이 종교생활과 예수님이시고...

응답자: 예, 예수님이세요.

조사원: 그 외에 다른 요인이 또 있을까요?

응답자: 뭐 다른 요인은 인자 우리 딸들, 또 교회에 가면 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울려서 또 일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좋습니다. (패널참여가구 114)

조사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입원하셨던 거예요?

응답자: 오래는 안 했어요. 한 일 주일 정도 입원하고 사찰 절 같은데 가고 이제 그 단양 구인사라는 절이 있는데 엄마가 글로 데리고 가서 처음에 경치도 좋고 공기 좋고 달 밝은 밤이면 다른 사람 기도하면 나는 나와서 탑돌이를 무지하게 들었어. 조금 안정이 되고 그랬으니까 약 먹으면서 병원 다니면서 소리하면서 장구 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피곤하고 걱정이 있으면 잠 못자는 거. 그건 다 있잖아 그지? 지금은 그 정도 (패널참여가구 73)

다. 서비스 경험

참여자들 중에는 정신과나 상담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물론 많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는 못했다. 한 참여자의 경우 자녀가 학교에서 실시한 정신건강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부담이 돼서 상담기관에 가보지는 못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증상으로 인해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자살시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여서야 비로소 정신과를 찾게 되거나, 특히 자녀의 문제로 인해 상담기관을 찾게 된 경우들이 있었다.

이들 중에는 서비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경우, 오히려 강제로 감히거나 하는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들도 있었지만 서비스를 통해 정신적인 건강이 좋아진 경험도 있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이 감소하고, 부모도 불안이 감소하고 양육방식을 변화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한 참여자의 경우 자녀가 상담을 받으면서 정신건강 점수가 2011년도 4점에서 2012년도에는 7점으로 오른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 지금 받고 있어요. 그니까 너무 좋아. 그니까 아무리 친구더라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 가서 인제는 인제 그렇다고 그 분이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해결 하긴 하는데 다, 다 들어준다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조사원: 아 그냥 들어주는 것 자체가?

응답자: 예.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한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열 내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들어주는 입장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는 저도 인제는 상담 그걸로 노력으로. (패널참여가구 24)

라. 짐이자 위로인 가족

참여자들에게 가족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견디고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가족구성원의 문제나 갈등 정도가 참여자의 정신건강을 저해 혹은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적어도 가족의 존재가 마지막 절망의 순간을 견디고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특히 참여자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한 삶

의 목표이자 의미가 되기도 하였다. “내가 애들을 놔두고 먼저 죽을 수는 없어서” 참고 견디고, “아이들의 이해와 위로”가 제일 힘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언니들이 맨날 ‘###, 조금만 힘 내면 애들 졸업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힘들어도 조금만...’ 근데 우리 언니들은 한번도 그런 말을 안해주더라구. 내가 진짜 진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진짜 죽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작업 하는 데 노곤이, 현수막 써낼 때 쓰는 노곤이 탄탄한 거를 내가 그걸 가져가서는 농에다가 묶어놔있어. (울음) 근데 나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 또 애들 죽이고 나 죽으면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패널참여가구 115)

마. 스스로 마음을 다잡음

많은 참여자들이 정신건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질문했을 때, 별다른 것은 없고 그저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노력한다고 대답하였다. 많은 경우 정신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적·시간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내 마음을 스스로 다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나쁜 생각은 가능하면 덜 하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큰 확신이 없었다.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갈등이나 질병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된다면 정신건강은 점점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응답자: 정신적 문제는 한 7점 정도

조사원: 보통보다 조금 높네요?

응답자: 보통 사람보다는 사고방식을 나쁘게는 안 가져요. 부정적으로 생

각하면은 경제 쪽으로 완전히 뭐 3점이고 보통 이래 생각하는 거
는 아주 나쁘게는 안 봐요

조사원: 아 그러세요? 경제적 형편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아요?

응답자: 미쳐도 그걸 자꾸 머리에 두고 이라면요 정신병자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는 3점 2점 할 수 있지
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긍정적으로 안 살게 되면
내가 정신 이상자가 되버려요

조사원: 근데 아버님 7점이면 어떤 부분 때문에 만점이 아니에요?

응답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 분야 들어가고 지금 정치적 분야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며 돈 있는 놈은 나쁜 짓 해도 안 잡혀가고 어
디 텔레비전 뉴스 보면 스트레스 쌓이는 게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저지르면은 그걸 뭐 실질 어찌구 받는다고 며칠 뒤에 구속 풀리
고 일반 사람들은 대번 그 사람들 잡혀갑니다. 그런 걸 받을 때
사회에 불만이 참 많죠. 일하고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빈번하게 생
각하고 빈부격차에는 굉장히 예민하죠

조사원: 아 그런 부분 때문에 3점이 감점된 거네요. 어.. 아버님, 지금 사실
아버님이 주신 7점보다 더 낮게 자신을

응답자: (말 끊으며) 지금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5점 3점 이래
낮아지겠죠. 지금은 그나마, 이제 지금도 긍정적인 생각하는 부분
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가면 갈수록 몸이 안 좋아
질거고, 그러고 경제적인 것도 안 좋아지지 않겠나.

조사원: 갈수록 더 내려갈거다 지금보다는. 그럼 내려가지 않게 아버님께서
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응답자: (말 끊으며) 노력을 할라 하면 경제적인 돈을 좀 벌어야 되거든
요. 모든 게 생활에 여유가 없으면은 정신이 나빠져요. 생활에 여
유가 있도록 만들라하니 몸은 안 따라주고 그러니 전체적으로 이
래 되는거지. (패널참여가구 68)

제3절 소결

본 연구는 빈곤가구에서 경험하는 정신건강을 경제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참여자들은 다양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생활의 큰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심각한 우울이나 자살충동, 정신적 문제로 터져 나오기도 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보호부담을 안고 있었다. 둘째, 참여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이나 장애, 가족갈등이나 이혼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인 취약성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촉진시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정신건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부족하였다. 정신건강에 가장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교와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지지적인 관계가 취약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취미활동 등을 할 만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빈곤가구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빈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정신건강 점수는 대부분 중

간 정도였고, 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인 수준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으며 점수의 폭도 매우 다양하였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부분 경제적인 요인을 언급하였다. 이는 일반가구보다 빈곤가구에서 경제적인 요인이 정신건강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성준모, 2010)와도 일치한다. 즉, 빈곤가구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인은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인 요인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몇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참여자들은 일상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적은 수입과 불안정한 일자리, 힘든 업무, 그리고 가족갈등, 질병과 장애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았다. 특히 빈곤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Eaton and Muntaner, 1999).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위염과 두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 그리고 우울, 분노, 무력감과 같은 정신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경제적인 위기는 취약한 부분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신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유지해오던 상태가,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서 비로소 문제로 터져 나오게 된다. 즉, 경제적으로 무너지면서 우울과 자살충동, 알콜 의존, 폭력, 가족갈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더욱 심각해진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바닥을 쳤을 때, 우울과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빈곤가구는 정신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이는 정신건강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 빈곤가구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나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기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또한 지속적인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로 사회적 관계가 끊기거나 친밀한 관계들이 소원해 지면서 심리정서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매우 부족

하다.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고, 비용부담으로 쉽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한다.

둘째는 정신건강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이 빈곤의 지속이나 탈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우선 참여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을 표현하였다. 하루하루를 근근히 지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작은 변화조차도 참여자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또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고, 지금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다. 미래가 없이 하루하루를 불안해하며 버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일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불안감은 참여자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현재에 머무르기를 고집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11년도 분석에서 정신건강 촉진요인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음’, ‘희망을 가지고 있음’이라는 주제가 나타났지만,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분석에서는 이러한 주제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인간에게 내적동기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미래에 대한 목표와 긍정적 전망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빈곤가구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부정적 전망은 삶의 내적 동기를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참여자들이 드러내는 부정적인 인식 중 하나는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 같고, 괜히 스스로 주눅이 들고, 없는 사람이 먹고 살려면 자존심을 버려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빈곤으로 인해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 무력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자존감이 인간의 행동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을 고려할 때, 빈곤의 탈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

로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빈곤지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록·이순아, 2010).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인 것을 드러냈다면, 후속연구에서는 그것이 빈곤의 지속 혹은 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이 더 많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빈곤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었다. 참여자들은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분노가 자녀에게 표출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갈등이 자녀의 심리정서적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자녀들을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학업이나 또래관계를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가난으로 자녀들까지 위축되고 자존심을 다칠까봐 염려하였다. 빈곤가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심리정서적 위험요인은 가장 취약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참여자들 중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에서는 많은 경우 자녀가 심리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거나 이미 치료경험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빈곤가구의 아동이 심리정서적 문제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빈곤가구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진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이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가족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치료에 드는 비용부담과 경제적 활동능력 상실, 보호부담은 가구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는 빈곤가구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과 정신건강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맥락을 탐색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빈곤가구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빈곤가구가 경

험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빈곤정책들이 주로 빈곤층의 물질적 결핍에만 주목하였을 뿐 이들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미약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빈곤가구가 경험하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빈곤가구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실제로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낮을 수 있다. 현재 빈곤가구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에 있어서 정신건강의 영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신보건 전달체계와의 연계도 매우 미약하다. 빈곤정책과 서비스에 정신건강의 영역을 보다 통합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특히, 빈곤가구의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에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 가족의 스트레스나 갈등수준이 높고, 대처자원이 취약한 경우 이는 아동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빈곤가구 아동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개입과 더불어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바우처서비스나 정신건강 사업의 경우에도 대상자의 범위나 지원수준이 매우 제한적이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적인 정신건강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빈곤가구에 대한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빈곤가구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인들 즉, 스트레스 관리, 위기개입, 사회적 지원체계, 자존감,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은 사례관리를 통한 보다 밀착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가능하다. 즉,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물질적

인 지원을 넘어 한 개인과 가정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토대로 개별화된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현재의 삶을 벗어나 새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지지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체계의 구축과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빈곤가구가 경험하는 정신건강의 어려움과 욕구를 빈곤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다양한 측면과 요인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그 맥락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정신건강과 빈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맥락,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천적인 함의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제12장 빈곤 여성 노인의 일 경험:

‘하고 싶으나 할 수 없음’,

‘하고 있으나 하지 않음’의 의미

제1 절 서론

한국 노인들은 일을 하고 싶다. 베이비부머의 63.9%는 은퇴 후에 일을 하기를 희망하였고(정경희 외, 2010),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5%였다(박건표, 2012). 이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들의 대다수가(86.2%) 경제활동 이유를 생계비 및 용돈 마련이라고 응답하였다(정경희 외, 2012). 한편 현재 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9/10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어하여 일을 중단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우 적었다(정경희 외, 2012). 이와 같이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계속하길 희망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점은 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노인의 생활비 지출내역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용이고(이진숙, 2003) 노인 빈곤 가구는 식비, 광열수도비에도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백학영, 2010). 또한 노인 빈곤가구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볼 때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었고, 소득 개념을 확장하여 기타소득까지 포함했을 때에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거나,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었다(백학영, 2010). 즉 이들은 저축하기 위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 일을 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들 또한 일을 하고 싶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은 비근로 이유로 ‘일하고 싶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32.8%), ‘나이가 많아 받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18.4%)라고 응답하여(정경희 외, 2012)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한 사람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노인을 남·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일자리 면에서 남성 노인들은 이전에 몸담았던 직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이가 많았으나(46.9%), 여성노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사회 공헌형 일자리 참여(39.3%)였다. 일주일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근로하고 싶은지 또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 노인의 1/3는(32.1%) 30-40시간의 근로를 원하였으나, 같은 양의 근로 시간을 원하는 여성노인은 4.8%에 그쳤다. 반면 여성노인의 다수는(64.6%) 20시간 이하로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소득 면에서는 남성 노인의 절반이(50.8%) 50~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희망하였으나, 여성 노인은 57.6%가 20-50만원의 소득을 희망하였다(정경희 외, 2012). 이처럼 성별에 따라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형태나 근무여건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 노인을 중심으로 이들의 일 경험을 탐구하고, 특히 빈곤한 상황에서 이들의 일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는 11명의 여성 노인으로(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는 이들이었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노인들이 일을 하려는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많다. 기초생활보장으로 받는 금액은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최저생계비로 대다수의 수혜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다. 실제로 이들의 가구 지출은 급여수준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일감이나 소득은 빈곤을 탈출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본 연구는 빈곤을 탈출하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빈곤 완화에는 도움이 되는

노인들의 근로경험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데서 출발을 하였다. 수급중인 노인들이 탈빈곤 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들이 보인 빈곤 감소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주 생활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수적 수입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일이란 어떤 경험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노인들은 일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빈곤한 노인의 일 관련 경험을 탐색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제2절 선행연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두 가지 역할은 최저수준의 생활 보장과 자활에 있다. 최저생활 보장은 생계비를 통해 빈곤한 상태에 있는 이들이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자활은 수급자 스스로가 근로를 통해 빈곤을 탈피하도록 돕는다. 자활의 기능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수급자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며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개인의 노력 없이 국가에만 의존하고자하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자 함이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자활 참여 여부는 근로능력에 따라 결정되는데, 근로능력평가에서 무능력자로 판정받은 수급자들은 자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표적인 근로무능력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달리 자활 참여의 기회나 강제성이 없다. 즉, 수급 노인들은 탈수급의 압박이 덜하고, 근로의무에서 한 걸음 비켜 서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급 노인의 일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살펴보

는 것은 일반 수급자의 일 관련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2. 빈곤 여성 노인들의 일 경험

빈곤한 노인들은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나뉜다. 현재 생활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요건이나 자산을 이유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빈곤한 노인의 근로 경험을 다룬 연구에 비해, 수급 노인이나, 수급 여성 노인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 관련 경험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급자 계층의 인구학적 특성과 유사한 참여자들이 다소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문헌을 살펴봄으로써 수급 지위와 상관없이 빈곤 노인의 일 경험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노인 대상 근로 연계 프로그램인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이 모여있다. 충북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의 성별은 여자가 63.3%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70대 노인이 54.59%로 조사되었다(조명희, 2007).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영역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설 관리, 환경 개선 등에 해당하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여성 참가자가 대다수이고, 75세 이상이며, 학력 수준이 낮고, 직업경험이 없으며, 경제 상태는 나쁘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공동 작업장이나 사업단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 참가 노인들도 여성이 많고, 저학력이 주를 이루며, 경제 상태는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공익형 일자리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시장형 일자리 사업 참가자는 연령대가 젊은 노인이 주를 이

루었고(65~74세), 과거 직업은 농업, 단순노무직이 다수였으며, 참여 동기는 일상생활을 잘하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았다(조명희, 2008).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일자리의 형태에 따라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3. 수급 여성 노인의 일 경험

김동배와 박은영(2007)은 여성 노인의 생산적 활동을 연구하며 일반 노인, 비수급 빈곤 노인, 수급 빈곤 노인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노인과 비수급 빈곤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각각 13.1%, 13.8%로 나타났고, 수급 노인은 3.5% 만이 경제활동을 하였다. 또한 이 세 집단 모두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크다고 하였는데, 수급노인 중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특히 증가한다고 하였다. 수급을 받는 여성 노인들의 근로 활동이 드문 일임은 또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전북지역의 수급 노인 중 1인 여성 가구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연구한 논문에서 보면, 전체 응답자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5.0%였다(조경옥, 2002)

박명선(2002)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북 지역 여성 노인의 일 경험을 연구하였는데, 도시 거주 취업여성노인과 비취업여성노인, 농촌 거주 취업 여성노인과 비취업 여성노인을 같은 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도시지역 응답자의 16.9%가, 농촌지역 응답자의 12.5%가 각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미취업 노인여성이 일을 하지 않은 까닭을 살펴보면,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71.3%를 차지했고, ‘일자리가 없어서’는 11.3%를 차지했으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는 1.3%에 불과했다.

4. 빈곤 노인의 빈곤 탈출

노인의 빈곤 탈피 기재에 관한 연구로는 빈곤탈출률과 재진입확률을 살펴본 구인회의 논문이 있다. 이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가구의 가구원은 더 젊은 연령대의 가구주를 가진 가구의 구성원보다 빈곤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는 빈곤에서 탈출했다 하더라도 빈곤재진입 확률이 높았다(구인회, 2005). 즉, 노인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빈곤 탈출도 어렵고, 빈곤 재진입이 많은 대표적인 장기빈곤층이라 할 수 있다(구인회, 2005). 배성우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빈곤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점이 지난 후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났는지 알아보았다. 한국 노동패널 조사에 포함된 60세 이상 빈곤 노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빈곤을 벗어난 노인가구의 근로소득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노인가구의 근로소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 노동관련 변수, 소득유형 변수 중에 빈곤 탈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총 부동산 소득과 근로소득 증감으로 나타났다. 노인 대상 근로 연계 프로그램인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빈곤률을 분석한 결과, 사업참여자의 가구 빈곤률은 사업참여전과 비교했을 때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5. 수급 노인의 수급 탈출

앞서 언급한대로 노인들은 탈수급 하기 어려운 장기수급자이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수급 탈출 요인을 분석한 이원진의 연구에서는 청년, 중장년, 노인의 연령 집단 중 노인의 수급 탈출 확률이 가장 낮았다고 하였다(이원진, 2009). 또한 여성 노인의 수급 탈출률은 전체 노인과 비교했을 때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신욱 외, 2006). 이처럼 수급중인 노인이 빈곤에서 벗어나면서 수급을 중단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였다. 한편 빈곤지속가구의 노인 중 14.9%는 취업중임에도 빈곤한 상태로 이들의 임금 노동에 의한 소득 증대는 빈곤완화의 효과는 있으나, 빈곤탈출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였다(배성우·손지아·박순미, 2008).

6. 일의 정의

그렇다면 빈곤한 노인 여성들의 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문헌에 의하면 일자리의 조건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금전적인 보상이 제공되는지의 여부이고 둘째는 일상 활동의 주요 영역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지이다(고재욱, 2007; 고재욱·이동열, 2011). 일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생산활동(productive activities)이 있다. 노인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협의의 생산활동과 광의의 생산활동이 있는데, 협의의 생산활동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지칭하며, 광의의 생산활동은 노동시장 참여뿐만이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원봉사활동까지 포함한다(정경희·윤지은, 2010).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두 집단의 차는 12.7%), 가사노동

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두 집단의 차는 26%). 일부 학자들은 여성 노인이 위와 같은 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한다 하여도 이들의 행위는 노동시장에서의 교환가치가 없기에 노동으로 여지지 않는다고 하였다(안진, 2003).

빈곤 노인에게 일은 근로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따라오는 것 이상의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빈곤 여성 노인들의 일 경험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일과 여가는 불분명한 경계를 띄고 있다. 일이 곧 여가, 삶의 낙, 하루 활동의 핵심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 욕구는 금전적인 보상이 극히 적더라도 일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달리 외출할 데가 없는 이들에게는 일터에서 제공해주는 식사도 특별한 의미로 부각되었다(안진, 2003). 본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여성 노인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부정기적으로 근로하더라도 경제적인 보상이 따라오는 업무를 일로 보았다.

이상 문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 여성노인의 일 경험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고, 일을 어떻게 정의하는 지에 따라 연구 결과는 더욱 적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여성 노인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빈곤여부를 정하였고, 금전적인 보상이 따라오는 근로행위를 일로 정의하여 관련 경험을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분석하였다.

제3절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1. 분석방법

본 연구는 빈곤한 여성노인들의 일 경험과 이들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어떠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주제 분석은 질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내에 포함되어있는 개념을 찾아내고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한 후 연구의 중심 주제를 도출하는 분석방식이다. 질적 자료의 주제분석은 연구결과를 정책적 측면에 적용할 수 있고, 광범위한 자료를 통해 심층적 기술과 설명을 제공해주고, 자료에서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 내에서 패턴화된 반응이나 의미를 확인하고 기술하고자 Braun과 Clarke(2006)이 제시한 6단계를 거쳐 분석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자료와 친숙해지는 단계(Familiarizing yourself with data)
- 2단계. 자료 내 관심있는 초기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단계(Generating initial codes)
- 3단계. 다양한 코드에서 잠재적 주제로 분류(Searching for themes)
- 4단계. 예비 주제들의 정련 단계(Reviewing themes)
- 5단계. 주제 정의 및 도식화 완성(Defining and naming themes)
- 6단계. 최종 분석에 따라 보고서 작성(Producing report)

1단계에서는 두명의 연구자가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으며 데이터와 친숙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이 때 연구자들은 읽으면서 의미 있는 부분을

활성화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자료와 친숙(familiarising oneself with data)해지려고 노력하였다. 2단계에서는 응답자들의 원자료를 중심으로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다(generating initial codes). 두 명의 연구자는 각각 독립적으로 코드를 부여한 뒤, 총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자료의 의미가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는지 합의를 거쳤다. 2단계까지는 연구자들이 출력물로 된 녹취록을 사용하였고 이후에 합의 된 내용은 질적 자료 분석에 유용한 소프트웨어인 Nvivo10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구조화 하였다. Nvivo10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면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개별 녹취록뿐만 아니라 전체 응답자 녹취록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류·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여러 겹의 코드 생성이 가능하므로 상위 범주 내에 하위 범주를 나누어 분석 과정 또한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서 사용된 코드는 총 86개였다. 3단계에서는 추출된 코드 자료에서 의미 있는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을 수행하였다(searching for themes). 즉 코드 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파악하고, 서로 합쳐서 한 개의 카테고리로 만들 코드가 있는지, 특정 코드가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료와 코드, 잠정적인 주제를 오고가는 반복 과정을 거쳤다. 이 때 전체 86개 중 자료 내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코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건강 때문에 근로 어려움’, ‘과거의 일경험’, ‘기초생활 수급’, ‘저급노동’, ‘정부프로그램 불참’, ‘현물지원’, ‘가족관계’ 등이었다. 제 4단계에서는 주제가 제대로 추출되었는지 확인(reviewing themes)하기 위해 연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수정 과정을 진행하였고 예비 주제들을 정리하는 단계로 삼았다. 이때에 주요하게 검토된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① 과거에 어떤 일을 하였으며 어떤 경로로 빈곤에 진입하였는지(혹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② 근로를 희망하는 현상과 희망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나이, 건강, 능력 부족) ③ 현재하고 있는 일의 특성(‘부업’, ‘부정

기적 근로’, ‘저급노동’, ‘일이라고 생각 안함’) ④ 희망하는 일

5단계에서는 각 주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주제와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주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명명(defining and naming themes)하였다. 이 때 주제명을 적절하게 기술하여 설명하고 있는지,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응답자 한명당 1~2장 분량의 분석 결과 요약본을 작성하였고, 분석결과가 참여자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읽어봄으로써 최종 모델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한 최종 모델은 빈곤한 여성 노인의 일 경험을 과거-현재-미래로 나누어 보며, 과거에 하였던 일들이 현재의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현재에 일을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여러 기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룹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응답자들의 시각을 대변하여 ‘희망하는 일’에 대한 영역을 포함하였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분석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작성(producting the report)하였는데, 연구자는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주제와 하위주제별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2. 연구대상

가. 자료수집절차

자료 수집은 인터뷰어가 연구참가자를 1~2회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어들은 질적면접 훈련을 받은 대학원생들로, 심층면접 참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지정된 조사 기간 동안 면접을 수행하였다. 앞에서 거론된 것처럼 연구 설계의 특성상 이들은 한국복지패널의 일부이다. 연구진은 여러 해 동안 한국복지패널

지역담당자들로 활동하고 있는 지도원들과 본 연구에 선정된 예비참여자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지도원들이 예비참여자들에게 심층면접 참가의사를 물어보도록 의뢰하였다. 이 때 구두로 동의를 한 심층면접 참여자들에 한해서 인터뷰 일정을 계획하였다.

총 11가구의 노인 가구주를 중심으로 1회 또는 2회의 면접을 실시하여 총 20번의 면접이 진행되었다. 면접 시간은 매번 달랐으나 30분에서 210분 사이로, 평균 약 102분이 소요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심층 면접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들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조사 질문사항을 담은 약식 가이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가이드를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조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시작 전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고, 면접 내용은 디지털 보이스 레코더에 전자음성파일로 저장되었다. 각 사례의 2회 방문 면접이 끝난 후에는 녹음 내용을 녹취하고, 사례별 요약본을 만들었다. 아래의 표는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쓰인 자료는 녹취록과 케이스 요약본, 샘플 선정 시 구축한 인구학적 변수들이다.

나.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노인빈곤가구 케이스들의 인구학적 배경에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된다. 먼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연구대상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진은 ‘빈곤’과 ‘노인’이라는 카테고리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례연구를 위해 2011년 질적패널 100가구 가운데 ‘65세 이상’과 ‘기초보장수급’이라는 조건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추출된 열 한 가구가 모두 여성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은 ‘빈곤노인’에서 ‘빈곤여성노인’으로 조정되었다.

두 번째로 특기할 만한 점은 연구대상자의 가구형태이다. 11가구 가운데 8가구가 1인가구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가구는 2인가구, 한 가구는 3인가구이다. 당해 가구에서 경제권자는 1인가구의 경우 당연히 연구참여자들이 되는데 2인가구와 3인가구의 경우에도 모두 조손가구 내지는 배우자의 거동이 불편한 가구이기 때문에 경제권은 모두 연구참여자인 빈곤여성노인에게 있다.

11명의 연구참여자 가운데 9명의 참여자가 배우자와의 이별을 경험하였고 1명의 참여는 현재 부부관계를 유지, 다른 한 명의 참여자는 미혼으로 결혼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다. 결혼생활을 경험하고, 경험했던 10명의 연구참여자들의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여기며 일부는 가정 폭력에 노출되는 등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그와 같은 결혼생활에는 열악한 경제형편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하였다.

열 한 가구의 빈곤진입과정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온 경제적 어려움이 악화된 경우와 가족의 병환, 사업실패 등과 같은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빈곤진입, 악화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모든 가구가 한번 빈곤에 진입한 이후로는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이 기초보장수급을 받는 과정은 주로 빈곤의 상태를 아는 지인이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급을 받기까지 이미 빈곤이 상당기간 심화되었기 때문에 신청 직후 바로 수급이 결정되었고, 열 한 가구 가운데 두 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수입으로 수급이 끊긴 상태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도시로, 취미나 모임같은 사회생활보다는 홀로 지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이 특징이다. 노인정이나 경로당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로 노인들의 커뮤니티에서 배타성을 느꼈다는 의견과 커뮤니티 자체에 대한 부정적평가—모여서 욕하고 싸우기만 한다는—를 말하였다.

〈표 12-1〉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 및 기초보장 수급 특성

ID	연령	가구형태	기초보장수급의특성
009	70	1인 가구	남편의 병환으로 수급받기 시작함.
011	72	1인 가구	3~4년 간 수급을 받다가 호적상 아들이 있음을 이유로 한 달 전 수급이 끊김. 아들과는 연락하지 않음
018	76	1인 가구	결혼한 딸과 함께 살다가 딸이 분가하면서 수급자 지정
022	79	1인 가구	10여년 전부터 수급을 받았음
041	70	2인 가구 (조손가정)	아들이 죽고나서부터 수급받기 시작함
047	71	3인 가구 (조손가정)	90년대 사업실패, 남편병환 등으로 빈곤진입, 이장에게 도움요청하면서 수급자 지정됨
049	83	1인 가구	동사무소에서 먼저 찾아와 수급자 지정해줌
055	65	1인 가구	수급자가 된 지인의 소개로 수급신청
056	73	1인 가구	4~5년간 수급을 받다가 2개월 전 자녀의 소득을 이유로 수급탈락
062	75	2인 가구 (부부)	이장이 수급자 신청을 해줌. 아들이 장애인 아버지의 주소지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 남편의 수급비는 끊김.
099	70	1인 가구	20여년전 동네에서 반장이 신청해줌. 이사하면서 끊겼다가 다시 신청.

제4 절 연구결과

1. 과거 일경험

빈곤한 사람의 과거 일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빈곤 상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이에 연구자들은 심층면접 참여자의 현재의 일경험을 탐색하면서 이들의 취업력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열한명의 응답자들은 모두 과거에 일한 적이 있었다. 이들의 경력은 결혼 전까지만 소득 활동을 한 경우,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줄곧 농업에 종사한 경우, 또는 가족들과 같이 사업을 한 경우 등 다양한 근로 형태와 기간

을 보였다. 이들이 종사한 직종은 주로 비숙련 단순노무직으로 응답자들은 ‘안 해 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며, 저급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직업 중에서 반복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 이들이 과거에 가졌던 일 경험은 식당일, 청소, 가사도우미, 아기 돌보기 등 여성 근로자가 주로 할 만한 형태를 가졌으며, 가내수공업형 부업 등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 경험도 다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는 건설 노동을 하기도 하고,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자영업 경험이 있는 이들은 소규모로 음식을 팔거나 노점상을 한 경우였다. 몇몇 응답자는 공장에 취업하여 봉급생활자로 지내기도 하였고, 자녀와 시계 공장을 운영하거나, 특수작물 재배 하기와 같이 초기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표 12-2>에 나타난 응답자의 과거 일 경험은 응답자별로 구분되어있지 않고 모든 응답자들의 취업력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경험한 일은 응답자의 적성과 기술정도를 고려한 직업이 아니고 단순노동인 경우가 많아, 한 응답자에게만 배타적으로 해당되는 경험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표 12-2>의 오른쪽에 위치한 예시는 응답자들의 용어로 과거 일 경험을 나타냈고, 연구자들은 이를 재분류하여 왼쪽의 직업군으로 모았다.

〈표 12-2〉 응답자의 과거 일 경험

직업 종류	예시
식당일	대학교 급식실에서 밥 짓는 일, 식당 설거지, 식당에서 음식하는 일
청소	호텔 청소, 병원 청소, 읍사무소 청소, 아파트 청소, 여관 이불 빨래 빨기
가사도우미/아이돌봄	식모살이, 아이 보는 일
부업	양말짜 맞추는 일, 은행 까기, 밥 까기, 쥐포 엮는 것, 전자제품부업, 관근 꼬는 일, 편물
건설노동	시멘트 지고 나르는 일, 페인트 일
자영업	식당운영, 옷 장사, 분식집 장사, 구멍가게, 노점상, 시계외형 만드는 공장 운영
농사	농업, 비닐하우스에서 특수작물 재배
고용 지원 프로그램	산에서 종이 쪼는 새마을일,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회사 근무	직물회사, 고무 공장, 종이 공장, 보험회사

2. 현재 일경험

가. 일하고 싶음

[그림 12-1]에서 보는 것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집단 A와 B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로 나뉘는데, 연구에 참가한 노인들은 대부분 형편이 닿는다면 현재에도 일을 하고 싶어했다. 먼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인 집단 A는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항목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장례비, 이사비용, 경조사비, 부채상환 등). 이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주거비, 전기료, 난방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액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돈이 들어갈 때를 준비하려고 수입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돈이 부족하여 일을 함

많이 부족하지.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왔던 사람들 집에 먼일 있으면 나도 가져야 하잖아. 받았으니까. 그런 거 갚을 것도 모자라...우리 할아버지 갔을 때 와서 돈 낸 사람들. 그 사람들 돈이 많아서 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도 가야지. ...2천원 3천원 받으면 뭐 하나씩 사다주고. (가구ID009, 70세)

살다보니까 빚을 좀 저가지고 ... 보증금도 남의 돈이거든. 그래가지고 (집 계약)을 남 앞으로 한 거야 이제...내가 빚을 지다보니까...뭐래도 저기 (일을) 해야 갚는 거지. (패널참여가구 011, 72세)

내가 죽으면 어쩔고... 하루에도 서너 번 씩 그런 생각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딸이 혼잔데 날 어떻게 치우겠나. 이런 걱정을 해요. 내가 전번 같은 일이라도 해서 모아놓으면 좋겠는데...(패널참여가구 049, 83세)

다음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의 모듬인 집단 B를 살펴보기로 한다. 집단 B의 구성원들은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 여러 가지를 언급하였는데, 부족한 필수재를 구입을 위해서(안경, 신발, 옷, 미용실 이용), 다른 지역에 있는 자녀 방문시 필요한 여비 마련을 위해서, 출지 않을 정도로 난방을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일을 해서 돈을 벌면 현재 미뤄두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는데,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일 하는 것 자체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이 거론한 근로의 순기능으로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형성,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던 생활패턴에서 벗어나 외출할 기회가 생김,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어 기분전환이 됨이 있었다. 집단 A에서 일의 기능으로 소득 증가라는 금전적인 효과를 언급했다면,

집단 B에속한 이들은 비금전적인 면에서 근로의 순기능을 소개하였다.

근로의 순기능(비금전적)

(일자리에 참여하면 어떻 거 같으세요?) 더 활발하겠지. ...생활이 좀 활발하겠지, 집에 있는 것보다. 그렇잖아, 혼자 맨날 집에 있는 것보다 여럿이 상대하면 좀 대화도 있겠고 활발하겠지 (패널참여가구 018, 76세)

그런 거 (노인일자리 사업) 하면 잡념도 없어지고, 일한다는 재미도 있고 사람이 낙이 있잖습니까?...내가 일하러 간다 이런 이런 거 있으면 낙이 있으니까는 뭐 저기 더 안즐겁겠습니까? 일하러 간다 그런 마음이 있고 뭐 사람이 자고나면 내 할 일이 있듯이 (패널참여가구 055, 65세).

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수의 노인들이 일을 하길 원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함에도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에 그쳤다. 연구자들은 이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고령, 건강악화, 직업능력 부재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응답자들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일감을 주려는 사람이 없고, 일자리에 지원할 때에도 나이 제한이 명시되어 있어 지원조차 할 수 없으므로 일할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응답자들은 젊은 구직자들도 많은데 그들과 경쟁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이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 고된 일을 반복적으로 하였기에 체력이 많이 상했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예전만큼 힘을 쓸 수 없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일부 응답자들은 건강악화와 고령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젊을 때는 건강했으나 ‘살고 난 후로 아프게 되었다’

며,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좋지 않으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였다.

셋째, 응답자들은 일꾼으로써 갖추어야 할 직업적 역량이 본인들에게 없음을 이야기하였다. 학력이 낮고, 경쟁력 있는 직업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고용주들이 찾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원하는 종류의 일이 있어도 어디에서 해당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찾아볼 정보력이 없거나, 일터로 출퇴근할 기동력이 없어서, 자신감의 부재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음

80이나 돼서라 아무도 안 받아줘요 (중략) 아이고 할머니 연세 너무 많아 보인다. 에이그 이렇다. (일자리를 달라고 누구한테 여쭙보신 거예요?) 아가 방 저런 데 가가지고... 아이고, 안 됩니다. 애들 여 나이 많은 사람 안 써, 안 할라요. 이러데. (패널참여가구 022, 79세)

나이가 먹었다고 이제 일을 안 시켜주는거야...한 60대 까지도 했거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나이가 많다고 그만두게 된 거지. (패널참여가구 018, 76세)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음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그전에는 일자리 준다면 했지. 지금은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 안 아픈데도 아프고 노인네들은 다 몸이 다 그렇잖아, 옛날에 다 너무 천하게 해가지고 부서진 것도 있고 뭐, 어그러진 것도 있고 다 그런데, 그래서 일을 못하니까 (패널참여가구 018, 76세)

네, 이 다리만 두 다리만 안 아프면은 괜찮겠는데. (중략) 이제 이장님이 방송을 하는데 읍에 가서 신청을 하면은 길거리 종이 줍던지 이런 걸 한다고 그래. 근데 나는 그렇게 못 떠라다니니까 신청 안했어. (패널참여가구 047, 71세)

일자리 있으면 하고 싶지요. 내가 다리 아프고 그런 건 그냥 하면 되는데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차서. 내가 일하는 데 가서 식당 이런데서 그런 꼴을 식당 주인이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패널참여가구 055, 65세)

직업 능력의 부재

다른 일은 내가 할 능력, 뭐 재주도 없는데. 뭐를 하면 되겠습니까요 (중략) 자신이 없지 싶어... 재미있다, 가자, 이러데요. 그래서 나 능력이 없어서 못가 (이랬어)... 너희들은 똑똑하다...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고. 한다하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중략) 내가 용맹이, 쉽게 말하면 용맹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 말이지. (패널참여가구 022, 79세)

(기회가 된다면 공공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그렇지요. 그런 걸 해야지 돈이 나오는데... 여 교통이 나빠 가지고 잘 안된다니까. 걸어 나가겠어요. 뭐 어찌겠어요? (패널참여가구 062, 75세)

다. 일을 하는 노인들 (집단 A)

앞서 언급한대로 연구 결과에서 참여자들의 일하고 싶은 마음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주제들이 발견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상황이 모든 응답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제약 조건임에도 일부는 일을 하고 있고, 일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집단 A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을 분석하였다.

총 11명의 심층면접 참가자중 네 명은 심층면접 진행 당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폐지를 모아서 파는 일, 고물 수집, 음식 도우미, 꽃감 다는 일이었다. 네 명의 여성 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모두 비정기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이들은 일감이 있을 때에만 근로를 하였다. 즉 도와달라는 청이 있을 때에만 일에 참여하거나, 재활용품이

모아질 수 있는 기한을 두고 수집에 나서는 형태를 보였다. 폐품 및 고물을 파는 응답자들은 경험에 의해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였고, 일정한 물량이 모아지면 현금화하였다.

[그림 12-1]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의 일 경험에는 두 가지 기제가 작용하였다. 먼저 단계 ㉠ ‘기준낮춤’을 살펴본다. 이들은 원하는 일이 있어도 자신들의 신체적, 직업적 역량이 그에 미치지 않아 할 수 없고, 다른 젊은 일꾼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되었다.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인근 농가에서 꾀감달기), 고용주가 없이도 스스로 일감을 찾아 나서는 일(재활용품 수집), 수시로 일할 기회는 없어도 간간히 일거리가 생기는 일(음식 도우미) 함으로써 본인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즉 수입이 많은 일, 고정적인 일, 적성에 맞는 일과 같이 응답자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않고, 기준을 낮추어서 주위에 있는 일 또는 주어진 일을 하게 되었다.

단계 ㉡ ‘일을 인정안함’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일을 부정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현재 수입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노인들은 현재 일이 과거에 비해 매일 일하는 정기적인 근로형태가 아니어서, 아주 적은 보수를 받고 있기에 일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고용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당한 시기를 봐서 일감을 찾아나서는 업무이기에 본인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그림 1의 단계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인이 원하는 역량의 일이나 업무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적합하지 않은 일은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근로능력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수급권 유지를 위해 근로 사실을 숨기고 소득신고를 기피하는 부적절한 수급의 사례와 달리 과거와 현재에 모두 근로 경험 및 근로 의지가 있으며 보

호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빈곤한 노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풀이하였다.

현재 일하고 있으나 일을 인정 안함

예전엔 (일을)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으니까 누가 써주나요? (일 안한지) 오래됐어요 (중략)(최근에 하셨던 일은 어떤 거예요? 가장 최근에?) 밖에 있는 거 구루마 봤죠?…폐지 며칠 모아놨다가 하루 갖다 주고 지금 3일 모아놨는데 갖다줘야지. 폐지도 없어요…(일주일예) 두 번 할 때도 있고 세 번 할 때도 있고… 빨리하면 3일 잘못하면 5일 1주일 걸려서 할 때도 있고 (패널참여가구 009, 70세)

지금은 박스 있지요 고물고물. 그것도 내가 참… 갖다가 팔아요…그걸 개고 나면 픽 돌아가고 어지럽고 해요… (한달 내 주워서 팔면 얼마나 되요?) 그걸 얼마나 되겠는가요… 한 벌 셋이 빠지게 끌고 가서 한 500원… 그거 내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패널참여가구 049, 83세)

(요즘 일 다니시는 일은 있으세요?) 일은 뭐 안해요 (그래도 요새 하셨잖아요) 아, 요즘에 3일 잤어… 감, 콧감 다는데 달다가 또 이제 할 적 없을 때는 또 그 껍질 치다가… (몇 시에 나가세요? 아침에는?) 6시 50분에 출발… 그래 해가지고 이제 일 해가지고 오고 그러지 하루일과가.(패널참여가구 062, 75세)

라. 일을 하지 않는 노인들 (집단 B)

연구에 참여한 여성 노인의 다수는 현재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이들은 일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일을 하지 않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들도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단

계 ㉔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다. 즉 수급액이 있기에 일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들로, 수급액만으로 생계유지 외에 다른 것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상황으로 만족한다고 하였다. 특히 일을 하다보면 교통비가 지출되거나 몸이 축나는 등 희생해야 될 부분도 있으므로 그것보다는 수급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또한 일다운 일 또는 마음에 맞는 일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대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수급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하였다.

수급 만족

관찰자: 그냥 사는 거지 뭐. 뭐 판사람은 적게 주니 많이 주니 어쨌고 해쥔데 정부가 하는 일을 노인네들이 뭐 아금바금 하면 뭐해. 그냥 주는 대로만 먹고 사기 안당코 애끼만 살면 돼. 내 수준에 맞게만 살면 충분해. (패널참여가구 018, 76세)

남들이 뭐라고 하면 나는 듣기 싫다고 해. 그거 주는 것도 감지덕지하고 고맙고 그러니까 그거 따지고 싶은 마음 없어 진짜 고마워서. 진짜 안그래? 사람 남한테 가서 돈 이만원 꺾봐. 누가 꺾주냐. 국가에서 그거 하나 참 잘 하는 거야. 안그럼 늙은이들 자살 참 많을텐데. (패널참여가구 041, 72세)

단계 ㉕에서는 수급이 탈락되지 않은 다면 일을 할 의사가 있어도 소득 증가로 인해 수급이 탈락되면 더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들은 일을 해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수급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근로 활동을 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이 중단된다면, 당장은 근로 활동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더라도 일감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더욱 불안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급의 혜택으로 의료비 부담이 없음을 언급하며, 수급에서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병원비로 더 많은 지출이 생겨 생활이 어렵다고 하였다. 응답자들은 주변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이들을 접하면서 수급과 공공근로의 장단점을 간접적으로 비교·체험하였다. 즉 수급자로 하는 것보다 공공근로를 하는 것이 수입은 더 많으나, 공공근로를 하면 의료혜택이 없으니까, 의료비 지출을 예상하면 공공근로보다는 수급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공공근로는 연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근로로는 일 년을 살 수 없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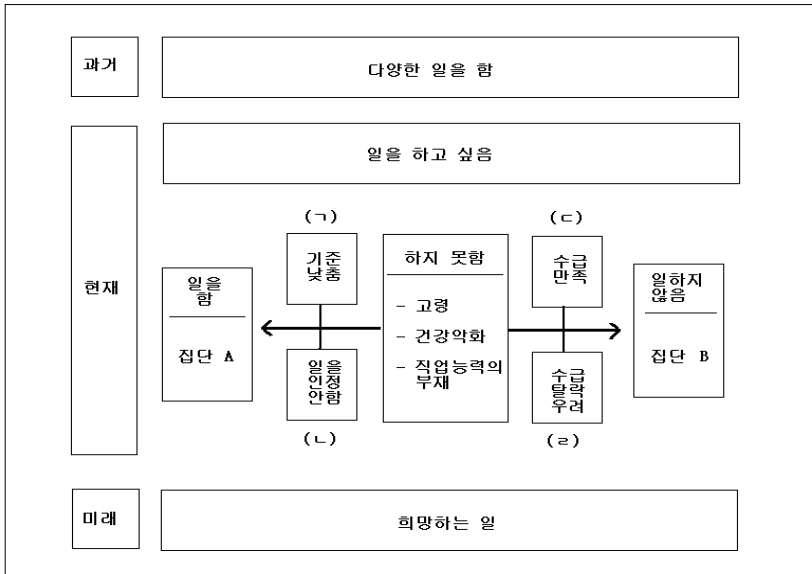
수급 탈락을 우려함

근데 그런 거 하면 정부에서 주는 거도 조금 준다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의심이야. 지금 이제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그거(공공근로 등을 통한 소득)받는 다고 그것(수급액)도 또 조금 쥐 박, 뭘 낙으로 삼아 살아? (패널참여가구 018, 76세)

종이 줘는 거 그거 영세민 안 떨어지고 그거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지. 근데 그런 거는 안준다하데... 그래도 나는 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니까는 일자리는 주는 데 그러면 영세민은 떨어집니다 그러더라고”(패널참여가구 055, 65세)

공공근로라니까 이 사람이 이제(수급이) 읍에 잘렸어. 잘리니까 그걸 가지고 벌어먹고 살아라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 달에 자기는 매 병원에 가야되니까 하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거야... 아 내가 공공근로가 안되는구나. 이걸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공근로에 빠지고) 다시 (수급)재신청을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돈을 좀 더 벌고 생활에 보태고 싶어도 못 하는 기라. (패널참여가구 047, 71세)

[그림 12-1] 빈곤한 노인의 일 경험



3. 미래의 일: 만족스러운 일을 위한 요건

위에서 본 것처럼 기초보장수급을 받는 빈곤노인들은 일반적으로 기초보장수급 외에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 또한 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노인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근로장벽에 의해 현실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근로장벽에도 불구하고 현실화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하는 빈곤노인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현저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빈곤노인들이 만족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빈곤노인들이 느끼는 근로장벽 요소들을 제거하여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논의 하였던 것처럼 빈곤노인의 ‘일’을 어렵게 하는 장벽으로 는 나이, 건강, 직업적 역량, 탈수급에 대한 우려 등이 있고, 현재의 일을 불만족스럽게 하는 요인으로는 저급노동의 일감이라는 점, 스스로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일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근로장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일의 요건을 희망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근로장벽을 한 축으로 하여 원하는 일의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3〉 빈곤노인의 희망하는 근로조건

근로장벽	희망하는 근로조건
고령	일자리의 나이상한선을 높이고, 노인들만을 위한 일자리를 원함.
건강상 한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원함.
직업적 역량의 한계	현재의 노동능력으로 가능한 일을 하고자 함.
저급노동에 한정된 일자리	무의미한 일보다는 보다 유의미한 일을 원함.
탈수급의 우려	수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함.

가. 고령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고자 하는 빈곤노인들의 구직경험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건강이나 직업적 역량과 같은 내적요인만큼이나 나이, 저급노동에 한정된 일자리, 탈수급의 우려와 같은 외적요인이 그들의 구직을 좌절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²¹⁾. 빈곤노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오로지 나이 때문에 하고 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추천받았던 일을 못하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빈곤노인들은 자신들보다 젊은 사람들과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부담감을 느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공공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일이라도 시켜야 되는데 안 나가도 되는 사람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안 나가도 되는 사람들이면?) 돈있지, 능력있지. 젊은 사람이 식당에 가서 일을 해도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어려운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야. (패널참여자구 011, 72세)

나. 건강상의 한계

연구참여자들은 고령이라는 나이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가 가진 한계(내적요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하는 경향은 보였다. 특히 건강상의 한계는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근로장벽으로 여기고 있는 요소이다. 그들이 말하는 건강은 주로 신체적 건강이며, 앞에서 제시하였던 바와 같이 과거의 고된 일로 몸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 일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무엇보다 접근성을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일의 종류에 대해서도 활동량이 많은 일보다는 앉아서 하거나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일을 선호하였다.

-
- 21) 근로장벽을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나누는 기준은 각각의 요소들이 변동되는 요인이 개인에게 내적으로 존재하는지 혹은 외적으로 존재하는지로 하였다. 따라서 건강과 직업적 역량의 경우에는 이를 발전시키거나 후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개인에게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적요인으로, 나이, 탈수급의 우려, 저급노동에 한정된 일자리의 경우 외부에 이미 정해진 기준으로 개인이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외적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기회가 된다면 공공근로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어요?) 나 걸음 못 걷는데 몸이 지금 이래갖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생각 안해봤지. 이제 나는 아무 것도 못하니까. 애들 기저귀라도 개고 그치? 지금 하면은 개고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거도 개고 하면 좋겠다 싶어갖고(패널참여가구 056, 73세)

다. 직업적 역량의 한계

직업적 역량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폭넓은 직업교육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과거에 했던 일을 기준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로 새로운 직업교육을 통해 직업적 역량을 키워 일을 하려는 것보다는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하며, 따라서 복지관 급식일이나 육아도우미와 같은 일을 희망하였다.

공장에서 안 받아주고 그래서 아끼 봤지. 그래서 아끼 보는데 재미 붙여서 ○○와서도 누가 아끼 좀 봐줬음 좋겠다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게요, 띄우진 않았어. 그. 마음으로 내가 볼까.. 생각이 들더라고 (패널참여가구 049, 83세)

라. 저급노동에 한정된 일자리

특기할만한 것은 다수가 저학력으로 과거의 일경험이 1차원적인 단순노동인 경우가 많았음에도 미래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희망하였다는 점이다. 일을 하지 않는 빈곤노인들은 일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사회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현재의 의미없는 일(폐지줍기)에서 탈피하여 보람된 일을 하고자 한다.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공공근로 그런 거 내가 글도 모르니까 딴 건 못하고 청소하는 거 (어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세요?)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뭐 마음에 들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밖에서 쓰레기 줍는 거 마음에 들어요?) 그런 거밖에 할 수 없다면 그런 거라도 했음 좋겠지. 나는 뭐 복지관에 설거지 하고 그런 거 하고 싶더라고 노인네들 밥상치려주고 돈이 별로 안 되더라도 그런 데 가서 그런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패널참여가구 055, 65세)

마. 탈수급의 우려

연구참여자들이 기초보장수급자로서 느끼는 가장 큰 근로장벽은 탈수급에 대한 우려이다. 특히 이 근로장벽의 경우에는 위 네 가지의 요소들과는 달리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가장 크면서도 견고한 근로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들은 크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수급액을 채우기 위해, 사회활동을 위해 일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만을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수급과 동시에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건강이 좋아지면 일하고 싶으세요?) 일을 못한다니까. 건강이 좋아져도 안해 내가 수급자는 일을 안 시켜. 그런 거는 묻지도 말아.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같은 걸 하고 싶으셨잖아요.) 그래 안되는데 그걸 해봐. 해줘봐. 내가 가볼게.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셨어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있길래 물어봤더니 수급자는 못한다고 그래서. (패널참여가구 041, 70세)

이에 따라 다른 세 개의 근로장벽, ‘건강상의 한계’, ‘직업적 역량의 한계’, ‘저급노동에 한정된 일자리’를 극복하는 것은 체제상의 변화를 통해 고령 수급자들의 근로가 가능해진 이후에야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이다. 일단 빈곤노인이 근로가능한 환경을 보장받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일의 질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희망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연계해 줌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근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소결

본 연구에서는 빈곤한 노인들의 일 경험을 통하여 이들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와 희망하는 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들은 과거에 다양한 일을 끊임없이 했고 기초보장수급을 받는 지금도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일’은 엄격한 근로 형태를 지닌 직장에서의 일이 아니라 소일거리와 같이 늘 있는 생활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이 희망하는 일은, 매일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일하며, 두둑한 급여를 받는 풀타임 일자리가 아니라 ‘일감’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을 통한 소득증가는 응답자들의 수급신분을 변화시킬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즉 이들은 일을 통해 수급탈출을 희망한다기 보다는 빈곤한 상황을 다소 완화시키고, 앞으로 생길 목돈 지출에 대비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나아가 일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활력을 느끼게 되므로 비금전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렇듯 빈곤한 노인들이 일을 원하고 있음에도 일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고령, 건강악화, 직업능력의 부재라는 요인이 작용하는데, 여기에서 이들은 ‘그럼에도’ 일을 하는 집단과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뉜다. 일을 하는 집단은 빈곤 노인으로서 조건은 어렵지만 자신의 기준을 낮춰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등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수급을 아껴 생활하면서 수급의 탈락을 우려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집단 또한 모자란 수급액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결국 이들 집단 모두 만족시킬만한 일은 고령과 건강상 한계, 직업적 역량의 한계, 저급노동에 한정된 일자리, 탈수급의 우려와 같은 근로장벽을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근로요건을 개선하고 가능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 개방하여 이들의 근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은 희망하는 일자리를 표현하면서 봉사활동과 같이 특정한 일은 ‘노인들이 더 잘할 수도 있다고’ 하였고, ‘하라하는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수급자 위치에서는 본인이 일감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가벼운 일은 시키면 하겠는데’ 그런 일감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제일 희망하는 정책은 ‘일자리’라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원고는 빈곤한 노인들의 일자리 찾기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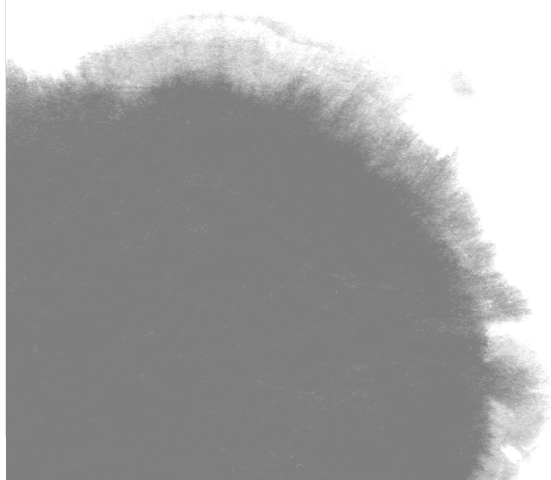
첫째, 여성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보다 원활한 일자리 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로 빈곤한 여성 노인들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주어진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냈다. 노인들이 어디에서 일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우선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떠오르는데, 이러한 사업 중에는 공동작업장의 장소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빈곤한 노인들은 경제적 빈곤 및 자녀와의 관계 단절과 같은 심리적 위축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안진, 2003). 본 연구 참여자들도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비교적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고, 지리적 접근이 가능한 노인 일자

리에서도 배제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던 지역에서 이사 가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지역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웃이나 종교 공동체등 노인들이 현재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집단에 일감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 하다.

둘째, 유연한 수급 지원 금액 산정 방식을 도입해 소득 증가는 수급 삭감으로 연결된다는 수급자의 염려증을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공적 지원금이 투입될 수도 있는 빈곤 노인의 욕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가한 여성 노인들 중에는 일을 하고 싶지만 수급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해 일을 하지 않는 부류가 나타났는데, 이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고, 일정 수준의 수입까지는 수급액 차감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자생적으로 벌어들이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자립 및 탈빈곤에는 부족한 금액이고, 꼭 필요한 때에 보완적으로 쓰고자 하는 용도를 가진다. 이들 스스로에게 필수적인 금액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 미래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긴급구호의 형식을 가지고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일부 충당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동시에 일을 하는 노인들 스스로 돈을 벌고 필수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목돈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만족감과 안도감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4부

양적·질적패널 활용방안



제13장 양적·질적패널 활용방안

제1 절 질적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와 연계된 질적패널 자료 구축의 첫 단계로서, 기존 패널 조사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양적 패널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주제 영역과 이슈들을 선별하여 질적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저소득층 삶의 복합적 현실을 심층적 차원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활용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연구자, 복지현장 전문가, 관련 학문 전공 학생들에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은 이번에 구축된 질적 패널 자료와 관련된 아래 특성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질적 연구의 분석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첫째, 본 자료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일과 빈곤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직장 및 구직과정, 고용지원프로그램 참여, 실직, 수급 등의 삶의 사건들에 관한 구체적 상황과 현실들에 대한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들의 경제적인 현실을 통합적 관점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본 자료는 삶의 가장 기초 사회화 영역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배우자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차원에서)의 상호작용

적 특성들을 당사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하여 살펴봄으로써 빈곤이 가족 관계의 역동과 경험의 주관적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본 자료는 저소득층 가족 구성원(특히, 어르신)이 경험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장애, 알콜중독, 가정폭력 이슈들에 대한 현실적 맥락과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어, 빈곤과 동반되어 당사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삶의 사건들의 복합적 현실에 대한 탐색적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문의 주제영역을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구주 및 그의 배우자, 자녀(아동, 청소년 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해당되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한 세대 간 관점의 차이 혹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세대간 차이 등에 대해 탐색할 수 있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 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구원이 거주하면서 겪게 되는 삶의 이야기들을 각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게 됨으로써, 빈곤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와 관점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도된 최초의 전국 단위 빈곤관련 질적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다양한 삶의 영역과 주제에 관한 현실들을 종단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향후 생애과정 관점을 반영한 조사대상자 삶의 고유한 추이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빈곤 역동성 혹은 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 성과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구축되는 질적 패널자료들을 종단적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패널 자료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초보연구자들을 위한 학습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질적 연구는 그 특성상 본인이 연구주제

와 연구문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하는데, 질적 연구 초보자들에게는 이러한 학습의 기회를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정 연구자가 수집한 질적 자료들은 자료 개방과 보관에 대한 윤리적 이슈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없는 제약이 있으므로, 제3자가 타인의 질적 자료에 접근하여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을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구축한 질적 패널 자료는 제3자에게 개방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 보급될 수 있다면, 학교나 실천현장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학습하고자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질적 연구자료 분석의 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

제2절 양적패널 자료의 보완과 연계로서의 질적 패널자료의 활용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양적 패널자료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1차년도 및 2차년도 질적 패널조사는 양적 패널자료의 근간이 되었던 주요 질문 문항들 중 질적 연구과정으로 연계하여 보완할 수 있는 조사영역과 주제들을 선별하여 심층면접 질문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자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성격은 연구 질문의 설정이 전형적 질적 연구 설계 구도에서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질적 패널자료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양적 패널자료를 찾았던 많은 이용자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질적 패널자료의 성격과 가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질적 패널자료에는 양적 패널자료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순화, 수량화된 응답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응답자들의 답변 뒤에 숨겨진 그들 현실의 맥락과 배경을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로, 양적 패널 조사 질문지에는 다양한 차원의 만족도(서비스 만족도, 생활 만족도 등)를 묻는 문항들이 있는데, 하나의 문항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만족도를 일괄 평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응답자가 만족과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이유와 관련된 다중적 차원의 상황과 맥락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결과 해석상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 질적패널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만족도’와 관련된 질문의 응답 내용에는 응답자의 만족을 구성하는 상황적 배경과 원인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차이, 주관적 관점 등에 관한 복합적 사실들이 담겨 있다. 따라서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면 분석 결과를 기술 할 때 해석상의 민감성과 정교성을 보여줄 수 있어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과론적 관점에서 특정 변수들간의 관계나 경로를 설명하는 양적패널 자료의 통계 분석은 때로 실제 현실과 괴리된 이론과 모델을 제시하여 분석결과의 사실성과 설득력에 있어 큰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 때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 모형을 새롭게 구상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실에 근거한 사례와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즉 질적패널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기술들은 조사 주제와 관련된 실제적 현실의 맥락, 배경, 과정들을 동태적 차원으로 보여주고 있어 양적 패널 자료 분석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차원의 가설들을 실험해볼 수 있는 도전과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질적패널 자료는 질적 연구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패널 자료처럼 계량적 통계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변환시킬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질적패널 자료를 분류화·코드화 하여 수량화한다면 양적 연구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 영역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양적패널 자료 분석을 보완할 수 있다.

넷째, 한국복지패널 자료가 중요한 복지정책의 수반과 개편을 위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된다고 전제할 때, 질적 패널자료의 검토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구축을 위한 조사 설문지 문항을 새롭게 개발하고 보완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질적 패널자료에 나타난 응답자들의 실제 현실을 참고하여 이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문항들로 조사 질문지를 발전시켜 구성할 수 있을 때 저소득층의 복지적 욕구와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합한 복지정책들을 계획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절 질적 패널자료의 활용상 한계점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의한 접근을 시도하면서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방대하게 수집된 자료를 제한된 시간 내에 분석해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특히 각 가구마다 다양한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면접을 수행해야 했고, 응답자 중 노인 대상자가 많았다는 특성 때문에 심층적인 면접 수행이 매우 어려웠던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염두에 둘 것을 제안하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첫째, 본 자료의 수집과정에 있어 훈련된 조사원들을 투입, 면접을 수행하게 하였으나, 면접질문을 심도 있게 질문하고, 답을 얻는데 있어 경험이나 기술상의 미숙함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충분한 자원과 시간이 뒷받침되어주지 못한 점에서 기인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질

적연구의 특성이 잘 반영된 자료수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몇몇 문제들이 발견될 것이다.

예를 들어 더 탐색해야 할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른 주제로 넘어갔던 경우이다.

조사원: 혹시 일을 안 하는 동안 힘들었던 가장 힘들었던 기억같은 거 있나요?

응답자: 일을 안 하는 동안 최근에는 별로 없었던 거 같은데... 신랑이 교육비 안줄 때 그 때가 제일 힘들어.

조사원: 그럼 일자리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요?

일례로 위의 사례에서는 일을 안 하는 동안 힘들었던 경험을 묻는 것이었는데, 남편이 교육비를 안 줄 때가 가장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조사원이 이에 대해 ‘교육비를 안 줄 때는 주로 어떠한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라거나, ‘교육비를 안주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조금 더 탐색을 한 후 다음 질문을 진행했다면 더 의미 있는 진술이 확보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주제영역별, 대상별로 수집된 면접자료는 질적 연구에서 추구하는 현상의 본질이나 의미탐색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패널조사 대상 가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제와 영역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질문을 그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둔다면 자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질문을 상황에 맞게 수정, 변경하여 했다면 더 나은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이다.

응답자: 아홉 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조사원: 아홉 살 때 음.

응답자: 예.

조사원: 음. 그래, 아버님은?

응답자: 아버님은 스물……. 둘에 돌아가시고

조사원: 아. 그러면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셨잖아요?

응답자: 예.

조사원: 그 때,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러우셨는지?

응답자: 만족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홀애비 되가지고
또 동네 이렇게 보게 되는 양반이 되가지고 맨날 나가있고..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같이 살면서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냐고 묻기보다(이것이 본래 의도된 질문이었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땠는지, 어머니의 존재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어머니의 부재가 본인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었는지 등을 물었다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더 심도 있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주 응답자 평균연령이 60세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내용에 있어 다소 연령부합성이 낮은 경우가 있었고, 때로는 응답자의 거주 환경이나 문화와 동떨어진 질문 문항들도 있었다. 연구자들이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질문 문항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다양한 지역, 도시, 농촌을 망라하고, 학력이나 직업 등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배경이 치밀하게 고려되지 않은 채 연구참여자 선정이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정보의 소외나 격차가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면접질문의 적절성이나 부합성이 낮아 좋은 자료수집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나타났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는 조정된 예비 질문 등을 준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내용 면접을 생략하는 방식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표본 추출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을 포함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질적 패널조사에 사용된 질문문항이나 주제 영역, 그리고 각 조사내용별로 기초적으로 분석된 결과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다면 질적 연구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국복지패널 등을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관련 연구주제와 연관된 통찰과 후속 연구의 아이디어 또는 영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질적 패널 구축의 기대효과 및 연계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구축된 질적 패널자료는 향후 한국복지패널과 더불어 질적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연구 및 정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국복지패널 연계 저소득층 중심의 양적 & 질적 패널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질적 연구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질적 연구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학문적 교류와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은 통계청의 전국 가계동향조사 및 여타 국책연구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양적 패널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각종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을 확대하여 양적 연구방법론과 함께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및 혼합을 통해 다차원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패널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표본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4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 절 요약

사회정책에 관한 대부분 연구들의 분석방법은 양적분석이다. 양적분석의 중요성과 분석결과의 명료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적분석은 측정 가능한 부분을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경험과 인식이 사상되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질적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인식, 생생한 경험, 변화의 맥락 등을 담은 ‘블랙박스’ 내부를 관찰하는 데 유용하다(Padgett, 1998). 이러한 이유로 최근 질적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을 실용적인 차원에서 통합하여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이 나타나고 있다. 혼합방법론은 상대방의 발견에 대해서 인증(confirming), 반박(refuting)하는 과정을 통해 풍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Carvalho and White, 1997).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1년 한국복지패널 가구 중 빈곤층 100가구를 표본으로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즉,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일상적 생활모습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근로 및 탈수급 등 저소득층의 자활과 역동성과 관련된 수급자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 양상에 대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

적 연구방법론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위해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로 수행되었다.

동 패널자료는 자료명이 내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연계’라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량적 분석으로 생산되는 수많은 통계 수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질적패널’이라는 점은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동태분석을 질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 2차년도 보고서로서,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1차 연도 보고서가 패널구축에 대한 기초 보고서인 점을 감안하면, 금년의 경우 보다 진전된 의미를 지닌다. 첫째, 기존 1차 연구의 질적 패널 조사대상 100가구 분석 결과 부족한 표본으로 나타난 근로빈곤층 등의 20가구를 추가하여 질적패널 표본으로 구축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역동성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차 조사 자료 약 5,000쪽과 2차 조사 자료 약 1,000쪽을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1차 연구에서 시도하지 못하였던 6개 영역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절 정책건의

양적 패널분석의 경우 3개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제대로 된 패널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질적 패널분석의 경우 귀납적 분석을 하므로 양적 패널분석 더 많은 자료 축적이 되어야 가능하다. 본 연구는 작년에 시작하여 금년에 2차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한 상태이

므로 본격적인 질적 심층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 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정책건의를 도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2차 자료를 바탕으로 6개 영역에서 심층분석한 연구 결과만을 이용하여 정책 건의하고자 한다.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에 대한 연구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들의 탈빈곤 노력에 대한 경험을 개인적인 차원과 제도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의 인식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었음.

- 이들이 경험한 빈곤은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자존감의 상실에 이르는 다면적인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탈빈곤의 노력은 삶에서의 자율성의 회복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절박한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재기의 발판을 이룬 개인들은 수급은 낙후된 삶을 초래한다며, 자격증과 일자리를 통해 자활의 노력을 하고 있음.
- 개인적 차원에서 탈빈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last resort)이며, 수급권자가 되면 탈수급 유인이 현저히 줄어들게 됨.
 - 국가가 남편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자녀의 성장과 개인의 인적자본 향상에 노력하며, 탈빈곤의 희망을 갖기도 함.
 -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바뀌어가며, 수급연장과 탈수급 회피의 형태로 나타남.
 - 이러한 행동의 맥락은 수급연장과 탈수급 회피란 오히려 불안한 현실에서 탈빈곤을 위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임.
 - 희망키움통장의 사례는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면 탈수급에 대한 회피요인이 줄어들음을 보여줌.

-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 탈빈곤 제도가 현장에서 소기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곤과 탈빈곤 경험에서 나타나는 근로빈곤층의 삶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수급권이 있는 근로빈곤층의 탈수급과 탈빈곤을 위해서는 유예기간, 부분급여 도입, 지속가능한 자립기간을 갖출 수 있는 강력한 유인(incentive)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

- 연구결과는 크게 사례별 맥락과 통합된 맥락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례별 맥락은 낮은 행복수준을 보인 5사례와 높은 행복수준을 보인 5사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사례별 맥락) 사례별 맥락은 개별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경험들을 개념의 형태로 분류하고, 이들의 연결고리를 파악한 뒤 그림으로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를 행복 점수와 그 의미, 행복과 관련된 경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순으로 기술하였음.
 - (통합된 맥락) 통합된 맥락은 10가구의 사례에서 발견된 맥락 구조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통합한 것임. 행복의 맥락은 마음-인식-체험-현상으로 이어지는 동심원 구조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동심원 구조의 각 층위는 복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층위 간에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태체계적 틀을 갖고 있음.
- (소결) 저소득층의 행복은 객관적 상태보다 주관적 경험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경험 중에서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의 우세정도에 따라 행복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

임. 그러나 우리는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상태 모두에 개입해야 하며, 이러한 행복의 맥락 구조에 맞게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과 실천이 선순환 구조로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할 것임.

□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장애 경험 연구

○ 5가지 주제로 나누어 질문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장애가 삶에 미친 영향:** 장애인들은 대부분 ‘위축된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장애가 없었다면 현재보다는 삶이 나았을 것이다’, ‘공부를 더 배워 좋은 직업을 가졌을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을 것이다’,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등의 다양한 답변을 나타냄. 또한 대부분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함.
- **주변에 의미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태도:** 장애를 입은 후 주로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 뿐 아니라 친구, 친척, 직장동료 등과도 연락을 기피하게 되고,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부정적 시선이나 편견도 물론이거니와 장애인 자신의 위축감이나 의식이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었음. 반면에 장애를 입었음에도 가족 내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경우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나타났음.
- **장애인 친구나 동료, 기관과의 교류:** 장애를 입게되면 대인관계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회모임이나 종교활동, 취미모임 등을 찾아 활동하지 않는 한 대인관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나마 장애를 입은 후

직업재활이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찾게 된 복지기관을 통해 같은 상황의 장애인들을 만나면 친구가 되거나 동료가 되어 함께 취미활동을 공유하는 등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친구를 사귀는 유일한 대안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수혜 경험과 개선방안:** 본 패널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장애등급, 수급기준에 맞는 생계비 보조, 연금, 수당, 의료급여 등의 기초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가 부족하여 받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더불어 전기나 전화요금 감면, 세금혜택, 지하철 무료이용, 철도요금 할인 등의 지자체 또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감면 혜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나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이나 접근성의 장벽이 여전히 높고, 장애인에 대한 일상에서의 인식과 편견이 아직 팽배하며, 무엇보다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현재의 수급제도는 근로동기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장애유형별 특성이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행정편의 위주의 제도와 서비스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장애의 의미:** 응답자들에게 장애의 의미는 ‘장애를 입은 순간 낙락으로 떨어짐’, ‘삶의 50%는 버리게 되는 것’, ‘걸림돌’, ‘신앙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남.
- 저소득 가구 내 장애인 가구원을 돌보는 가구주들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장애를 위한 재활치료나 일반 교육에 많이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장애가구원을 돌보아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직업을 찾기가 어렵고,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사회

심리적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빈곤층 아동의 빈부 인식 비교: 연령변화를 중심으로

○ 가난한 사람, 부자: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가난한 사람을 보다 호의적 혹은 중립적으로 인식함.

— 가난한 이유, 부자인 이유: 빈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한 인식이 초등학생 시기부터 나타남.

— 계층이동 가능성과 방법: 초등학생은 ‘착하게 살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욕심이 많아도 안 되고’ 등 착한 마음을 유지하고 바르게 살면 빈곤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외부의 도움도 빈곤 해결 방법의 하나로 인식. 이에 비해 중고등학생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힘이 들고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 또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모두 빈곤 해결의 방법으로 노력, 저축, 개인의 능력 등을 중시

○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 사항

— 연령에 따른 빈부 인식의 다름이 나타남. 그러나 빈곤 대물림에 대한 인식, 빈곤 해결방법을 개인적 차원에서 주로 찾고 있는 것은 공통된 인식임. 중고등학생의 경우 빈곤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인식하지 않음.

— 빈곤의 원인 및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균형 있는 시각(개인적 차원 및 사회구조적 차원의 이해)을 갖도록 교육할 필요 있음.

□ 빈곤가구의 정신건강 인식 및 욕구에 관한 연구

○ 빈곤가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 미래 불안감, 우울, 자살충동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나타남.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경제적인 취약성은 중요한 촉발 요인으로 작용함. 하지만 정신건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빈곤가구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이 높았으며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현재에 머무르기를 고집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인간에게 내적동기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미래에 대한 목표와 긍정적 전망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함. 또한 가난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많이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무력감과 심리적 위축으로 연결됨으로써 빈곤 탈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연구결과를 통해, 빈곤가구에 대한 물질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하며 이는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제기함. 특히 빈곤가구의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와 갈등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빈곤 여성 노인의 일 경험: ‘하고 싶으나 할 수 없음’, ‘하고 있으나 하지 않음’의 의미

- 일을 하지 않는 집단은 고령 및 건강악화, 직업 능력의 부재를 이유로 일을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일부 응답자는 수급이 만족스러워서, 수급탈락을 우려하여 일을 ‘안한다’고 함.
-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은 공통적으로 근로불가 이유를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생활비 및 장래비·이사비·경조사비 마련, 부채상환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였음. 현재하는 일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일이 일답지 못하다고 여김.

-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이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연계
 - 수급자들의 저축 및 소득 증대를 권장하여 이들이 미래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지출액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참고문헌

- 강신욱(2009).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정책의 방향. 경제발전 연구, 15(2), pp.263-286.
- 강신욱·이현주외(2006).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동태 및 관련 요인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철희·김미옥(2003). 한국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55, pp.55-81.
- 고미영(2004).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1) pp.71-102.
- 고재욱·이동열(20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와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1(4), pp.1209-1228.
- 구인회(2005). 빈곤의 동태적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pp.351-374.
- 권지성(2008). 쪽방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 60(4), pp.131-156.
- 권지성(2010). 저소득층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대한 질적평가 연구.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2(3), pp.193-218.
- 금재호·김승택(2001). 빈곤의 규모와 이행과정. 연세경제연구, 8(2), pp.511-539.
- 김교성(2011). 사회정책 빈곤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정책, 18(1), pp.43-82.

- 김교성·강철희(2003).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pp.5-32.
- 김교성·노혜진(2011). 빈곤의 세대간 탈피 경험. 사회복지연구, 42(1), pp.243-278.
- 김동배·박은영(2007). 여성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일반·비수급빈곤·수급빈곤 여성노인집단간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8, pp.339-358.
- 김상규·이병하(2004).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pp.813-824.
- 김소연(2002). 청소년의 계층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영모(1989). 빈곤연구의 동향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3, pp.31-61.
- 김영순·여유진(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밀관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 pp.211-240.
- 김은하(2009). 근로빈곤층 여성의 빈곤탈출 결정 요인: 인적자본·가구특성·노동시장지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3), pp.239-268.
- 김인숙(2007). 한국사회복지 질적 연구: 동향과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59(1), pp.275-300.
- 김희성(2011). 빈곤의 대물림에 관한 빈곤가정 청소년의 인식연구: Q방법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2), pp.51-72.
- 노혜진·김교성(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pp.159-188.
- 박건표(2012). OECD 통계로 보는 여성고령자의 삶.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능후(2001.9). 공공부조급여 구조가 수급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46, pp.60-88.
- 박명선(2002). 여성노인의 일과 빈곤: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2), pp.175-204.

- 박순일(1994). 선진경제의 문턱에서 본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서울: 일신사.
- 배성우 외(2008). 빈곤노인가구의 특성과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2, pp.291-318.
- 백승진(1991). 사회계층에 대한 아동의 인지발달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미간행).
- 백학영(2010).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비특성 차이분석. 한국노년학, 30(3), pp.911-931.
- 백학영(2006). 저소득 독거노인의 빈곤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31(가을), pp.5-39.
- 백학영·고미선(2007).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진입전망에 관한 연구-여성가장의 자활사업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0, pp.83-114.
- 백학영·조성은(2012).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경로와 자활과정에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9).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경제적효과 분석 연구결과. 보도자료(2009년 6월 5일).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1장애인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병수(2007).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실현능력접근. 사회복지정책, 8, pp.199-232.
- 석상훈(2007). 빈곤의 지속·상태의 존성 검증. 사회보장연구, 23(3), pp.79-99.
- 석상훈(2009). 노인빈곤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보장학회. pp.159-179.
- 석상훈(2011). 자산과 빈곤 지속. 사회보장연구, 27(2), pp.163-186.

- 성준모(2010). 소득수준별 가구경제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2(1), pp.109-132.
- 성준모(2010). 소득수준별 가구경제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2(1), pp.109-132.
- 신선옥(2008).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응답자 태도에 면접원이 미치는 효과. *노동리뷰*, 1(37), pp.74-82.
- 안서연 외(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탈출 결정 요인: 근로능력자 집단별 분석. *사회복지정책*, 38(1), pp.199-226.
- 안진(2003). 저소득층 여성노인의 일상생활과 복지욕구: 목포상동지역 빈곤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연구*, 12, pp.85-110.
- 양점도 외(2004). 초등학생의 복지의식 유형에 관한 연구-Q방법론적 접근. *복지행정논집*, 14(2), pp.25-52.
- 엄명용 외(2012).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오정수(1997). 사회복지학 접근방법의 이중구조와 정합적 접근전망. *상황과 복지*, 2, pp.131-158.
- 오정수(2002). 한국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상황과 복지*, 13, pp.33-46.
- 유태균·이선정(2011).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탈수급전·후 의료서비스 이용 수준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7(1), pp.185-215.
- 윤명숙(200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정신건강실태와 재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pp.408-424.
- 윤상용·김태완(2009). 장애인 가구의 빈곤실태 및 장애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 *재활복지*, 13(1), pp.61-83.
- 윤석범(1994). *한국의 빈곤*. 서울: 세경사.
- 윤선영·류혜숙(2008). 유아의 빈부개념 인식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3), pp.265-282.

- 윤성호(2008). Q방법론을 활용한 빈곤-사회배제인식유형 분석. 사회과학연구, 24(2), pp.207-236.
- 윤태림(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상록·이순아(2010). 빈곤지위의 변화에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4), pp.277-311.
- 이상록·진재문(2003). 지역사회 탈빈곤정책의 효과 분석: 경남·전북지역 자활 후견기관운영의 성과 및 한계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52, pp.241-272.
- 이상문(2008). 비곤계층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3년간의 패널연구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3), pp.119-152.
- 이영문 외(1999). 한도시지역 저소득층 주민의 정신건강 수준. 신경정신의학, 38(6), pp.1234-1244.
- 이옥경 외 공역(2007). 생애발달. Berk. L. E(2007).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4thed.)*.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원진(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 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3), pp.5-29.
- 이은주(2008). 근로빈곤층의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근거이론분석. 사회복지정책, 34, pp.331-356.
- 이주하(2011). 빈곤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이해. 한국사회정책, 18(1), pp.11-42.
- 이진숙(2003). 도시빈곤층의 생활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대구시 쪽방생활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207-225.
- 이태진 외(2008).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수급자 및 전담공무원 대상 질적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외(2007).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수급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질적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2012).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태도: 근로가치와 근로동기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현주 외(2009).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심리사회적접근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형하·조원탁(2004). 한국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pp.217-244.
- 이희연(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사회적 배제경험에 관한 문화 기술지 연구. 사회보장연구, 25(1), pp.281-315.
- 임세희(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4), pp.377-402.
- 임재현(2011). 주거빈곤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1), pp.279-304.
- 정경희 외(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윤지은(2010). 한국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 및 경제적 가치. 보건복지포럼, 2010년 3월, pp.48-57.
- 정미경(201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정선영·정현숙(2011). 복지서비스이용이 저소득가구의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어려움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고찰. 사회복지연구, 42(1), pp.5-30.
- 정선욱(2011). 빈곤아동의 빈곤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pp.181-201.
- 정선욱(2012). 비빈곤층 초등학생의 빈곤 인식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21(3), pp.285-302.
- 정용주(2009). 초등학교에서의 사회적배제에 대한 미시정치적 분석. 부르디외의 자본과정개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정원오·이선정(2011). 빈곤계층의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2007년과 2008년의 변화 비교. *사회복지연구*, 42(1), pp.305-331.
- 정익중 외(2010). 연장 입양가족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9, pp.55-84
- 정진경(2004). 공공부조수급자의 복지의존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경욱(2002). 무의탁 독거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가을호*, pp.85-124.
- 조명희(200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생활실태 분석. *한국생활과 학회 동계학술발표 논문집*. pp.99-100.
- 조명희(200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 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 pp.181-182.
- 진선미 외(2011). 요보호가구원의 부양이 가구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2(1), pp.139-158.
- 최균·서병수(2006). 빈곤연구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Sen의 가능성접근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측면과 측정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 pp.333-362.
- 최균·서병수·권종희(2011).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다차원적 빈곤측정. *한국사회복지학*, 63(1), pp.85-111.
- 최종혁·김수완(2012). 빈곤층의 자립의지에 대한 연구. 2012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최현수 외(2011). 한국복지패널연계 질적패널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저소득층 양적 & 질적연계 패널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경준(2002). 한국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의 동향: 상황과복지, 13, pp.13-32.
- 홍경준(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pp.187-210.

- 홍경준(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pp.119-142.
- 홍현미라(2011). 사회복지 거시 실천에서의 질적평가 연구.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pp.292-318.
- 황덕순(2001). 경제위기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노동정책연구*, 가을호, pp.31-59.
- Adato. M., Carter. M. and May. J.(2006). Exploring Poverty Traps and Social Exclusion in South Africa us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2(2), pp.226-247.
- Alcock. P.(2004). The Influence of Dynamic Perspectives on Poverty Analysis and Anti-Poverty Policy in the UK. *Journal of Social Policy*, 33(3), pp.395-416.
- Barrett. C.(2004). *Mixing Qualitative and Qunatitative Methods of Analyzing Poverty Dynamics*. SAGA Working Paper. March 2004.
- Birch. M. and Miller. T.(2000). Inviting intimacy: the interview was therapeutic opport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3(3), pp.189-202.
- Boutain. D.M. and Hitti. J.(2006). Orienting multiple interviewers: the use of an interview orientation and standardized interview.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6(9), pp.1302-1309.
- Braun. V. and Clarke. V.(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pp.77-101.
- Braun. V. and Clarke. V.(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pp.77-101.
- Carvalho. S. and White. H.(1997). Combin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to Poverty Measurement and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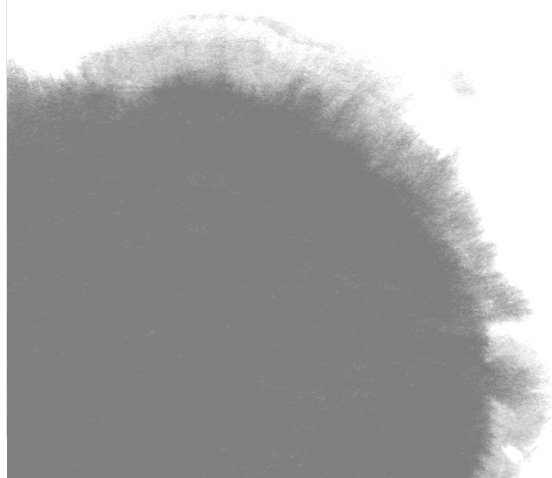
- The Practice and the Potential. Papers 366.* World Bank - Technical Papers.
- Corden. A. and Millar. J.(2007). Time and Change: A Review of the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Literature for Social Policy. *Social Policy & Society*, 6(4), pp.583-592.
- Dickinson. J.(1990). Adolescent representations of socio-economic statu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pp.351-371.
- Eaton. W. W. and G. Kessler(1999). *Socioeconomic stratification and mental disorder*. pp.259~283 in A. V. Horwitz and T. L. Sheid(eds.). *A Handbook for the Study of Mental Health*.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in. K. and Lein. L.(1997). *Making Ends Meet: How Single Mothers Survive Welfare and Low-Wage Work*.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Esping-Andersen. G.(1997). Hybrid or unique? The Japanese welfare state between Europe and Americ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7(3), pp.179-190.
- Farrall. S.(2006). What is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LSE Methodology Institute. *Papers in Social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Series. Paper 11.
- Goodman. R. and Peng. I.(1996). *The East-Asian welfare states: peripatetic learning, adaptive change, and nation building*. In Esping-Andersen. G.(ed.).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s in global economies*. pp.192-224. London. Sage.
- Hollingshead. A. B.. and F. C. Redich.(1958). *Social class and mental illness: A community study*. New York: Wiley.

- Jick. T.D.(1979). Mix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Triangulation in Ac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4). Qualitative Methodology. pp.602-611.
- Johnson. J. G., P. Cohen., B. P. Dohrenwend., B. G. Link., and J. S. Brook.(1999).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social causation and social selection process involved in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iatric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 pp.490-499.
- Jones. C.(1993). *The pacific chanllenge: Confucian welfare states*. In Jones. C.(ed.). New perspectives on the welfare state in Europe. pp.153-172. London & New York. Routledge.
- Lawson. D., Hulme. D. and Muwonge. J.(2008). Comb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to Further Our Understanding of Poverty Dynamics: S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ple Research Approaches*, 2(2), pp.191-204.
- Lawson. D., Mckay. A. and Okidi. J.(2006). Poverty Persistence and Transitions in Uganda: A Combin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2(7), pp.1225-1251.
- Leahy. R. L(1983). Development of the conception of economic inequality: II. explanations. justifications. and concepts of social mobility and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19(1), pp.111-125.
- Lipps. O. and Lutz. G.(2010). How answers on political attitudes are shaped by interviewers: evidence from a panel survey. *Swiss journal of sociology*, 36(2), pp.345-357.
- Lyn Richards(1999). *Data Alive! The Thinking Behind NVivo Qual Health Res*. pp.412-428

- Matteson. S. and Lincoln. Y.(2007). Using multiple interviewers in qualitative research studies: the influence of ethic of care behaviors in research interview settings. *Qualitative inquiry*, 15, pp.659-674.
- Millar. J.(2007). The Dynamics of Poverty and Employment: The Contribution of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to Understanding Transitions. Adaptations and Trajectories. *Social Policy & Society*, 6(4), pp.533-544.
- Molloy. D. and Woodfield. K. with Bacon. J.(2002). Longitudinal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es in Evaluation Studies.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Working Paper*, 7. London: HMSO.
- Muntaner. C., W. Eaton. and C. Diala(2000). Social Inequalities in mental health: A review of concepts and underlying assumptions. *Health*, 4(1), pp.89-113.
- OECD(2001).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Guidelines-Poverty Reduction*. Paris. OECD.
- Olson. K. and Peytchev. A.(2007). Effect of interviewer experience on interview pace and interviewer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71(2), pp.273-286.
- Padgett. D.(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Posavac. E. and Carey. R.(2003). *Program evaluation: methods and case studies*.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 Rosenbaltt. P.(2012). One interview versus several: modernist and postmodernist perspectives in qualitative family interviewing.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4, pp.96-104.

- Ruspini. E.(1999). Longitudinal Research and the Analysis of Social Change. *Quality & Quantity*, 33, pp.219-227.
- Salazar. M.(1990). Interviewer bias: how it affects survey research. *AAOHN Journal*, 38(12), pp.567-572.
- Saldana. J.(2003). *Longitudinal Qualitative Research: Analyzing Change through Time*.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 Seccombe. K.(1999). *So You Think I Drive a Cadillac?: Welfare Recipients' Perspectives on the System and its Reform*. Boston: Allyn & Bacon.
- Simon. J. S.(2004). *The Wilder Nonprofit Field Guide to Conducting Successful Focus Groups*. Saint Paul. MN: Amherst H. Wilder Foundation.
- Turner. R. J., B. Wheaton and D. A. Lloyd.(1995). The epidemiology of social st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pp.104-125.
- Wassink. H. L., Chapman. G.E. and Levy-Milne. R.(2004). Implementing the British Columbia Nutrition Survey: perspectives of interviewers and facilitators. *Canadian journal of dietetic practice and research*, 65(2), pp.59-64.
- Weiss. R.S.(1994). *Learning from strangers: the art and method of qualitative interview studies*. New York. New York: The Free Press.
- Wender. P. H., R. D. Kety., S. S. Schulsinger. and J. Welner.(1973). Social class and psychopathology in adopte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8, pp.318-325.

100





부록

[부록 1] 2011년 조사표	383
[부록 2] 2012년 조사표	420
[부록 3] 2011년 코드표	438
[부록 4] 2012년 코드표	442
[부록 5]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조사(2011년~2012년 요약본)	445
[부록 6] 요약본 샘플	459

[부록 1] 2011년 조사표

201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부터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양적자료와 연계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욕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와 조사 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01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조사'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가구실태 및 가구원에 대한 조사에 응하는 것을 동의는 바입니다.

가구주와의 관계: _____ 성명: _____ (서명)

< 문의 및 연락처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80-8273, 8334)

가구 ID			가구주 성명	
조사소요시간	총 _____ 분		방문횟수	총 _____ 회
1차방문	____ 월 ____ 일 ____ 시 ____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2차방문	____ 월 ____ 일 ____ 시 ____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3차방문	____ 월 ____ 일 ____ 시 ____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조사원 이름			조사원 연락처	

□ 응답 대상자 및 조사 영역별

○ 조사대상 우선선정 기준

- 30세~59세 가구주 또는 남성가구원을 우선적인 응답대상자로 선정하며, 가능한 가구원과의 관계가 다양한 자(부모, 배우자, 자녀 등)를 선정하여 조사함
 - 예를 들어 59세의 부모와 30세의 자녀가 있을 경우 59세의 부모를 주 대상으로 함
- 만약 여성이 응답을 하게 될 경우 '6.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에서 '여성'에 대한 질문을 가급적 도입질문 후나 가족문항 전에 질문함
- 근로, 빈곤은 응답자 개인의 경험 외, 타가구원의 경험도 함께 질문함
- 가족,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은 응답자 개인의 경험 위주 응답

○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

- 아동/청소년은 연구원에서 선별하는 기준대상을 우선으로 조사함
- 청소년(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 공통으로 질문함
- 노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함
- 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그러나 만약 본인이 응답하기가 어려울 경우(예,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 보호자의 대리응답도 가능함(단, 대리응답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입)

조사 영역	쪽수	응답자 성명	가구주 와의 관계	성별	연령
※ 도입질문	1				
1. 근로	1				
2. 빈곤, 탈수급 관련 역학적 특성	5				
3. 가족	11				
4.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 배우자와의 관계	12				
- 부모와의 관계	15				
- 자녀와의 관계	16				
- 전반적인 정신건강	19				
-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20				
5.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21				
6.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					
1) 여성	22				
2) 아동/청소년	25				
3) 청소년(중고등학생)	30				
4) 노인	31				
5) 장애인	33				

※ 도입질문

요즘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루 일과나 일주일의 생활패턴,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1. 근로

[A. 직장경험/구직과정]

☐ 귀하께서는 다니던 직장이나 하시던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까?

〈A-1 (if yes)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는 경우〉

- 1-1) 어떤 직장들을 다니셨습니까?
- 1-2) 그 중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은 왜 그만두셨습니까?
- 1-3) 일을 그만둔 실업기간 동안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1-3-1)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 1-4)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1-4-1) 그리고 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 1-4-2)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했습니까?
- 1-5) 현재는 일자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인 경우 계속 질문)
 - 1-5-1) 현재 하시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 1-5-1-1) 왜 그렇습니까?
 - 1-5-2) 만일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면,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보겠습니까?
 - 1-5-2-1)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 A-2 (if no) 현재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하여 일자리를 잃어본 경험이 없는 경우〉

- 2-1) 현재 하시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 2-1-1) 왜 그렇습니까?
- 2-2) 현재의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2-2-1) 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 2-2-2)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했습니까?
- 2-3) 만일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면,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보겠습니까?
 - 2-3-1)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 A-3 (if no) 한번도 직장생활이나 자영업 등을 안해 본 경우〉

- 3-1) 이전에 일자리를 구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3-1-1) 일자리를 갖기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3-2) 직장이나 일자리가 없어서 가장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입니까?
- 3-3) 현재 일자리를 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3-3-1) (if yes)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했습니까?
 - 3-3-2) (if no) 일자리를 구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도움이 주어지면 일자리를 구하겠습니까?



[B. 고용지원프로그램]

- 귀하께서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지원 프로그램 (예를 들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자활, 사회적 일자리, 직장체험연수, 실업자 직업훈련, 창업지원) 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B-1 (if yes)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 4-1)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까?
 4-2)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4-3)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4-3-1) 얼마나 오랫동안 참여하였습니까?
 4-3-2) 처음에 참여할 때 기대는 어떠했습니까?
 4-3-3) 그리고 그 기대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습니까?
 4-4) 그 프로그램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4-4-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4-5) 그 프로그램이 가장 고쳐야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5-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4-6) 그 프로그램이 귀하의 장기적인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4-6-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4-7) 그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4-8) 그 프로그램이 보다 잘 실행되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겠습니까?
 4-9) 주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4-9-1) (if yes)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4-9-2) 왜 이런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4-10) 그 프로그램을 주위의 젊은 분들에게도 권해주시겠습니까?
 4-10-1) 왜 그렇습니까?

B-2 (if no)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5-1)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if no, 근로 관련 인터뷰 종료)

5-2) (if yes) 귀하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습니까?

5-2-1) 왜 그렇습니까?

5-3)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십니까?

5-3-1) 왜 그렇습니까?

5-4) 만일 귀하께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면,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5-5) 이러한 프로그램을 귀하의 주위의 젊은 분들에게도 알리고 권해주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5-6) 귀하께서는 주위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if no, 근로 관련 인터뷰 종료)

5-6-1) (if yes) 그분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까?

5-6-2) 그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까?

5-6-3) 귀하께서는 그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5-6-4) 그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그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5-6-5) 그 프로그램이 보다 잘 실행되려면,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까?

5-6-6) 그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주위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5-6-6-1) (if yes) 어떤 차별이었습니까?

5-6-6-2) 왜 이런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 빈곤, 탈수급 관련 역학적 특성

[A. 빈곤의 경험: History, 원인, 생활에 미친 영향, 인식]

- 1) 귀하께서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어려웠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그때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기, 기간 등등)
- 2) 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3)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 4) 지금의 경제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 4-1) 점수로 표시한다면, 매우 가난한 것을 1점이라고 하고 매우 부자인 것을 10점이라고 하면 지금은 몇 점에 해당하십니까?
 - 4-2) 왜 그렇게 점수를 주셨습니까?



- 5) 앞으로 귀댁의 경제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5-1)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 5-2)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6)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어디에 돈을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 6-1)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B. 빈곤에 대한 대응: 주위의 반응, 개인의 노력, 국가의 도움]

- 7) 주위의 사람들이 귀하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반응(대처)하였습니까?
8) 귀하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9) 귀하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친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9-1) (if yes) 그렇다면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기, 내용 등)
9-2)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 10)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국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0-1) (if yes) 그렇다면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기, 내용 등)
10-2)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 11) 이 외에도 귀하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2) 이상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12-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C.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경험, 수급의 유용성, 탈수급]

13) 귀하께서는 수급권을 신청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13-1) (if yes)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2) 현재도 수급권자입니까?



〈C-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

14)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을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5) 만일 수급권을 신청하여 수급권자 지정을 받았다면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5-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6) 귀댁과 경제적 형편이 비슷한 이웃이 있는데, 귀댁과는 달리 수급권자로 인정받은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16-1) (if yes) 그 분들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16-2) 그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16-3) 그분들이 수급대상 가구에서 탈피하기 가장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16-4)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수급대상 가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㉔-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여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 (수급경험자 전체)》

- 17) 귀하께서 수급권을 신청과 관련하여 경험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유, 과정 등등)
- 18) 수급권자가 된 후 가장 크게 혜택을 본 것은 무엇입니까?
 - 18-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19) 만일 수급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을까요?
- 20) 귀댁과 경제적 형편이 비슷한 이웃이 있는데, 귀댁과는 달리 수급권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 20-1) (if yes) 그 분들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 20-2) 그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㉔-2a 수급 경험 있으며 현재도 수급권자인 경우

- 21) 할 수만 있다면 수급대상 가구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21-1) 왜 그렇습니까?
- 22) 지금 현재 수급대상 가구를 벗어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23)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더 해주면 수급대상 가구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 24) 귀하께서는 언제쯤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24-1) 구체적으로 몇 년 정도가 더 걸릴까요?
 24-2) 그때는 귀댁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25) 현재 받으시는 수급 혜택 중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5-1) 왜 그렇습니까?
 25-2) 만일 이 혜택만큼은 계속 유지시켜준다면 수급 대상 가구에서 벗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26) 일반적으로 수급권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수급대상 가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㉔-2b 수급 경험 있으나 현재는 탈수급인 경우

- 27) 수급대상 가구였다가 탈수급 하신게 된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27-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7-1) 탈수급이 본인이 원하던 결과였습니까?
- 28) (본인의 의지와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탈수급한 경우) 탈수급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납득이 되십니까?
 28-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29) (본인의 의지로 자립하고자 자발적으로 탈수급한 경우) 왜 탈수급하기를 원하십니까?
 30) 탈수급 이후 어떻게 자립하려고 노력하십니까?
 31) 탈수급을 한 다음 귀하, 그리고 다른 가구원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32) 수급권자에서 비수급자로 되고 나니 가장 아쉬운 혜택은 무엇입니까?
 32-1) 그 혜택이 없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32-2)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 33) 만약 계속 수급권을 유지하였다면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33-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34) 탈수급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34-1) 만일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㉔-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여 수급 경험이 없는 경우(선정이 안 된 경우)

- 35) 귀하께서 수급권을 신청과 관련하여 경험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유, 과정 등등)
- 36) 신청하였으나 수급자격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36-1) 그 이유에 대해 납득이 되십니까?
- 36-2)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37) 어떤 혜택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셨습니까?
- 37-1) 왜 그렇습니까?
- 38) 수급권을 갖지 못하게 된 이후, 귀하, 그리고 다른 가구원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39) 만일 그때 수급권자가 되었다면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39-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40) 탈락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 40-1) 만일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 41) 귀댁과 경제적 형편이 비슷한 이웃이 있는데, 귀댁과는 달리 수급권자로 인정받은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 41-1) (if yes) 그 분들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 41-2) 그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 41-3) 그 분들이 수급대상 가구에서 탈피하기 가장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41-4)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수급대상 가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Ⅳ. 빈곤에 대한 인식/비전/제도개선

- 42) 귀하께서는 빈곤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2) 우리 사회에서 빈곤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 42-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42-2) 그렇다면 나라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43) 5년 뒤에 귀하의 모습은 어떠한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43-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 가족

- 1) 귀하의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우리 가족은 000이다.”
- 1-1)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 2)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가족은 000이다.”
- 2-1)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4.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배우자와의 관계]

☐ 귀하 부부의 관계, 혹은 부부생활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결혼하신지, 부부로서 얼마나 되셨나요?

1-1) 부부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1-1-1) 부부관계의 질, 부부관계의 성숙, 부부관계의 만족이라는 부분은 시간에 따라 변화했다고 보십니까?

1-1-2)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부부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부부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1-2-1) 부부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노력도 변한다고 느껴지십니까?

1-2-2)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어떨 때 부부관계, 부부생활이 ‘만족스럽다 혹은 불만족스럽다’라고 느끼십니까?



2) 나의 부부생활 중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탐색 영역: 상호적 차원의 언어 소통, 성생활, 여가취미생활, 종교생활, 생활습관 및 태도, 교우관계, 친지와의 관계, 직업생활의 지지와 도움, 자녀양육, 부모부양, 식생활, 재산 증식 및 관리 등등)



3) 부부관계, 부부생활의 만족(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3-1) 무엇이 부부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인가요?

3-2)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혹은 개선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던 조건, 상황, 사건들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들(상처, 좌절, 배신 vs. 기쁨/감동/신뢰 와 관련된...)



4) 부부관계 부부생활의 만족 (질)을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4-1)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4-2)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부부관계, 부부생활의 만족을 위해 상대방(부인 혹은 남편)에게 현재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6) 어떨 때 부부사이에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발생하니까? 혹은 부부사이의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6-1) 그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니까?



7)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나름의 지혜를 갖고 계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8) 부부사이에 폭력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갈등에 대처한 적은 있으십니까?

8-1) 언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9) 부부관계에서의 폭력발생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가정폭력에 중점을 두어 보다 탐색적 질문들을 개발해야 할지 고민 필요함)



10) 가족생활에서 부부관계, 부부생활은 어떤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을까요?

10-1)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0-2) 전체 가족생활(자녀와의 관계/ 자녀간 관계/ 확대가족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11) 가족이라 하면 누구 누구까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1) 가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2) 정기적 가족 모임이나 만남을 통해 가족애를 유지하고 있는 친척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12-1) 그분들과 어떤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부모와의 관계】

13)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함께 살고 있다면 살면서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럽고, 어떤 점이 가장 불만족스러우십니까?(의사소통, 종교생활, 생활습관 등 기타 함께 살면서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 영역을 탐색)

13-1)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시기에 따라 변한 경험이 있습니까?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등 시기별 탐색).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3-2) 부모님은 본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14)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14-1) 따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2) 따로 살게 되면서 불편하거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과의 왕래(또는 전화)에 관한 경험(빈도, 유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5-1)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과 자주 왕래(또는 전화)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2) 부모님과 자주 왕래하지 않는 것이 본인과 부모님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15-3)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것이 본인에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본인이 따로 사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지)



16)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분과 더 친밀하거나 덜 친밀한(또는 갈등) 관계가 있습니까?

16-1) 더 친밀한 분, 덜 친밀한 분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기, 언제부터, 특정 사건 등등)

16-2) 부모님과 갈등의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6-3) 부모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7) 부모님과 세대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18) 부모님께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자녀와의 관계]

- 19) 현재 자녀를 몇 명 두셨습니까?
 19-1) 자녀(들)의 나이는?



- 20)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20-1) 함께 살고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스런 부분과 불만족스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탐색 영역: 상호적 차원의 언어 소통, 여가취미생활, 종교생활, 생활습관 및 태도, 독립과 자율, 학습과 자기발전, 교우관계, 연애와 결혼, 직업생활, 자녀양육, 부모부양, 양성평등, 재산 증식 및 관리 등등)
 20-2) 자녀와의 관계가 시기에 따라 변한다고 보십니까?(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등 시기별 탐색).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20-3) 자녀는 본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 21)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고 상호 그 관계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21-1) 이 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노력도 변화한다고 느껴지십니까?
 21-2) 어떻게 변화한다고 보십니까?



22)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자녀 중 누구 혹은 다?) 그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22-1) 따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2-2) 따로 살게 되면서 불편하거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자녀와의 왕래(또는 전화)에 관한 경험(빈도, 유형)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23-1)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자녀와 자주 왕래(또는 전화)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2) 자주 왕래하지 않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23-3)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이 어떠십니까?(본인이 따로 사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지)



24) 자녀와의 관계의 만족(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24-1) 무엇이 이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인가요?

24-2) 관계를 돈독하게 혹은 개선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던 조건, 상황, 사건들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들(상처, 좌절, 배신 vs. 기쁨/감동/신뢰 와 관련된...)



25) 부모-자녀관계의 만족 (질)을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5-1)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25-2)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6) 자녀와 관계의 만족을 위해 상대방(부모 혹은 자녀)에게 현재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27)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8)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 29) 어떤 때 자녀와 갈등이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 발생하니까?
- 29-1) 혹은 이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 29-2) 자녀와의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십니까?
- 30) 부모-자녀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나름의 지혜를 갖고 계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 31) 자녀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갈등에 대처한 적은 있으십니까?
- 31-1) 언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 32)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폭력발생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가정폭력에 중점을 두어 보다 탐색적 질문들을 개발해야 할지 고민 필요함)



- 33) 자녀들 중 더 친밀하거나 덜 친밀한(또는 갈등) 관계가 있습니까?
- 33-1) 더 친밀한 & 덜 친밀한 자녀가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계기, 언제부터, 특정 사건 등등)



- 34) 가족생활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어떤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을까요?
- 34-1)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34-2) 전체 가족생활(자녀와의 관계/ 자녀간 관계/ 확대가족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인 정신건강]

- 35) 지금 귀하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5-1) 가장 건강한 상태를 10, 가장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0으로 놓았을 때 현재 몇 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35-2) 귀하의 정신적 건강이 10점 만점보다 낮은 경우, 점수를 낮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35-3) 그래도 귀하의 정신적 건강을 이 정도의 점수로 주신 것은 어떠한 요인 때문입니까?
- 36) 귀하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37) 귀하나 가족구성원 중에,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 과도한 스트레스, 불안, 불면, 우울, 정신질환, 알코올, 자살시도 등)
- 37-1)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 37-2)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지장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 37-3)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 38) 귀하와 가족구성원이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보다 더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입니까?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 39) 귀하나 가족구성원 중에, 심리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스트레스, 불안, 불면, 알코올, 우울, 정신질환 등)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39-1) 어떠한 어려움에 대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까?
- 39-2)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습니까?
- 39-3)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였습니까?
- 39-4) 서비스 이용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 39-5) 서비스를 통해 어떠한 도움을 받았습니까?
- 39-6) 서비스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 39-7)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5. 생활실태 만족 및 인식

1) 지금 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1-1)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으로 놓았을 때 현재 몇 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지금의 행복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2-1) 귀하를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런 요인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1-1) 최근 복지정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체감하십니까? 이러한 복지 정책들이 귀하를 행복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2) (만약 영향을 미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3) (만약 영향이 없다고 응답할 경우) 어떤 것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2-2) 귀하를 불행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런 요인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 지금보다 더 행복한 상태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3-1)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4) (경제적 수준이라는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4-1)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6.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

1) 여성

- 1)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양성평등관점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차별 혹은 불이익, 불만족 현실이 있습니까?
- 1-1) 이 현실은 부부생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까?
- 1-2) 아래 영역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차별 혹은 불이익, 불만족 현실이 있습니까?
(탐색 영역: 의식주, 성생활, 언어생활, 여가취미생활, 종교생활, 생활습관 및 태도, 교우관계, 직업생활의 지지와 도움, 재산 증식 및 관리 등등)
- 1-3) 시댁식구와의 관계 그리고 친정식구와의 관계에서 양성평등관점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 혹은 불이익, 불만족 현실이 있습니까?
- 1-4) 자녀 양육 및 지원 영역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차별 혹은 불이익, 불만족 현실이 있습니까?
- 1-5)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위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6)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스럽거나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습니까? 왜?



- 2)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직업생활에서 (양성평등관점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차별 혹은 불이익, 불만족 현실이 있습니까? 어떤 영역에서 그런 현실을 가장 힘들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 3) 귀하는 직장에서 성희롱, 불평등 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 3-1) 어떤 경험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 3-2) 과거와 다른 새로운 변화를 느끼십니까?
- 4) 위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2와 3에 대한 응답)



5) 귀하는 저출산 현상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 및 서비스 등에 관해 알고 계십니까?

5-1) 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저출산 대응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2)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영역으로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셔요.
(탐색 영역: 가족 / 지역사회/ 국가/ 직장/ 문화 차원의 지원과 변화)



6) 자녀 돌봄의 경험은 어떠합니까?

6-1) 즐거움(보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2) 어려움(좌절)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3) 나 자신의 고유한 욕구를 해결하는 문제와 자녀 돌봄의 문제가 상호 갈등적으로 부딪히는 때가 있습니까? 어떤 때 그러한 갈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자녀돌봄으로 인해 자신이 희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6-4) 자녀 돌봄에서 의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6-5) 국가(사회) 차원에서 당신의 자녀돌봄을 위해 어떤 도움(혹은 변화)이 제공되길 원하십니까?



7) 자녀의 임신,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남녀(남아/여아) 구분하여 차별(혹은 차이)을 두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요.



8) 전체적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의 경험은 여성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9) 가족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9-1) 구체적으로 폭력의 역사와 사건에 대해 말씀해주시시오. 가장 심각했던 최근의 폭력 경험을 상세히 말씀해보셔요.

(폭력의 역사(언제 시작되고 현재는 어떤지/ 특성(얼마나 자주, 폭력의 수준 / 현재 상황/ 가해자 경찰 신고 및 입건 경험, 자살가출도주 혹은 쉼터 경험 있는지 등)

(어떤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 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피해자가 복수인지) 구분하여 질문)

9-2) 귀하의 폭력 상황을 해결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9-3) 그 폭력이 귀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주시시오.

9-3) 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어떤 도움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십니까?



2) 아동/청소년

면접 절차

- (아동) 이름, 학교를 묻고 인터뷰어 방문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혹은 학예회) 같은 것을 하는지, 가을 소풍(현장체험) 다녀왔는지 등을 질문하면서 자유롭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하면 좀 더 친근감을 느낍니다.
- (청소년) 이름, 학교를 묻고 인터뷰어 방문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중간고사는 어땠는지 등을 질문하면서 자유롭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 (아동/청소년 공통) “우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 (아동/청소년 공통) 녹음에 대해 설명(얘기한 내용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잘못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녹음을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을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 우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1)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부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추가 설명을 요구함)

1-1) 부자에 대해서 00(아동/청소년 이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2)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추가 설명을 요구함)

2-1)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00(아동/청소년 이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3)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3-1) 또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 가지 차이를 탐색한다. 이해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함)



4)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비슷한가요? 어떻게 비슷한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4-1) 또 무엇이 비슷한가요? (여러 가지 차이를 탐색한다. 이해되지 않을 경우 추가설명을 요구함)



5) 왜 어떤 사람들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가요? (여러 가지 이유를 탐색한다.)

5-1) 어떤 사람은 왜 부자인가요?

5-2) 어떤 사람은 왜 가난한가요?



6)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6-1)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여러 가지 방법을 탐색한다. 대답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경우, '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군요.' 그러면서 기다린다)

6-2) 그렇지 않다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여러 가지 이유를 탐색한다)



7)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탐색한다)



【주관적 빈곤 인식】

8) 우리 집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지,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8-1)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탐색한다.)

8-2) 점수로 표시한다면, 매우 가난한 것을 1점이라고 하고 매우 부자인 것을 10점이라고 하면 지금은 몇 점에 해당하는지?

8-2-1) 점수를 그렇게 매긴 이유는 무엇인지?(상세한 설명을 부탁하고 기다린다)



9) 앞으로 우리 집의 경제적 형편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9-1) 그렇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탐색한다)

9-2)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탐색한다)



10) 우리 집의 경제적 형편이 00(아동/청소년 이름)에게 미친 영향은?(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아동이 사용한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한다. 예를 들어 9)번 질문에서 "우리 집은 가난해요"라고 얘기한 경우, "집이 가난해서 어떤데?" "집이 가난해서 00은 어때?"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도 질문에 답을 잘 못할 경우 저학년과 비슷한 방식으로 질문함)



【미래의 꿈과 부모님의 기대】

11) 앞으로 어떤 사람(어른)이 되고 싶은지?**(직업과 관계 없이)**

11-1) 그 이유는 무엇인지?

11-2) 그런 사람(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11-3) 그런 사람(어른)이 되는 것이 쉬운지 어려운지? (쉽다면 혹은 어렵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12) 본받고 싶은 사람(어른)은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12-1)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어른)은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그 이유는?

13)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어른)이 되고 싶은지?**(직업과 관련됨)**

13-1) 그 이유는 무엇인지?

13-2) 그런 일을 하는 사람(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13-3) 그런 일을 하는 사람(어른)이 되는 것이 쉬운지 어려운지? (쉽다면 혹은 어렵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13-4)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어떤 직업이 나에게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 14)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은 00(아동/청소년 이름)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지?(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지?)
- 14-1)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기분이 드는지?
- 14-2)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 14-3)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 14-4)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15)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은 00(아동/청소년 이름)에게 어떤 사람(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지?(직업과 관계없이)
- 15-1) (이야기를 들은 경우)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 드는지?
- 15-2)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그 이유는?
- 16)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은 00(아동/청소년 이름)에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지?(직업과 관련됨)
- 16-1) (이야기를 들은 경우) 부모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 드는지?
- 16-2)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으로부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그 이유는?

3) 청소년(중·고등학생)

1) 요즘 일상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루 일과나 일주일 생활 일정 등



2) 요즘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귀하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장점, 자원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 귀하의 가족관계, 동성친구관계, 이성관계, 교사관계, 진로, 학업, 취미여가, 신체 건강, 정신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5) 귀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6) 귀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려움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4) 노인

【사회참여】

1) 귀하의 요즘 일상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루 일과나 일주일 생활 일정 등

1-1) 요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1-2)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최근에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2-1)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입니까?

2-2) 그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의미 있는 점(좋은 점),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입니까?



3) 여가시간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3-1)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입니까?

3-2) 그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의미 있는 점(좋은 점),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입니까?



4) 만약 여건이 주어진다면,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외에 더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4-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1) 그 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도움 혹은 지원이 필요합니까?



【정신건강】

- 5)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불안, 불면, 우울, 자살생각, 정신질환, 알코올 등)
- 5-1)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 5-2)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지장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 5-3)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노화의 의미】**

- 6) 귀하께서는 자신이 ‘노인이다’라고 느낄 때는 어떨 때 입니까?
- 6-1)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 6-1) 노인이 되면서 가족이나 친구관계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 7)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잘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7-1) 귀하께서 스스로 잘 늙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어떨 때 입니까?
- 7-2) 잘 늙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8)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호생(좋은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 9)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대우나 인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0) 노인을 위한 사회 정책 및 제도에 있어 보다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장애인

1) OO씨는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과거, 현재 모두 포함)

1-1) 그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1-2)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문제가 장애와 관련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2) OO씨의 장애가 OO씨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다고(미치고 있는지) 생각하십니까? 말씀해주세요. (교육, 직업, 사회생활, 관계, 결혼 등등 삶의 전 영역)



3) OO씨 주변에 의미 있는 사람들(예.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등)이 OO씨의 장애에 대해 어떠한 태도나 반응을 보여 왔습니까?

3-1) 이것이 OO씨의 감정이나 행동,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미치고 있는지)요?



4) OO씨는 주변에 장애인 친구나 동료와의 교류가 있습니까?

4-1) 교류가 있다면 그 계기는 무엇이고, 그 경험은 어떠합니까?

4-2) 교류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5) OO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 혜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장애연금, 의료비지원, 보조도구 지원, 활동보조인, 세금감면 등등)
- 5-1) 도움을 받아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본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부정적 경험 모두 탐색)
- 5-2)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 제도, 서비스에 있어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
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6) 본인에게 장애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부록 2] 2012년 조사표

2012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부터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양적자료와 연계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욕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와 조사 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4월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01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조사’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가구실태 및 가구원에 대한 조사에 응하는 것을 동의는 바입니다.

가구주와의 관계: _____ 성명: _____(서명)

추가응답자1 가구주와의 관계: _____ 성명: _____(서명)

추가응답자2 가구주와의 관계: _____ 성명: _____(서명)

〈 문의 및 연락처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80-8273, 8334)

가구 ID			가구주 성명	
조사소요시간	총 _____ 분		방문횟수	총 _____ 회
1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2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3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조사원 이름			조사원 연락처	

세션 1

요즘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루 일과나 일주일의 생활패턴,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1. 생활 만족

1) 지금 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요즘 생활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으로 놓았을 때 현재 몇 점 정도에 해당하십니까?)

(점수를 가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지금의 행복한/만족스러운 상태에 영향을 준 것들은 무엇입니까?)

(힘든 점들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귀하의 불행한/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영향을 준 것들은 무엇입니까?)

3)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 경제

1) 빈곤

1) 지금 귀하와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매우 부자인 상태를 10, 매우 가난한 상태를 1로 놓았을 때 현재 몇 점 정도에 해당하십니까?)

(왜 그렇게 점수를 주셨습니까?)

2)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받았습니까?)

3)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4)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주위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도움 받은 내용,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2)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신청하거나 수급한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을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청하였으나 수급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수급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을까요?)

(지금 현재 수급대상 가구를 벗어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빈곤한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곤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좋을까요?)

7) 앞으로 귀댁의 경제적 상황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5년 뒤에 귀하의 모습은 어떠한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5년 뒤 귀하의 모습을 위해서 국가가 어떠한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까?)

8)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왜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가요?)

9)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한 것, 혹은 부자가 계속 부자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근로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1)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 지금까지 경험하신 일자리들과 그 일자리를 얻게 된 과정, 그만두게 된 과정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현재 일자리를 얻을 때에 구직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실직한 이유나 실업기간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 현재,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다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지금 어떤 경로로 일자리를 구하고 계십니까?)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합니까?)

4)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션 2

4. 가족 관계

1) 귀하 가족 구성원간의 전반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생활에서 배우자 사이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을까요?)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과의 관계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결혼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혹은 개선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던 조건, 상황, 사건들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관련된 사건, 상황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처, 좌절, 배신, 기쁨, 감동, 신뢰 등과 관련해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나름의 지혜를 갖고 계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부사이에 폭력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갈등에 대처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어떤 이유에서 인지 말씀해주십시오.)

3)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함께 살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가 이후 시댁부모님/친정부모님과의 왕래는 어떠한 편입니까?)
(어린 시절을 회고해 볼 때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아버지, 어머니 따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아쉽거나 후회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과 갈등이 깊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부모님과 세대 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까? 어떤 때 그러한지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부모님께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귀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4) 귀하의 자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몇 명의 자녀를 두셨습니까? 자녀들의 나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스런 부분과 불만족스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자녀는 본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5) 가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족은 ○○○ 이다.)

(가족은 귀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5. 생활영역

1) 건강

1) 지금 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신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와 가족들은 신체적 건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3) 귀하나 가족구성원 중에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지장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도움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4) 귀하와 가족구성원들이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입니까?)

2) 정신 건강

5) 지금 귀하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건강한 상태를 10, 가장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0으로 놓았을 때 현재 몇 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정신적 건강이 10점 만점보다 낮은 경우, 점수를 낮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6) 귀하께서 살아오시면서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셨습니까?)

(어떠한 도움을 받았으며,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7) 귀하나 가족구성원 중에,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까?

(과도한 스트레스, 불안, 불면, 우울, 정신질환, 알코올, 자살 시도 등)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지장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8) 귀하나 가족구성원 중에, 심리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나 이유, 알게 된 경로, 이용한 서비스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비스를 통해 어떠한 변화와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9) 귀하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귀하와 가족이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보다 더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 주거

10)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그리고 주거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주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라십니까?)

(안정적 주거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및 사회적])

4) 교육

11) 지금 귀하와 귀하의 가족구성원들은 어떤 교육과 훈련들을 받고 있습니까?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훈련, 취미교육 등)

12) 지금 또는 앞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족구성원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까?

5) 문화

13) 지금 귀하와 귀하의 가족구성원들은 어느 정도로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14) 귀하와 가족구성원들이 원하는 문화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이러한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6.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

1) 여성

1) 양성평등관점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차별 혹은 불이익, 불만족 현실이 있습니까?

(의식주, 성생활, 언어생활, 여가취미생활, 종교생활, 생활습관 및 태도, 교우관계, 직업생활의 지지와 도움, 재산 증식 및 관리 등)

2) 가족관계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차별 혹은 불이익, 불만족 현실이 있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차별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스럽거나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습니까?)

(자녀 양육 및 지원 영역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차별 혹은 불이익, 불만족 현실이 있습니까?)

3)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직업생활에서 (양성평등관점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차별 혹은 불이익, 불만족 현실이 있습니까? 어떤 영역에서 그런 현실을 가장 힘들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4) 귀하는 직장에서 성희롱, 불평등 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은 과거에 경험하셨습니다か?

(어떤 경험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5) 자녀 돌봄의 경험은 어떠합니까?

(즐거움(보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려움(좌절)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귀하의 육구와 자녀 돌봄의 문제가 상호 갈등적으로 부딪히는 때가 있습니까? 어떤 때 그렇습니까?)

(자녀 돌봄에서 의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6) 자녀의 임신,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남아/여아 구분하여 차별을 두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7) 전체적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의 경험은 여성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8) 가족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장 심각했던 최근의 폭력 경험을 상세히 말씀해주십시오.)

(귀하의 폭력 상황을 해결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 폭력이 귀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주십시오.)

(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떤 도움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십니까?)

2) 아동/청소년

1)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부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부자에 대해서 00(아동/청소년 이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2)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00(아동/청소년 이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3)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4)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비슷한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5) 왜 어떤 사람들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가요?

6)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한 것, 혹은 부자가 계속 부자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7)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 우리 집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9) 앞으로 우리 집의 경제적 형편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10) 우리 집의 경제적 형편이 00(아동/청소년 이름)에게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와의 관계에 미친 영향, 내 생활 [친구 관계, 학교 생활 등]에 미친 영향, 내 진로 [미래 계획]에 미친 영향을 탐색)

11) 앞으로 어떤 사람(어른)이 되고 싶은지?(직업과 관계 없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은 00(아동/청소년 이름)에게 어떤 사람(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인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은 서로 같은지 혹은 다른지요?

3) 청소년(중·고등학생)

1) 요즘 일상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루 일과나 일주일 생활 일정 등

2) 요즘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귀하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장점, 자원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 귀하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이성관계, 선생님과 관계, 진로, 학업, 취미여가, 신체건강, 정신건강 중 한 가지에 관해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5) 귀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6) 귀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려움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 노인

1) 귀하의 요즘 일상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루 일과나 일주일 생활 일정 등

(요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2) 최근에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의미 있는 점/좋은 점,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입니까?)

3) 여가시간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4) 만약 여건이 주어진다면,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외에 더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 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도움 혹은 지원이 필요합니까?)

5) 귀하께서는 자신이 ‘노인이다’라고 느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6)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잘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잘 늙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호생(좋은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8)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대우나 인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노인을 위한 사회 정책 및 제도에 있어 보다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장애인

1) OO씨는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과거, 현재 모두 포함)

(그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2) OO씨의 장애가 OO씨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다고(미치고 있는지)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 직업, 사회생활, 관계, 결혼 등등 삶의 전 영역)

3) OO씨 주변에 의미 있는 사람들(예,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등)이 OO씨의 장애에 대해 어떠한 태도나 반응을 보여 왔습니까?

(이것이 OO씨의 감정이나 행동,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미치고 있는지요?])

4) OO씨는 주변에 장애인 친구나 동료와의 교류가 있습니까?

(교류가 있다면 그 계기는 무엇이고, 그 경험은 어떠합니까?)

(교류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OO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 혜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장애연금, 의료비지원, 보조도구 지원, 활동보조인, 세금감면 등)

(도움을 받아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본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부정적 경험 모두 탐색]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 제도, 서비스에 있어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본인에게 장애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정신장애 -고용 (정)	오장상행	오장상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장상행하는 데 어려움이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능력 및 진로	귀하가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자원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귀하의 가족관계, 동성친구관계, 이성관계, 교사관계, 진로, 학업, 취미여가, 신체건강, 정신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평소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 진로 건강	귀여는 부모로 어떻게 돌아가기를 바라십니까?	귀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려움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들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의 삶	오장상행	귀하의 오장상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과거의 어려움	현재 활동 여가활동	최근에 계획한 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여가시간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	사회참여	주거 외향 활동	민약 사건이 주어진다면,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외에 더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정신건강	정신적 어려움	오장상행에서 정서적 혹은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불안, 불행, 우울, 자살 생각, 정신질환, 절망 등)		
		노인이라 느낌에 나이들	귀하께서는 자신이 '노인이다'라고 느낄 때는 어떤 때 일까요?		
	노화의 의미	노화의 의미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젊'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 일까요?		
		노인 대응	귀하께서 노화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가요?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장애 경험	노인 인식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편견 어떠한가요? 생각하십니까?		
		노인 정책	노정을 위한 사회정책 제도에 있어 보다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리움	OO씨는 장애인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OO씨의 장애가 OO씨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마치고 있는지)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 영향	주거 비용	OO씨 주변에 의미 있는 사람들에, 가족, 친구, 의사, 동료 등이 OO씨의 장애에 대해 어떠한 태도나 반응을 보여 왔습니까?		
	주거 비용	교류	OO씨는 주변에 장애인 친구나 동료와의 교류가 있습니까?		
복지혜택	복지혜택		OO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들 위한 복지 혜택을 알아는 적이 있습니까? (장애연금, 의료비지원, 보조금 등) 주지 않, 불복종, 제로관련 없음)		
	장애의 의미		본 질문에 장애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분류2	분류3	분류4	분류5
가족간관계	가족관계중요도	가족생활에서 배우자, 사별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을까요?	
	부모자녀중요성	부모관계와 부모 자식과의 관계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와의관계	결혼기간	결혼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관계개선제기	부부관계는 만족하게 혹은 개선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던 조건, 상황, 사건들이 있었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수반된 사건, 상황들을 표 형에 주십시오(성서, 책, 예산, 기쁨, 갈등, 신뢰 등과 관련된)	
	결혼해결방법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나름의 지혜를 갖고 계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부부대처양식	부부사이에 폭력적 양식으로 상대방과의 갈등을 대치한 적은 있으니까?	
	문제해결의유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님과관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함께 살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님과의관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제관계	본가 이외 시누부모보/진장모보님과의 형제는 어떠한 편입니까?	
부모와의관계	어른시절관계	어른시절을 되고해 볼 때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편입니까(아내지(아내니 따로)	
	부모관계후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아쉽거나 후회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부모간의관계	부모갈등해결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무엇이고,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세대차이감정	부모님과 세대 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까? 어떤 때 그러하지 그 결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비타는 것	부모님께 비타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존재의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귀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의수신나이	현재 본 형의 자녀를 두셨습니까? 자녀들의 나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척여부요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인척으로 부모님과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녀와의관계	불통해결방법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자녀존재의의	자녀가 본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랑 될 기대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족소개	귀하의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	가족정의	우리 가족은 000 이다.	
	가족의의미	가족은 귀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신체적건강	지금 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신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체건강위한노	귀하와 가족들은 신체적 건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정신건강관료제	귀하나 가족구성원 중에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신체건강요소	귀하와 가족구성원들이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건강상태	지금 귀하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정신적여러	귀하께서 살아오시면서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정신건강	자기정신문제	귀하나 가족구성원 중에,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까?	
	상담치료경험	귀하나 가족구성원 중에, 심리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함으로써 치료 서비스를 이용 해 보셨던 적이 있으니까?	
	건강위한노력	귀하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현재건강상태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그리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현재교육	지금 귀하와 귀하의 가족구성원들은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현재건강상태	지금 또는 앞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족구성원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하니까?	
문화	현재문화생활	지금 귀하의 가족구성원들은 어느 정도로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는문화생활	귀하와 가족구성원들이 원하는 문화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부록 5]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조사 (2011년~2012년 요약본)

※ 참고: 전체 조사가구 (ID 1~125) 중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101, 108, 119, 122, 124임. 이들은 2012년 추가 가구 표본추출에 포함되었으나, 최초 접촉시 구두로 수락을 하였으나 조사원이 심층면접을 위해 예비 응답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조사가 성사되지 않았음. 결국 이 다섯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2년에는 대체가구가 없었으므로 표에서 제외됨.

가구 ID	2011년						2012년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1	2	남 여	60 17	가구주(장애) 자녀(청소년)	한부모가구(부녀) 가구주 장애	기초보장	-	-	-	-	-	-
2	1	남	68	가구주	노인 단독가구	없음	-	-	-	-	-	-
3	1	여	83	가구주	노인 단독가구	없음	-	-	-	-	-	-
4	2	여 남	68 70	배우자 가구주(청각4급)	노인 부부가구	저소득 노령연금	-	-	-	-	-	-
5	2	남 여	65 63	가구주 배우자	일반가구, 자녀사망 경험	없음	-	-	-	-	-	-
6	1	여	41	가구주	단독가구, 미혼	없음	-	-	-	-	-	-

가구 ID	2011년					2012년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7	1	여	55	가구주	모자가구	기초보장	1	여	56	가구주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8	1	여	69	가구주	노인 단독가구	없음	-					
9	1	여	70	가구주	노인 단독가구	기초보장	1	여	71	가구주	노인 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10	1	여	74	가구주	노인 단독가구	없음	-	-	-	-	-	-
11	1	여	72	가구주	노인 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 경험 있으나 지금은 끊긴 상태	-	-	-	-	-	-
12	2	여 여	38 7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아동)	일반가구	없음	2	여 여	39 8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	일반가구	없음
13	3	여 여 여	44 15 78	가구주 자녀(청소년) 가구주의 어머니(노인)	모자가구	없음	3	여 여 여	45 16 79	가구주 자녀(청소년) 가구주의 어머니(노인)	모자가구	없음
14	1	남	53	가구주	일반가구	없음	-	-	-	-	-	-
15	2	남 여	80 72	가구주(노인) 배우자(노인)	노인 부부가구	없음, 보훈처 수당	-	-	-	-	-	-
16	1	여	52	가구주의 배우자	일반가구	없음	-	-	-	-	-	-

가구 ID	2011년					2012년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17	2	여 남	61 71	배우자(살가구주) 가구주(노인)	일반가구	없음	-	-	-	-	-	-
18	1	여	76	가구주(노인)	노인 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	-	-	-	-	-
19	3	여 남 남	44 13 11	가구주 자녀(청소년) 자녀(아동)	모자가구	없음	-	-	-	-	-	-
20	3	여 여 남	41 12 7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아동) 자녀(아동)	일반가구	없음	-	-	-	-	-	-
21	3	여 여 남	52 19 13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둘째) 자녀(막내)	일반가구	없음	4	여 여 여 남	53 26 20 14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장녀) 다문화(중남) 자녀(둘째) 자녀(막내, 청소년)	일반가구	없음, 장애연금 수급중
22	1	여	79	가구주(노인)	노인 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	-	-	-	-	-
23	1	여	88	가구주(노인)	노인 단독가구	없음, 노령연금 수급	-	-	-	-	-	-
24	3	여 남 남	47 16 11	가구주(장애인) 자녀(청소년, 주의력 결핍장애) 자녀(아동)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장애인가구	3	여 남 남	48 17 12	가구주(장애2급) 자녀(주의력결핍 장애, 지적장애3급) 자녀(아동)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장애인가구
25	1	여	78	가구주(노인)	일반가구	없음	-	-	-	-	-	-
26	1	여	73	가구주(노인)	노인 단독가구	없음	-	-	-	-	-	-

가구 ID	2011년						2012년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27	1	여	37	가구주	모자가구	없음	-	-	-	-	-	-
28	3	여 남 여	44 16 10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청소년) 자녀(아동)	일반가구	없음	-	-	-	-	-	-
29	2	남 여	14 33	자녀(청소년) 가구주의 배우자	일반가구	기초보장 탈수급 가구	2	여 남	34 15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청소년)	일반가구	기초보장 탈수급 가구
30	2	남 여	54 60	가구주 배우자	일반가구	없음	-	-	-	-	-	-
31	2	여 남	66 63	배우자 (노인, 장애인) 가구주(장애인)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의료비, 장애인연금 수급	2	여 남	67 64	배우자 (노인, 장애인) 가구주(장애인)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의료비, 장애인연금 수급
32	2	여 여	49 10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아동)	일반가구	없음	2	여 여	50 11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아동)	일반가구	없음
33	2	남 여	81 70	가구주(노인) 배우자(노인)	노인 부부가구	없음	-	-	-	-	-	-
34	2	여 남	70 72	배우자(노인) 가구주(노인)	노인 부부가구	없음	-	-	-	-	-	-
35	2	여 남	73 76	배우자(노인) 가구주(노인)	노인 부부가구	없음	-	-	-	-	-	-

가구 ID	2011년					2012년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36	3	남 남 여	50 17 80	가구주 자녀(청소년) 가구주의 어머니(노인)	부자가구	없음	-	-	-	-	-	-
37	2	남 여	53 71	가구주, 가구주의 어머니(노인)	일반가구	의료급여 수급	-	-	-	-	-	-
38	2	남 여	87 82	가구주(노인) 배우자(노인)	노인 부부가구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수급, 6개월간 긴급생계 지원금 수급	-	-	-	-	-	-
39	1	여	57	가구주의 배우자	일반가구	없음	-	-	-	-	-	-
40	3	여 남 여	50 19 9	배우자(현가구주) 자녀(청소년) 자녀(아동)	일반가구	없음	-	-	-	-	-	-
41	2	여 여	72 19	가구주(노인) 손녀(청소년)	조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1	여	73	가구주(노인)	조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42	1	남	78	가구주(노인)	노인 부부가구	노령연금 수급	-	-	-	-	-	-
43	2	남 여	67 62	가구주(노인) 배우자	일반가구	없음	-	-	-	-	-	-
44	1	남	75	가구주(노인)	노인 부부가구	없음	-	-	-	-	-	-
45	1	여	66	가구주의 배우자(노인)	일반가구	없음	-	-	-	-	-	-

가구 ID	2011년					2012년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46	3	여 여 남	10 14 42	자녀(아동) 자녀(청소년) 가구주	일반가구	없음	-	-	-	-	-	-
47	1	여	71	가구주(노인)	조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	-	-	-	-	-
48	2	여 남	66 17	가구주의 배우자(노인) 손자(청소년)	조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	-	-	-	-	-
49	1	여	83	가구주(노인)	노인 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	-	-	-	-	-
50	3	남 여 남	53 13 19	가구주 자녀(아동) 자녀(청소년)	부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	-	-	-	-	-
51	2	남 여	73 70	가구주(노인) 배우자(노인)	노인 부부가구	없음	-	-	-	-	-	-
52	2	여 여	33 9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아동)	일반가구	없음	-	-	-	-	-	-
53	1	여	58	가구주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1	여	59	가구주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조산부 의료수급
54	2	여 남	75 76	배우자(노인) 가구주(노인)	노인 부부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	-	-	-	-	-
55	1	여	65	가구주(노인)	노인 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	-	-	-	-	-

가구 ID	2011년					2012년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56	1	여	73	가구주 (장애인 뇌병변2급)	단독 장애인가구	기초보장 2달전 탈수급	1	여	74	가구주 (장애인 뇌병변2급)	단독 장애인가구	뇌병변장애 2급으로 의료급여 수급
57	1	여	83	가구주(노인)	노인 단독가구	노인 기초노령 연금 수급	-	-	-	-	-	-
58	2	남 여	37 33	가구주 배우자	일반가구	없음	-	-	-	-	-	-
59	2	남 여	71 62	가구주(노인) 배우자	일반가구	없음	-	-	-	-	-	-
60	2	남 여	69 64	가구주(노인) 배우자(장애인)	일반가구	없음, 장애인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	2	남 여	70 65	가구주(노인) 배우자(노인 장애인)	노인 부부가구	없음, 장애인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
61	3	여 여 여	70 44 21	가구주의 아내(노인)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	일반가구	없음	-	-	-	-	-	-
62	1	여	75	가구주의 배우자 (노인 장애인)	노인 부부가구	기초보장, 국가유공자, 노령연금 수급	-	-	-	-	-	-
63	1	여	55	가구주의 배우자	일반가구	기초보장 탈수급 가구	-	-	-	-	-	-
64	2	남 여	73 63	가구주 (노인 장애인) 배우자	일반가구	없음, 노령연금 수급	-	-	-	-	-	-

가구 ID	2011년					2012년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65	2	남	72	가구주(노인)	노인 부부가구	없음	-	-	-	-	-	-
		여	71	배우자(여성)								
66	2	여	63	가구주(노인)	조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	-	-	-	-	-
		남	16	손자(청소년)								
67	1	남	51	가구주	부자가구	없음	-	-	-	-	-	-
68	2	여	51	배우자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장애인가구	-	-	-	-	-	-
		남	57	(정신장애인) 가구주								
69	1	여	74	가구주(노인)	노인 단독가구	없음	-	-	-	-	-	-
70	2	남	74	가구주	노인 부부가구	없음	2	남	75	가구주 (노인, 지체장애4급)	노인 부부가구	없음
		여	71	지체장애4급 배우자(노인)			여	72	배우자(노인)			
71	2	여	40	가구주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1	여	41	가구주	모자가구	조건부 수급가구
		여	14	자녀(청소년)	일반가구	없음	-	-	-	-	-	-
72	3	여	39	가구의 배우자			여	9	자녀(쌍둥이)	-	-	-
		남	9	자녀(쌍둥이)	남	9	자녀(쌍둥이)	-	-	-	-	-
73	1	여	57	가구주	단독가구(여성), 폭력경험 있음	없음	1	여	58	가구주	단독가구(여성), 폭력경험 있음	없음
74	1	여	73	가구주	노인 단독가구	없음	-	-	-	-	-	-

가구 ID	2011년					2012년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75	1	여	50	가구주의 자녀	일반가구	없음	-	-	-	-	-	-
76	2	여 여	36 11	가구주 자녀(아동)	모자가구	조간부 수급가구	2	여 여	36 12	가구주 자녀(아동)	모자가구	조간부 수급가구
77	1	여	46	가구주(장애)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장애인수당 수급	1	여	47	가구주(장애)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장애인수당 수급
78	1	남	81	가구주(노인)	일반가구	저소득, 노령연금 수급	3	남 남 여	82 12 14	가구주(노인) 손자(아동) 손녀(청소년)	일반가구	저소득
79	1	여	66	가구주(노인)	노인 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1	여	67	가구주(노인)	노인 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80	1	남	59	가구주	단독가구 (알코올중독 경험 있음)	없음, 국가유공자 연금 수급	-	-	-	-	-	-
81	2	남 여	38 38	가구주 배우자	일반가구, 신혼희망 개인회생 경험 있음	없음	-	-	-	-	-	-
82	2	남 여	76 76	가구주(노인) 배우자 (노인, 시력장애)	노인 부부가구	없음	-	-	-	-	-	-
83	1	여	65	가구주(노인)	일반가구	없음	-	-	-	-	-	-
84	1	여	77	가구주(노인)	노인 단독가구	없음	-	-	-	-	-	-

가구 ID	2011년					2012년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85	2	여	77	배우자(노인)	노인 부부가구	없음, 노령연금 수급	-	-	-	-	-	-
86	2	여	33	가구주의 배우자	일반가구, 세자녀	없음	-	-	-	-	-	-
87	2	여	79	가구주의 배우자(노인)	노인 부부가구	없음	2	남	81	가구주(노인, 청각장애 2급), 배우자(노인)	노인 부부가구	청각장애 2급으로 의료급여 수급
88	2	남	73	가구주(노인)	노인 부부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	-	-	-	-	-
89	2	여	65	배우자(노인)	노인 부부가구, 1남3녀 자녀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 가구주는 공공근로 경험있음	-	-	-	-	-	-
90	3	여	36	가구주의 배우자	일반가구	없음	-	-	-	-	-	-
91	2	남	68	가구주(노인)	일반가구	없음.	-	-	-	-	-	-
92	2	남	53	가구주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없음	2	남	54	가구주	일반가구	없음
93	1	여	50	배우자(장애인)	일반가구	장애수당 수급	-	여	51	배우자(장애인)	일반가구	없음
94	2	남	82	가구주(노인, 장애인)	노인 단독가구	없음	1	여	83	가구주(노인, 장애인)	노인 단독가구	없음
95	2	여	73	가구주(노인)	일반가구, 막내아들과 함께 살고 있음	기초보장 수급 탈수급가구	-	-	-	-	-	-

가구 ID	2011년					2012년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95	3	남 여 여	74 70 43	가구주(노인) 배우자(노인) 자녀(장애인)대양육	일반가구	없음	-	-	-	-	-	-
96	2	남 여	64 60	가구주 배우자	일반가구	없음	-	-	-	-	-	-
97	2	여 여	76 53	가구주(노인) 자녀(치매, 장애인)	일반가구	기초보장 탈수급됨	-	-	-	-	-	-
98	3	여 여 남	39 15 12	가구주 자녀(청소년) 자녀(아동)	모자가구	없음	3	여 여 남	40 13 16	가구주 자녀(아동) 자녀(청소년)	모자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99	1	여	70	가구주(노인)	노인 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의료급여 수급	1	여	71	가구주(노인)	노인 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의료급여 수급
100	1	여	75	가구주의 배우자(노인)	노인 부부가구	노령연금, 군인연금 수급	-	-	-	-	-	-
102	-	-	-	-	-	-	1 2 3 4 5	남 여 여 남 남	39 15 38 13 10	가구주 자녀(청소년) 배우자 자녀(아동) 자녀(아동)	일반가구	없음
103	-	-	-	-	-	-	1 2 3	여 여 남	41 15 14	가구주의 배우자 (신용불량자) 자녀(청소년) 자녀(청소년)	일반가구	저소득, 기초보장 수급경험 없음

가구 ID	2011년					2012년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104	-	-	-	-	-	-	1 2	여 여	53 15	가구주 자녀(청소년)	모자가구	조건부 수급, 자녀중 자녀 1명 있음
105	-	-	-	-	-	-	1	여	58	가구주	모자가구	23년 수급대상. 단, 5월에 수급판정됨
106	-	-	-	-	-	-	1	남	60	가구주 (시각장애1급)	장애인, 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107	-	-	-	-	-	-	1	여	60	가구주	모자가구	조건부 수급
109	-	-	-	-	-	-	1 2 3	여 남 남	49 11 14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아동) 자녀(아동)	일반가구	조건부 수급, 장애(남편, 조울증)
110	-	-	-	-	-	-	1	남	57	가구주(장애)	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111	-	-	-	-	-	-	1	남	57	가구주 (시각장애3급)	장애인, 단독가구	저소득
112	-	-	-	-	-	-	1 2 3	남 여 여	49 49 24	가구주 배우자 자녀(둘째딸)	일반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가구 ID	2011년						2012년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113	-	-	-	-	-	-	1 2 3	남 여 남	54 48 21	가구주 배우자 자녀	일반가구, 다문화가구	조전부 수급, 희망키움통장
114	-	-	-	-	-	-	1	여	61	가구주	모자가구	기초보장 탈수급 가구
115	-	-	-	-	-	-	1	여	54	가구주	모자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116	-	-	-	-	-	-	1	여	43	가구주	모자가구	기초보장 탈수급 가구
117	-	-	-	-	-	-	1	여	44	가구주	모자가구	차상위 가구, 의료급여 수급
118	-	-	-	-	-	-	1	남	57	가구주(장예)	단독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120	-	-	-	-	-	-	1 2	여 여	52 14	가구주 자녀(청소년)	모자가구	차상위 가구, 의료급여 수급
121	-	-	-	-	-	-	1	여	50	가구주의 배우자	일반가구	조전부 수급가구, 가정폭력

가구 ID	2011년						2012년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가구내 응답자 수	성별	연령	개인특성	가구특성	수급여부
123	-	-	-	-	-	-	1	여	48	가구주	모자가구	기초보장 탈락된 상태, 신용불량
							2	여	12	자녀(둘째)		
							3	여	15	자녀(첫째)		
125							1	남	49	가구주	일반가구, 장애	조간부 수급가구
	-	-	-	-	-	-	2	여	43	배우자		
							3	남	15	자녀(최소년, 청소년제3급)		

[부록 6] 요약본 샘플

가구ID	105		1차: 2012. 05. 03 (총 67분) 2차: 2012. 05. 25 (총 57분) 총 124분	
응답자1	여	58세	초등학교 중퇴	가구주/여성
모자가정			23년간 수급대상, 단 5월은 수급박탈됨	
58세 여성, 가구주, 장애인, 1989년부터 23년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임. 이들은 현재 30세이며 함께 거주하고 있음.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이후로 기도원, 교회에서 드러머로 사역하며 약간의 사례비를 받고 있음. 직업훈련 학교에서 몇 달간 전기기술을 배웠으나 타인의 권유로 그만두고 교회에서 드러머만 사역함. 다시 직업학교 알아보려고 함. 이들이 기술 자격증을 따고 직업을 가진 후 수급을 원하지 않음. 이들이 자활/직업훈련에 응하지 않아서 올해 5월 한시적으로 수급박탈됨. 한 달에 생계비 60만원(엄마30/아들30), 주거비 13만원, 장애인연금&장애수당 22만원 총 95만원을 받고 있음. 복지관에서 주5일 반찬서비스, 장애인 바우처 사업에서 가시간병서비스 주2회 서비스 받고 있음. 현재 연락하고 지내는 친척도 없고 왕래하는 지인도 전혀 없음. 오류동으로 이사는 4년전 교회가기 위해서 외출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동안 집밖에 외출한 적이 없음. 본인이 외출을 원하지 않음. 계단 없는 평지에 있는 집으로 이사하기를 원함. 시골 친척집에 놀러가서 지인소개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함. 남편도 청각장애, 지적장애자이며, 출산 37일만에 농사일을 돕지 못한다고 큰시아머니로부터 쫓겨나 시골에 사는 언니 집에서 자내다 아이가 3살되던 때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됨. 둘째 임신을 했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낙태를 함.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힘들었다고 함. 아이 6살 때 세들어 살던 집에 불을 내어 쫓겨났는데 했지만 큰언니 도움으로 그 집을 구입하게 되고, 길을 내는 이유로 집은 2000만원 넘게 보상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됨. 남편이 뇌종양으로 2007년에 죽고 그 집을 팔고 빚 갚고 서울로 이사옴. 시골에서 평지에 집이 있을 때는 외출이 용이했지만 서울로 이사하면서 계단이 많아서 외출이 어려워져서 몇 년간 집안에서만 지내고 있음. 여성으로서, 장애인이어서 힘든 점은 없다고 함. 본인의 장애는 홍역으로 인해 소아마비가 왔는데 원인은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죄 때문이라 생각함. 초등학교 5학년 당시 집에 불이 나서 이사하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집에서 엄마를 도와 집안일, 부업을 하면서 지냈음.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Yes24 http://www.yes24.com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2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패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준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준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제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자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합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4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42	취약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사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 이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옥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옥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옥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환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 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변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I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조식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립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현정)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가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립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요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중서
연구 2012-47-21	백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각국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6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공적 전달체계 개편 방안: 공적전달체계의 수직적편제와 수평적배열의 재구조화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6년 및 2011년 결과 보고서 -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II: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한국의복지실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인구집단별생활실태와복지육구의동태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정립 방향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